연구
구교파 분열에 관한
성 디미트리 로스토프스키 (투프탈로)

목차:

현명한 독자에게 ... 3
서문 ... 4
겸손한 주교 디미트리, 하느님의 자비로 로스토프 및 야로슬라블 대주교 ... 4
제1부. 분열주의적 신앙에 대하여 ... 6
제1편.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 6
제1장. 믿음이란 무엇인가? ... 6
제2장. 믿음이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다 ... 7
제3장.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믿음이 아니다 ... 8
제4장.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는 사물에 대한 이단적 신앙 ... 9
제5장. 성상(聖像)에 관한 정통 신앙의 정당성 ... 10
제6장. 거룩한 십자가에 대하여 ... 13
제7장. 프로스포라에 대하여 ... 14
제8장. 옛 책과 새 책에 대하여 ... 14
제9장. 성부들은 책에 의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 15
제10장. 새로운 서적들이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았다 ... 16
제11장. 고대의 교회 관습에 대하여 ... 16
제12장. 새로 도입된 것들에 대하여 ... 17
제13장. 복음서 저자들 간의 의견 불일치에 대하여 ... 18
제14장.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 19
제15장.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 21
제2조. 그들의 신앙이 옛 신앙인가? ... 23
제16장. 옛 믿음은 무엇에 담겨 있는가? ... 23
제17장.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에 대하여 ... 24
제18장.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아바쿠모프의 신앙 ... 26
제19장. 그리스도의 지옥 강림에 대하여 ... 28
제20장. 브린스키 은둔자들의 이름에 대하여 ... 29
제21장. 교회의 전승에 대하여 ... 31
제22장. 거룩한 복음서에 대한 경배 ... 32
제23장. 성직 서품을 받지 않았으나 성직자처럼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 33
제24장. 아바쿠모의 복음서에 대하여 ... 34
제25장. 디아코노 페드카에 대하여 ... 34
제26장. 아바쿠모프의 아타만직에 대하여 ... 34
제27장. 아바쿠모프의 환상에 대하여 ... 34
제28장. 아케팔리트들에 대하여 ... 35
제29장. 관습에 얽매인 분파적 신앙 ... 36

제30장. 정통 신앙의 정당성 ... 36
제2부. 이단적 교리에 대하여 ... 37
제1편 ... 37
제1장. 가르침은 거짓이 없는 스승에게서 나와야 한다 ... 37
제2장. 가르침은 능숙한 스승에게서 나와야 한다 ... 38
제3장. 가르침은 흠 없는 삶을 사는 스승에게서 나와야 한다 ... 40
제4장. 참된 가르침은 공개적으로 전파되어야 하며, 은밀하게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 ... 41
제5장. 적그리스도에 관한 분열을 조장하는 거짓말 ... 41
제6장. 거룩한 제사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해석 ... 47
제7장. 어떤 자들에 대하여 ... 49
제8장. 복음과 파문 ... 50
제9장. 사람의 손으로 세운 교회에 대하여 ... 51
제10장. 감옥에 대하여 ... 59
제11장. 예배에 대하여 ... 62
제12장. 성상에 관하여 ... 67
제13장. 성 그레고리우스 오미리트스키와 유대인 에르반 사이의 성상 논쟁 ... 75
제14장. 신성 스테파노스와 코프로니모스의 논쟁 ... 77
제15장. 성인의 유해에 대하여 ... 79
제16장. 최후의 때에 대하여 ... 87
제17장. 지상의 믿음에 대하여 ... 105
제18장.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에 대하여 ... 107
제19장. 수염에 대하여 ... 109
제20장. 콧수염에 대하여 ... 127
제21장. 복음서의 역사와 비유에 대하여 ... 128
제22장. 은밀한 자선에 대하여 ... 140
제2편 ... 141
제23장. 브리냐네의 이단적 가르침에 대하여 ... 141
제3조 ... 142
제24장. 네 갈래 십자가에 대한 분파주의자들의 모독과 십자가에 대한 수색 ... 142
제25장. 십자가의 표징에 대하여 ... 171
제26장. 떨림의 배열에 대한 분파주의자들의 모독 ... 178
제27장. 신성한 성사에 대한 그들의 모독 ... 180
제28장. 사제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 182
제29장. 사제의 생활에 대하여 ... 187
제30장. 제물로 바쳐지고 도살되는 거룩한 어린 양에 대하여 ... 189
제31장. 신성한 신비에 대한 분파주의자들의 또 다른 모독 ... 192
제32장. 주교직에 대한 그들의 모독 ... 193
제33장.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두 가지 가장 심각한 분파주의적 모독에 대한 반박 ... 194
제3부. 분열주의자들의 행위에 관하여 ... 195
1. 분열주의적 행위의 심각성에 대하여 ... 195
제1조 ... 196
제2장.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지 알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 196
제3장. 위선적인 행위에 대하여 ... 199
제4장. 선하지만 열매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 이는 자만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 ... 201
제5장. 선하지만 열매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 정통 교회 밖에 있기 때문 ... 203
제6장. 위선적인 교사들의 품성에 대하여 ... 204
제7장. 덕스러운 삶이 잘못된 믿음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 205
제2편 ... 206
제8장.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행실과 교사들에 대하여 ... 207
제9장. 카피톤, 아바쿰 및 그 외 인물들에 대하여 ... 208
제10장. 건포도를 성찬으로 나누어 주는 소녀 ... 208

제11장. 불타는 자들을 보고 악마들이 기뻐한다 209
제12장. 주술로 갈라진 갓난아기의 심장에 대하여 209
제13장. 불에 타 죽은 자들이 땅속에서 울부짖는다: "아, 우리는 망했다!" 211
제14장. 마법과 불의 구덩이에 던져진 신부에 대하여 213
제15장. 유대인과 이단자들의 마법에 대하여 213
제16장. 모렐리치크들에 대하여 215
제17장.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기는 것에 대하여 216
제18장. 브린의 은둔자들에 대하여 217
제19장. 분파주의자들이 선한 일이라고 여기는 일들의 목록 220
제20장. 분파적 행위에 대한 고찰 221
제21장.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선한 행위는 악한 것이다 226
제22장. 분열주의적 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 그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님 227
제23장. 이 소책자의 마무리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주는 권면 230

브린파의 분파적 신앙에 대한 조사: 그들의 교리, 행실 및 해명, 즉 그들의 신앙은 그릇되었고, 교리는 영혼에 해로우며,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힘

주의 깊게 들어라: 우리는 어디서 분파주의 교사들을 알아볼 수 있는가?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찬양하는 말에서,
그들의 거짓되고 모독적인 가르침에서, 그리고
그들의 위선적인 생활에서 알 수 있다.

현명한 독자에게

이 나의 보잘것없는 저작을, 만일 분별력 있고 신실한 독자 중 누군가에게 영광스럽게도 읽게 된다면, 부디 이곳의 평이한 말투와 서툰 문체에 놀라지 말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는 지혜롭고 신성한 성경에 정통한 이들을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힘을 알지 못하는 가장 단순한 사람들을 위해 쓰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대화조차 간신히 이해될 뿐입니다. 고대의 성자들과 스승들 또한 그러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담화를 평이한 말로 펼쳤으니, 마치 성 요한 황금입처럼,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말을 지극히 지혜롭게 지어내곤 했으나, 한 여인의 권유를 받고는 지극히 지혜로운 수사법을 접고 평이한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군중 가운데 있던 한 여인이 소리쳐 말하기를, "영적인 스승이시여, 아니, 요한 황금입이시여! 당신은 그 성스러운 가르침의 심연을 깊이 파셨으나, 우리 마음의 본질은 짧아서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백성들에게 교묘하게 엮인 말을 전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후로는 교묘한 수사학적 표현이 아닌, 단순하면서도 교훈적인 말들로 자신의 설교를 꾸미려 애썼으니, 이는 가장 단순한 청중이라도 이해하고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성고행자 알렉산드로스 코만스 주교[1] 도 (그의 행적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백성에게 전하는 가르침에서 말의 아름다움을 염려하지 않고, 영혼의 유익을 위해 애썼으며, 그의 설교에는 단순한 표현이 많았는데, 이는 서민을 위해 말해진 것이었으나 영혼에 지극히 유익한 것이었다. 어느 날, 한 아티카 출신의 젊은 철학자로부터 그의 소박한 말투를 비웃음을 당했을 때, 그 철학자에게 다음과 같은 환상이 나타났다: 그는 시편의 말씀대로, 매우 웅장하고 신비로운 광채로 빛나는 하얀 비둘기 떼를 보는 듯했다. "비둘기의 날개는 은빛이고, 가슴은 황금빛으로 빛나네"[2] . 그러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자

[1] 아우구스타 32, 661쪽 뒷면.

에게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 "이것이 바로 네가 조롱했던 알렉산더 주교의 말씀이다!" 철학자는 그 환상을 보고 벌떡 일어나,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도 학식 있는 자들, 곧 유대인의 현명한 교사들에게 말씀하실 때, 신성한 말씀을 전하시며 지극한 지혜로 충만하셨고, 선지자들의 책에서 증거를 인용하셨다: 그러나 평민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는, 천국에 관한 설교를 단순한 비유로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마치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과,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그리고 상인과 같으며, 또 겨자씨 한 알과 누룩과도 같으니, 아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세 사아에 숨겨 두었더니, 온 것이 부풀어 올랐느니라[3] . 나처럼 겸손한 자, 곧 단순한 백성들을 양 떼로 맡겨진 자로서, 분열주의의 그릇된 길로 치우치는 자들에게 단순한 말로 권면을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자로 보내셨으니(사도와 함께 말하건대),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4] .

서문

분열주의적 고집에 대항하여, 과거 모스크바의 성스러운 총대주교들이 성스러운 공의회와 함께 저술한 두 권의 훌륭한 책이 충분히 답하고 있는데, 그 책들의 제목은『통치의 지팡이』와『영적 훈계』이다. 성스러운 교회를 반대하는 미친 자들의 이성적 반박에 대해 더 나은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들이 우리 로스토프 교구에서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으며, 찾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혐오스러운 분열주의자들의 손이 그 책들을 말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제 직분에 따라 이 간결한 소책자『 』를 저술하였습니다. 양 떼 위에 늑대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목자가 잠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주교 디미트리, 하나님의 자비로 로스토프와 야로슬라프의 대주교

지극히 존경받는 대수도원장님들과 수도원장님들, 그리고 모든 수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양떼가 있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계신 존경받는 사제들과, 집사들, 그리고 성당 직원들에게,

또한 로스토프 교구 전역의 모든 정통 기독교 신자들, 모든 계급과 연령을 막론하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영적 자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과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 * *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겸손함으로는 여러분께 단지 입으로만 말씀을 전하는 데 그칠 수 없으니, 글로도 유익한 말씀을 전해야 마땅합니다. 입으로 하는 말은 가까이서만 들리지만, 글로 기록된 말씀은 온 우주 끝까지 퍼져 나갑니다. 입으로 말한 말씀은 곧 인간의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기록된 말씀은 잊히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으로 말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바를, 기록하여 교구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자신은 어떤 이유들로 인해 우리 양떼를 돌보며,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만나 말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의 편지가 나를 대신하여 우리 교구의 도시와 마을을 순회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권면하여, 분열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어머니인 거룩한 공의회 사도 교회를 굳게 붙들고 정통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하십시오.

---

[2] 시편 67:14.

[3] 마태복음 13장.

[4] 고린도전서 1:17.

먼저, 여러분을 향한 나의 슬픔과 그리움을 전하노니, 브린(Bryn)의 참나무 숲과 황야에서 나온 사나운 늑대들이[5]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거짓된 말과 은밀한 속삭임으로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양들을 구원이 아닌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양 떼를 괴롭히며, 비정통적인 가르침을 퍼뜨리고, 무지한 영혼들을 미혹하여, 이단으로 삼켜 버리고, 끝없는 지옥의 뱃속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타락한 자들이 일어나, (평범한 백성이라 부르는) 제자들을 자신들을 따르도록 유인하고 있다[6]. 이에 대해 나는 다윗이 그러한 자들을 애통하며 "주의 율법을 저버리는 죄인들로 말미암아 슬픔이 나를 사로잡았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적지 않은 슬픔과 애통함을 느낍니다[7].

이를 선포하며,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8]을 경계하십시오. 즉,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십시오. 옛날에는 교사들을 선지자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도서에서 크레타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 중 어떤 이가 자신들을 선지자라고 칭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타인들은 언제나 거짓말쟁이다[9]. 그들의 그 예언자는 (금구(Zlatoust)의 말에 따르면) 크리타인 에피메니데스였는데, 그는 시인이자 철학자, 우상 숭배의 제사장, 그리고 크리타인들에게 헬레니즘 법을 가르치는 교사였다. 그러므로 주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고 권면하실 때, 그것은 마치 악마의 소굴에서 나오는 브리네키 분파의 은둔자들 같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을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으로는 늑대, 즉 약탈자인 자들을 조심하라[10].

그러나 너희는 말하리라: '누가 늑대인지, 누가 선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무도 그 열매로 알려지듯이.'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나니,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말하노니, 거짓 교사들, 곧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은 그들의 열매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11], 이는 사도 의 말씀과 같으니: 가을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두 번 죽은 나무[12], 열매와 잎사귀를 잃어버린 나무,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버린 나무, 교회에서 뿌리 뽑힌 나무,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오직 소돔의 사과와 같은 악한 열매만을 맺는 나무이다.

성 금입(Zlatooust)은 옛날 소돔이 있던 그 땅에 나무들이 자라며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였다[13].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열매는 기억이다. 가시나무(사과나무)들은 밝은(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서서, 알지 못하는 자에게 많은 맛의 희망을 선사한다. 그러나 그것을 손에 들어 쪼개 보면, 열매는 전혀 없고, 내부에 담긴 흙과 재가 많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교사들의 나무이며, 그들의 열매도 이와 같다. 겉으로는 매혹적인 가르침으로 아름답고 영혼에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성을 통해 그들의 가르침을 쪼개어 살펴보면, 소돔의 사과와 마찬가지로 흙과 거짓, 그리고 영혼을 해치는 악취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여기 브린스 정원의 나무들, 즉 분열주의 교사들이 맺은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열매를 제시하겠노라:

---

[5] 사도행전 20:29.

[6] 사도행전 20:30.

[7] 시 118:83.

[8] 마태복음 7:15.

[9] 디도서 1:12.

[10] 마태복음 7:15.

[11] 마태복음 7:10 등.

[12] 유다서 12절.

[13] 성 자라트,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주석, 8절, 2265항.

그들의 신앙,
그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행실,
진정한 조사로 파헤치고, 시험을 통해 검증하며, 건전한 추론과 고찰을 통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또한 정통 신앙의 정당성에 대해 제1부에서 간략히 제시할 것이다.

제1부. 분파적 신앙에 대하여

먼저 분파주의 정원의 첫 번째 열매로서, 그들의 신앙을 살펴보겠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짓된 말로 치장하며, 무지한 서민들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이 올바르고, 오래된 것이며, 오직 브린의 은둔처에 있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도시의 교회와 주교들, 사제들에게는 올바른 신앙이 없으며, 신앙을 변질시키고 왜곡하여 새로운 신앙이 등장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I.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II. 그들의 신앙이 옛 신앙인가?

제1장.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브린 신앙에 대한 첫 번째 탐구를 시작하며: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제*1*장. 신앙이란 무엇인가?

브린에서 몰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분파의 교사들이, 여러분이 은신처에서 숨겨주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질문에 답하게 하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모두가 이렇게 말할 것임을 압니다. "믿음이란, 삼위일체 안에서 찬양받는 유일한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것"이라고, 신조(信條)에 기록된 대로 "나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나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훌륭합니다. "마음으로 진리를 믿으면(사도의 말씀에 따라)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다"[14] 고 하셨으니, 그러나 내가 묻는 것은 누구를,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세례를 통해 빛을 받은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안의 유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단어(이름)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이라 불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대답하지 못하실 것이며, 알지도 못하십니다. 믿음을 가르치면서도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시니, '믿음'이라는 말 자체를 해석할 줄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 바울 사도의 『히브리서』 제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배우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15] . 성 요한 다마스쿠스는 이 사도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본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16] . 그리고

[14] 로마서 10

[15] 히브리서 11:1.

성 금입(크리소스토모스)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알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이끌어 주는 증거이다"[17] .

브리냐네여, 이 말씀들의 힘을 이해하십니까? 믿음이 곧 계시라는 것, 혹은 (다마스쿠스의 말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위격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합니까? 만약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신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간결하지만 명확한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믿음은 '믿음'이라 불리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제2장. 믿음이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다

믿음이란, 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네 마음과 네 이성이 의심 없이 그 자체로 확고히 확신하는 것, 즉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은 아무도 본 적이 없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기 때문"[18] 라고 신학자 요한이 말하듯이,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는 단일한 신성 안에 계신 삼위일체의 인격을 보지 못하며, 삼위일체가 어떻게 하나 안에 있고 하나가 삼위일체 안에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으나, 삼위일체 안에 단일한 하나님이 계심을 의심 없이 믿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탄생에 대해, 처녀의 태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과, 어떻게 썩지 않고 태어나셨는지, 탄생 전에도, 탄생 시에도, 탄생 후에도 지극히 순결하신 어머니를 처녀로 보존하셨는지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우리 이성으로 깨달을 수도 없으나, 그러한 사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존재한다고 믿으니,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하나이고 분리될 수 없는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라는 두 본성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이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를 보지 못하나,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육신을 입고 신성한 보좌에 앉아 접근할 수 없는 영광 속에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통치하시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그대로 믿으니,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는 없으나, 그분이 그러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세례와 그 밖의 교회 성사들 속에서 내려오시는 성령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성령께서 내려오시며 모든 성사를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사 안에서, 보이는 빵의 형상 아래 그리스도의 참된 인체를 볼 수 없고, 보이는 포도주의 형상 아래 그분의 참된 인혈을 볼 수 없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빵의 모양과 맛으로 감추어져 있음을 믿으며; 또한 포도주의 모양과 맛으로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피가 참된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도 덧붙이자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하늘에서 그분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분과 함께 통치하시며, 우리 죄 많은 종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여주인이신 성모 마리아를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

[16] 『서신집』 4, 11장, 믿음에 관하여.

[17] 히브리서 주석 *21,* 2978쪽, 11장.

[18] 요한복음 1:18.

우리는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시는 하느님의 거룩한 성인들이 보이지 않으나, 그들이 그곳에 서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수호천사가 계신 것을 보지 못하지만, 세례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수호천사가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니,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천상의 영광의 면류관을 보지 못하며,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의 혹독하고 영원한 고통을 보지도 못하지만, 선한 자에게는 선한 보상이, 악한 자에게는 악한 보상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주어질 것임을 믿으니,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무덤에서 부활하는 죽은 자들을 보지 못하지만,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19] .

제3장.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믿음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 눈이 보고 우리 손이 만지는 모든 것은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실체일 뿐이며, 사도도 말하듯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누구든지 보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0] .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실체이므로,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마치 거울을 통해 어렴풋이 보는 것처럼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랑이 가장 큽니다[21] .

잘 들어라. 사랑은 믿음과 소망보다 더 크다. 왜 더 큰가? 사랑은(그 사도의 말씀대로)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22] .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사랑은 결코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믿음은 소망과 함께 언젠가 사라질까요? 온갖 방식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지 못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하늘에 예비된 복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동안, 그 복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니; 그때까지 오직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이 머무르니, 그 때가 올 때까지이다. 우리는 장차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을 믿으며, 그분을 뵙게 될 때까지 믿는다. 우리는 하늘의 복된 것을 받게 될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받게 될 때까지 소망한다. 때가 올 때까지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눈으로 믿는 분을 뵙고, 소망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지속되나니, 그러나 사랑은 영원토록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때(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에게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때 믿음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가 믿어 온 그분을 얼굴을 맞대고 뵙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망도 사라질 것이니, 우리가 소망하던 것을 이미 손에 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분의 성도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십니까? 내 생각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지 말고,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가 이렇게 말한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과 소망은,

---

[19] 히브리서 11:1.

[20] 로마서 8:24.

[21] 고린도전서 13:12 및 13.

[22] 같은 곳 8절.

믿고 소망하던 선한 것이 이미 임했을 때 사라집니다."[23] . 바울은 이를 밝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누구든지 보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4] ." 또 다시 말했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근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드러남으로써 사라질 것이나, 사랑은 그때 더욱 강해지고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황금입 성인의 말씀이다. 이로부터 성 황금입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 미래의 삶, 즉 천국에서의 삶에서 믿음과 소망은 사라질 것이며, 오직 사랑만이 영원히 변함없이 남을 것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은 왜 사라지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믿는 바를 그곳에서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며, 지금 소망하는 바를 그곳에서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사도의 서신과 황금입의 해설을 통해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25] . 그러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이며 만질 수 있는 물질일 뿐입니다. 보이는 물질과 만질 수 있는 물질을 믿는 자는 참된 기독교적 믿음을 갖지 못하며, 신자들과 함께할 자격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는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실체를 믿었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삼았으며,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실체를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했기 때문이다.

이제 첫 번째 논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4장.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실체에 대한 분파적 신앙

이단적인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브린스키의 교사들은 유일신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 속에서 신성을 찾으며,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에 자신들의 신앙을 두었다.

오래된 성화상,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다.

여덟 갈래 십자가,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다.

전례에서 사용하는 일곱 개의 프로스포르,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다.

오래된 성경,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다.

그들의 방식대로 손가락을 모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다.

어리석고, 눈이 멀고, 길을 잃은 자들아, 너희의 마음이 그을음처럼 어두워진 자들아! 과연 성화가 하나님인가? 과연 십자가 뿔의 수가 하나님인가? 과연 성병의 수가 하나님인가? 과연 낡은 책이 하나님인가? 과연 너희 손가락의 모양이 하나님인가?

성화는 거룩하고 존경받지만, 신은 아니다. 십자가는 거룩하고 존경받지만, 신은 아니다. 십자가의 인장으로 표시된 성병은 거룩하지만, 신은 아니다. 성경은 거룩하고 존경받지만, 신은 아니다. 십자가를 형상화하는 손가락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얽혀 있더라도, 신은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일 뿐, 신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이 아니니, 믿음도 아니다.

혹시 신자들이 거룩한 것들을 정중히 공경하도록 명하는 선조들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제로 하는 믿음일 뿐이다.

여러분에게 있는 오래된 성화상, 여덟 갈래 십자가, 그리고 그 밖의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로 그 물질들만큼이나 많은 신들과 신앙을 믿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는 더 이상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

---

[23] 고린도전서 13장에 대한 주석, 제34강, 967쪽.

[24] 로마서 8:24.

[25] 히브리서 11:1.

질들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 브리냐네여! 신앙 고백에서 너희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 너희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을 믿는다"라고 말해야 마땅하다. 낡은 성화상, 여덟 갈래 십자가, 일곱 개의 성병, 낡은 책들, 그리고 브리냐네의 관습에 따른 손가락 모양을 믿는다. 그러나 그 수많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사물들 속에서도 진정한 믿음을 찾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믿음 안에서조차 믿음을 품지 못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며 다투고 논쟁하기만 하니라. 이미 여러분 중에는 새로운 성화상뿐만 아니라 낡은 성화상에도 경배하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몸에 십자가 표식을 새기려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미친 듯이 현명함을 가장하며 스스로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가르치고, 또 다른 이는 저렇게 가르치니, 아무도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도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헛된 말에 빠져, 율법 교사들이 되고자 하면서도, 자신들이 말하는 것도, 주장하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26]." 성경과 그 능력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누군가 읽는다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한다 해도 올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배움을 받지 못한 사람, 즉 학문의 빛으로 계몽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서의 심오함을 파악하고, 그 알 수 없는 비밀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 오직 흰 글씨 위에 검은 글씨를 아는 것처럼 알고, 책만 뒤적이는 것에 의지하는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다. 성경의 신비는 마치 눈먼 자가 햇살을 보는 것만큼이나 희미하게 보일 뿐이다.

자,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브린 정원의 첫 열매를 논의를 통해 쪼개어 보았으니, 그들의 믿음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알아보려 하였노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겉으로는 거짓된 말로 꾸며진 아첨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마치 얼굴에 화장을 하는 여인 같으나, 내부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황금입의 설교에서 묘사된 소돔의 사과와 같으니, 겉으로는 붉게 보이지만, 속은 악취 나는 흙과 재로 가득 차 있다. 마치 회칠한 관처럼, 안에는 악취 나는 뼈들로 가득 차 있다[27].

그러니 이 첫 번째 글의 탐구를 다음과 같은 명쾌한 논증으로 마무리하자:

누구든지 유일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수많은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실체를 믿는 자는 올바르게 믿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분열주의자들은 유일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 즉 낡은 성화상, 여덟 갈래 십자가, 성병의 수, 낡은 책들, 그리고 그들의 관습에 따른 손가락의 배열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사물 속에서 신성을 찾는 그릇된 믿음이다.

여기서 명시된 분열주의적 신앙의 그릇됨에 대항하여, 우리 성스럽고 흠 없는 정통 신앙의 참된 바름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제5장. 성상에 관한 정통 신앙의 바름

우리의 참된 기독교 신앙은, 브린의 반역자나 평범한 농부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복음서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직접 전하신 것이며,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을 통해 받아들였고, 일곱 차례의 세계 공의회를 통해 확립된 바와 같이: 그 믿음은 유일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보이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들 속에서 신성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화를 공경하고, 입맞추며, 경배하지만, 신격화하지 않으며, 성화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이나 성모 마리아의 형상, 혹은 어떤 성인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성 요한 다마스쿠스와 함께 더 명확히 말하자면, 성화는 주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회화 예술로 표현한 것이며, 마치 글로 서술된 것과 같다. 바로 그 성인은 정교회 주일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

---

[26] 디모데전서 1:6.

[27] 마태복음 23:27.

다. "글을 쓰는 자와 그림을 그리는 자 모두 기록하되, 어떤 이는 말을 아름답게 꾸미고, 어떤 이는 나무판에 그려내니[28]." 왜냐하면 글을 쓰는 자는 복음을 기록하였고,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것, 곧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교회에 전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화가도 나무 판에 첫 번째 아담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위엄과 그리스도의 모든 육신적 모습, 그리고 성인들의 고난을 그려내어 그 교회에 전하였다. 그러므로 두 가지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기록하였으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여기까지가 다마스쿠스의 말이다.

우리도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성화 그리기도 책에 기록된 글과 마찬가지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책에 기록된 글은 누구나 읽을 줄 아는 것이 아니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화에 묘사된 것은 문맹인 평민이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상과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탄생, 할례, 세례, 변모, 그 외의 기적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겪으신 고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무덤에 안치되심, 부활, 그리고 두 번째로 닥칠 두려운 재림에 대해 알아차리는데, 이에 대해서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그려진 것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즉시 마음으로 포용하고, 이해하며, 깨닫게 되는데, 회화 예술은 책에 실린 이야기보다 훨씬 더 빠르고, 명료하며,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 성모 마리아께서 어머니의 품에 영원하신 아기 그리스도를 안고 계신 성화를 누구나 알아보고, 그분의 지극히 순결한 생애와 행적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는 그분의 탄생부터 시작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셔지신 것, 성모 영보 축일, 그리고 그분에게서 태어난 하느님의 아들을 포대기로 감싸고 구유에 뉘어 주셨으며, 품에 안고 젖을 먹이셨던 일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 곁에 서서 울고 통곡하셨던 모습, 그분을 관에 안치하셨던 모습, 부활하신 그분을 보셨던 모습,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배웅하셨던 모습; 그 후 그녀 자신도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그분 곁으로 떠나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모셨던 모습.

이와 같이 성인들의 행적 중 어떤 것이든, 성화(聖畫)로 묘사되어 전해지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진리입니다: 베드로의 회개, 도마의 확신, 스데반의 돌에 맞아 순교, 사울이 길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이야기들입니다. 마치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공경하고 입맞춤하듯이, 마찬가지로 성상에 그려진 그리스도의 얼굴도 숭배하고 입맞추며,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야기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니, 이는 바로 성 요한 다마스쿠스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와 같다: "나에게 말하라, 네가 복음서에서 숭배하는 대상은 물질인가, 아니면 이야기인가?" 네가 내게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은 이야기'라고. 이와 같이 나도 나무 조각을 숭배하지 않으며, 벽도, 흙으로 빚은 형상도 숭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상과 주님의 모습을 숭배한다. 여기까지가 다마스쿠스의 말씀이다[29].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를 경배할 때, 나무판이나 흙, 그림, 낡은 것이나 새로운 것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 속에 실체를 찾지도 않고, 성화 속의 실체를 숭배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것을 바라보고, 거룩한 것을 숭배하며, 그려진 형상을 경배합니다. 성 바실리오 대교부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경배는 원형, 곧 하늘에 계신 그분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구세주이신 성화상 앞에 서서 경배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은 곧바로 하늘에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께로 향하며, 그분의 성화상 앞에서 그분께 경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구세주의 성화상에 드리는 이러한 경배는 원형, 곧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구세주 그분께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모 마리아의 성화 앞에 와서 경배하고자 할 때, 먼저 내 마음을 하늘에서 그분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분과 함께 다스리시는 지극히 순결하신 하나님의 어머니께로 드리고, 그분의 성화 앞

---

[28] 『대성전집』 인쇄본, 325쪽.

[29] 325쪽 뒷면.

에서 그분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성상에 바치는 경배는 그 원형인, 곧 하늘에서 하느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 마리아께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성인의 성상에 경배하고자 할 때에도, 먼저 내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시는 바로 그 성인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성화는 그 원형인, 곧 내 마음으로 관상하며 경배하는 바로 그 성인에게로 올라간다. 그러나 성화상 속에서 낡은 것과 변형된 것을 찾는 자는 물질만을 찾으며, 물질에 경배할 뿐 하늘에 계신 분께는 경배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작품에 경배하는 것과 같으니, 물질을 신격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숭배는 경건한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것이며, 제7차 세계 공의회에서 단죄되었으니, 그 공의회에서 성상에 대한 경건한 숭배가 확립되었느니라. 그리고 그 공의회에서 성부들은 이에 대해 엄중한 저주를 내렸으니, 성화를 숭배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성화를 신격화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교회는 그 찬송가들을 통해, 교회의 정통 신자들이 경건한 숭배로 성화를 공경할 뿐 신격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순교 기간 첫 주일, 대저녁 예배 때 '슬라브니크'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우리에게 영광은 성육신하신 분의 형상이니, 경건하게 숭배되나 신격화되지는 아니하도다."

또한 이단자들을 저주하는 예식 전에 부르는 카논의 5번째 노래, 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화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입맞추며, 그 표징을 공경하되,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주의 시낙사르, 즉 아침 기도 시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이(성상)에 경배하지 않고, 애정을 담아 입맞추지 않는 자, 즉 예배의 차원이 아니라 신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원형에 대한 사랑을 위해 성상으로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예배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인들이 '라트리아*(latria)*'라고 부르는 예배적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정통 신자가 드려야 마땅한 것이지, 어떤 피조물이나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에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상에 대한 경배를 '예배적'이 아닌, '라트리아'가 아닌 방식으로 행하라고 명할 때, 이는 성상들을 신으로 숭배하지 말고 오직 거룩한 성물로만 공경하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다. 성스러운 성상에 대한 경건한 숭배란, 성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흠숭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 자체로 흠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께는 예배 중에, '라트리아'라고 불리는 신성한 숭배로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믿음의 영적인 눈으로 그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봅니다. 반면, 성화상에 대한 불경한 숭배란, 성화상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 안에 실체를 찾아내어, 마치 실제 인물이나 형상처럼, 마치 하나님 그분께 직접 절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거룩한 성화상 앞에서 경배를 드릴 때, 성화상에 그 얼굴이 묘사된 하늘에 계신 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 이처럼 경배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성화상의 물질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고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얼굴에 경배하는 것이다.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와 그 안에 담긴 물건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 언약의 돌판, 제단을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상 등을 숭배하였으나, 그 물질 자체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거룩한 물건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분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새로운 은혜 안에서 거룩한 성상들을 경배하며, 보이는 거룩한 사물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분을 공경합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새겨진 케루빔을 만들어 모세가 만든 옛 케루빔들과 함께 언약궤 위에 세웠을 때,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만든 새로운 케루빔들을 배척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새로운 케루빔들을 숭배하지 않겠으니, 모세가 만든 옛것들만을 고수하겠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모세가 만든 옛것들처럼 솔로몬이 만든 새로운 케루빔들도 똑같이 숭배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옛 성상과 새로운 성상을 구분하지 않고, 옛 성상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성상도 똑같이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성상 그 자체를 찾는 것도 아니고, 성상의 물질에 경배하는 것도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거룩한 형상을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성 요한 다마스쿠스도 '그리스도 성상 숭배에 관한 정교회 주일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썼

습니다. “나는 (그가 말하길) 판자나 벽, 또는 둥근 천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과 주님의 용모[30] 를 숭배한다.” 마찬가지로, 같은 설교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성상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그 성스러운 성상들을 숭배하고 입맞추되, 신처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기록된 대로, 그리고 전설을 통해 그들이 겪은 고난을 기억하기 위함이다[31] .” 여기까지가 다마스쿠스의 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통 신앙이며, 브린파처럼 실체를 믿고 오래된 성화를 숭배하며, 마치 하나님처럼 오래된 성화에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6*장. 거룩한 십자가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또는 더 정확히 말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십자가의 형상을 공경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자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신자들이 축복과 치유를 위해 전 세계로 나누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형상은 단지 만들어지거나 그려질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마치 가장 참된 십자가인 양 공경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신이 아니었으며, 단지 나무이자 악인들의 형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끝이 몇 개인지를 이유로 삼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공경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 십자가의 팔 끝을 보기도 하고, 네 끝만을 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십자가라는 물질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며, 나무나 단지 네 끝, 혹은 여덟 끝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끝들에 어떤 믿음도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만 믿음을 둡니다. 십자가는 네 갈래이든, 여덟 갈래이든, 혹은 더 많은 갈래를 가졌든 간에 똑같이 공경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공경하는 것은 십자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며, 우리 구원의 소망을 물질적인 십자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스승 요한 다마스쿠스의 말씀을 경청하노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는 존귀하고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형상을 경배하노니, 비록 그것이 다른 물질로 만들어졌을지라도, 물질 그 자체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징인 그 형상[32] 을 경배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하시며 말씀하셨으니, “그때에 인자의 표징, 곧 십자가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다마스쿠스의 말씀이다. 여기에서 모든 이는 그 스승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는 실체가 아닌 십자가의 형상, 즉 물질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형상에게 경배한다.” 그리고 다시 같은 저자가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보고, 구원의 고난을 기억하며,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는 실체가 아니라 형상화된 것[33] 을 경배한다.” 여기까지 그가 말했다. 여기서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형상화된 것’, 즉 십자가라는 물질이 아니라 십자가로 형상화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통 신앙이며, 브린파처럼 여덟 갈래 십자가를 믿는 것도 아니고, 마치 하나님처럼 물질 자체를 숭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분열주의자들이 모독적인 입을 벌리고, 마치 개들처럼 그리스도의 네 갈래 십자가를 향해 짖어대며,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인장과 로마의 십자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그들의 불경스러운 모독에 대해서는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반박되어 있다.

---

[30] 『대집』 인쇄본 325쪽 뒷면

[31] 23쪽 뒷면

[32] 성 다마스쿠스, 제4권, ‘신앙’에 관하여, 제12장

[33] 같은 책, 제17장

제7장. 성병에 관하여

프로스포라에 관하여 말하건대, 다섯 개의 프로스포라나 일곱 개의 프로스포라에서 성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프로스포라에서 이루어지며, 바로 그 프로스포라에서 어린 양이 취해진다. 모스크바와 온 대러시아 교회는 그리스인들과 함께,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해 성병에서 떼어낸 조각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지 않으며, 오직 한 마리의 어린양만이 변한다고 확언한다. 만약 조각들이 변하지 않고 오직 한 마리의 어린 양만이 변한다면, 성례는 오직 하나의 프로스포라, 즉 한 마리의 어린 양 위에서만 거행되는 것이지, 다섯 개나 일곱 개의 프로스포라 위에서는 거행되지 않는다. 그 프로스포라들에서 조각들이 떼어지는 것은 단지 기억을 위한 것이지, 변형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열주의자들 사이에서 성찬용 빵의 수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사도 시대의 초기 교회에서도 오직 하나의 성찬용 빵 위에서만 성찬식이 거행되었으니, 이는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비밀 만찬에서 전하신 대로이기 때문이다. 그 후, 그 이름들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에 대한 무혈 제물이 바쳐지는 다른 성체들도 하나에 더해지게 되었다.

제8장. 옛 책과 새 책에 관하여

옛 책들과 새 책들에 관하여 우리는, 그것들이 하나임을 알리노니, 마치 옛 성화와 새 성화가 하나인 것과 같다. 책들에서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그것은 신앙의 변경이 아니다. 왜냐하면 새 책들도 옛 책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며, 새 책들 역시 옛 책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교리를 담고 있다. 새 책들도 옛 책들과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명하며, 새 책들도 옛 책들과 마찬가지로 선한 행실을 가르친다. 따라서 새 책들에는 옛 책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모순된 가르침도 없다. 그리고 어떤 표현을 변경한 경우라도, 이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바로잡은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에 책 인쇄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 숙련되지 않은 필사자들이 고대 필사본에 많은 오류를 끼워 넣었기 때문이다. 책 인쇄는 모스크바에서, 창세 7061년[34] , 모스크바의 첫 번째 차르 요한 바실리예비치 치세 시절, 모스크바 대주교 마카리우스 재임 중에 시작되었으나, 이후 폴란드인들의 모스크바 침공으로 인해 인쇄소와 그 안의 모든 설비가 파괴되었다.

또한 미하일 페오도로비치 차르의 통치 말기, 성 요셉 총대주교 재임 시절에 건물이 재건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7152년(1644년)부터 다시 책 인쇄가 시작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쇄된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그 이전에는 러시아에 책 인쇄가 없었으며, 블라디미르의 세례 시기부터 시작해 모든 책은 필사본으로만 존재했다. 처음에 헤르손에서 블라디미르와 함께 러시아로 온 그리스인들은 러시아어를 배웠으나, 러시아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책을 러시아어로 번역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인들도 그리스어를 배웠으나, 그리스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그리스 서적을 자신들의 러시아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리스어 번역가들이 러시아어의 일부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어떤 부분에서는 원문인 그리스어와 다르게 번역했고, 마찬가지로 러시아어 번역가들도 그리스어의 일부 표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어떤 부분에서는 원문인 그리스어와 다르게 번역했다. 그 후 수많은 필사 과정에서 다양한 오류와 변형이 생겨났는데, 이는 모든 고대 필사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으며, 그중에서 최초의 인쇄본인, 오늘날 분파자들이 '옛 책'이라 부르는 것들이 인쇄되었다. 처음에는 필사본에 나오는 그대로, 그리 정확하지 않게 인쇄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리스어 원본을 바탕으로 교정되었으니, 우리 신앙이 그리스인들과 일치하듯이, 우리 책들도 그들의 책들과 일치하게 될 것이며, 문구만을 교정했을 뿐 신앙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문구, 그것이 오래된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신앙 그 자체가 아니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단지 문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4]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후 1553년 여름

제9장. 성부들은 경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분열주의자들이 성스러운 교부들이 옛 서적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무지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성스러운 교부들은 서적에 기록된 말이나 문구로 인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덕스러운 삶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는 알파벳도 몰랐고, 서적에 기록된 말들을 논할 줄도 모르는 이들이 많았다. 글자나 책에 나오는 어떤 말도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구원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만약 옛 성서들을 통해 구원을 얻어야 했다면, 그들은 인쇄본이 아닌 필사본을 통해 구원을 얻었어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필사본은 인쇄본보다 훨씬 오래된 것으로, 블라디미르 시대부터 모스크바 왕국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공 시대, 즉 모스크바 차르들이 등장하기 이전에 살았던 모든 러시아의 성부들은, 당시 러시아에 아직 인쇄본이 없었기 때문에 인쇄본이 아닌 필사본을 읽었습니다. 만약 그 고대 서적들 속에 성부들의 구원이, 그들의 덕행에 대한 전기를 제외하고 담겨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인쇄된 서적이 아니라 오래된 필사본을 따라 기도해야 마땅했을 것이다.

만약 고대의 책들 속에 성부들의 구원이 담겨 있었다면, 그것은 수많은 오류와 필사상의 실수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고대의 필사본 책들은 그러한 오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며,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여기서 언급하고자 한다. 10월 1일,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보호 축일 예배 중, 폴리에레이(polyeleos) 부분에서 옛 필사본 책들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당신의 지극히 존귀한 오모포르(omophorion)는, 알렉토라(alektora)보다 더 빛나나이다." 그러나 다른 책들에는 "알렉토라(alektora)보다 더 빛나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인쇄본에서는 성자 막심 그리스인에 의해 '파체 일렉트라 프로스베차야스야'로 수정되었다. 이에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막심을 비난하며 그를 이단자라 부르며, " (그들이 말하길) 이단자여, 어찌 감히 우리 성스러운 선조들이 구원받은 바로 그 글자들을 감히 바꾸려 하느냐?"라고 했다. 우리는 이제 '엘레크토르(електор)', '알레크토르(алектор)', '일렉트라(илектра)'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엘레크토르'는 '선출자'로 해석되며, 무언가나 누군가를 선출하는 자를 뜻한다. '알레크토르'는 '수탉'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복음서에도 기록된 바와 같다: "수탉이 울기도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한 자[35] "; '일렉트라'는 순금의 빛을 의미한다. 그러니 살펴보라: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 마리아의 오모포르는 무엇에 비유되는 것이 더 어울릴까, '이조브리치'인가, '수탉'인가, 아니면 '황금의 빛남'인가? 진실로 '일렉트르', 즉 황금의 빛남에 비유되는 것이 '알렉토르'인 수탉이나 '엘렉토르'인 '이조브리치'에 비유되는 것보다 더 어울린다. 왜냐하면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성부들은 옛 말씀들, 즉 선거인과 수탉에 대한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니, 만일 옛 경전의 말씀 속에 구원이 있다면 말이다.

또 다른 사실은, 6월 19일, 모스크바의 위대한 우스펜스키 대성당에 소장된 위대한 필사본 '체티 미네이'의 459쪽, 존경받는 파이시 성인의 행적 기록에 따르면, 성 예레미야 예언자가 존경받는 파이시 성인에게 자주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마음은 약속된 복을 갈망하는 데 있어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은밀한 생각들' 대신 '더러운 생각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거룩한 예언자가 존경받는 분의 마음에 더러운 생각들을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잘 들어보라. 만일 성스러운 아버지들의 구원이 옛 서적의 말씀에 달려 있다면, 그 묘사에서도 '더러운 생각'에 달려 있어야 할 터인데, 결코 그렇지 않다. 구원은 옛 서적의 말씀이나 필사본의 묘사나 과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덕스러운 삶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성스러운 교부들이 옛 책들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옛 책들의 말이나 새로운 책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선한 행실과 흠 없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

[35] 마태복음 26:34.

제*10*장. 새로운 책들이 믿음을 바꾸지 않았다

분열주의자들이 마치 우리가 새로운 책들로 믿음을 변질시킨 것처럼 우리를 비방하거니와, 이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노니: 하나님의 형제이신 성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예루살렘의 초대 주교로서 거룩한 전례를 기록하셨다. 그분의 전례는 동방 모든 교회에서 거의 400년 동안 행해져 왔다. 또한 교회의 기둥이자 온 세상의 스승이신 성 바실리우스 대성인은 야고보의 전례를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전례를 작성하여 교회들에 전수하였다. 여기서 브린의 허세 부리는 자들에게 묻노니, 바실리우스 대성인은 새로운 전례문을 작성함으로써 옛 신앙을 변경했는가? 그에 이어 성 요한 황금입은 오늘날까지도 행해지고 있는 자신의 전례문을 작성하여 교회들에 전수하였는데, 황금입은 신앙을 변경했는가?

제*11*장. 고대의 교회 관습에 대하여

그렇다면 고대의 교회 관습과 예식(의식), 그리고 보편 공의회와 지역 공의회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그 안에서 많은 것이 변경되고, 어떤 것은 수정되었으며, 또 어떤 것은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겠는가? 『코르치야』 책과 라오디키아 공의회 규칙 제11조[36] 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고대에는 교회에서 행해지던 몇 가지 관습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중 일부는 잊혀졌고, 어떤 것은 아예 중단되었으며, 또 다른 것들은 규칙에서 삭제되었다"고 한다. 여기까지가 '코르치'의 글이다. 우리는 몇 가지를 상기해 보겠다. 고대에는 일부 주교들이 세속인이자 기혼자였는데, 이는 제6차 세계 공의회 규칙 제12조[3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도도 말하기를, "주교는 흠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38] 고 했기 때문이다. 이집트 땅의 닐로폴리스 주교 헤리몬이 바로 그러했으며, 그에 대해 팔레스타인 케사리아의 주교이자 고대 교회사의 저술가인 유세비우스는 위대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39] : 또한 후기 역사학자 니키포로스 칼리스토스, 즉 트리오데에 수록된 시나크사르의 저자 역시, 두 사람 모두 일치하여 전하되, 그 헤리몬 주교는 노년에 박해 시기, 데키우스 황제 치하에서 박해자들의 손아귀를 피해 아내와 함께 아라비트 산으로 피신하였다고 한다[40] .

또한, 세속의 장로들과 집사들 중에는 미혼인 자들이 있었는데, 이는 아그키르 지역 공의회 제10조와 제6차 세계 공의회 제6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41] . 필사본 인 고대 규율서에는, 옛날부터 성찬식 후 성찬예식이 거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은 테오도시우스 3세 치세에 살았던 고대 교회 역사 기록가 소조멘스 그리스인도 증언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제7권 19장에서, 자신의 시대에 이집트 지역 내 많은 도시들이 식사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신성한 성사를 영하는 이 관습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본뜬 것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식사를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를 주셨다. 테오도시우스 3세는 그리스도 탄생 후 400년이 지나 왕위에 올랐으나, 그 관습은 여전히 이집트의 일부 도시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행해졌으니, 사제들은 음식을 먹은 뒤 성찬식을 집전하였고, 신자들은 음식을 먹은 뒤 성찬을 받았으며, 특히 수난 주간의 거룩한 성목요일에 그러했다. 카르타고 지역 공의회(로마에서는 오노리우스 황제 치세 때, 콘스탄티노플에서는 테오도시우스 2세 치세 때 열렸던)는 사제가 미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이 성체를 영하는 것을 '성대한 목요일'을 제외하고는 일 년 내내 금지했다. 제6차 세계 공의회는 성대한 목요일에도 사제가 성찬식을 집전하지 말 것과, 신자들이 성찬을 받지 말 것을 명하였으니, 이는 그 제6차 세계 공의회 규칙 제29조, 『코르치이』 서적 186쪽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고대

---

[36] 74번 안내지 뒷면
[37] 180쪽 뒷면
[38] 디모데전서 3:2.
[39] 에우세비우스, 제6권 제84장.
[40] 니키포로스, 제5권, 제31장.
[41] 44쪽 뒷면, 179, 566, 567쪽.

의 정통 필사본에 따르면, 금식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처음에는 치즈, 우유, 달걀을 먹었으나, 이후 금식 규율에 확고히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기록에는 옛날에 여성들도 교회 예배에서 집사 직분과 유사한 일정한 봉사 직분을 가졌다고 적혀 있다; 이 때문에 '디아코니사'라고 불렸으며, 그들의 봉사는 특히 그 당시 헬레니즘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는 여성들과 처녀들이 있을 때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성인들의 행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 키프리아누스가 주교로 임명되었을 때, 처녀 유스티나를 디아코니사로 임명하였다[42] . 일리오폴리스의 주교인 성 논은 창녀 펠라기아에게 세례를 베풀 때, 디아코니사 로마나가 성수대에서 그녀를 맞이하였다[43] . 성 황금입은 마지막 유배길에 나서며, 복녀 올림피아 디아코니사와 다른 이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정통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가르쳤다[44] . 복자 테오즈바는 성 그레고리우스 니스카의 배우자로, 디아코니사였습니다.[45] . 또한 많은 처녀와 과부들이 디아코니사가 되었는데, 그들의 지위에 대해서는 성부들의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 공의회 규칙 19, 『코르치이』 책, 40쪽, 제4차 세계 공의회 규칙 15, 『코르치이』 책 99쪽 뒷면, 카르타고 지역 공의회 규칙 6, 120쪽 뒷면, 제6차 세계 공의회 규칙 14, 181쪽 뒷면을 참조하라. 그리고 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초기에는 성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찬을 숟가락으로 나누어 주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은 손에 따로 건네주었으며(마치 오늘날 안티도르가 나누어지듯이), 그리스도의 피는 성배에서 따로 나누어 주었다. (성 금입술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함께 숟가락으로 입에 넣어 주도록 규정하였으며, 성체를 따로 손에 건네주지는 않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11월 9일, 레즈비아니의 성녀 테오크티스타의 생애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이러한 관습과 그 밖의 많은 것들이 공의회에서, 특히 제6차 세계 공의회에서 폐지되었다.

여기서 묻노니, 성부들이 그 옛 관습을 폐지했을 때, 옛 정통 신앙을 변경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관습은 수정되고 변경될 수 있는 것이지만, 신앙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12*장. 새로 도입된 것들에 대하여

어떤 고대의 관습은 고쳐졌고, 어떤 것은 폐지되었으며, 이와 같이 또 다른 새로운 관습이 교회에 도입되었으니, 그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라. 콘스탄티노플 출신의 두 그리스 역사학자, 게오르기 케드린과 니키포로스 칼리스토스는 각자 살았던 시대에, 고대 교회들에서는 처음부터 주현절 전날 밤에 성수 축복 의식이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 관습은 그리스 왕 시논의 치세 시절, 안티오키아에서 비정통적인 총대주교 베드로(크나페이와 풀로라고도 불리는)에 의해 최초로 제정되었는데, 교회는 그 자신은 이단자로 배척했으나 그의 전통은 선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시논은 그리스도 탄생 후 474년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리스도 탄생 후 400년 동안 살았던 위대한 보편 교회 교사들인 바실리우스 대제, 그레고리우스 신학자, 요한 황금입의 시대에도 주현절 전날 밤에 성수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위대한 고대 성인들은 이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성스럽지도 않고 정통하지도 않은 마지막 주교가 이를 제정하였고, 교회는 그의 규정을 받아들였으며,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바로 그 안티오키아의 비정통 총대주교 베드로는 (앞서 언급된 역사학자들이 증언하듯이)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나이다"라는 신조를 매일 교회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매년 여름, 성금요일에만 세례를 받을 예정인 이들이 공표될 때 큰 소리로 낭독되었었다. 그 후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는 매일 "나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나이다"를 큰 소리로 낭독하는 관습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티모테오에 의해 채택되었는데, 이에 대해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독서자 테오도르가 기록하고 있다. 또한, 처음부터 성찬례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말

[42] 10월 2일.
[43] 10월 8일.
[44] 11월 13일.
[45] 1월 10일.

씀이신 분[46]"이라는 찬송과 그 밖의 찬송들이 없었으나, 위대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통치 시기, 바로 그 황제에 의해 추가되었다. 또한 콘스탄티노플 출신의 게오르기 케드린은『역사 개요』에서, 위대한 유스티니아노스 이후 왕위에 오른 유스티노스 치세[47] 에, 이전에는 없던 '케루빔 찬가'를 성찬례에서 부르게 규정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거룩하고 위대한 목요일에는 "오늘 주님의 비밀스러운 만찬이여, 하나님의 아들啊"[48] 라는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 이 또한 이전에는 불리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전하는 바에 따르면,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는 찬송가인 '가장 존귀한 케루빔'은 다마스키노스와 동시대인인 마이움의 주교 코스마가 작사하여 교회에 전한 것으로, 코스마 이전에는 그 찬송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코스마는 다마스키노스와 함께 그리스도 탄생 후 7세기에 살았다.

여기서 묻고자 합니다. 정교회에 이전에 없던 그 새로운 것들이 도입되었을 때, 정통 신앙이 변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추가된 수많은 교회 찬송(노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다마스키노스의『옥토이히』, 테오도르 스투디트의《트리오드》, 미트로파노스, 코스민, 요시프 등의《카논》은 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게다가 러시아에서는 예전에 없던 새로운 성인들이 지은 예배 의식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추가되었다고 해서 신앙이 변했습니까?

나는 어떤 무지한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것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49]." 이에 대답하노니, 신앙의 교리에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그로부터 무언가를 빼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나, 교회의 예식과 규정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 데 있어서는 마땅하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님의 모든 찬양을 더하리이다"[50].

제13장. 성서 복음서 저자들의 견해 차이에 관하여

그러나 다시금 새로운 서적을 기다리거나 비방하는 이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만일 새로운 서적에서 옛 기록의 어떤 구절들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주장대로라면, 성스러운 복음서 저자들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어떤 말과 행적을 기록함으로써, 서로 다른 믿음을 만들어 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성 마태는 그리스도의 승천 후 8년 만에 복음서를 썼다[51]; 성 마가는 10년 만에; 성 누가는 15년 만에; 성 요한은 32년 만에 썼다. 이제 그들의 일부 말씀과 서술에서 나타나는 불일치를 살펴보자. 주님의 기도인 '우리 아버지'에서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52] 라고 썼고, 누가는 "매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썼다. 마태는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했고, 누가는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옵소서"[53] 라고 말했다. 마태는 "우리도 탕감하듯이"라고 말했고, 누가는 "우리가 탕감하듯이"라고 말했다. 마태는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라고 말했고, 누가는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에게"라고 말했다. 마태는 "네 것이 왕국이요, 그 밖의 것들도"라고 썼으나, 누가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서 묻노니, 마태보다 나중에 주님의 기도를 다른 말로 기록한 성 루카가 믿음을 변질시킨 것인가? 과연 마태의 믿음과 루카의 믿음이 서로 다른 것인가? 또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신 것에 관한 다른 구절도 있다.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여행 중에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명하시며,

---

46 스크리잘, 282쪽.

47 390쪽.

48 석판, 609쪽.

49 계시록 22:18.

50 시편 70:14.

51 테오필라크, 마태복음 서문.

52 마태복음 6:11.

53 누가복음 11:4.

"신발도, 지팡이도"[54]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했고, 마가는 "오직 지팡이 하나와 샌들을 신은 것"[55] 라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두 맹인이 길가 에 앉아 있었다고[56] 기록했고, 그러나 마가는 단 한 명의 맹인, 바로 바르티메오에 대해서만 기록했습니다[57] : 과연 마가는 마태와 신앙을 달리하여, 두 명이 아닌 단 한 명의 맹인만을 기록한 것일까요? 또한 마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르게사 지방에 이르셨을 때, 두 명의 귀신 들린 자가 그를 맞이했습니다[58] ; 그러나 누가는 단 한 명의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만 말합니다[59] . 또한 복에 관해서도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 마태는 9가지 복을 기록했고[60] , 루가는 단 4가지만 기록했다[61] .: 루가가 믿음을 저버리고, 그보다 앞서 마태가 기록한 것과 다르게 쓴 것일까?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에 대해, 마태와 마가는 두 강도 모두 그분을 모욕했다고 기록했으나, 누가는 한 사람은 모욕했고 다른 한 사람은 "주여, 주께서 주의 나라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마태와 마가는 무덤에서 향유를 가져온 여자들에게 천사 한 명이 나타났다고 기록했으나, 루카와 요한은 천사 두 명이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루가는 그 두 천사에 대해 그들이 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62] "; 요한은 그들이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63] ". 이것이 바로 복음서들에서 발견되는 크고도 수많은 말과 기록의 차이들이나, 복음서 저자들의 믿음은 하나이며, 그 어떤 것으로도 변하지 않았다.

브린스키의 교사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마치 개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 짖듯이, 마치 새로운 책들에 있는 어떤 말들이 믿음을 바꿔 놓았다는 듯이 말하고 있다. 사도 성인은 바로 이러한 짖어대는 개들을 경계하라고 명하며, "개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64] .

제*14*장.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또한 저 저주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읽는다는 이유로 거룩한 교회를 비방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배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 어리석은 자들아! 기도에서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 불렀다고 해서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중 어느 칭호가 더 크고 더 존귀한가? 모든 정통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며, 이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다. "내가 너희를 받아들이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니, 너희는 내 아들과 딸이 되리라"[65] . 또한 성 요한 신학자는 복음서에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66] 라고 말씀하셨다. 이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본성상으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

54 마태복음 10:10.
55 마가복음 6:8, 9.
56 마태복음 20:29, 30.
57 마가복음 10:46.
58 누가복음 8:27.
59 누가복음 8:27.
60 마태복음 5:3.
61 누가복음 6:20, 21, 22.
62 누가복음 24:4.
63 요한복음 20:12.
64 빌 3:2.
65 고린도후서 6:17, 18.
66 요한복음 1:12.

불리며,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는 것이니, 성 바실리우스 대교부께서도 교회 찬송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시며, 1월 1일 찬송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나니: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어, 신성한 세례로 다시 태어나셨도다", 과연 누가 하나님이라 불릴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 부를 때, 그를 기도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하나님'이라는 더 크고 존귀한 칭호로 부르며 기도 속에 굳게 모시는 것이다. 아리아파의 이단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았던 자들이다. 아리우스파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며, 아버지와 동등하지도 않고,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도 않으며, 보좌를 함께 나누지도 않고, 본질적으로 같지도 않으며, 창조주도 아니고 피조물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존경받을 뿐,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리아파는 이와 같이 저주받았다. 그러므로 성부들은 심판하신 후, 정통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 부르라고 명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 부를 때, 우리는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열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원치 않음으로써, 악명 높은 아리우스파를 돕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옛 책들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오, 브리냐네여, 여러분이 '옛 책'이라 부르는 그 책은, 예루살렘의 키릴이 저술한 것으로, 모스크바에서 세계 창조 7152년에, 신실한 왕이자 대공 미하일 페오도로비치의 통치 기간 중, 모스크바 총대주교 키르 요세프의 재임 시절에 인쇄된 것이 아닙니까? 그 책의 말미에는 예수 기도에 대한 해설이 실려 있는데, 552쪽 뒷면에서 시작하여 556쪽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 해설에서 예수 기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옛 책들에 매달리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라고 가르치는 그 옛 책을 듣지 않는가? 오, 너희의 어리석음과 고집이여! 그러나 나는 내 교구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만 누구도 마음속에 악명 높은 아리우스의 이단을 품지 않는 한 말이다. 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을 하나로 합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도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예루살렘 총대주교인 지극히 거룩한 소프로니우스의 『리모나리』를 인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칭하는 기도의 증거로 삼고자 한다. 그 소프로니우스의 책 51장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성 에프렘[67] 은 이단을 주장하던 기둥 수행자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오모포리온을 불 속에 던져 넣으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등등. 또한 44장에서는: 어떤 장로가 소홀했던 제자가 죽은 후 그를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여, 형제의 영혼에 대해 저에게 알려 주소서." 그리고 155장에서는: 아바 요르단이 세 명의 사라센이 한 청년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그들로부터 속량하려 했으나, 그들이 그 대가를 받지 않으려 하며, 자기 제사장에게 그를 제물로 바치기로 약속했다고 말하자; 그때 장로는 무릎을 땅에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불경건한 야만인들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하였다. 그러자 세 사라센이 즉시 격분하여 각자의 칼을 뽑아 서로를 베어 죽였고, 그 청년은 자유를 얻어 장로를 따랐다.

이는 고대의 성스러운 교부들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과 똑같이 알려진 사실이다. 어찌하여 성스러운 교회의 대적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불평하며 소란을 피우는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옛 성자들에게 불평하라.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여!"

---

[67] 그의 기념일은 11일째 되는 날이다.

제*15*장. 예수님의 이름에 관하여

또한 분열주의자들은 마치 우리가 구세주의 이름을 ‘їс’ 대신 ‘їиѣс’ 로 바꾸었다며 우리를 비방하고, 그 지극히 거룩한 이름 ‘їиѣс’ 를 혐오하며, 그리스도의 성화상에서도 ‘їиѣс’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경배하지 않으며, 우리를 모욕하며 말하기를 “그것들 안에는 ‘їс□̀с’ 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그 분열주의자들은 그 지극히 거룩한 이름 ‘їиѣс’ 를 모독하며 “їс□̀с” 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마치 우리를 비난하려는 듯이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리스도를 여덟째 날에 할례를 행했을 때, 천사가 지어 준 이름인 ‘이수스’를 그분께 지어 주었는데, 이는 그분이 모세[68] 의 태중에 잉태되기도 전의 일이었다”고 한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잉태되기 전에 이름을 지어 주었으나, 그들은 천사가 지어 준 이름을 버리고 스스로 다른 이름인 ‘이슐’을 지어 주었기에, 그들에게서는 ‘인 이슐’이 된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어리석은 추론을 폭로하며 그들에게 묻겠습니다. 말하라, 어리석은 현자들과 신성모독하는 자들아! 천사가 지극히 순결한 동정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를 알렸을 때, 그때 어떤 언어로, 어떤 말로 그녀에게 말했느냐? 러시아어였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언어였느냐? 그리고 구세주의 이름을 어떤 언어로 지었는가? 러시아어였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언어였는가? 만약 천사가 가장 순결하신 동정녀께 러시아어로 말하였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이수스’라고 불렀다는 너희의 주장이 옳을 것이나, 만일 천사가 러시아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말하였다면, 너희는 즉시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다.

눈이 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직접 살펴보십시오.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 성모 마리아는 어떤 민족과 언어를 가진 분이셨으며, 어디에 사셨고,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녀는 유대인 혈통과 언어를 가진 처녀이지, 러시아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땅에서 살았지, 러시아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유대인 처녀인 그녀에게 유대어로, 러시아어가 아닌 유대어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스 관습에 따라 제목 아래에 이솝(їс)으로 축약되어 쓰이는 그 지극히 거룩한 이름, 곧 예수라고 불리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되는지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대답하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아시는 바도 없으니까요. 그러니 무지한 자들아, 알 수 있다면 깨달아라.

히브리어를 아는 자들은 말하기를, 구세주의 그 이름은 유대 각 지역의 관습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불렸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이오스바’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 – – ‘예스바’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 – – ‘예스카’라고 불렀고,
어떤 이들은 – – – ‘예스흐바’라고 불렀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해석은 오직 하나, 곧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본받아야 할 성 바실리우스 대성인은 자신의 문법서에서, ‘이슐’이라는 이름이 구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예슈아’에서 유래했다고 말합니다; 바실리우스는 또한 (그가 말하길) 그것이 ‘IAŴ’, 즉 ‘전부’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미래 시제인 ‘IAΣΩ’에서 비롯된 ‘이아수스’라고 보았다. 여기까지가 바실리우스의 설명이다. 바실레이오스의 그 문법서는 그의 저서 제3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리스도 탄생 후 1638년에 파리에서 그리스-로마어로 인쇄되었고, 해당 권의 쪽수는 595쪽이다. ‘이아수스’는 히브리어에서 ‘구원자’로, 그리스어에서는 ‘치유자’로 해석된다. 이는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인 성 아파나시우스의 저서, 아폴리나리우스에 대항한 제4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수*(Ιησούς)*라는 이름은 ‘야사토*(Iaásato)*’에서 유래한 것으로, 즉 ‘자신의 백성들의 상처를 치유하라’는 뜻이다. 그분은 종의 형상을 취하시기를 기꺼이 하실 때 치유하셨다.” 여기까지가

---

[68] 누가복음 2:21.

성 아파나시우스의 말씀이다. 이것은 그가 그 지극히 거룩한 이름 ‘이수스(Ιησούς)’를, 바실리우스 대주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어 ‘Ιάω’(치유하다)에서 유래시켰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단어의 미래 시제는 ‘Ιάσω’(이아소), 명령형은 ‘Ιάσατο’(이아사토)이며, 여기서 ‘이아소우스(*Ιάσουυς*)’가 유래했다. 그리고 천사가 지극히 순결한 동정녀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를 알리며 그녀에게 히브리어로 말했을 때, (바에일리예프와 아파나시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이아수스’라고 지었으며, (러시아식 ‘ї s□̀s’가 아니라) 이와 같이 복음서 저자 마태도 히브리어로 복음서를 썼는데(그는 오직 히브리어 방언으로만 복음서를 썼으니), 구세주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아수스’라고 기록했다는 뜻이다(바실리우스와 아파나시우스 대성인의 전승에 따르면); 러시아식인 ‘їc□̀c’ 가 아니라.

그렇다면 왜 헬레니즘 그리스어에서는 그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їac□̀c’ 라고 쓰거나 발음하지 않고, ‘їѭc’ 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헬레노그리스인들에게 가장 오래된 이오니아 방언의 문법 규칙이 있기 때문인데, 즉 문자 ‘A’가 십진법 문자 ‘I’와 결합될 때, 항상 팔진법 문자 ‘I’로 바뀌는데, 예를 들어 ‘이아티르(의사)’를 ‘이이티르’로 표기하는 것과 같다. 에르미아스(에르미오스)는 에르미이스로 표기한다. 이와 같이 유대인의 이름인 예수는 그들에게서 ‘이시스’로 변형되었는데, ‘A’를 ‘I’로 바꾼 것이다. 이는 이름에 대한 억지나 훼손이 아니라, 앞서 언급된 대로 헬레니즘 언어의 문법 규칙이다. 왜냐하면 네 분의 거룩한 복음서 저자들이 주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기록할 때, 히브리어로 기록한 마태는 (바실레이오스와 아파나시오스의 말에 따르면) 지극히 거룩하신 구세주의 이름을 ‘이아수스’라고 썼고, 라틴어로 기록한 마가는 ‘예수’라고 썼으며;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언어 문법 규칙에 따라 글자 ‘A’를 ‘E’로 바꾸는데, 이는 그리스인들이 ‘I’로 바꾸는 것과 같다. 반면 루카와 요한은 그리스어로 기록하며 ‘їѭc’ 라고 썼다. 우리 러시아인들도 바로 그 그리스인들로부터 그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쓰고 말하는 방식을, 그리스 정교 신앙과 함께 받아들였다.

또한 이 점을 알아두어야 하는데, 헬레니즘-그리스어에서 구세주의 이름은 두 가지 방식으로 쓰인다. 하나는 완전한 형태로, 모든 글자를 대문자 없이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축약된 형태로, 대문자 위에 쓰는 것이다. 완전한 형태는 ‘이소우스(*Ισούς*)’라고 쓰며, 축약형은 ‘їѭc’ , 더 축약된 형태는 ‘їc’ 이다. 비록 그들이 때로는 가장 짧은 약어로 그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첫 글자는 그대로 두고 마지막 글자만 대문자로 덮어 ‘їc’ 라고 표기하지만, 결코 ‘예수’라고 말하지는 않고, 항상 ‘이수스’라고 말하며 노래한다.

우리에게도 그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이 때로는 대문자 없이 길게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요한 황금입의 바울 서신에 대한 해설서 1374쪽에서 볼 수 있듯이, “만일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자가 온다면[69]”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여러 곳이 있다. 우리에게는 보통 ‘їc’ 라는 칭호 아래로 쓰이지만,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아니라 ‘이이수스’라고 발음해야 하며, 때로는 더 축약하여 ‘їc’ 라고 쓰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처럼 이름을 길게 발음하지도 않고, 줄여서 쓰지도 않기 때문에, 줄여서 쓰는 대로 줄여서 발음합니다. ‘їc’ 라고 쓰고 ‘예수’라고 발음하므로, 우리에게는 ‘їѭc’ 라고 쓰는 것이 ‘їc’ 라고 쓰는 것보다 낫다. 그래야 구세주의 이름이 그리스인들처럼 세 음절로 발음되고, 단지 두 음절로만 발음되지 않기 때문이다. 때로는 ‘їѭc’ 라고 표기하고, 때로는 ‘예수’라고 표기하기 때문이다. ‘їѭc’ 는 앞서 말했듯이 히브리어로 ‘구세주’를, 그리스어로 ‘치유자’를 의미한다. ‘예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들어보라. 그리스어로 ‘이소스(*Icoc)*’는 우리 말로 ‘동등한’을 뜻하고, ‘우스(*Oyc*)’는 ‘귀’를 뜻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하나로 합치면 ‘이소우스(*Icoyc)*’가 되는데, 이는 ‘귀가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르지 맙시다. 그러므로 ‘ї s’ 보다는 ‘ї ї s’라고 쓰는 것이 더 낫고, 또한 ‘구원자’와 ‘치유자’ 를 뜻하는 세 음절로 발음해야 하며, ‘같은 귀를 가진 자’를 뜻하는 두 음절로 발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복음서 저자 모두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라는 세 가지 언어에서, 앞서 말한 대로 주님의 이름을 두 음절이 아닌 세 음절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로는 ‘야수스(*Yeshua)’,* 라틴어로는 ‘예수스(*Jesus)’,* 그리스어로는 ‘이소우스(*Iisous)’*로, 우리 구세

[69] 고린도후서 11:4.

주이자 치유자이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어에서는 분열주의자들이 단 두 음절인 '이수스'라고만 말하며, 우리 영혼의 구세주이자 치유자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 안에는 '이수스'가 있다. 그들은 참된 '이수스', 곧 구세주이자 치유자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도 없는 '이수스'를 고백할 뿐이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를 지극히 순결한 동정녀에게 전한 천사, 곧 복음을 전한 천사를 비방하며, 마치 그가 그분께 '이수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거짓이 드러났고, 그들의 미친 생각은 수치를 당하였으며, 썩은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에 대한 모독이 그들 자신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는 '양쪽 귀가 똑같은' 예수라고 불리는 자가 나타났으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곧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토록 계실 이시이시이시

이제 가장 단순한 이들을 위해 이 점을 명확히 해 두자. 우리 러시아의 옛 신앙은, 헤르손에서 세례를 받은 성 블라디미르 대공이 헤르손에서 세례를 받으며 그리스인들로부터 받아들여 러시아로 전해 왔고, 그 신앙으로 러시아 땅을 계몽하였으며, 러시아 교회는 블라디미르가 그리스인들로부터 가져온 그 정통 교리와 교회 전통 위에 확립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오래된 신앙이다.

그러니 이제 그 두 가지, 즉 블라디미르 대공이 그리스인들로부터 전해 온 교리와 교회 전통을 모두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브린의 신앙이 과연 옛 신앙인지 확인해 보자.

정통 교리에 따른 옛 신앙의 고찰.

서두에서,

제*17*장.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에 관하여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이 별개의 인격이시나 신성의 본질로는 분리될 수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블라디미르가 그리스인들로부터 러시아로 전해 온 옛 신앙이다.

그러나 브리냐인들은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이신 신성을 고백하지 않고, 이를 셋으로, 심지어 넷으로 나누는데, 곧 우리가 곧 듣게 될 바와 같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브리냐네 사람들이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이신 신성을 고백하지 않고, 이를 셋과 넷으로 나누는 것은, 그들의 서신 자체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하나님의 섭리로, 유명한 이단 교주 아바쿠ム의 서신 사본들이 우리 손에 들어왔는데, 그는 과거 프로토포파였으나 사제직에서 파면되고 파문당한 자이다. 브리냐인들은 그를 성인으로 숭배하며, 새로운 순교자라고 칭하고, 그의 성화를 그려 경배하고 있다. 그의 서신 중, 솔로베츠키의 장로 이그나티우스에게 보낸 성 삼위일체에 관한 사색문이 있으니, 그 내용을 여기에 수록한다.

아바쿰은 말하되:

보라, 솔로베츠의 이그나티여, 삼위일체를 믿으라.

경청하라, 유일본질 삼위일체를 믿는 정통 신자들아, 누가 언제 '세 본질의 삼위일체'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거룩한 사도들과 성부들이 우리에게 성 삼위일체 안에서 단일한 본질을 고백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정통 교리적 저작과 가르침을 모두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오니, 간략히 기록하는 우리로서는 그 중 한 분만을 대신하여 성 요한 다마스쿠스를 언급하겠나이다. 그분은『옥토이히』의 제3음조, 대저녁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능력을 찬양하며, 성령의 권능을 노래하노라. 분리될 수 없고 창조되지 않은 신성,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삼위일체여,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이 삼위일체는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세 본질이 아닌 것으로 우리 정교회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주의자들에게는 정통적이지 않고 이단적인 새로운 고백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삼위일체를 세 본성의 신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앙은 옛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이며, 전례 없이 반항적인,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블라디미르가 그리스인들로부터 전해 온 것이 아닌 새로운 신조를 고안해 낸 것이다.

다시 아바쿰:

동등함에 대한 어떤 분열도 두려워하지 마라. 단일한 실체가 세 실체로 나뉘어 동일하며, 본성도 그러하다.

정통 신자들아, 잘 들어라. 이것이 성 삼위일체, 즉 하나이신 하나님의 본체와 본성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이단과 모독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과연 옛 신앙인가? 성스러운 사도들과 성부들이 전한 이러한 신앙을 교회가 받아들였는가? 성 블라디미르가 그리스인들로부터 러시아로 가져온 신앙이 과연 이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블라디미르 시대에, 받아들여진 거룩한 신앙과 함께, 러시아에는 그리스어에서 슬

라브어로 번역된 교회 서적들도 함께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지금 한 권을 펼쳐 보겠습니다. '옥토이흐'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이제 첫 번째 성가조, 성 삼위일체에 바치는 캐논, 주일 자정 예배 때 부르는 미트로파노프의 작품, 여섯 번째 노래의 세달레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읽어보면, 본질상 하나이신 삼위일체가 어떻게 고백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본성으로 나뉘지 않으시며, 세 위격으로 나뉘어 있으시되 분리될 수 없으시며, 신성의 본질 안에서 나뉘지 않고 계시는 삼위일체께, 우리 땅의 자손들이 경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 삼위일체에 대한 정통 교리입니다: 성 삼위일체는 본질상 분리될 수 없으며, 세 위격으로 나뉘어 있지만 분리될 수 없고, 신성의 본질에 있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열주의 교사 아바쿰 로스포파는 자신의 제자들인 브리냐인들에게, 하나님의 단일한 본체를 세 개의 본체로 나누고, 하나님의 단일한 본질을 세 개의 본질로 분할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과연 러시아에 이러한 악랄한 신앙과 신성모독적인 이단이 존재했던 적이 있는가? 러시아의 성부들과 기적 행자들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결코, 결코 없었고, 오직 최근 우리 시대에 아바쿰과 그의 제자들의 미친 사색에서 비롯된 새로운 것이다.

브린의 신앙은 옛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이며, 삼위일체의 신성한 본성과 실체를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면서도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분할하는 것이니, 이는 러시아에서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일이다.

다시 아바쿰:

신성의 샘은 삼위일체로 흘러나오니, 아리우스처럼 세 본성이 불평등하다고 말하지 말고, 평등한 세 본성 혹은 실체라고만 말하라. 그 이상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마라.

이 미친 자, 신학자가 아니라 허튼소리를 늘어놓는 아바쿰은, 이 불경스러운 교리화에서 그야말로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첫째, 스승인 척하면서도 아리우스의 이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아리우스는 " "라고 말하며 신성의 본질이 세 가지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인 아버지 안에 단 하나뿐이라고 했다. 또한 아들을 신으로 고백하지 않고, 단지 '아들'일 뿐이라고 했으며, 아들은 본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말했다. 둘째, 아바쿰은 어리석으니, 신성의 본성과 실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기 때문이다. 아리우스가 고백하지 않았던 것처럼, 성 삼위일체를 고백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바쿰이 신성의 본성과 실체를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만큼이나 큰 악이 아니겠는가? 아리우스의 이단을 경계하다가, 그보다 못지않은 이단을 스스로 만들어 낸 자로, 마치 불길을 피하려다 오히려 스스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며, 남의 무기를 경계하다가 자신의 칼로 미친 듯이 스스로를 죽이는 사람과 같지 않은가?

그러나 아바쿰은 자신의 이단적인 사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한다:

각자 별도의 자리에 계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 세 하늘의 왕들이 숨지 않고 앉아 계신다.

정통 신자들 중 누가, 마치 하늘에서 성부께서 따로, 성자께서 따로, 성령께서 따로 앉아 계신 것처럼 말하는, 그 유명한 분열주의 교사 아바쿰의 이러한 미친 가르침을 비웃지 않겠는가? 신성의 일치 안에서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다스리고 계시지 않는가?

알려진 바와 같이, 아바쿰은 사제 시절 성대한 사순절 기간 동안 성 테오도르 스투디토스가 지은 '사순절 삼부경'을 읽지 않았거나, 읽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책에서 사순절 첫째 주일, 이단자들을 저주하는 카논의 9번째 찬송에서 삼위일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을 찬양하노니, 세 위격 안에서 하나된 본질을 지닌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시며, 위격은 구분되나 통치권은 하나이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라." 이 성 테오도르 스투디트는 온 정교회와 함께 삼위일체를 삼왕적(三王的)이 아니라 단일 통치자로 고백하는 반면, 아바쿰은 단일 통치자가 아니라 삼왕적이라고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성 삼위일체에 대한 이러한 미친 사상이, 마치 그 분열주의적 사상과 같았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들이 성 삼위일체를 모독하기 위해 새로 고안해 낸 것이다.

그들의 분열주의적 신앙은 옛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이며, 새로운 이단을 만들어내는 자이기 때문이다.

오, 미친 아바쿰아! 네 집안에서 도끼로 장작 세 개를 찍어내야 했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 농부 같은 사고방식으로 삼위일체의 동질을 세 개로 잘라내려 하다니.

가장 숙련된 신학자들조차, 수년 동안 신학 교육을 받은 자들이라도, 신성에 대해 논할 때는 두려움을 품고 말한다. 그러나 너는 신학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신학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감히 그 거만한 입을 벌려 신성에 대해 교리를 정립하려 했다. 비록 신학자인 척하려 했으나, 너는 허튼소리를 늘어놓는 자이자 이단자이며, 성 삼위일체를 모독하는 자로 드러났다. 너는『마가리타』에서 성 요한 황금입이 '알 수 없는 분'에 대해 한 말씀을 읽어보았어야 했고, 거기서 침묵으로 지극히 거룩하고 동질적인 삼위일체를 경배하는 것이, 그분에 대해 무분별한 장황한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배웠어야 했다.

다시 아바쿰이 말하길:

그리스도께서는 별도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성 삼위일체와 동등하게 통치하신다.

하늘이여, 들으시고 땅에 새기소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이단: 그리스도는 성 삼위일체와 별개라는 것이다. 이제 분열주의자들에게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사위일체가 되어버렸다. 곧,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네 번째 인격인 그리스도이다. 어디서 이런 믿음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러시아에 언제 이런 믿음이 있었는가? 이 이단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따로, 그리스도는 따로, 그리하여 (그들의 미신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 두 아들이 생겨나 사위일체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참된 믿음인가? 옛 믿음인가? 블라디미르가 그리스인들에게서 가져온 것인가? 그것이 정통 고백인가? 경건한 기독교인가? 이것이 옛 거룩한 믿음에 반하고, 하나님께 혐오스럽고, 마귀에게는 기쁨이 되는 파멸적인 이단이 아닌가?

아, 지극한 광기와 오류여! 어찌하여 너희, 저주받은 분열주의자들은, 그토록 사악한 이단들을 스스로 새로 만들어 받아들이고도, 감히 너희의 믿음을 '옛 믿음'이라 칭할 수 있느냐? 결코, 진실로 결코, 너희의 믿음은 옛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이단들로 가득 찬 새로운 믿음이다.

제*18*장.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하여. 아바쿰의 신앙

나 아바쿰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믿노니, 그 본성은 변함없으나,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자신을 동정녀의 태중에 부어 주셨으니, 이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힘, 곧 완전한 은총이라. 이는 하나님의 뜻에 힘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사 말로 다 할 수 없이 자신을 부어 주셨으나, 그 본체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느니라.

어찌 이토록 어리석은 농부의 망상인가! 그가 스스로 무슨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는지 알았을까? 그의 이 말들이 어둠과 안개, 암흑, 그리고 그 자체로 헛소리 그 자체가 아니겠는가?

먼저 그는 아들의 속성이 불변적이라고 말하지만, 아들의 속성이 무엇인지 말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또한 그 속성을 실체라고 부르지만, 성삼위일체 안에는 각 위격마다 고유하고 구분된 속성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마치 성 미트로판이 삼위일체 찬송가에서 고백하듯이, 이렇게 말하노라: 우리는 신성의 형상이 하나임을 선포하노니, 세 위격적이고 분리된 속성, 곧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70] :

아버지의 속성은 아들을 낳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다.

아들의 속성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시는 것이요, 자신으로부터 다른 아들을 낳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속성은 유일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지닌 속성입니다.

반면 신성의 실체는 세 위격에게 공통되며, 하나이고 분리될 수 없다.

---

[70] 제3성가, 제7곡, 2절, 주일, 자정 기도 때

또한 (하박국)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동정녀의 태중에 자신을 부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 속한 힘을 부어 넣으셨다고 한다. 그리고 그 힘을 완전한 존재의 은총으로 해석하며, 아들의 신성한 본성 자체는 마치 하늘에서 결코 내려올 수 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의 사상에 따라 두 아들이 생겨났으니, 하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계시고, 다른 하나는 동정녀의 태중에 성육신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계신 그 아들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의 이단적인 고백은 다른 가장 명료한 말들로 다음과 같이 드러납니다:

나는 동정녀의 태중에서 신성의 능력을 고백할 뿐,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나온 신성한 존재 그 자체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섭리를 고백한다.

그리고 다시 같은 주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그분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온전히 지극히 순결한 동정녀 안에 계셨으니, 온전히 선하심으로 굳건하시나, 본체로는 온전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분리될 수 없이 함께 계셨다. 여기까지가 아바쿰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설명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사색하도록 가르쳤는데, 그중 한 사람인 에로페이 안드레예프는 자신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자비는 물론 섭리로서 성육신하셨으나, 본체는 예외이다.

아바쿰과 그의 제자들은 새로운 네스토리우스와 다름없도다! 이 악명 높은 교사는 해로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네스토리우스의 방식대로 가르치니,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태중에 직접 성육신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의 능력이나 은혜만을 그곳에 부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 능력이나 은혜가 마치 처녀의 태중에 성육신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처럼.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아바쿠모의 이단적 주장과 네스토리우스의 악의적인 왜곡에 따르면) 성모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를 낳은 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녀가 (그들이 거짓으로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낳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어떤 힘이나 은총만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정통 신자들은 이 이단을 마음속으로조차 생각해서는 안 되나니, 우리는 지극히 순결한 동정녀가 참된 성모이시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로고스)을 낳으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노라. 이는 제3차 에페소스 공의회에서, 악명 높은 네스토리우스를 심판하기 위해 모인 성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와 같다. 또한 성 요한 다마스쿠스는 『신앙에 관하여』 제4권 15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주권적으로 그리고 진실로 성모이시며, 그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71] ." 또한 성 미트로판, 즉 캐논의 저자는 주간 자정 기도회의 삼위일체 캐논 제3음조, 제5곡인 성모송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대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존재와 뜻이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태어나셨도다."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과 함께 동정녀의 태중에서 그리스도의 한 인격으로 결합되었으며, 바로 그 순간부터, 곧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그 순간부터, 온전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이 되셨고,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이 되셨으니, 본질이 서로 다른 두 존재이시면서도 단일한 인격 안에서 분리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한 본성으로 동정녀의 태중에 성육신하셨으나,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으셨으니, 아바쿰이 제자들과 함께 추론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한 본성으로 동정녀의 태중에 내려오셨다면, 이미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단절되었을 것이라는 생각과는 다르다. 신적 본질이 분리될 수 없음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이여!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에서 자신의 위격으로 계셨을지라도,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신성과는 분리되지 않았으며, 동시에 한 순간에 음부에서 영혼과 함께 계시고, 낙원에서 강도와 함께 계셨으며, 보좌 위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마치 동정녀의 태중에 계실 때에도 아버지께로부터 떠나지 않으셨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도 아버지께로부터 떠나지 않으셨듯이, 거룩한 교회도 승천 축일 대저녁 예배의 찬송에서 '슬라브니크'를 통해

[71] 같은 곳 아래.

다음과 같이 선포하노니: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지 마소서, 가장 달콤하신 예수여,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실 때에도.” 또한 제7음조의 이르모스 중 제4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마소서,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도 성 필립보에게 *“주님, 아버지께 보여 주소서”*라는 간구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지 아니하느냐?*[72]*”* 보라, 오 브리냐네여!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신성한 본성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태중에 성육신하셨으며, 그분 자신 외에는 다른 누구도 그리스도로 보내어 성육신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모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되신 하나님을 성육신시키시고 낳으신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 마리아이십니다. 그러므로 네스토리우스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바쿰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과 뜻을 같이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을 모독하는 자들과 참된 하나님의 어머니의 성육신을 모독하는 자들 모두 함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들으라, 정통 신자들아, 이 분열주의자들이 어떤 스승을 두고 있는지, 그로부터 그들의 다른 스승들도 비롯되었느니라. 그들은 아리우스의 동조자이자 성 삼위일체를 모독하는 아바쿰을 스승으로 삼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육신을 모독하는 네스토리우스의 동조자를 스승으로 삼고 있느니라. 삼위일체이신 신성한 본체를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 분과 네 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순결한 동정녀의 태중에 참으로 성육신하셨음을 고백하지 않고, 단지 그분께서 그분에게 자신의 은총을 보내셨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과연 옛 믿음입니까? 설마 그들이 네스토리우스의 옛 이단을 되살려낸 것 때문에, 그들의 분열적인 신앙이 ‘옛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제*19*장. 그리스도의 지옥 강림에 대하여

그 이단 교사 아바쿰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영혼은 십자가에서 하늘로 아버지께로 올라갔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육신을 지니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한다.

오, 정통 신자들아, 그 미친 교사가 무슨 헛소리를 지껄이는지 들어보라. 그는 프로토포프였으나, 빛나는 부활절 예배 때 성서를 읽지 않았거나, 읽었더라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이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육신으로는 무덤에, 그러나 영혼으로는 하나님으로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옥 강림에 관한 정통 성스러운 옛 신앙의 고백이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무덤에 누워 계셨으나, 그 지극히 거룩한 영혼으로, 신성의 권능을 지니고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성스러운 조상들의 영혼을 이끌어 올리셨다. 그리고 성 요한 다마스쿠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성화된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으로 내려가, 마치 땅 위에 있는 의인들에게 해가 빛나듯이, 땅 아래 어둠과 그늘 속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도 빛이 비추리[73].” 여기까지가 다마스쿠스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혼은 육신에서 벗어나자마자 곧바로 지옥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성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바쿰은 그리스도의 영혼이 육신에서 먼저 아버지께로 가신 후, 다시 아버지께로부터 육신으로 돌아와 그것을 소생시키시며,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육신을 지니고 지옥으로 내려가신다고 말합니다. 아바쿰과 그의 제자들인 브리냐인들의 믿음은 옛 믿음이 아니라, 옛 거룩한 믿음에 반하는 새로운 믿음이다.

여기서 다시 브리냐인들에게 말하노니:

오, 브리냐인들아, 만일 너희가 새로운 책들에서 어떤 옛 문구가 변경된 것(그 변경이 거룩한 신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문헌상의 수정일 뿐인)을 큰 죄로 여긴다면, 스스로 판단해 보라. 과연 어떤 죄가 더

---

[72] 요한복음 14:8, 9, 10.

[73] 『신앙에 관하여』 제3권, 제29장

큰가? 어떤 문구를 수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의 교리를 훼손하는 것인지? 그리고 신앙을 더 심하게 왜곡하는 것은, 어떤 문구 하나를 수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단적인 네스토리우스의 교리로 여기는 그 교리 주장인지? 모스크바에서는 새로 교정된 책들에서 교정이 필요했던 어떤 오래된 문구들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새로 교정된 책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옛 정통 신앙을 배척하고, 스스로 신성모독적인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 냈습니다. 과연 누가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교정된 성경인가, 아니면 정통 신앙의 교리를 배척한 자인가? 그리고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까? 옛 성경으로입니까, 아니면 신앙으로입니까? 만약 성경이라면 신앙은 필요 없겠고, 만약 신앙이라면 왜 옛 정통 신앙을 버리셨습니까? 무엇이 더 높은 것입니까? 옛 성경입니까, 아니면 옛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마치 옛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러분의 신앙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 신앙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브리네키 숲에 있는 은둔자의 수만큼이나 많은 신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제*20*장. 브린스키 은둔자들의 이름에 대하여

지난 1708년 11월, 로스토프에 발라혼스키 우예즈드의 스파스카야 로예프스카야 수도원을 세운 흑복 사제 요아사프가 찾아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작은 수첩을 주었다. 그 안에는 ‘ ’라는 분열주의자들에 대한 반박문이 적혀 있었으나, 그 글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다. 그 글에 언급된 브린스키 스키토들의 이름은, 기록된 대로 다음과 같이 여기 기록합니다:

브린스키 스키토들의 이름:
그리스도파, 혹은 더 정확히 말해 적그리스도파.
성상파괴주의.
사제주의.
사제 없는 파.
감각주의자들.
비뚤어진 해석파.
아누프리파.
예프로시노프파.
요시포프파.
칼리노프파.
키프레야노프파.
일라리오노프 지역.
세라피오노프 지역.
코즈민 지역.
볼로사토프 지역.
이사코프 지역.
스테파노프파.
아브바쿠모프 지역.
소지가텔리.
모렐파.

그 밖에도 스승들의 이름을 따서 불리는 여러 파들이 있는데, 이 저주받을 미혹자들은 서로 불화하며, 서로를 혐오하고, 함께 술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며, 기도도 하지 않고, 서로를 이단자라고 비난한다. 여기까지가 브린 지역의 그 은둔처들에 대한 이름과 불화 사항에 관한 기록이다.

그러나 현재인 1709년 3월, 대사순절 첫 번째 주간에 우리 곁에 브린스키 숲에 머물며 살았던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중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이들이 있었다: 야로슬라블 출신의 표트르 예르밀로프, 그리고 페레슬라블-잘레스키의 보리소글레브스키 수도원의 장로 안드로닉; 그 뒤를 이어 파호미이 장로가 있었는데, 그는 어린 시절 포셰혼스키 우예즈드에서 그 숲으로 데려와져 그곳에서 자랐으며, 이곳에서 진정한 세례를 받은 후 이단자들로부터 두 번이나 재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앞서 언급된 브린의 스키트들에 대해, 과연 사실인지 물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지금은 모든 스키트가 그 이름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스키트 수장들은 세상을 떠났고, 어떤 이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했으며, 많은 이들이 폴란드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어떤 지역에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많은 이들이 정착했고, 이곳에는 그들을 대신해 다른 이들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브린 숲에 있는 스키타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는 대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이곳을 '그리스도파'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어떤 남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를 마치 참된 그리스도인 양 숭배하기 때문이다.

이콘파는 모든 성화상, 즉 옛것과 새로운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배척한다.

'포포프파'는 도망친 사제들을 받아들이며, 옛 경전에 따라 특정 교회 성사를 거행한다.

무사제파는 모든 성사를 완전히 배척하며, 어떤 사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감각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육신으로 왔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분명히 밝히지는 않는다.

'비뚤어진 해석파'. 이들의 모든 은둔처는 분파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모두 신성한 성경을 비뚤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아누프리파도 있으며, 아바쿠모프파도 있다. 이는 어떤 아바쿠모프라는 프로토포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도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세라피온파도 있고, 모렐파도 있는데, 이들은 (마치 그리스도를 위해라도 하는 것처럼) 굶주림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러나 세라피온 자신은 이미 죽었으나, 그의 가르침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볼로사토파도 있고, '소각파'도 있는데, 이들은 마치 그리스도를 위해라는 명목으로 많은 이들을 자해로 불태우도록 부추기며, 불에 타 죽은 이들의 남은 유품을 자신들이 챙긴다.

일라리오노프파. 그 수도원에서는 성직 서품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제 역할을 하며, 성찬식과 성유는 니콘 총대주교 이전에 성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페도시예프파. 이들은 합법적인 결혼을 혐오하며, 결혼을 음행이라 칭한다. 사제제를 비방하지만, 무사제주의에는 가담하지 않는다.

요시포프파는 사제들을 자신들만의 일종의 농민식 서열에 따라 재배치한다.

예프레모프파는 네 갈래 십자가를 혐오하지는 않지만, 그 외의 모든 교회 의식을 비방한다.

야코프파. 그곳의 우두머리는 야코프로, 별명은 주보프이다. 다른 분파들처럼 네 갈래 십자가를 배척하지만, 같은 방에서 수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다른 은둔처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

안식일파, 즉 유대인 방식대로 안식일에 금식하는 자들이다.

또한 그 숲들에는 크고 작은, 남성용과 여성용의 수많은 은둔처가 있다고 전해지며, 그곳의 신앙은 제각각이고 그들의 행실은 기이하다. 이 중 일부는 이 책의 세 번째 부분에서 다루어지는데, 그곳에서는 분파적이며 성스러운 교회에 반하는 행위들이 그들의 오류를 폭로하기 위해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는 단지 이 점만 언급되고 있는데, 곧 그들의 모든 은둔처가 각자의 신앙으로 인해 서로 일치하지 않으나, 오직 한 가지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거룩한 성사, 그리고 우리 정통 신자들을 한목소리로 비방한다는 것이다. 마치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원수지간이었으나[74] , 그리스

[74] 누가복음 23장 12절

도를 죽일 때가 되자 둘이 힘을 합쳤던 것처럼, 브리냐인들도 자신들의 신앙에서 일치하지 못해 서로 적대적이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방하는 데에는 힘을 합치며, 악의에 찬 마음에서 우러나와 마치 한 입으로 말하는 듯, 귀로 들을 수 없을 만큼 잔혹한 비방을 쏟아낸다.

그들의 이 모든 상반된 신앙들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신앙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브린스카 사막은 그 신앙들로 인해, 마치 전설 속의 괴물이나 공포의 대상, 불처럼—그에 대해 전해지는 바와 같이—콧구멍에서 불을 뿜어내는 존재가 아니겠는가? 그 머리는 사자의 머리이고, 가슴은 염소의 가슴이며, 배는 염소의 배이고, 꼬리는 뱀의 꼬리인[75] ? 브린스카 사막은 마치 불처럼 그 악의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숨을 내뿜고, 마치 사자처럼 모독의 포효를 내지르며, 마치 염소처럼 스스로를 황폐하게 하고, 목자 없이, 무법하게 방종하고 있으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뱀처럼, 그 뿔로 하늘 별들의 삼분의 일을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땅에 내던질 것이니[76] : 이와 같이 브린의 광야는 뱀과 같은 꼬리, 즉 뱀과 같은 성품의 교사들을 도시와 마을로 보내어, 정교회 하늘에서 별들처럼 빛나는 정통 신자들의 영혼을 떼어내어, 그들을 자신의 심연으로 내던진다. 브린의 신앙은 없으며, 옛 신앙도 없으니, 오직 새로운 신앙, 새로운 환상일 뿐이다.

제*21*장. 교회의 전승에 관하여

교회 전승에 따른 옛 신앙의 고찰.

처음부터 복음서와 사도서,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 보편 공의회의 교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전승을 통해 거룩한 신앙이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으로 정해졌다. 이는 성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 너희가 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음이라*"*[77] 고 말한 것과, 데살로니가인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이나 우리의 편지로 배운 전통을 지키라*"*[78] 고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로부터 (사도들이) 모든 것을 서신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글 없이도 전했음이 분명하다[79] ; 그러나 그와 이 모두는 신뢰할 만하다. 그러므로 교회의 전통도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지니,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전승이 있으니, 그 이상으로 무엇을 더 찾겠는가.

전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앙의 교리에 속하는 것으로, 일곱 성사와 하나님의 성소를 경건하게 공경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교회의 예식과 의례( )에 관한 것으로, 축일 기념, 금식 준수, 고인들을 기리는 일, 그리고 그 밖의 교회 의식과 규약들에 관한 것으로, 비록 이것들이 성복음서나 사도서신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이것들은 교회의 전승이며,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올바른 신앙을 나타내는 분명한 표징이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즈라토우스토의 권고에 따라 이를 지켜야 마땅하니, "전승이 있으니, 그 이상은 찾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는 성 블라디미르가 그리스에서 러시아로 어떤 전승과 함께 거룩한 신앙을 가져왔는지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블라디미르가 신앙과 함께 가져온 그 전승을 지키는 자에게는 옛 신앙이 있는 것이요,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옛 신앙을 갖지 못한 채 스스로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 낸 것이다.

러시아에 신앙이 시작된 이래, 우리 러시아 정교회는 모든 교회 성사를 예로부터 정해진 규율과 의식에 따라 온전하고 흔들림 없이 지켜왔으며, 이는 블라디미르가 신앙과 함께 러시아로 가져온 바와 같다. 이는 곧 우리의 신앙이 옛 신앙이기 때문이다.

---

[75] 게스네르의『오노마스티콘』

[76] 요한계시록 12장 4절

[77] 고린도전서 11

[78] 데살로니가후서 2:15.

[79] 대담 4

그러나 브리냐인들은 교회의 성사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경멸한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 옛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신앙이기 때문이다.

브리냐네 사람들이 성스러운 성사를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다.

교회 의식에 따라 행해지는 성세례는 그들에게 없다.

세례 때 행해지는 미로포마자니(성유례)도 없다.

성체성사, 즉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를 영하는 예식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 가운데 사제직도 없다.

고해 성사와 죄 사함의 예식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 가운데 정당한 결혼도 없으니, 이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하기 때문이며, 설령 결혼식을 올린다 해도 올바르지 않게, 즉 성직자로 자칭할 뿐 성직 서품을 받지 않은 자나, 추방되어 금지된 자들에 의해 거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니콜라이파 이단을 부활시켜, 여러 아내를 두는 관습을 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3부에서 다루고 있다.

성유 예식 또한 그곳에는 없다.

그러나 예로부터 거룩한 교회에 의해 지켜져 온 모든 성사들과, 신앙과 함께 블라디미르에 의해 러시아로 전해진 것들이 브리냐인들은 이를 거부하였으니, 그들은 옛 신앙마저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신앙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교회의 모든 옛 전통을 거부하고, 자신들 안에 옛 신앙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으면서도,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을 '옛 신앙'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러시아에 신앙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거룩한 전례가 거행되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제사와 헌물이 드려져 왔다.

브리냐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옛 신앙조차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신앙이 시작된 이래로 옛 성상과 새로운 성상은 동등하게 숭배되었으니, 당시 러시아 땅은 그리스인들로부터 전해진 성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스스로 새로운 성상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브리냐인들은 오직 옛 성화상만을 숭배하고, 새로운 성화상은 배척한다. 이는 그들에게 옛 러시아의 신앙이 없고, 어떤 새로운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신앙이 시작된 이래로, 네 갈래 십자가와 여덟 갈래 십자가는 동등하게 숭배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바로 헤르손의 블라디미르가 가져온 네 갈래 십자가로, 오늘날까지도 모스크바의 대성당 제단 뒤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브리냐인들은 오직 여덟 갈래 십자가만을 받아들이고, 네 갈래 십자가는 배척한다. 이는 그들에게 옛 러시아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제*22*장. 성서에 대한 숭배에 관하여

러시아에서 신앙이 시작된 이래로, 교회 전통에 따라 주일 아침 예배 때 주일 복음서를 낭독한 후 제단에서 신도들에게 가져와, 사람들이 경배하고 입맞춤하도록 하는 관습이 전해져 왔다.

그러나 브리냐인들은 거룩한 복음서에 경배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는 그들에게 옛 러시아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브리냐네 사람들이 거룩한 복음서에 경배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사실은, 아바쿠모프의 제자 예로페이 안드레예프와 그의 동료들이 쓴 편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들은 다음과 같이 썼다. "복음서, 즉 잉크로 쓰인 글에 경배하는 것은 타타르족의 관습이다."

정통 신자들아, 그 분열주의자이자 미친 현자의 말을 들어보라. 비웃음을 살 만한 말이다. 성스러운 복음서에 절을 하는 것이 타타르의 관습이라고 말하고 있다. 타타르의 신앙에 복음서가 있었던 적이 있단 말인가? 그들이 그 복음서에 절을 했다는 말인가? 그 이단자가 거짓말을 하고 헛소리를 지껄이며, 마치 우리가 복음서가 적힌 잉크에 절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가? 그러나, 오 저주받

을 이단자여, 온전한 이성과 바른 신앙을 상실한 자여! 정통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복음서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아느냐? 모른다면, 잘 들어라:

우리가 거룩한 복음서에 절을 할 때, 물질에 절하는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으로 장식된 판에 절하는 것도 아니요, 종이에 절하는 것도 아니요, 먹에 절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절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화상에 절할 때, 나무판이나 흙, 그림, 물질 자체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모습을 묘사한 것에 절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절할 때, 물질 자체나 나무, 혹은 어떤 재질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네 갈래 끝을 보지도 않고, 여덟 갈래 끝을 보지도 않으며, 어떤 십자가를 보더라도 주님의 수난을 떠올리고, 주님의 수난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복음서에 경배할 때, 우리는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너희, 저주받을 브리냐인들아, 거룩한 복음에 대한 숭배를 배척함으로써, 성스러운 교회가 예로부터 기꺼이 숭배해 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숭배마저 배척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고대의 교회적 경건한 관습을 배척하고 있으니, 너희 안에는 고대의 러시아 신앙이 없고, 오직 어떤 새로운 신앙만이 있을 뿐이다.

제*23*장. 성직 서품을 받지 않은 자들이 성스러운 예식을 행하는 것에 관하여

러시아에서 신앙이 시작된 이래로,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스러운 예식을 집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직 서품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성스러운 예식을 집전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에 손대기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열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성직 서품을 받지 않은 남자와 여자들이 성스러운 의식을 집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교구 내 일부 지역에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어느 한 도시(도시 이름은 밝히지 않겠다)에서 한 성직 서품을 받지 않은 남자, 글은 읽을 줄 아는 자가 스스로 사제라고 칭하며, 분파주의자들의 집 지하에 오랫동안 숨어 지내며, 성직 서품을 받지 않은 채로 성찬식을 집전하고, 은밀히 분파주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며, 그들에게 모든 성사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서품받지 않은 남자가 행하는 그곳의 예식은 과연 어떤 것이며, 그 힘은 무엇이며, 그 성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로스토프에서는, 고(故) 이오나 대주교(로스토프 대교구장, 복된 기억을 간직한 분)의 재임 시절, 도시에서 멀지 않은 호수 건너편 어느 마을에서, 분파주의자들과 이단자들의 무리에서 온 한 처녀가 한 농부의 지하실에 숨어 지내며, 어떤 이단적인 미사를 비밀리에 집전하며, 사람들에게 고해성사를 듣고 성체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는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제들에게까지 미쳤으니, 어떤 미친 사제들이 그녀에게 비밀리에 고해성사를 받으러 오기도 했고, 그녀의 손에서 불경스러운 성체를 받아 먹기도 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극도의 광기라! 그곳의 예배는 어떠한가? 성찬은 어떠한가? 죄의 사함은 어떠한가? 여성이 집전하는 그 밖의 모든 성사의 행위는 어떠한가? 이것이 과연 옛 신앙인가? 러시아의 성스러운 선조들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분열주의적 신앙은 옛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이며, 오히려 미신일 뿐 신앙이 아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성별된 사제들도 있지만, 직분이 없고 도망친 자들로서, 어떤 죄로 인해 자신의 주교들에게서 사제직에서 파문당했거나, 스스로 경건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며, 이들은 브린 지역의 거처에서 어떤 성사를 집전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이하게 여겨지니, 브리냐 사람들은 새로 인쇄된 책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새로 임명된 사제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책들은 혐오하면서도 새로운 사제들은 사랑하는 것이다. 만약 새로운 책들을 배척한다면, 오 브리냐 사람들아, 너희는 새로 임명된 사제들도 배척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새로 임명된 사제들을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책들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24*장. 아바쿠모프의 복음서에 관하여

러시아에서 신앙이 시작된 이래로, 성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성서 저자가 기록한 그리스도의 복음서만이 받아들여져 왔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서 외에는 지금까지 다른 복음서가 존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브리냔에서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아바쿠모의 새로운 복음서가 발견되었으니: 아바쿰은 거짓 교사로, 분열주의자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자로서, 이단적인 사상으로 가득 찬 자신의 책을 저술하고, 그것을 '영원한 복음'이라 명명하며, "이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들에게는 옛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아바쿠모의 새로운 복음이 발견되었으니, 이로 인해 그들의 믿음도 옛 믿음이 아닌 새로운 믿음이 되어 버렸다.

그 새로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사탄의 복음사가가 자신의 복음서에 정확히 무엇을 썼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 바로 그 책 자체를 아직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서신 사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가 쓴 것은 오직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신의 악의적이고 이단적인 사색에 따라 성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대한 모독,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모독적인 비방뿐이었다.

제*25*장. 디아코노 페드카에 대하여

그의 편지 사본에서 또 다른 내용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아바쿰은 자신의 제자인 디아코노 페도르에게 성 삼위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페드카, 이 페드카야! 네 생각에는 한 무더기, 한 얼굴, 한 형상뿐이구나. 오, 창녀의 아들아, 사나운 개야, 어리석은 바보야! 책에서 그 힘을 알지 못한다면, 시골 할머니에게 물어보아라: '여왕님, 성 삼위일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삼위일체가 무엇이냐고요.' 그러면 그녀가 네게 대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페드카야, 이마를 땅에 대고 그 시골 할머니에게 절을 하라, 창녀의 자식아. 나 같은 죄인에게도 그 노파가 얼마나 훌륭하게 대답했는지 참으로 놀랍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본체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라. 그러면 그녀가 네게 대답해 줄 것이다."

들으시오, 정통 신자들아, 그 분열주의자이자 거짓 복음 전도자의 말이 얼마나 훌륭한지, 잘 활용해 보시오. 그의 그 말들이 비웃음을 살 만하지 않은가? 어떻게 그가 글을 쓰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단 말인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분열주의자들이 그의 그 헛소리를 마치 복음서인 양 숭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리스도의 복음서들,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말들이 과연 그런 식인가? 오, 농부의 정신이여!

제*26*장. 아바쿠모의 아타만직에 대하여

그리고 또 그 거짓 복음서 저자는 자신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헛소리를 늘어놓는다:

"언젠가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면, 그때 주님께서 나를 아타만으로 삼으실 것이다."

그 헛된 성직자의 헛소리는 참으로 비웃음을 살 만하다! 성인들의 계급 중에 아타만 계급을 들어본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선지자의 계급, 사도의 계급, 순교자의 계급, 성인의 계급, 경건한 이들의 계급을 듣는다! 그리고 그 밖의 성인들의 계급들: 그러나 성인들 사이에서 아타만 계급은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

아바쿰이라는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그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 냈으니, 그들의 신앙은 옛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다.

제*27*장. 아바쿰의 환상에 관하여

바로 그 거짓 복음 전도자이자 분열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 아바쿰은 자신의 미친 가르침을, 자신에게 닥친 어떤 기적적인 환상을 통해 확증하고 있는데, 그 환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대순교 기간 동안 14일 동안 금식하니, 내 몸과 팔, 다리, 이빨이 거대해져 온 하늘에 퍼져 나갔고, 그 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내 안에 담아 두셨다."

오, 기이한 환상이여! 오, 참으로 위대한 기적 행자여! 하늘과 땅, 그리고 온 피조물을 먹어 치우고, 자신의 목구멍으로 삼켜 배 속에 담아 두었도다! 14일간의 금식 끝에 그는 몹시 굶주렸나니, 돌뿐만 아니라 온 땅과 하늘, 그리고 온 피조물까지 먹어 치우고자 했도다. 어떻게 그의 뱃속이 터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놀랍게도 제자들을 먹어치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는 그가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영혼을 삼켜 버리고, 지옥의 심연으로 내던져 버렸다고 생각한다.

그 거짓 기적의 창조자는 거대한 거인이 되었으니; 그가 예전에 성 안토니우스 대성인이 목격했던 그 거인의 친형제가 아니었을까? 성 안토니우스 대성인은 이에 대해 직접 이렇게 증언한다. "때때로 악마가 수도원 문으로 엿보곤 했는데, 내가 나가 보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한 사람이 머리를 하늘까지 뻗고 서 있었다. 내가 그에게 '너는 누구냐?'고 묻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사탄이다[80] .'

그러나 아바쿰은 그 사탄보다 더 컸으니, 온 하늘에 퍼져 나갔고, 온 피조물을 자신의 배 속에 다 담았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기적 행자는 이단자이다. 고대 기적 행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자를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으니, 그들의 믿음 또한 옛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제*28*장. 아케팔리트들에 대하여

만약 분파적인 신앙을 옛 신앙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들이 옛 이단을 되살렸기 때문에 '옛'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모독하는 네스토리우스의 이단을 부활시켰으니, 이는 앞서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다. 또한 그들은 '머리 없는' 세비루스에게서 비롯된 아케팔리파의 이단을 부활시켰는데, 이에 대해서는 8월 30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성 요한 카파도키우스의 행전[81] 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저주받은 세비르로부터 아케팔리토스, 즉 '머리 없는 자들'이라 불리는 이단 교리가 비롯되었는데, 이들은 정통 주교들의 통치 아래, 마치 머리가 다른 지체들을 다스리듯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 오히려 그들은 미친 자신의 '머리'의 사고방식에 따라 스스로를 지도자이자 스승으로 자처했으며, 이단적인 주교와 장로들의 통치 아래 있었기에, 그들 가운데는 관례적인 교회 의식에 따른 세례나 신성한 성찬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준비되고 지켜져 온 그리스도의 몸인 어린 양을 성찬으로 삼았는데, 성대한 부활절에 모여 그것을 아주 작은 조각들로 쪼개곤 했다. 그리고 그때 각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된 믿음을 만들어 내고, 제멋대로 가르침의 권위를 행사하며, 자신의 허황된 생각대로 다른 이들을 가르쳤고, 그들 중 많은 이로부터 또 다른 이단들이 파생되었는데, 그중 하나는 '친구들의 반대파'였으며, 이에 대해 그리스 정교회 역사학자 니키포로스 칼리스토스는 그의 저서 제18권 제45장에서 기록하고 있다.

들으시고 귀 기울이소서, 정교회를 따르는 백성들이여! 브린파의 분열주의적 신앙이 그 무모한 이단과 닮지 않았는가? 참으로 닮았을 뿐만 아니라, 실로 바로 그 자체이다; 그들은 교회도, 사제도, 신성한 전례도, 성찬식도, 교회 의식에 따른 세례도 없으며, 정통 주교들에게 복종하지도 않고, 마치 고대의 아케팔리테스처럼 완전히 지도자 없는 무리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고대의 이단들이 부활한 것이니, 그들의 신앙은 정통 신앙이 아니라 옛 이단적 신앙이라 불릴 수 있겠다.

자, 사랑하는 정통 신자들아, 그리스도의 참된 양 떼여,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교회의 진실한 자녀들이여! 우리는 건전한 이성으로 브린 정원의 첫 열매인 그들의 악한 믿음을 꺾어 버렸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음 두 가지를 밝혀 냈으니:

그들의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과연 옛 신앙인가?

---

[80] 1월 17일, 302쪽.

[81] 550쪽 뒷면.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 속에서, 마치 소돔의 붉은 꽃이 핀 사과 속에서처럼, 달콤한 맛이 아니라 악취 나는 흙과 재를 발견하였노라.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 비뚤어진 믿음이며, 그들의 믿음은 옛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이라.

제*29*장. 관습에 얽매인 분열적인 믿음

믿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올바르고 참된 믿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매우 단순한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풍속과 관습이 단지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악한 행위들조차 믿음이라고 칭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평범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왜 너희 가운데서 도둑질하고, 훔치고, 강도질을 하는가?" 그는 대답하리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왜 끝없이 술을 마시고, 취하고, 욕설을 퍼붓고, 다투고, 싸우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왜 여러분 가운데서 수많은 불의가 자행되고, 서로 속이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서로를 비방하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왜 여러분 가운데서 추악하고 지독히 추악한 일들, 간음과 음행, 그리고 귀로 들을 수조차 없는 온갖 추행들이 자행되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오, 거룩한 신앙이여! 오, 위대하고 존귀한 신앙의 이름이여! 오, 오직 하나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는 신앙이여! 너는 어떻게 하여 평범한 백성들 사이에서 이토록 불명예에 이르렀는가? 그들은 너를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사물들에만 적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불법과 도둑질, 방탕, 불의, 그리고 추악한 생활 방식에도 적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과연 그러한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선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는가?

제*30*장. 정통 신앙의 바름

그러나 우리 정통 신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르침을 받아, 무엇이 믿음인지를 알고 있으며, 새로운 믿음이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경건한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전수하셨고, 거룩한 사도들이 온 세상에 전파하였으며, 그 믿음을 교회의 위대한 스승들이 가르쳤으며, 보편 공의회들이 확립하였고, 성 블라디미르가 그리스에서 러시아로 전해 왔으며, 그 믿음 안에서 교회의 위대한 등불이자 세상의 빛인 러시아의 성스러운 교부들과 기적 행자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성 삼위일체 안에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삼위 안에서 신적 본질을 분리하지도 않고, 인격을 혼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 안드레아 크리토스와 함께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분리될 수 없는 본질, 혼동될 수 없는 인격으로, 나는 삼위일체이시며 하나이신 신성을 신학적으로 찬양하노니, 이는 단일한 통치자이시며 동일한 보좌에 계신 분이시니[82] ."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대로 입으로도 고백하며, 날마다 거룩하고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를 찬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이 가장 거룩하시고,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생명을 주시고,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께, 항상,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노니, 그분은 자신의 신성한 위격 그대로 지극히 순결한 동정녀의 태중에 성육신하셨으나, 아버지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 우리는 아들을 두 아들로 나누지 않고, 동정녀의 태중에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곁에서도 동일하고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노니, 신성은 장소로 규정될 수 없기 때문이라.

우리는 지극히 순결한 동정녀를 참된 하나님의 어머니로 고백하며, 단순히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본질상 그분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낳으신 분으로,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

---

[82] 대캐논, 사순절 5주 목요일, 제4곡, 찬송.

과 실체를 지니시되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단일한 인격 안에서 분리되지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분리하지 않으며, 아바쿰과 그의 제자들이 행하듯이 그분을 성삼위 근처의 별도의 보좌에 앉히지도 않고, 성삼위를 네 분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하나이며 동일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의 본성에 따라, 인자의 아들은 인성의 본성에 따라, 그러나 두 아들이 아니라 한 분 아들이시니, 이는 교회도『옥토이히』제6성가에서 저녁 기도 때 교리적으로 노래하듯이, "두 인격으로 나뉘지 않으시나, 두 본성으로 분리되지 않고 인식되시나이다"라고 말하듯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믿음을 굳게 지키며, 어떠한 새로운 교리나 이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옹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안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성사들과 모든 예식 및 관례, 그리고 성부들의 전승과 규율에 따른 교회 관습들을 변함없이 굳건히 지키고 있으니, 이는 성 블라디미르 대공이 그리스에서 러시아로 가져온 대로,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대로 지키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다른 탐구에 착수할 때가 되었다.

제2부. 분파주의 교리에 관하여

분열주의적인 브린 정원의 첫 번째 열매를 검토하고, 그들의 비정통적인 신앙을 철저히 조사한 후, 이제 우리에게 시험할 또 다른 열매, 곧 또 다른 소돔의 사과와 같은 그들의 교리가 남아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해를 끼치는 자들로, 브린의 사탄적인 소굴에서 비롯되어, 도시와 마을 곳곳의 올바른 신앙자들 사이에, 마치 밀 한가운데의 가라지처럼 은밀히 퍼뜨리고 있다.

브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리가 영혼에 유익하다고 말한다.

그러니 이 조사에 다음과 같은 근거를 두어야 하리라:

거짓도, 이단도, 거룩한 것들에 대한 모독도 없는 교리야말로 영혼에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가르침에서 거짓과 이단, 그리고 성스러운 것에 대한 모독이 발견된다면, 그 가르침은 영혼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브린파의 분파적 교리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진정으로 조사해 보아야 한다*:*

1) 그들의 가르침에 거짓이 없는가*?*

2) 그들의 가르침에 이단이 없는가*?*

3) 그들의 가르침에 거룩한 것들에 대한 모독이 없는가*?*

제1조

제*1*장. 가르침은 거짓이 아닌 스승에게서 나와야 한다

거짓이 없는 가르침이란, 거짓이 아닌 참된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거짓이 없는 스승이란, 스스로 스승의 직분을 자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성령의 은혜로 세워져 설교를 위해 파송된 자를 말한다. 마치 사도 시대에 교사들이 성령에 의해 교회로부터 파송되었던 것처럼, 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곳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에게 섬기는 자들과 금식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부른 사역에 나를 위해 따로 세우라' 하셨다." 그때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 그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보내주었다. 이들은 성령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셀레우키아로 내려갔다[83]. 또한 15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예

루살렘 교회)가 한마음으로 모여,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 이들과 함께, 너희(안티오키아 교회)에게 선택된 사람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사자로 보냈으니, 그들도 같은 말을 전하는 자들이라. 이는 성령과 우리[83] 의 뜻에 따른 것이니, 그 외에 거기에 기록된 바와 같다.

성스러운 사도들에 이어, 주교들과 사제들, 그리고 성직 서품을 받은 교회 직분자들은 교사의 직분을 맡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선출과 성별을 통해 그 직분을 맡으므로, 성령의 뜻에 따라 그 직분을 맡게 됩니다.

이러한 교사들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이러한 교사들의 가르침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브린스키의 이단 교사들은 누구에게서 파견된 것입니까? 성령으로부터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들에게는 교회가 없다. 세례 때 미로파마즈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의 인장을,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인장이라 칭하며 거부하였고, 성령으로 완성되는 다른 성사들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성사를 갖지 못했으니, 성사에 임재하시는 성령도 갖지 못한 것이다. 성령을 갖지 못했으니, 그분으로부터 설교와 가르침을 위해 임명되거나 파송받지도 못한다. 성령과 거룩한 교회로부터 파송받지 않은 자들은 참된 교사들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며, 스스로 교사라는 직분을 가로챈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도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교사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다.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으나 그들이 나갔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예언하였다"[84] . 또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85]). 만일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까? 진실로 다른 누구에게서도 아닌, 거짓의 아버지이자 모든 불의의 근원인 사탄 자신에게서뿐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거짓의 영이니, 이는 옛날 성 선지자 미가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미혹하기 위해 말했던 바로 그 영입니다. 이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열왕기하 22장과 역대하 18장을 참조하라.

제2장. 가르침은 능숙한 스승에게서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하건대:

거짓이 없는 가르침이란, 신성한 성경에 정통하고 교사로서의 분별력으로 충만하며, 성경의 권위를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유능한 교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교사는 단순히 거룩하게 되어, 교회로부터 성령으로 교사 직분에 임명된 것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충분한 이성을 갖춘 자여야 마땅하니, 이는 예언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따른 것이다. "제사장의 입에서 지혜를 지키며,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라"[86] .

그러나 분열주의적 가르침은 그러한 분별력 있는 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사들은 교회로부터 성령으로 교사 직분에 임명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도 정통하지 못하고, 그 힘을 알지도 못하며, 올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는, 오히려 매우 무지한 평민들일 뿐이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알파벳조차 모르는 자들이다. 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자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반드시 침묵해야 마땅하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침묵할 것이요, 말하지 말라(이는 가르치는 것임), 오직 순종할 것이니라[87] ." 또한 "아내는 모든 복종 가운데 침묵하며 배우라. 나는 여자가 가

---

[83] 사도행전 15:25 이하.

[84] 예레미야 23:21.

[85] 로마서 10:15.

[86] 말라기 2:7.

[87] 고린도전서 14:31.

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88] .” 그러나 브린의 이단적인 신앙에서는 그 사도적 명령을 듣지 않고, 여자들이 교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가르침이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이다.

배움이 없는 평민에게는 다른 이들이 신앙의 교리에 대해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책도 없이 단순한 이성을 의지하며 참된 교사들을 경멸하는 자로서는 올바른 길을 걷는 것조차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이단과 분쟁, 분열이 생겨났으니, 무지한 자들이 감히 신앙에 대해 시험하고 가르치려 했기 때문이다. 성 아나스타시우스 니케아스와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 잘 말했듯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악이며, 마치 이성을 잃은 짐승과 같으니; 성경을 알지 못함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악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거기서 이단의 큰 해악이 싹트고, 거기서 부주의한 삶과 무익한 수고, 영혼의 맹목, 마귀의 유혹이 비롯되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맹인인 자들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신성한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 빛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넘어지게 된다[89] .

반면, 신성한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도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여기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며, 감히 가르치려 드는 자들도 있다. 그들 중에서 읽고 쓸 줄 아는 자들, 즉 마음속에 이해력의 작은 빛이 스쳐 지나간 자들은, 스스로를 위대한 신학자로 자처하며, 자신의 신앙에 있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스승이 되었다고 교만하게 자만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신학자이자 올바른 교사인 자들, 즉 젊은 시절부터 학문에 전념하여 신성한 성경의 비밀이 그들에게 드러나고, 완전한 이성의 빛이 비추는 자들을, 그들은 이단자라 부르며, 길을 잃은 자들이요, 참된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한다. 눈먼 자들은 보는 자들에게 “너희는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길을 잃은 자들은 참된 길을 걷는 자들에게 “너희는 잘못 걷고 있다”고 말하며,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을 괴롭히며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 그러나 부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많은 빛을 보겠습니까? 어두운 성전 틈새로 뜰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아니면 창문을 열어 빛을 바라보는 자입니까? 거룩한 믿음의 빛과 참된 경건의 바른 길을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단지 책을 읽을 줄만 알 뿐, 읽은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읽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해하고 신성한 성경의 심오함을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까? 학식이 없고 자칭 교사인 자가, 학식이 있고 스스로 교사를 자칭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세워진 자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겠는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문맹인 사도들을 모으셨으니, 그들은 단순하고 배운 바가 없었으며, 책이 아니라 어망에서 그들을 부르셨으나, 온 세상을 그들을 통해 깨우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자들을 모으셨을지라도, 학식 있는 자들을 사도로 삼으셨으며, 단순하고 무지한 자들을 당신께 부르셨을지라도, 지혜로운 신학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셨으니, 그들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이다[90] 는 마치 스승이 제자들을 모으듯이 그들을 모으시고, 3년 넘게 그들과 함께 다니며 가르치고 깨우쳐 주셨으며, 내가 그들을 충분히 가르치고 성경을 알게 한 후에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며, 낯선 언어로 말하도록 가르치신 뒤, 비로소 온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 오 브리냐의 무식한 교사들아, 책도 읽지 못하는 현자들아, 우리에게 말해보라. 너희는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걸었느냐? 언제 불 같은 혀로 성령을 받았느냐? 언제 사도들처럼 낯선 언어로 말하는 법을 배웠느냐? 사도들처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너희에게 열렸느냐? 그러니 부끄러워하라, 브린의 교사들아, 평범한 남자와 여자들이여, 교사라는 직분을 탐내는 자들아. 너희는 교사라기보다 제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며, 교회의 정통 교사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마땅할 뿐, 스스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거나 새로운 다양한 신앙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

[88] 디모데전서 2:11.

[89] 성 아나스타시오의 성서 주석 78; 성 요한 크리소스톰의 바울 서신 서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90] 누가복음 24:45.

제3장. 가르침은 스승에게서 나와야 하며, 삶은 흠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하건대:

올바른 가르침은 신성한 성경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생활이 흠이 없는 그런 교사에게서 나와야 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대로: "말과 , 생활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91] 로 모범이 되라." 이 두 가지 사도적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말과 생활로 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 교사의 사명이 분명히 드러나니, 교사는 무엇보다 먼저 말로는 지혜롭고, 생활로는 흠이 없으며 거룩해야 한다; 가르치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울리는 놋쇠나 울리는 심벌즈와 같으니라.

분파주의 교사들의 삶이 어떠한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니, 우리는 조사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인, 자칭 사도라 칭하는 자의 지혜와 행적은, 다른 이들이 기록한 바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대로, 여기서 언급하고자 한다.

왕도 모스크바의 인쇄소 내 서고에는『솔로베츠키 청원서에 대한 폭로』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소장되어 있는데, 이는 시베리아의 한 세르비아인 유리라는 자가 시베리아 주교 코르닐리 성하 재임 시절에 집필한 것이다. 그 소책자의 5장 말미에서, 유리라는 인물은 분파주의자이자 사도인 라자르 신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도시(토볼스크) 사람들은 라자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한때 그가 너무 취해 거리가 비좁게 느껴질 정도였고, 스스로 집까지 돌아갈 수 없을 때면 사람들이 그의 팔을 부축해 주곤 했다. 한때 라자르가 내 집에 손님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어떤 할머니에 관한 우화와 수수께끼를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어떤 할머니가 젊어지려고 길에서 게처럼 기어다녔다는 식의 이야기들이었다. 손님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사제로부터 그런 말을 듣게 되어 부끄러워했다. 그러자 그는 그 반응을 눈치채고는 나에게 말했다. "유리여! 어찌 된 일인지,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시작하지만, 세속적으로는 행하는가?" 그러자 나는 손님들이 떠난 뒤 그에게 이렇게 상기시켰다. "라자르 신부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얼마나 비참한지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면, 우리는, 내가 말하건대, 그토록 흠이 많고, 부끄러운 우화까지 지어내며, 술에 취해 거리를 돌아다니기에도 벅차다. 이는 사도들의 표징도 아니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교사들의 표징도 아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 가운데서(유리가 말하길) 나는 그에게 서방의 스승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말을 인용했다. "교회 밖에서, 분열 속에 있는 사람은 모든 거룩함을 가질 수 있으나, 오직 구원만은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라자르는 이에 반박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니콘과 그의 동조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비록 주교직과 모든 성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말이다." 내가 그에게 대답했다. "지극히 거룩하신 니콘은 교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부님, 당신은 스스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니,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씀이 당신에게 적용됩니다. 라자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솔로베츠의 신부님들(유리가 말하길), 제가 진심 어린 죄를 악의로 폭로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도 죄가 많은 자이기에, 진실한 이들의 숨은 죄를 드러내지도 않고, 형제에 대한 악의로 폭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스스로를 사도로 자처하며 사도 교회를 모독하고, 여러분과 온 백성 사이에 신앙에 관한 분열과 유혹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악의에서가 아니라, 진실한 이들을 향한 형제적 사랑으로 그 경이로운 사도에 대해 상기시키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이 도시가 증인이니, 나는 그에게 모욕을 주지도 않고, 이유 없이 헛되이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모든 이가 그 영광스러운 스승의 행적과 생애를 아는 것이 마땅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니, 모든 이가 그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기를 원하며, 그의 사상에 근거하여 구원을 세우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온 사도 교회를 정죄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세르비아인 유리우스의 소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분열주의자 라자르라는 스승이자 사도의 사고방식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그는 부끄러운 우화들(성경이 아니라)에 능숙하며, 그의 방탕한 행적도 드러났다. 그러한 사도를 사

---

[91] 디모데전서 4:12.

도들의 반열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것이 마땅하니, 그가 가짜 사도들과 한 편이 되고 거짓 교사들과 자리를 같이할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의 세 번째 부분에서 드러나듯이, 다른 분열주의 교사들이 라자르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교사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제4장. 참된 가르침은 공개적으로 전파되며, 은밀하게 전파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건대:

참되고 거짓 없는 가르침은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전파되며,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모든 담대함으로 방해받지 않고 전파되는 것입니다[92]; 반면, 은밀히, 숨겨진 곳에서만 전해지는 교리는 참된 것이 아니며, 거짓의 오명으로 가득 차 있다.

반면 분열을 일으키는 가르침은 어디에서도 공개적으로 전파되지 않고, 은밀히, 지하실 같은 곳에 숨어 지내며, 감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도 못한다. 마치 박쥐(날개 달린 쥐)가 대낮의 빛을 피해 틈새로 숨어 다니듯이, 그들도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피하며 가르치거나, 더 정확히 말해 순진한 백성을 현혹하고 있다.

그들의 가르침은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이기 때문이다.

제5장. 적그리스도에 관한 분열주의자들의 거짓말

다시 말하건대:

진정한 가르침은 결코 그 안에 어떤 거짓도 품어서는 안 된다. 만일 어떤 가르침에서 거짓이 발견된다면, 그 가르침은 진정한 가르침이라 할 수 없으며, 거짓된 것이다.

그러나 브린의 가르침은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 있으며, 이는 여기서 명백히 드러난다.

반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들은 반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지 생각 속에서만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본질적으로 반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친다. 또한 그들은 마치 모스크바에서 서적 정화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반그리스도가 생각 속에서 군림해 왔다고 말하며; 또한 마치 모스크바가 바빌론이며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좌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무서운 재림과 심판의 날이 이미 임박한 것처럼 말하며, 밤낮으로 이를 기다리고, 그들 중 일부는 촛불을 켜고 닭이 울 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그들의 사상과 가르침은 전반적으로 거짓이며, 성경과 성스러운 교회 교부들, 그리고 성경의 해석자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거짓인지를, 오류 없는 성경의 증거를 바탕으로, 리아잔과 무롬의 대주교이자 가장 존경받는 스테판 주교께서, 분량은 적으나 큰 분별력과 영적 지혜로 가득 찬 소책자, 즉 그분이 지은『『적그리스도의 도래와 세상의 종말의 징조』라는 소책자로, 이 책은 위대한 군주의 명에 따라 모스크바에서 인쇄되었으며, 창세 7212년,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의 탄생 1705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책이 우리 교구 내에서 찾아보기 드물고, 소수만이 소장하고 있기에: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우리 교구 내에 있는 이단자들과 이단 교사들, 즉 그들이 타락시킨 집들 속에 숨어 지내며, 평범한 백성들 사이에 자신들의 미신이라는 가라지를 은밀히 뿌리고 있는 자들에 대항하여, 그 동일한 성경을 바탕으로 그 이단적이고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여기서 간략히 반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적그리스도와 바빌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 모든 분열주의적 사상과 가르침은, 성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맥락과 성서 주석가들이 제시하는 바를 종합해 볼 때, 전적으로 거짓임이 분명하다.

1) 적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에서.

---

92 사도행전 28:31.

2) 적그리스도가 올 곳과 통치할 장소에 대하여.

3) 그가 통치할 기간에 대하여.

4) 그가 행할 일들로부터.

그러나 먼저 분열을 일으키는 무지한 교사들과 그들의 말을 듣는 제자들이 다음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적그리스도'라는 명칭은 그리스도의 대적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매우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하며, (지극히 존경받는 스테판 주교께서도 자신의 저서에서 비유적으로, 본질적으로, 유사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명하셨듯이; 더 명확히 말하자면: 비유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행위 자체에 있어서도 적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비유적으로나 닮은 바로서, '적그리스도'라는 명칭은 많은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나, 본질적으로, 사물 자체와 행위에 있어서는 오직 세상의 종말에 올 적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고유한 것이다. 이해하느냐, 거짓 교사들아? 아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명칭은 비유와 본보기가 되리라.

우리 구세주의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한 이 이름 '그리스도(XS)'는, 비유적이든 유사하든 간에 모든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즉 기독교의 왕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니, 이는 구약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다윗으로부터 '그리스도'라 불렸던 것과 같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를 치지 않게 하소서. 이는 그가 주님의 '크리스토스'[93], 곧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한 해석, 즉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 자신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칭했는데, 자신을 쫓아오던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은 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나니, 주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를 구원하셨도다"[94]. 그러나 본질과 실체, 그리고 행위에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그 거룩한 이름이 속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지극히 존귀한 칭호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는 내게 아들과 딸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95].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그 본성상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만 고유한 속성입니다.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칭호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께 대적하고 그분의 진리에 반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니, 성 요한 신학자가 말씀하신 대로라: "자녀들아, 마지막 때가 이르렀으니, 너희가 들은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다[96]." 또한 그분에 대해 다시 말씀하시기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모든 영은(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과 불신하는 유대인들이 고백하지 않았듯이, 지금은 터키인들과 타타르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고백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니, 이는 곧 너희가 들은 바, 오리라 한 적그리스도이며,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는 자[97]이다. 성 요한 신학자는 생전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다고 말하였다. 사도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있었다는 것은 (주석가들의 말에 따르면) 그가 자신의 본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구자들을 통해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칭했던 마술사 시몬이나 그와 유사한 다른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들이 그러했다.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적하는 영은, 본질적인 적그리스도 안에서 활동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었기에, 당시에는 그 선구자들을 통해 활동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당시

---

93 사무엘상 24:7.

94 시편 19:7.

95 고린도후서 6:18.

96 요한일서 2:18.

97 요한일서 4:3.

에도, 그리고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존재한다고 말해지는데, 이는 본질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에서입니다.

그 옛날에는 반그리스도인들, 즉 마법사들과 주술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칭하며, 네로, 디오클레티아누스, 막시미아누스, 배교자 율리아누스, 그리고 그와 유사한 자들: 이들은 또한 성경의 진리를 반대하는 이단자들이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아리우스파처럼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네스토리우스파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부정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정통 신앙에 반하는 이단을 만들어 냈으니(마치 오늘날 브리냐파가 행하는 것처럼), 이들은 적그리스도들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들'이라 부르는 자들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초기 반그리스도인들과 유사한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곧 신을 배반한 마법사들이며, 악마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또한 아가리파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며, 이교도들과 브리냐파 사람들처럼 다양한 이단으로 치우친 자들이다. 이 모든 자들은 적그리스도이며, 적그리스도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구자이자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다. 누구든지 거룩한 교회에 대적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며, 정통 신앙 교리와 교회의 전통을 모독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니, 이는 적그리스도를 닮은 자이다.

세상이 끝날 무렵에는 진정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며, 더 이상 그의 선구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바빌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성경에서 '유사하게'와 '실질적으로'라는 두 가지 의미로 명확히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유적인 의미에서는, 바빌론으로 가득 찬 모든 불의의 도시를 바빌론이라 부를 수 있으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성경에 언급된 바빌론이라는 도시 하나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칼데아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 페르시아 왕국의 왕좌가 있었다. 이에 대해 성 안드레아 케사리우스는『요한계시록』주석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큰 바빌론은 음행하는 자들의 어머니요, 그 밖의 것들"이라 하였고, 또 "술에 취한 여인을 보았더니, 그 밖의 것들"이라 하며, 해설자는 말하기를: "옛 바빌론은 이렇게 불렸으니, 곧 기뻐하는 음녀, 즉 음행을 기뻐하는 음행자들의 도시요, 마술사들과 점술가들의 여주인이며; 그리고 옛 예루살렘(예레미야의 예언에서 바빌론의 음행과 비유된)은 네 얼굴과 같았도다[98] ; 또한 옛 로마는 베드로의 서신에서 바빌론이라 불리니[99] . 주님께서(이것이 본질이다) 페르시아인들에게 권세를 가진 자와 바빌론, 그리고 음녀라고 부르시며, 살인과 피를 기뻐하는 모든 도시를 가리키신다[100] . 여기까지가 성 안드레아 케사리우스의 말씀이다. 그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비유적으로 볼 때 옛 예루살렘과 옛 로마, 그리고 불의로 가득 찬 그 어떤 도시라도 바빌론이라 불린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유일한 바빌론은 칼데아의 바빌론, 곧 페르시아의 바빌론이며, 그곳에서 페르시아의 키르 왕이 미디아의 다리우스 왕을 계승하여 페르시아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 반그리스도와 바빌론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무지한 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했으니, 이제 앞서 언급된 주변 사정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통해 반그리스도, 바빌론, 그리고 심판의 날에 관한 분열주의적 거짓 교리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첫째로

첫 번째 맥락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관한 것이다.

이단자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추론에 따르면) 마음속으로만 그 세상에 군림할 뿐이며, 본질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실체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친다.

---

98 예레미야 1:3.

99 베드로전서 5:13.

100 성 안드레아 케사리우스,『설교집』18, 제17장, 81쪽.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거짓에 대항하여 거짓이 없는 스승인 성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다른 성스러운 교회 스승들의 가르침을 내세우겠습니다.

성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교가 오지 않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모든 일컬어지는 신이나 숭배의 대상보다 더 높이 자만하는 자가 드러나지 않는 한, 그가 마치 신인 양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 스스로를 신인 양 나타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101] ."

이 사람에 대해 성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거짓 없는 증인이자 바울 서신의 해설자인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여기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위대한 비밀을 드러내고 있다"고 증언한다. 배교란 무엇인가? 바로 그 적그리스도를 '배교'라고 부르는데, 이는 많은 이를 멸망시키고, 가능하다면 심지어 택함 받은 자들[102] 까지 유혹하여 떠나게 하려는 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를 '죄의 사람'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그가 셀 수 없이 많은 악을 행하고, 다른 이들이 잔혹한 일을 저지르도록 부추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역시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자는 누구인가? 혹시 사탄인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사탄의 모든 행위를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이다. 여기까지가 황금입 사도 바울의 주석이다. 또한 성 에프렘도 적그리스도에 관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탄이 직접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둑처럼 사탄의 형상을 띤 지독히 더러운 자가 올 것이다[103] ."

브리냐네 사람들은 여기서 귀를 기울여, 사도 바울과 요한 황금입, 그리고 성 에프레임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 과연 추상적인 존재에 관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혹은 실재하는 존재 그 자체, 즉 보이지 않는 정신적 적그리스도인 사탄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인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또한 성스러운 순교자 히폴리토스는 사순절 전 주일 설교[104] 에서, 그리고 카파도키아의 케사리아 대주교인 성 안드레아스는 요한계시록 해설 제7편에서, 적그리스도가 다윗의 족속, 즉 유대인 혈통[105] 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성 에프라임은 앞서 언급한 설교에서, 또한 성 요한 다마스쿠스도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정당한 혼인 관계가 아닌, 음행, 즉 음행으로 타락한 여인으로부터 태어날 것이라고 합니다[106] . 또한 성직자 순교자 히폴리토스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적대자는 더러운 아내로부터 땅에 나올 것이다"[107] . 이러한 증언들을 통해, 적그리스도가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존재이며,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모든 정통 신자는 건전한 이성으로 판단하여, 누구의 가르침을 더 믿을지 결정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재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단지 정신적으로만 통치할 것이라고 말하는 브린의 거짓 교사인가? 아니면 성 사도 바울과, 그의 주해자인 성 황금입, 성 순교자 히폴리토스, 안드레이 대주교, 경건한 에프렘과 요한 다마스쿠스에게 믿음을 두어야 할 것인가?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실재한다고 온갖 방식으로 말하며, 그 혈통을 밝히고 탄생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스도의 입은 바울의 입이며, 바울의 입은 황금입의 입이고, 황금입의 입과 그와 함께 언급된 다른 성부들의 입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입이다. 그처럼 존귀하고 거룩한 입에서 어떻게 거짓이 나올 수 있겠는가?

---

101 데살로니가후서 2:3, 4.

102 마태복음 24:24.

103 설교 106, 268쪽 뒷면.

104 126쪽 뒷면.

105 33쪽.

106 성 요한 다마스쿠스, 제4권, 제27장.

107 128쪽 뒷면.

브린스크의 거짓 교사들의 입은, 도대체 누구의 입인가? 실로 그들의 입은 사탄 자신의 입이니,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복음서에서 그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는 태초부터 사람을 죽이는 자요, 진리 안에 서 있지 아니하니, 그에게는 진리가 없음이니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에서 말하는 것이니, 그는 거짓이요, 거짓의 아버지[108] 이다."

그러므로 브리냐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재림은 없을 것이며, 단지 상상의 재림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고찰은 반그리스도가 어디서 올지, 그리고 어디에서 통치할지에 관한 것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브리냐인들은 마치 적그리스도가 모스크바에서 통치하는 것처럼 말하며, 심지어 모스크바를 바빌론이라 부르며 불명예스럽게 비난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노니: 감각적인 적그리스도, 즉 실재하는 인간(어떤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라)이 존재해야 하며, 그로부터 바빌론이 비롯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상상의 것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재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만약 상상의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도시와, 그 안에서 어떤 형태의 불법이 행해지는 모든 장소가 비유적으로 바빌론이라 불리게 된다. 또한 죄 많은 영혼은 바빌론이라 불리며, 의로운 영혼은 예루살렘이라 불린다. 그리고 성스러운 곳이라 여겨지는 브리냐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곳에서 돌아오는 처녀들과 여성들, 그리고 아직 늙지 않은 노파들의 배가 이를 증명하듯이, 브리냐는 진정으로 바빌론이라 불릴 수 있다. 과연 적그리스도가 어느 바빌론에서 나올지, 모스크바의 바빌론에서일지, 아니면 브리냐의 바빌론에서일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각할 수 있는, 즉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적그리스도는, 지각할 수 있는, 즉 실재하는 바빌론, 곧 칼데아 땅(러시아가 아닌)에 유프라테스 강(모스크바 강이 아니라) 위에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올 것이 마땅하니, 바로 그곳에서 탑을 세운 자[109], 천하 최초의 박해자 넴로드가 자신의 통치를 확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넴로드가 최초의 박해자가 된 곳이 바로 그곳이므로, 마지막 박해자인 적그리스도도 그곳에서 나와야 마땅하다.

그리고 안티크리스토스가 칼데아의 바빌론에서 나올 것임을, 거짓 없는 증인인 성 안드레아, 케사리아의 대주교(브린의 어떤 평민이 아니라)는 자신의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프라테스 강을 상기시켜 주듯이, 적그리스도는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110]; 또한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페르시아 땅의 동쪽 지역, 곧 다윗의 지파가 유대인의 뿌리에서 나온 곳에서, 다른 왕들과 함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올 것이다."[111] .

자, 잘 들어라. 여기서 바빌론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에 있는 칼데아에 위치한 곳으로, 그곳에서는 아시리아 왕조 이후 키로스로부터 페르시아 왕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자체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 안에는 바빌론에 대해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 모스크바라는 도시는 존재했는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빌론은 모스크바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했던 칼데아의, 즉 (과거의) 페르시아 바빌론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반그리스도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바로 그 바빌론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칼데아의 바빌론에서 나온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통치하게 될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성 히폴리토스와 성 안드레아 케사리우스, 이 두 분을 비롯한 다른 성부들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유대 왕국이 있던 바로 그곳에서 그가 왕권을 세울 것이며, 솔

---

[108] 요한복음 8:44.

[109] 창세기 10:9.

[110] 43쪽.

[111] 76쪽.

로몬의 성전과 같은 모양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고, 마치 신처럼 그 안에 앉을 것이라고 한다[112] .

모스크바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하는 브리냐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대한 세 번째 고찰.

브리냐네 사람들은 마치 반그리스도가 모스크바에서 책 개정 작업이 시작된 그 시점부터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한다.

모스크바에서 경전 개정 작업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살펴보자. 이는 복된 기억을 간직한 경건한 차르이자 대공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의 통치 기간, 즉 성스러운 니콘 총대주교의 재임 시절에 시작되었다.

니콘은 7175년 여름에 총대주교직에서 물러났다.

올해는 7217년이다.

니콘이 물러난 때부터 올해까지 40년이 훌쩍 지났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 성 히폴리토스와 그 밖의 모든 성부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신 기간만큼, 즉 반 해와 사분之一 해만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113] .

그러므로 브리냐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모스크바에서 이미 40년 넘게 통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네 번째 부분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성 히폴리토스는 적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허락과 악마들의 도움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위대한 기적들을 행할 것이나, 그 기적들은 참된 것이 아니라 환상적이고 허상일 것입니다. 성 히폴리토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보는 자들의 눈앞에 산을 세우고, 젖지 않은 발로 바다 위를 걸으며,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고, 낮을 어둠으로, 밤을 낮으로 만들 것이며; 태양을 원할 때면 변형시키고, 달도 마찬가지로 변형시킬 것이며; 땅과 바다를 포함한 모든 원소들을 자신의 환상의 힘으로 보는 자들 앞에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 줄 것이[114] ”라고. 또한: “악마들을 마치 빛의 천사들처럼 보이게 하고, 육체가 없는 군대를 이끌며, 그 수는 셀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이 앞에서 나팔 소리와 셀 수 없는 목소리와 소리, 그리고 그를 찬양하는 강렬한 외침과 헤아릴 수 없는 노래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며, 어둠의 통치자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라고도 기록되어 있다.[115] .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행적이다. 자, 지금 모스크바나 그 어디에서 누가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누가 산을 옮기고 있는가?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고 있는가? 누가 낮을 밤으로, 밤을 낮으로 바꾸고 있는가? 누가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영광을 누리며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브리냐파의 분열주의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 그들은 이미 모스크바에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부터 그들의 거짓말, 즉 그리스도의 두 번째 무서운 재림과 심판의 날이 이미 다가왔다는 주장이 드러난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가르치고, 모든 주석가와 교사들은 심판의 날이 적그리스도의 재림과 통치 이전에 오지 않고, 오히려 그 통치와 파멸적인 종말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확언한다. 어찌하여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아직 오지도 않았고, 그의 통치 기간이 3년 반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마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날이 이미 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데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게다가 적그리스도의

---

[112] 성 히폴리투스, 127쪽 및 129쪽 뒷면, 그리고 성 안드레아, 49쪽 및 101쪽.

[113] 130쪽과 131쪽.

[114] 130쪽 뒷면.

[115] 132쪽.

파멸적인 죽음 이후에도, 남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할 시간이 주어질 것이니, 이는 다니엘의 예언에서 볼 수 있듯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일수를 언급한 대목이다: 1290(이 중 반 년이 포함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1355일 동안 견디고 이겨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116] ." 첫 번째 숫자의 끝에서 두 번째 숫자까지 계산해 보면, 첫 번째 숫자보다 45일이 더 많은 것이 드러난다. 신성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죽은 후, 두려운 심판의 날까지 45일의 시간이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기도 전에, 혹은 오기도 전에, 브린의 견해와 심판의 날에 대한 가르침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일 밤낮으로 자신의 생명이 끝날 알 수 없는 시간을 기다리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각자에게는 모든 이에게 닥칠 끔찍한 심판 이전에, 각자만의 끔찍한 심판이 있을 것이니, 그 끔찍한 심판의 날에 대한 정확한 시기는 따져서는 안 된다. 그 날이 올 것이며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뿐, 이미 도래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품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경청해야 합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늘의 천사들도[117] ." 만약 거룩한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브리냐네 사람들은 이미 무서운 심판의 때가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설마 그들 스스로 심판의 날이 이미 오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의 거짓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성자 샬롬(Zlatooust)은 아모소스의 예언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날을 바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118] . 주님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니, 어둠이라 함은 알 수 없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브린스키의 가르침은 거짓임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교리란, 신성한 성경을 거짓이 아닌 진리 그 자체에 따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브린파의 거짓 교사들은 신성한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왜곡하여 해석하므로, 그 때문에 '왜곡 해석자들'이라 불린다.

그러므로 브린파의 교리는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다.

브린파가 신성한 성경을 비뚤어지고 거짓되게 해석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제시할 신성한 성경의 몇 구절에서 드러난다.

제*6*장. 거룩한 제사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해석

성선지자 다니엘서의 제3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 때에는 통치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번제도 없고, 제물도 없고, 헌물도 없고, 향로도 없고, 주님 앞에서 불태워 은혜를 얻을 곳도 없다[119] ."

그 성서를 브린파의 그릇된 해석자들은 오늘날의 시대로 끌어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제사도, 예물도 없으며, 교회는 교회답지 않고, 주교는 주교답지 않으며, 사제는 사제답지 않고, 전례는 전례답지 않으며, 제물은 제물답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브린파의 해석입니다.

오, 미친 브린파들아, 건전한 이성을 잃고 신성한 성경의 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혜로운 눈을 뜨고, 이 점을 스스로 살펴보아라:

1) 그 말씀의 주체는 누구인가?

2) 어디서 말하고 있는가?

---

[116] 단 12

[117] 마가복음 13:32.

[118] 아모스 5장, 테살로니가전서 5장에 대한 황금입의 주석. 제9강, 2276쪽.

[119] 38절과 39절.

3) 어느 해에 말씀하셨는가?

4) 무엇을 위해 말씀하셨는가?

그렇게 잘 살펴본다면, 너희 자신의 해석이 틀렸음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1) 동사는 누구인가?

세 명의 거룩한 소년, 아나니아, 아사리아, 미사엘이 말하였으니, 이들은 성 다니엘 예언자의 친구들이었다.

2) 어디서 말했나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 중, 불타는 동굴에 던져졌을 때입니다.

3) 어느 해에 말했나요?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시대, 그리스도 탄생 *400*년 전과 그보다 더 오래전이었다.

4) 그들은 무엇을 위해 말했나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 칼데아인들에게 파괴되었기에, 그들 가운데는 더 이상 지도자나 통솔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왕 시드기야는 눈을 멀게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 바빌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의 번제나 희생 제사가 없었으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중 어떤 이들은 칼에 죽임을 당했고, 어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다. 제사를 드릴 곳도 없었다.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고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 당시 그 세 소년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이 시대에는 통치자도, 지도자도, 번제물도, 제사도, 그 밖의 다른 것도 없다."

이것을 보라, 그릇된 해석자들아! 그 세 성스러운 소년들의 그 말씀은 지금의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고, 그 세 소년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떠난 지 400년이 지난 후,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며, 통치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셨으며, 그가 자신의 거룩한 피로 속량하신 거룩한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며, 피 흘림 없는 제사를 제정하셨으니, 곧 빵의 형상으로 자신의 지극히 순결한 몸을, 포도주의 형상으로 자신의 지극히 순결한 피를 드리게 하시고, 성사 예식을 통해 이를 거행하도록 명하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을 내 기념으로 행하라[120] ." 그분 뒤를 이어 교회의 지도자로는 거룩한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 뒤에는 교사들과 성직자들, 사제들이 차례로 이어졌으며, 그 성직자와 사제의 직분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우리 이후로도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두 번째 두려운 재림이 오실 때까지 피 흘리지 않는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성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증언한 바와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니*,*[121] 가 오실 때까지 그러하리라." 또한 성 요한 다마스쿠스는 그의 저서 『신앙에 관하여』 제4권 1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니, 이를 내 기념으로 행하라.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명령으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리라." 이는 사도와 다마스쿠스의 요한이 증언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까지, 곧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성스러운 제사가 거행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현재 ,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들과 지도자들은 주교와 사제, 그리고 그 밖의 성직자들입니다; 또한 매일 전례를 통해 거행되는 제사가 있으며, 제사를 드릴 장소도 있습니다. 바로 정통 기독교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짓된 해석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성 삼 소년의 말씀을 올바르지 않게 해석하며, 이 시대에 제사와 봉헌, 그리고 성직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다.

브리냐네 사람들이 이 사도적 말씀에,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저항하려 한다면, 성 에프레모의 말씀을 들어보라. 즉, 적그리스도의 시대에는 거룩한 제사가 중단될 것이며, 사도들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

[120] 고린도전서 11:24.

[121] [122]

이라고; 성 에프레모스는 이렇게 말하느니라. “그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는 큰 통곡으로 울부짖으리니, 제단에서 거룩한 예배도, 제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122] .” 마찬가지로 성 히폴리토스도 자신의 설교에서 교회들이 황폐해지고 제물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교회들은 마치 과일 창고처럼 될 것이며, 그 날들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예배는 꺼져 버릴 것이다[123] .” 여기까지가 히폴리토스의 말씀입니다.

브리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제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중단될 것인가?”

이에 대답하노니: 제사는 공개적으로 드려지지 않고 은밀히 드려질 것이며, 교회에서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은밀한 곳에서 드려질 것이며; 도시와 마을에서는 없을 것이며, 산과 동굴, 그리고 광야에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성 에프렘이 같은 설교에서 말하기를, 그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 산과 언덕, 황량한 곳에서 수많은 기도와 셀 수 없는 통곡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거룩한 믿음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이 숨어 있는 곳[124] 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아래에: 그 당시 함께 모이게 될 많은 성도들은, 악한 자의 도래를 듣자마자 거룩하신 하느님께 탄식하며 눈물의 강을 쏟아내며 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것이며, 큰 경각심을 가지고 광야로 도망쳐 산과 동굴에 두려움으로 숨을 것이며, 흙과 재를 뒤집어쓰고 눈물을 흘리며 밤낮으로 깊은 겸손으로 기도할 것이니,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주어질 것이며, 그들을 특별한 장소로 인도하실 것이니, (땅속의) 깊은 골짜기와 동굴에 숨은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다[125] ” 여기까지가 성 에프렘의 말씀이다. (성 히폴리토스도 그의 설교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그 성스러운 사제들이 지정한 특별한 장소들에서, 그곳에 숨어 있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질 것이다[126] . 게다가 우리는 선택받은 그릇이자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사도 바울, 이방인의 스승이신 분의 말씀에 더욱 굳게 믿어야 하며, 그분은 제3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히폴리토스와 에프레모스의 말씀보다 그분의 말씀에 더 확고히 서야 한다. 이들 역시 성도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그 지극히 거룩하신 분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셀 수 없이 많은 질병과 고난을 견디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칼에 목이 베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이 성도들, 즉 히폴리토스와 에프레모스의 말씀도 참되지만, 신성한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말씀은 가장 참된 것입니다. 이 말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곧 교회에서 제사가 중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울의 말도 이루어질 것이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제사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말한 대로 광야와 산과 땅의 동굴에서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7장. 어떤 자들에 대하여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악령의 교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127] , 등등; 또한 갈라디아서에도 “어떤 이들은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한다”[128] . 그러한 말씀들을 브린파의 비뚤어진 해석자들은 우리 정교회 신자들에게 거짓으로 뒤집어씌우며,

---

[122] 말씀 106, 272쪽 뒷면.
[123] 133쪽 뒷면.
[124] 265쪽 뒷면.
[125] 272쪽.
[126] 133쪽.
[127] 디모데전서 4:1.
[128] 갈 1:7.

마치 우리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고,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왜곡하는 자들인 양 말합니다.

그러나, 오, 무지한 갈라테—브리냐인들아! 너희는 우리에 대한 이 비방과 모독을 퍼뜨리는 너희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희 스스로 살펴보고 보라, 누가 그 '어떤 자들'인지: 우리인가, 아니면 너희인가? 무엇이 더 큰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공의회적 정통 사도 교회인가, 아니면 너희의 브리냐인가? 공의회적 정통 사도 교회(나는 성벽이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정통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다)는 러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그리스, 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 세르비아, 불가리아, 달마티아, 몰도바-발칸 지역에도 존재하며, 그저 온 우주에 걸쳐 생각해 보라: 너희의 '브리냐'는 러시아 국가의 한 구석에 불과하며, 온전한 정통 사도 교회에 대항하는 그 위력은 마치 거대한 바다에 맞서는 한 줌의 물만큼이나 미미하다. 공의회에 속한 정통 사도 교회는 그 목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은밀히 숨어 있지 않으며, 은밀히 빛나지도 않고, 온 우주를 비추는 등잔대 위에서 명백히 빛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은신처에서 마치 참나무 숲과 숲속의 짐승들처럼 숨어 지내며, 너희의 거처에서 도시와 마을로 나가더라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마치 지하실의 쥐들처럼 너희가 점령한 집들 속에 숨어 지낸다.

우리는 온 우주에 걸쳐 존재하는 공의회적 정통 사도 교회를 따르는 자로서, 소수가 아니라 온 교회와 그 교회가 지닌 권위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니, 너희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공의회적 정통 신앙 밖에 있는 자들이니, 참으로 소수일 뿐이라. 많은 수가 아닙니다. 설령 여러분이 만 명이나 이만 명이나 모인다고 해도, 온 우주에 걸쳐 존재하는 온 교회 전체에 비하면 천 분의 일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극히 하찮은 존재일 뿐, 그저 소수에 불과합니다. 사도께서 앞서 말씀하신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 관한 것이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소수가 믿음에서 떠나리라."* 또 *"소수가 혼란을 일으키며, 여러분을 유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리라."*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거짓 교사들과 거룩한 진리의 적들처럼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8*장. 복음과 파문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성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129]*."* 우리가 앞서 예언한 바와 같이, 이제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에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여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브린스키가 이 사도적 말씀을 왜곡 해석함으로써, 새로운 러시아 서적들에서 어떤 옛 말들을 변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마치 문학적 표현을 바꾸어 사도들이 전파하고 전수해 온 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 즉 이성이 어두워 분별하지도, 보지도, 성경의 능력을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은 마치 눈먼 자들이 어디서나 걸려 넘어지듯이 그러합니다. 그러니 백성 중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고 한때 미련했던 자들아, 이제 지혜를 얻으라[130],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살펴보라:

1) 사도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썼는가?

2) 언제 기록했는가?

3) 무엇에 대해 썼는가?

누구를 위해 쓴 것인가? 러시아인들을 위한 것인가? 결코 아니다. 러시아 사람들도, 슬라브어 책들도 알지 못했던 갈라디아인들을 위한 것이다.

언제 썼을까? 자신의 생애 동안, 러시아가 세례를 받기 900년 전,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썼다.

---

[129] 갈 1:8.

[130] 시 93:9.

무엇에 대해 썼을까? 러시아의 옛 책과 새 책에 대해, 혹은 옛 책의 내용들이 새 책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썼을까? 결코 아니다; 그 당시에는 러시아에 어떤 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조차 정착되지 않았으며, 성 안드레아 사도의 설교를 통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겨우 전해졌을 뿐, 그것도 몇몇 지역에서만이었을 뿐이고, 슬라브어의 알파벳 문자도 그때는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브린의 그릇된 해석자들은 우리에게 쓰여진 것도, 우리의 책에 관한 것도, 우리의 옛말이나 새 말에 관한 것도 아닌 그 사도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 하니,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입니다. 사도가 무엇에 대해 썼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안티오키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에 할례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으니, 어떤 이들은 "할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할례를 스스로에게 무거운 짐으로 여겼[131] . 그 때문에 당시 안티오키아에 머물고 있던 성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할례 문제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주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가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음을 알렸는데,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모든 형제들 이 크게 기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서 공의회를 열어, 새 은혜에 필요 없는 구약의 할례 관습을 폐지하였으며; 오직 우상 제물에 드린 음식과 음행, 그리고 이웃을 어떤 면에서도 해치지 말 것을 명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티오키아로 보내고, 그들과 함께 유다와 실라도 동행하게 하였다. 그들은 안티오키아에 도착하여, 할례를 폐지한다는 사도들의 공동 서신을 안티오키아 교회에 전달한 뒤, 각기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였다. 성 바울은 가장 탁월한 이방인 교사로서 갈라디아에 이르러,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이 아닌 기독교의 율법을 전하며, 할례를 받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지 말며, 구약의 유대인 의식(예식) 중 그 밖의 어떤 것도 따르지 말라고 명하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사는 것만을 명하셨다. 성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친 후 로마로 떠났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짓 형제들 몇 명이 갈라디아로 들어와,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며,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며, 초하루를 지내고, 그 밖의 구약의 의식과 예식을 이행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 사실을 로마에 있던 바울이 알게 되자, 로마에서 갈라디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말하기를, *"*설령 천사가 하늘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보다 더 나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였다. 이는 갈라디아서 서문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며, 사도가 그 말씀을 러시아인들에게 쓴 것이 아니며, 러시아의 서적이나 서적에 담긴 말들에 관한 것도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오히려 갈라디아인들에게 할례에 관해, 그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금한 것이다.

브린의 그릇된 해석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사도의 그 말씀을 자신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9장. 사람의 손으로 세운 교회에 대하여

또한 분열주의자들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성 스테파노는 유대인 무리를 향해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으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곳에 거하시니, 이는 선지자(이사야)가 말한 바와 같으니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의 발판이니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성전을 지으리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식처가 어디에 있으리요[132] ?*"*" 그러나 브린의 그릇된 해석자들은 이 말씀을 그들의 미친 생각대로 이렇게 해석한다. "교회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

---

[131] 사도행전 15장.

[132] 사도행전 7:47–49. 이사야 66:1,2.

의 손으로 지은 교회에 계시지 않으며, 교회는 통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비뼈에 있다(즉, 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나 마음에 있다). 교회 밖에서도 누구든지 스스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들의 미친 추론과 그릇된 해석에 대한 반박으로, 신학자로서 하나님에 대해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며, 비물질적이고, 보이지 않으며, 지적인 장소가 있음을 밝히는 해석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물질적인 장소는 물질적인 것을 담을 수 있으니, 마치 성벽이 성을 감싸고, 성전이 사람을 감싸고, 방이 그 안에 놓인 물건들을 담으며, 과수원이 그 안에 심어진 것들을 감싸듯이; 반면 비물질적이고, 보이지 않으며, 지적인 장소는 비물질적이고, 보이지 않으며, 지적인 것들을 담을 수 있다; 반대로 무형적이고 지적인 본성은 물질적인 장소, 설령 그것이 지적인 장소라 할지라도,에 의해 지탱되거나 규정될 수 없다. 하나님은 본질상 무형적이고, 비물질적이며, 형용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시니, 어떤 물질적인 장소로도 제한되거나 규정될 수 없으시며,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며, 모든 것을 감싸시나, 그분 자신은 하늘이나 땅 위나 어떤 성전으로도 갇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성 다마스쿠스의 말에 따르면) 그분 자신이 곧 장소이시며, 그분의 지적인 본성 안에서,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신성 안에서 스스로 머무르십니다[133] . 그리고 그러한 신학적 이치에 따라, 성 스테파노스 첫 순교자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시기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도 거하시지만, 마치 그분 자신 안에 계신 것처럼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본체 밖에서 오직 그분의 참된 은총으로만 그분께 거룩하게 된 장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그분께 대한 사랑이 넘치는 자비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는 특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 거하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며, 그들을 마치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교회이자 그분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이 때문에 사도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안에 거하며 그들 가운데 다니리라*'*[134] 고 하셨느니라." 한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룩한 교회들, 즉 하나님의 임재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교회들 에 대해, 성 다마스쿠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장소에 계신다고도 말씀하시며, 그분의 행적이 드러나는 곳을 하나님의 장소라고도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소는 그분의 행적과 은혜에 많이 참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도 하나님의 장소라고 일컬어지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일종의 성전으로 정한 곳이며, 그곳에서 그분께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다마스쿠스의 말씀이며,

이해는 첫 순교자의 말씀에 대한 이 해석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브린파의 그릇된 해석자들은 영적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온전히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며, 영에 따라가 아니라 육신에 따라 해석하여, 마치 하나님도 육신적인 존재인 양, 물질적인 장소에 갇혀 있고 규정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에는 결코 계시지 않으시니, 기도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그들이 말하길)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에 거하지 않으시니, 그러므로 그들의 악의에 맞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치 어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실체라도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을 명백히 폭로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첫 순교자의 말씀에 대한 검증과 다음과 같은 주변 사정에 대한 조사가 제시되어야 하리라:

1) 성스러운 첫 순교자가 말씀하신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인가?

2)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 첫 순교자가 언급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들 안에 언제든지 거하셨는가?

---

[133] 제1권, 제17장.

[134] 고린도후서 6

5)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 첫 순교자가 언급한 교회들에서 거하시기를 그만두신 것은 언제부터인가?

4) 그는 누구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가?

5) 무엇을 위해 말씀하셨나요?

6) 언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한 주 하나님께서 돌이나 나무로 지어진 기독교의 인공 교회들에 거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분열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 '교회'와 '성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되, 성전과 교회의 차이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벽으로 지어지는 반면,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사람들이 신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인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기 때문입니다[135] ;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성전과 교회를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

1) 탐구

성스러운 첫 순교자 스테판이 "지극하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말한 그 성전들은 어떤 것들인가?

그는 솔로몬을 상기하며 유대인의 성전에 대해 말한 것이지, 기독교 성전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대에는 아직 기독교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고, 유대인의 성전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거하지 않으신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단 하나의 성전만 있었지, 여러 개는 아니었다"고 말씀하시겠지요.

이에 대답하노니: 하나가 아니라, 각기 제 시기에 따라 세 개가 있었다.

그들의 첫 번째 성전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 광야에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막의 형상으로, 주홍색과 자색 실과 비단실로 만들었고, 가죽으로 덮은 것이었으며, 성스러운 첫 순교자는 유대인들에게 한 바로 그 설교에서 이 성전을 '증거의 장막'[136] 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레위인들이 메고 다니며, 그들이 머무를 때는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들에게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었는데, 이 성전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되었다.

세 번째 성전은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다윗의 후손이며 그리스도의 조상인 스로바벨이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 세운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이 지난 후, 조로바벨 왕은 많은 백성과 함께 바빌론에서 풀려나 파괴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떠났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조상인 소로바벨이 세운 성전은 그리스도 시대와 사도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나, 훗날 베스페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가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성전을 기초까지 완전히 파괴하였다. 그때 성스러운 첫 순교자가 말하기를: "지극하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나니"라고 하셨으니, 이는 모세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소로바벨의 성전, 이 세 유대인의 성전 모두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유대인의 성전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기독교 성전에 대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성전들은 첫 순교자 시대에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조사.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 성전들 안에 거하셨던 적이 있는가? 바로 그 성전들에 대해 첫 순교자가 말한 바로 그 성전들 말이다.

진실로 거하셨습니다. 하늘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이 성벽 안에 머무르시며, 신성한 본체로 그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그 교회들을 내려다보시며, 그분의 은혜로

---

[135] 마태복음 24

[136] 사도행전 7

그들과 함께 계셨고, 원하시는 동안 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어 그 교회들을 지키셨습니다. 이는 구약 시대의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천사들의 임재가 분명한 표징들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성전에서 기적적인 은혜로 거하셨는데, 그 표징은 증거의 성막을 덮은 구름과, 성막을 가득 채운 주님의 영광[137], 그리고 제단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니, 이는 레위기 첫 장에 기록된 바와 같다: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어 증거의 성소에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138]. 마찬가지로 어린 사무엘이 증거의 성소에서 밤에 잠들어 있을 때, 주님께서 제단에서 네 번이나 그를 부르셨다[139].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에 그 인자하신 은혜로 거하셨는데, 그 표징은 성전을 성별할 때 성전을 가득 채운 구름과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구름 앞에서 서서 섬길 수 없었으니,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140]. 또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 눈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며, 내 마음은 모든 날 동안 그곳에 있을 것이다."[141].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기적적인 은혜로, 소로바벨이 재건한 성전 안에서도 거하셨는데, 그 증거로 물이 불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는 마카베오서 제2권 1장에 기록된 바와 같다. 제물에 부어졌던 물에서 불꽃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교회에 천사들의 보호가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교회를 약탈하려던 총독 일리오도라를 주님의 천사들이 가차 없이 쳐부수었기 때문이다[142]. 또한 성 자카리아가 교회에서 자신의 순번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향로 제단 곁에 나타나 요한의 잉태를 알렸다. 마가리타 '금입'의 저서에서는 지극히 순결하신 성모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 마리아가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소로바벨이 세운) 주님의 성전에서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더니, 형언할 수 없는 빛이 비추었고, 성소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내 아들을 낳으라.' 이러한 표징들을 통해, 주 하나님께서 모세와 솔로몬, 그리고 스로바벨의 구약 시대 교회들에 그분의 은총으로 그분이 계시기를 원하실 때까지 계속 함께 계셨음이 드러났습니다.

3) 탐구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 구약 시대의 성전들에서 거하시기를 그만두신 것은 언제부터인가?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어디에서나 자신으로부터, 또한 성소로부터 쫓아내 버립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일라이의 아들들의 죄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사로잡아 아조트로 가져갔을 때, 그분의 은혜로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셨으며, 그때 피네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며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기 때문이라[143];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나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기 때문이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 성자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궤와 함께 주님의 영광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왕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시며 거하셨다. 이는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네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 너도 네 아버지 다윗이 순수한 마음과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내 앞에서 행한다면, 내가 네 왕좌를 영원히 굳건히 세우리라. 그러나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내게서 떠나 내 계명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

---

137 출애굽기 40

138 레위기 1:1, 2

139 열왕기상 3

140 열왕기상 8

141 열왕기상 9:3.

142 마카베오 2서 3.

143 열왕기상 4:22.

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쫓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면전에서 버리리라[144] .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시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랐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를 떠나 낯선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면, 그때 나도 너희를 떠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면전에서 버리리라. 그 결과, 예루살렘의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전에서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죄악이 쌓이자, 느부갓네살이 칼데아 군대를 이끌고 침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떠나갔으니, 이에 관한 내용은 성예레미야 선지자의 생애(7월 21일)[145] 에서 볼 수 있으며, 또한 그의 예언서 8장, 9장, 10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조상인 소로바벨이 재건한 교회에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함께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을 때[146] ,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교회에서 떠나갔으니, 그 징조는 교회의 휘장이 위쪽 끝에서 아래쪽 끝까지 둘로 찢어진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성 테오필락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성령의 은총이 교회에서 물러났음을 하나님께 나타내었다.” 또한 성 에프라임은 주님의 수난에 관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자, 비둘기가 교회에서 날아갔으니, 이는 성령께서 떠나가신 징조였다”[147] .

4) 탐구.

성스러운 첫 순교자는 누구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분은 불신자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들에게 보내신 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분을 믿지 않았으며, 그분을 미워하여, 마치 카이사르의 적이자 악당인 것처럼 빌라도에게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의 부활을 은폐하려 애썼으며,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싫어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다. 이 말은 첫 순교자가 한 것으로,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며, 기독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 탐구

그 첫 순교자는 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까*?*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땅 어디에도 거할 곳이 없다고 여겼으며, 오직 (예전부터 존재했던) 단 하나의 교회만이 있었다고 믿었으니, 그들의 온 땅 어디에도, 천하 어디에도 하늘의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교회는 찾아볼 수 없었으니, 당시 온 우주를 지배하던 우상 숭배 속에서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일한 교회뿐이었다. (사마리아의 시케ם에 그와 비슷한 교회가 있었으나, 우상들로 더럽혀졌으니,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하겠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들의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며, 천하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교만하게 자만하였으니,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 1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곳에서 그들이 교회에 대해 교만하게 자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꾸짖으셨다: *“*거짓된 말에 의지하지 말라.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라[148] .”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장에서 그들에게, 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한 그 성전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

144 열왕기하 9:3 및 그 다음 구절.

145 342쪽.

146 마태복음 22.

147 에프렘, 48쪽, 102쪽.

148 예레미야 7:4.

하셨으나, 그들이 타락의 길로 치우치면 그때는 그들의 성전과 그들 자신도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고, 예루살렘에 있던 주님의 성전을 두고 거만하게 자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거룩한 첫 순교자는 그들의 거만한 자랑에 맞서 앞서 언급된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니, 곧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사람의 손으로 지은 벽에 얽매이지 않으시며, 하늘과 땅 어디에나 계시고, 하늘이나 땅 아래 어느 한 곳에도 묶여 계시지 않으시며, 하늘이나 땅 아래 그 어떤 곳에도 담을 수 없으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섬기던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의 은혜로 거룩한 성전 가운데 살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였으므로, 하나님도 너희와 너희의 그토록 영광스러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를 버리시며,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버려지리라.*[149]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첫 순교자들의 말씀이 지닌 힘이다.

6) 수색

그 성스러운 첫 순교자는 언제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늘로 승천하셔서, 유대인의 교회를 텅 비게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타락과 그분께 저지른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서 은총을 거두어 가신 때였으며, 그때 이미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손으로 지은 교회 안에서 은총을 베풀지 않으셨다 . 그리고 참으로 그때 성 스테파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즉 너희 유대인의 성전에 계시지 않으시며, 오직 기독교인의 성전에 계실 것이다."라고 하였다.

고찰

주 하나님께서는 돌이나 나무로 지어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기독교 교회들에 거하시는가*?*

만약 구약 시대의 성전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거하셨다면,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그곳에는 단지 새 은혜의 예표와 형상, 그리고 규례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스럽게 거행되고, 모든 기독교 성사가 집행되며, 성령께서 거행되는 성사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인류가 세운 최초의 기독교 교회부터 시작해 봅시다:

최초의 손으로 지은 기독교 교회는 예루살렘, 거룩한 시온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으니, 그곳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인 수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친히 성찬을 거행하시어 거룩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셨으니,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다 마시라, 이는 내 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같은 다락방에서(시낙사르에 따르면 성대한 수요일에) 그리스도의 여제자들 또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문이 닫힌 채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토마스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거룩한 사도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 아내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150] ; 그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불의 혀 모양으로 거룩한 사도들 위에 내려오셨[151] . 그리고 성 베드로 사도의 단 한 번의 설교로 삼천 명이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일(그리스도의 몸을 뜻함)과 기도에 꾸준히 참여하였다[152] . 그 최초의 손으로 지은 기독교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가 거행되고 하나님의 어머니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셨던 그곳에,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총으로 보이지 않게 거하시지 않으셨겠는가?

그 후 거룩한 사도들이 온 우주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 어떤 도시와 나라든 거룩한 믿음으로 비추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주교들을 임명하였으며, 신자들에게는 기도를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모

---

[149] 마태복음 23:38.

[150] 사도행전 1:13, 14.

[151] 사도행전 2.

[152] 사도행전 2:41, 42.

이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묻노니,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들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재하지 않았겠는가?

안티오키아의 플라비아누스 총대주교에 의해 장로로 임명되었던 성 골로투스에게, 하얗고 눈부시게 빛나는 비둘기가 나타나 그의 머리 위를 날아다녔다[153] ; 마찬가지로 아크라간티우스의 성 그레고리우스에게도, 로마에서 주교로 임명되었을 때, 비둘기가 그의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그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1월 *27*일 프롤로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콘스탄티노플에 병든 한 사람이 성 요한 황금입의 무덤이 있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도 누워 있었는데, 교회 천장에 걸린 구세주 그리스도의 성화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니, 성화에서 목소리가 들려와 말하기를: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건강해졌다. 이것이 교회에 임재하신 하느님의 분명한 표징이 아니었겠는가?

예루살렘의 마리아 이집트 여인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들어오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교회 문에서 밀려나곤 했는데, 이는 그녀의 전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154] : 이것이야말로 그 교회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아니었겠는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람 알렉시우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교회 제단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어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다. "유피미아노스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라." 그 음성은[155] 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알리는 분명한 표징이 아니었는가?

또한 서문에는 3월 5일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아모니우스 신부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집전하던 중, 제단 오른쪽에 서 있는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해산기도 전에 나가는 사람들의 이름은 지워버리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교회에 천사가 임재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표징이 아니었는가?

또한 서문의 9월 30일에는,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신성한 성사들에 대해 유혹을 받아, 마치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겼던 어떤 형제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게 성찬식 중에 무서운 계시가 임했으니: 교회 휘장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며,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불이 내려오고, 거룩한 제단 위에서 어린 소가 제물로 바쳐지며, 그 피가 성배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이에 대해 성 에프렘도 그의 설교 86편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4월 3일 '프로로그'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성 아르세니우스 대성인의 행전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156] .

이 모든 것이 주 하나님께서 신성한 비밀과 그분의 은총으로 인간이 지은 기독교 교회들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의 천사들을 통해 그곳을 방문하신다는 분명한 표징이 아니겠는가?

또한 교회 서적들에는 성인들의 교회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임재하심을,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을 기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워지고 거룩하게 된 성전들 안에서 나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곳에서야말로 마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열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이 명백히 드러나며,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그들의 거짓 가르침이 반박된다.

보라, 오 어리석고 그릇된 해석자들아! 기독교 신앙의 시작부터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으니, 기독교 법이 나온 스톤에서 시작하여 사도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을 이어받은 후계자들로부터, 또한 왕들과 위대한 공작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로마에 교회를 세웠고, 그의 복된 어머니

---

[153] 11월 13일, 322쪽 뒷면. 11월 23일, 397쪽 뒷면.

[154] 4월 1일, 171쪽.

[155] 3월 17일.

[156] 5월 8일, 363쪽.

헬레나는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으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콘스탄티노플에 하나님의 지혜 성전을 세웠고; 대공 블라디미르는 키예프에 십일조 교회를 세웠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들들은 각자의 영지에 훌륭한 교회들을 지었으며, 오늘날에도 정통 신자들에 의해 곳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이 손으로 지은 교회들에는 거하지 않으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인들은 다른 나라들뿐만 아니라 우리 러시아에서도 그 빛을 발했으니,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기적 행자들은 러시아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성 베드로 전러시아 대주교는 수도 모스크바에 교회를 세웠고, 기적 행자 성 세르기우스는 라도네지에 교회를 세웠으며, 성 조심은 솔로베츠키 섬에, 그 외 다른 이들은 각지의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너희, 오 하나님의 성전을 배척하는 자들아, 너희는 모든 성전을 세운 성자들보다 더 거룩한 자들이거나, 모든 이단자들보다 더 저주받은 자들이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다. 왜냐하면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신앙에 따라 하나님께 합당한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데,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의 건축을 극도로 경멸하며, 교회에서의 기도 대신에,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지하실과 지하실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거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분이 여러분의 지하실과 지하 공간에 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두막집들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말에 따르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그분이 여러분의 오두막집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한 교회에서는 다르게 계시고, 죄인들의 거처에서는 또 다르게 계시며, 하늘에서는 또 다르게, 지옥에서는 또 다르게 계시니, 이는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라. 시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지옥에 내려가도 거기에도 주께서 계시리라[157]" 하늘에서는 다스리시고, 지옥에서는 악마들을 괴롭히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니라. 이러한 차이로 인해,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교회에서는 신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들이시지만, 반면에 너희의 지하실과 은신처에서는, 너희가 비밀리에 행하는 예배를 혐오하시며, 이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대적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혹시 "교회는 나무 기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겠나이다. 모든 정통 신자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사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임에 틀림없나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158] .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갈비뼈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다면, 어찌하여 거룩한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싫어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경건한 사람이 교회에 가는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도록 사람을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까? 거룩한 시메온이 하나님의 아기를 맞이한 이야기와*,* 성령에 이끌려 교회에 들어갔다는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셨습니까?[159]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의로운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 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굳게 머물렀으니, 이는 성 루카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그들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고 있었다"[160] .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를 피하고 그것을 경멸합니다. 이는 분명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여러분의 늑골 속에 하나

---

157 시 138:8.

158 고린도전서 3:16.

159 누가복음 2:26.

160 누가복음 24:53.

님의 교회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늑골은 강도들의 소굴이며, 여러분을 유혹하고 멸망으로 이끄는 부정한 영의 거처입니다.

너희는 말하리라: '교회가 없는 광야의 거주자들, 곧 위대한 오누프리우스, 테베의 바울, 이집트의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같은 다른 이들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에 대답하노니, 그들은 교회 없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던 그 광야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며,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나무 기둥이 아니라 갈비뼈 속에' 있는 그들 자신의 내적 교회가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가 있는 도시와 마을에 거주하면서도 교회를 멀리하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항해사'라고 불리는 분의 책, 즉 하그라에서 열린 지역 공의회의 규칙 제5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모욕하고, 이를 소홀히 여기며, 기도와 찬양을 위해 그곳에 모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161] . "그리고 제6조는 다음과 같다. '만일 누구든지 공의회 교회를 제외하고 따로 모임을 가지며, 교회에 대해 상의하지 않고 교회 의식을 행하고자 한다면, 주교의 뜻에 따라 그와 함께 사제직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며, 저주받으리라.' 왜냐하면 그 규칙들에 따라 분열주의자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들은 성경의 말씀, "지극히 높으신 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지 않으시나니"를 따르며,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비밀스럽고 성별되지 않은 성소에서 자신들만의 별도의 집회를 거행하기 때문이다.

제*10*장. 감금에 관하여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의 왜곡된 주장을 듣는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기도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162]* ; 그리고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이끌어내며,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공동 찬송을 부르는 것을 금하고, 이렇게 말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기도하라고 명하셨으니, 많은 사람이 모여 찬송을 부르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죄를 이유로 그 말씀을 하셨는가?

2)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것을 금하셨는가?

3) 어떤 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가?

4) 기도하러 교회에 가는 것이 유익한가?

첫 번째 고찰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죄를 지적하기 위해 그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예루살렘에는 위선자(이포크리토이)라고 불리는, 우리 말로 하면 겉만 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자신들이 거룩한 자로 보이기를 원하여 교회 밖에서 기도를 더 많이 드렸고, 도시 곳곳에서 위선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거리나 갈라지는 길목에 두 명, 세 명, 네 명씩 짝을 지어 서서, 이쪽저쪽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거룩한 자로 여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들의 위선적인 기도는 하나님께는 기쁘시지 않고 오직 사람들에게만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며 말씀하셨다.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회당과 길가의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163]* , (상이라 함은 헛된 인간의 영광을 뜻하니, 이것이 바로 위선자들의 상이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 네 방에 들어가서… 등등.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이니 , 주님께서는 규정대로 정해진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아니라, 위선적이고 겉치레인 기도를 피하도록 가르

---

[161] 58쪽.

[162] 마태복음 6:6.

[163] 마태복음 6:5.

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브린의 그릇된 해석을 하는 거짓 교사들은 평신도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찬송과 기도를 멀리하고 오직 기도실에 틀어박혀 기도하라고 가르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

2. 고찰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을 금하셨는가*?*

금하지 않으셨으니, 주님께서는 교회 찬송을 위선적인 기도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교회 밖 도시의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행해지는 것, 또한 교회 기도라기보다 위선자들이 백성들 눈앞에서 교회 밖에서 행하는 그런 기도를 피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모든 이에게 본보기를 보이셨으니, 갓난아기 시절과 소년 시절부터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로 달려가셨던 것처럼, 이는 거룩한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신 지 사십일 만에 흠 없는 어머니이시며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 성모 마리아에 의해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모셔지셨고, 시메온 노인이 그분을 두 팔로 안아 주셨[164] . 이집트에서 돌아온 후, 그분의 부모님(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와 양아버지 요셉)은 (나사렛에서) 매년 여름마다 예루살렘의 유월절 축제[165] 에 참석하러 가셨으며, 기도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당에도 자주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살이 되셨을 때,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다가 성전에서 선생들 가운데 앉아 계신 것을 발견하셨다. 성인이 되신 후에도 얼마나 자주 성전에 계셨는지는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85장 초반: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파는 자들과 사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와 같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를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리고 절름발이와 눈먼 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분께 나아왔습니다*[166]* . 제85장: 그분이 교회에 오시자, 가르치시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분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167]* ?" 제108장: *"*나는 매일 너희와 함께 교회에 앉아 가르쳤으나,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168]* ." 누가복음, 98절: *"*매일 교회에서 가르치시며*[169]* ." 108절: *"*낮에는 교회에서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으로 올라가 쉬시곤 하셨다*[170]* ." 요한복음, 26절: *"*절기의 중간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다*[171]* ." 27장: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셨고, 이튿날 아침 다시 성전에 오셨더니, 모든 백성이 그분께로 나아갔다*[172]* . 37장: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식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니셨다*[173]* . 복음서의 이러한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어찌하여 다른 이들이 기도를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을 금하셨겠는가? 그리스도가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직 닫힌 방에서만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말하는 비뚤어진 해석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도 마태복음에 대한 제19강해 240쪽에서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기도실에 들어가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찌 부적절하겠느냐?" 물론 매우 마땅한 일이지만, (위선적이지 않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이다. 성 테오필락트 역시 복음서 주석에서, 그리스도의 "네 방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오히려 더욱더(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올바른 마

---

164 누가복음 2.

165 누가복음 20.

166 마태복음 21:12 이하.

167 같은 책 23절.

168 같은 책 26장 56절.

169 누가복음 19:47.

170 누가복음 21:37.

171 요한복음 7:14.

172 요한복음 8:1, 2.

173 요한복음 10:22, 23.

음으로, 즉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이성, 그리고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은밀히 기도하면서도, 남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행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테오필락트의 말씀이다.

3. 고찰

어떤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할까?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두 가지 감옥이 있으니,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다. 물질적인 감옥은 나무나 돌로 지어진 것이며, 영적인 감옥은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이다. 성 테오필락트는 그리스도의 예언된 말씀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한다. "감옥이란 바로 은밀한 생각이다." 물질적인 감옥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만, 영적인 감옥은 사람과 함께 어디든지 따라다닙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의 마음은 항상 그 안에 있으니, 그곳에서 자신의 생각을 모아 자기 내면으로 집중하고,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며, 비록 사람들 한가운데에 있다 하더라도 은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 암브로시오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성소로 들어가라. 벽으로 둘러싸인 성소가 아니라, 네 지체가 갇히는 그 성소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네 생각이 갇히느니라. 그 기도하는 방은 어디에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어디에서나 은밀하여 아무도 볼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보신다." 여기까지가 성 암브로시오의 말씀이다. 이 영적인 방, 즉 마음속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이 방에서는,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물질적인 방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마땅하며; 이 영적인 기도처와 함께 교회에도 나아가야 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러나 마음의 기도처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고, 비록 지하에 숨어 기도하든, 땅속 동굴에 들어가 기도하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를 하는 것이며, 그의 기도는 죄가 된다. 물질적인 방에만 틀어박혀 기도하라고 가르치며 교회를 경시하고, 그곳에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는 그릇된 해석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4번째 고찰

기도를 위해 교회에 가는 것이 유익한가?

이에 대해 (많은 이들 대신)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 『마르가리트』라는 책의 5번째 설교, '지각할 수 없는 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이 설교는 그가 안티오키아에서 아직 장로 직분을 맡고 있을 때 백성들에게 한 것으로, 그 설교에서 그는 백성들이 성찬식에 오는 것을 게을리한다고 꾸짖으며; 그러나 전례 후에 이어지는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모든 일을 제쳐두고 서둘러 달려오며 서로를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병인가? 지금 셀 수 없이 많은 (신도들이) 모여, 그토록 큰 두려움 속에서 내 말을 경청하고 있는데, 가장 두려운 시간인 (성찬식) 때 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을)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고, 크게 탄식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면, 서로를 방해하며 끝까지 (교훈을) 듣지 않는 자들로 인해 많은 수고와 오랜 노력이 따르지만, 성스러운 신비 안에서 그리스도께 나타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교회가 비어 있어도 수고가 따릅니다[174] . 그러나 많은 이들이 내뱉는 이 냉담한 대답은 무엇인가? "기도는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설교와 가르침은 집에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아,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회에서처럼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회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으며, 거기서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소리가 올려지기 때문이다. 주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보다 형제들과 함께 기도할 때 더 잘 들리시는 법이다. 여기에는 한마음과 화합, 사랑의 유대, 그리고 사제들의 기도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제들이 제단에 서는 것이니, 백성들의 기도는 미약하지만, 이 가장 강력한(사제들의) 기도와 합쳐져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하기 위함이다[175] . 여기까지가 황금입의 설교이다.

---

[174] 23쪽.

[175] 아래.

여기서 모든 이는 골로테우스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깨달아야 한다. 집에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와 같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주님께 직접 기도할 때와 형제들과 함께 기도할 때와는 들으시는 방식이 다르며; 또한: 바로 이 때문에 사제들이 앞에 서서, 백성들의 기도는 미약하지만 사제들의 기도는 강력하므로,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늘로 올라갈 것이니; 보라, 기도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그리고 다시 그 위대한 스승께서, 바로 그 말씀의 아래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 사랑하는 자여, (즉, 성찬예배 시간에) 사람들만이 그 가장 두려운 외침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대천사들도 기도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때와, 제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올리브 가지를 잘라 왕들에게 나아가, 정원과 자비와 인간애를 떠올리며 그들에게 청하듯이, 그때 천사들도 올리브 가지 대신 주님의 육신을 바치며, 주님께 인간의 본성에 대해 간구하며, 단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미리 이토록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당신의 영혼까지 바치셨으니, 이들에 대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 몸을 바치신 바로 그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176]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성 요한 크리소스톰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찾아 기도하는 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비뚤어진 해석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비방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로 그 성 요한 황금입이 고린도전서 5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말씀을 인용하려 하지 않겠는가? "그때(사도들 시대)에는 교회의 집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교회 자체가 집이 되었으니, 오히려 모든 술집이나 여관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들이다. 그토록 웃음과 소동이 가득하여, 마치 목욕탕이나 장터에서 '[177] '라고 외치는 자들처럼 모두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답하노니: 성자 크리소스토모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심 없이 교회에 들어와 교회에 서서 경건하게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기보다 수다를 떨며, 교회 찬송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속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자들을 비난하는 것이며; 그를 비난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은 높은 찬사로 높이 칭송하시며,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발소도, 향유 판매점도,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상점도 아니며, 천사들의 장소요, 대천사들의 장소요, 하나님의 왕국이요, 바로 그 하늘 그 자체이다." 또한 고린도후서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현관과 입구를 입맞추며, 서로 입맞추라." "혹시 이 여인들이 이 교회의 현관을 입맞추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178] ." 여기까지가 황금입의 요한입니다. 이는 바로 그 거룩한 스승이 교회 모독자들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교회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경건하지 않게 서 있고 말하는 두려움 없는 사람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은 매우 비뚤어진 말을 지껄이며, 자신의 악의로 광란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하고,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러 그곳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11*장. 예배에 관하여

최근 우리에게 전해진 바에 따르면, 우리 교구 내의 일부 남자와 여자들이 몰래 찾아온 거짓 교사들과 비뚤어진 해석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자신들과 비슷한 다른 이들에게, 교회에 가서 기도하지 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집에서도 거룩한 성화상 앞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경건한 경배, 즉 몸과 머리를 땅에 닿도록 숙이는 경배로 기도하지 말고, 오직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거짓 가르침을 확증하기 위해, 복음서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하되: "참된 예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것이라"*[179]* ; 그리고 그 말씀을 왜곡하여 해석

---

[176] 25쪽.

[177] 1007쪽.

[178] 1452쪽.

하며 말하기를: "몸과 머리를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영으로만, 설령 엎드려 있더라도, 경배하라고 명하신다. 그리고 그들은 '주일 교리 복음서'라고 불리는 책을 인용하는데, 그 책에서 사마리아인에 관한 주일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참된 예배자들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아버지께 경배한다"[180] . 어찌 이토록 미친 거짓 교사들과 허튼말쟁이들의 광기가 이토록 터무니없는가! 주님의 말씀, 곧 순수한 말씀은, 육신의 몸을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처럼 비방받고 있다. 그들은 그 말씀들로부터 유익을 얻어야 마땅함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미친 듯이 해석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그들의 거짓 가르침은 이와 같다. 꽃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을 때, 벌이 날아와 그 이슬을 모으고, 거미도 기어와 같은 꽃에서 이슬을 모은다. 그러나 그들이 모은 이슬은 서로 다른 것으로 변합니다. 꿀벌에게는 꿀로, 거미에게는 치명적인 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꽃에서 이단자들은 그 꽃을 왜곡하여 해석하지만, 정통하고 덕이 있는 사람들은 마치 꿀벌이 꿀을 모으듯 그 말씀에서 영혼에 유익한 달콤함을 얻습니다. 반면 그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치 거미처럼 이단의 해악을 받아들입니다. 성 도르페이가 잘 말씀하셨다. "나쁜 습관을 가진 영혼은, 설령 유익한 것일지라도 모든 것에서 해를 입는다[181] ." 그러니 우리도 그들의 어리석음을 반박하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폭로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찰해 보자:

1) 주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이유로 사마리아인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가?

2) 그 말씀으로 사람이 육신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라고 금하고 계신 것입니까?

또한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탐구해 보자.

그러나 먼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분열에 대한 역사를 간략히 제시하겠으니, 그리하여 우리가 고찰하고자 하는 바가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겠다.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로보암이 왕위에 오른 때부터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분열이 시작되었는데(이에 대해서는 열왕기하와 열왕기상 4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바빌론 포로 생활[182] 까지 이어졌다. 바빌론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들 사이에 다시 분열이 일어났는데, 특히 유대인의 대제사장인 야다라고 불리는 마나세스의 형제가 이방 여인, 즉 사마리아 왕자의 딸과 결혼한 탓에 제단 봉사에서 쫓겨나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서 장인 곁으로 갔기 때문이다. (이는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마나시야는 사마리아의 가장 높은 산인 가리짐이라 불리는 곳(그 산 기슭에는 시헴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후에 시하르라고 불리게 되었다)에서 장인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과 완전히 똑같은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때부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분열이 더욱 확고해졌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족속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가지 않고, 가리짐 산에 있는 자신들의 성전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기도하였고, 예루살렘 성전보다 그 성전을 더 높이 여겼는데, 비록 그곳에 우상이 모셔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일명 에피파네스가 그곳에 디아 신상을 세웠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큰 증오가 있었으며, 서로를 혐오하여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대화하지도 않았다. 그 때문에 그 여인이 그리스도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십니까?"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서로의 도시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들을 이방인, 즉 이교도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주 그리스도께서는 악랄한 유대인의 성향을 헤아려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을 피하라고 명하시며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길로

---

[179] 인. 4:23.

[180] 115쪽.

[181] 말씀 18, 103쪽.

[182] 열왕기상 12장.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라[183] .” 사마리아인들도 예루살렘의 성읍들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며, 유대인 사회에서 배제되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며, 사마리아라는 이름 자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주님을 책망하려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옳게 한 말이 아니냐[184] ?”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성전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하늘의 하나님께 경배하기에 합당한 곳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이다. 시온에서 율법이 나왔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선지자는 말하기를[185] ; 또 다른 선지자는 말하기를: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시고, 예루살렘에서 그 음성을 내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시온, 곧 나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거룩하리라’ 하셨다”[186] . “오직 우리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니(유대인들이 말하길), 우리에게서 그분께 경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온 세상에서 그분이 거하시고 경배받으시도록 선택된 다른 곳은 없고, 오직 우리의 예루살렘 교회뿐이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책 외에는 예언서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정반대로 말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들의 산과 그들의 교회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절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메소포타미아(강 사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은 처음에 세켐에 이르러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첫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기쁜 응답을 받았[187] ; 마찬가지로 야곱도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와, 시헴에 자신의 성소를 세웠으며, 시헴의 아버지 에모르에게서 땅 일부를 사들였고,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 그들은 용맹을 발휘하여 자매 디나를 모욕한 시헴 사람들을 쳐 죽였으며,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는 요셉 자신의 유언에 따라 이곳에 안치되었으니, 이는 야곱이 죽을 때 그에게 그 땅을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188] . 여기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이스크 왕을 물리친 후, 주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첫 제단을 세웠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기록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었으며,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다[189] . 여기야말로 (사마리아인들이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께 경배해야 마땅한 곳이며, 이 세상에서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 선택된 곳은 오직 이 산과 우리의 이 교회뿐이라.

이와 같은 논쟁 속에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육신적인 사람들로서, 각자 자신들의 장소가 하나님의 장소라고 주장하였다. 어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며,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을 알지 못하였다.

이제 고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찰

주 그리스도께서는 왜 사마리아인들에게 “진정한 예배자들”이라는 말씀과 그 밖의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83 마태복음 10:5.

184 요한복음 8:48.

185 미가 4:2.

186 요엘 3:10, 17.

187 창세기 12장.

188 창세기에 33장과 34장.

189 여호수아 8장.

1)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진 그릇된 생각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마치 하나님이 땅 위의 한 장소로 한정되시고, 한 성전에만 갇혀 계신 것처럼 여기는 그 생각 말이다. 그래서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경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어떤 장소나 성전으로도 제한될 수 없으시며, 어디에나 계시고 정의할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으시기 때문이다.

2) 자기들의 성전을 자랑하며 교만해하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오만을 꺾고, 그 성전들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이는 곧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여러분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머지않아 그 교회들은 파괴되고, 여러분의 땅은 황폐해지며, 여러분의 제사는 중단될 것이다.

3) 그들의 원한과 무익한 다툼을 없애시고,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시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창조하시고, 그들 사이에 형제애를 세우시며, 그분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참된 예배자들을 드러내 주소서.

4) 육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그들의 거짓된 하나님 숭배를 폭로하시기를 원하시니, 이를 위해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경배자들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것이요*,* 단지 육신적인 숭배와 바치는 가축 제물로만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2. 고찰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육체와 이마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절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금하셨다면, 갓 태어난 아기였을 때 목자들과 엎드려 경배한 세 페르시아 왕들이 온몸으로 드린 경배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금하셨다면, 죄 많은 여인이 그분의 발을 만지는 것[190] 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입맞추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191]* ; 또 어떤 귀족이 와서 그분께 절하며 말하기를*, "*제 딸이 지금 죽어 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192]* ;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을 구원받은 후, 와서 그분께 절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193]* .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며*[194]* *:* 또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를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형제가 죽지 않았을 텐데*[195]* .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육신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금하셨다면, 그분께서도 벚꽃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시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만약 경배하는 것을 금하셨다면, 부활 후 갈릴리의 산으로 오신 그분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금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그분을 보고 경배했습니다*[196]* . 또한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그분께 경배했습니다*[197]* ? 또한 하늘에서도 요한 신학자에게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니,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는 스물네 명의 장로들이었다*[198]* . 그러나 학문적인 논의를 제

---

190 누가복음 7:38.

191 마태복음 8:2.

192 마태복음 9:18.

193 마태복음 14:33.

194 마태복음 15:22.

195 요한복음 11:21.

196 마태복음 28:17.

197 누가복음 24:51, 52.

쳐두고,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러시아의 경건한 성부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자신의 구원을 염려하는 이들도 똑같이 행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릇된 해석을 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며, 육체로 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절하지 말고 오직 영으로만 절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자신을 비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해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가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경배를 드렸는지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주일 교훈 복음서'라고 불리는 그 책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말했듯이, 이 책에 대해서는 육체로는 경배하지 말고 오직 영으로만 경배하라고 가르친다는 등의 왜곡된 해석이 제기되고 있으니, 그 책에서 해설을 읽어보자.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를 믿는 자들을 참된 경배자라고 부르시니, 그들은 우리를 교회로 드러내시어,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처럼 그림자에 절하는 자들이 아니니라. 모든 유대인의 제물은 그림자요 진리의 예표였으나, 참된 예배자들은 육체로가 아니라 영으로, 즉 육체적인 제물이 아니라 영적인 제물로 아버지께 경배한다"[199] 여기까지가 해석이다. 보라, 그 책이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육체로, 즉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육체적 제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즉, 기독교의 영적 제물로 경배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육체에 대해, 사람이 육체로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물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구약 시대의 육체적인 경배, 즉 동물들의 몸, 어린 양과 송아지, 염소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도 자신의 육체로 경배했으나, 자신의 영, 즉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집중하는 법을 알지 못하였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상한 마음이다*[200]* ";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경배는 육체적인 것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드렸으나, 깨끗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않았기에, 그들의 경배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곧 육체뿐만 아니라 영,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으로 경배하여, 육체는 머리를 땅에 숙여야 한다. 이는 교회에서 집사가 선포하는 대로이다: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합시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기도의 생각으로 하늘을 횡단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또한 "영으로만 경배할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경배해야 한다"는 성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그분은 로마서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니*,* 나는 내 영으로 그분을 섬기노라"*[201]* ; 또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셨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노라"*[202]* . 이 사도는 영과 육신 모두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지, 그릇된 해석을 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오직 영으로만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신을 굽혀 경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결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덕이 있는 사람이 선한 일에 힘쓰고,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볼 때, 그를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이 있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도할 때 육체적인 경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진리로 경배하는 것은 덕이 있고 근면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말들의 해석은 영적인 것이지만, 평신도들에게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

198 계 4:10.

199 사마리아인 주보 114쪽과 115쪽.

200 시 50:19.

201 로마서 1:9.

202 에베소서 3:14.

는 진리 안에서, 즉 진리 그 자체이신 그분의 독생자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모든 덕스러운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해야 합니다. 즉, 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께 합당한 삶, 영의 온유함과 기독교적 진리를 실천함으로 말이다.

왜냐하면 그릇된 해석을 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며, 전에 들어본 적도 없는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마치 주 그리스도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로 사람들에게 육체와 머리를 땅에 닿도록 엎드려 경배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영, 즉 마음으로, 설령 누워 있더라도 경배하라고 하신 것처럼 말이다.

제*12*장. 성상에 관하여

지난 1708년, 그리스도의 빛나는 부활절 이후, 로스토프 포사드에 위치한 거룩한 십자가 승천 교회에서 안토니 신부가 우리에게 자신의 교구민 중 한 명인 포사드 주민, 트로피메라는 신자가 성스러운 교회를 기피하고, 성화상에 경배하지 않으며, 어떤 비밀스러운 이단 분열주의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 타락했다고 보고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소환되어 분열주의에 대해 심문을 받았을 때, 그는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그러한 자임을 드러냈다. 행동으로 말하자면, 주교의 십자가 방에 들어와도 십자 성호를 긋지 않았고, 성스러운 성화상에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도 자신이 분열주의자임을 드러냈는데, 이단자들에게 배운 대로 성스러운 성화상들을 모독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문맹이었으나, 신성한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기억해 내어, 그릇된 해석자들로부터 배운 대로 이를 잘못 해석하였으며, 우리 루터파와 칼뱅파 이단자들, 나아가 유대인의 정신을 빌려 성경을 인용하여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203] ; 그리고 다시 말하기를: "성화는 우상과 같으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며, 입은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한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에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그들과 같아지리라[204] . 그러고 나서 그는 우리에게 물었다. "누가 성상에 경배하라고 명했느냐? 어떤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사도인가? 만약 선지자도, 그리스도도, 사도도 아닌 누군가가 명했다면, 우리가 왜 성상에 절하라고 가르치는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하겠느냐?" 그의 이러한 분열적인 말에 대해 우리는 겸손하게 충분히 답변한 뒤, 그에게 거룩한 교회에 순종하고, 고백과 성찬, 그리고 거룩한 성화 숭배를 통해 그 교회에 합류할 것을 권면하였다.

다른 이들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우상과 성화상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간략히 밝히기로 했다. 다음과 같은 고찰을 통해 이를 보여주려 한다:

1
우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화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
우상은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성화는 언제부터 등장했는가?
3
누가 우상에게 절했나요?
그리고 누가 성화상을 숭배했는가?
4
우상 숭배가 금지된 이유는 무엇인가?

---

[203] 출애굽기 20:4.

[204] 시편 113:12.

그리고 어떤 이유로 성화 숭배는 금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장되었는가?

5

누가 교회들에게 성화상을 숭배하도록 전한 것인가?

그리고 누가 성화 숭배를 거부하기 시작했는가?

제1고찰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상이란, 더럽고 불경하며 신이 혐오하는, 죄악의 추악함 속에서 생을 다하고 비참하게 파멸하여, 현재 지옥에서 악마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형상, 혹은 어떤 짐승의 형상으로, 나무에 새겨지거나, 돌에 파내거나, 구리, 은, 금으로 주조되거나, 판자에 그려진 것: 그 형상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교도들에 의해 신으로 숭배되며, 비록 신이 아니더라도 제물을 바치며 마치 신인 양 숭배받는다: 이를 우상이라 부르며, 거짓 신의 형상이나 모습이다.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는 우리 구세주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인간과 함께 사신 모습, 혹은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 성모 마리아, 또는 의롭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 현재 천사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성인을 묘사한 것이다.

우상과 성화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록 둘 다, 즉 우상과 거룩한 성화가 모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는 하지만, 그 사이에는 불경스러운 것과 경건한 것 사이의 차이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흙과 금, 그을음과 눈, 어둠과 빛 사이의 차이만큼이나 크며,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즉 악당과 왕의 자색 옷을 입고 존경받는 자 사이의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우리는 악당을 혐오하고 왕을 공경합니다; 저들은 모독하지만, 이들에게는 경배한다. 이것이 바로 사악한 신들의 우상과 성인들의 성상 사이의 차이이다. 시메온 메타프라스트도 성 안드레아 크리토스의 행전(성 안드레아는 성상을 옹호하다가 순교했으며, 10월 17일에 기념된다)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며 이를 밝히고 있다: 어떤 사물이 악하고, 영혼에 해로우며, 금지된 것이라면, 그 사물의 성상 또한 악하고, 영혼에 해로우며, 금지된 것이다. 반면 어떤 사물이 선하고, 유익하며, 금지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사물의 성상 또한 선하고, 유익하며, 금지되지 않은 것이다[205] . 이교도의 신들은 악하며, 영혼에 해롭고, 그들을 숭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성상은 악하고, 영혼에 해로우며,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그들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시며, 그분의 종들도 선하고 우리에게 영혼에 지극히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그분의 성도들을 숭배하는 것은 단지 금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명해진 바입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시여, 주의 친구들은 내게 지극히 귀했습니다*"*[206] . 주님의 성상과 그분의 존경받는 친구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207] , 그들은 선하며, 우리 영혼에 지극히 유익하니, 우리는 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성상에 바치는 공경이 그 성상에 묘사된 분 자신에게로 전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 요한 다마스쿠스의 말씀에서도 우상과 성화 사이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는 이단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외치며 말합니다. "무슨 이유로, 법을 어기는 이단자여, 네가 나를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고 말하느냐? 내가 도대체 어떤 우상에게 절하고 있느냐, 내게 말하라: 죽은 아폴로에게인가, 아니면 내게 그분의 육신의 모습을 알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게인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혜를 자랑하는 자여, 내가 어떤 우상에게 절하는지 말하라. 아르테미스인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영원히 동정녀이신 지극히 거룩하고 순결하신 성모 마리아의 형상인가? 이단자여, 내가 어떤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지 말하라: 디오스인가, 아니면 세례자 요한 성인의 형상인가? 내

---

[205] 200쪽 뒷면.

[206] 시편 138:17.

[207] 요한복음 15:14.

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가: 디오스인가, 아니면 성스러운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형상, 그리고 태초부터 주님께 기쁨을 드린 모든 성인들의 형상인가? 그리고 누가 감히 우상 숭배로 이 이야기(그림으로 묘사된)를 꾸며내어, 그리스도의 수난과 그분의 성인들, 또는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물려주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겠는가? 이는 우리가 성부들로부터 장식된 것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이다[208] ." 여기까지가 다마스쿠스의 글이다. 아폴로의 형상과 아르테미스의 형상, 디오스의 형상은 모두 더러운 우상들이나, 그리스도의 형상과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 성모 마리아의 형상, 그리고 하느님의 성인들의 형상은 모두 거룩한 성화들이다. 더러운 우상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멸받지만, 거룩한 성화들은 숭배받기 때문이다.

2. 고찰

우상은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어떤 이들은 세루흐, 즉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우상이 시작되었다고 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세루흐는 우상의 발명가가 아니라, 그 이전에 발명된 우상을 제작하는 장인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그가 생계를 유지하던 수공예였기 때문이다. 우상은 칼데아의 왕 니나, 곧 빌로의 아들이자 아시리아와 바빌론을 지배했던 자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죽은 아버지를 애도하며 슬퍼하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본뜬 조각상을 만들어 도시 한가운데 기둥 위에 세워 아버지를 기리고, 백성들에게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명령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아래에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신인 양 숭배한 최초의 우상이 되었다. 이집트 땅에서도 우상 숭배의 시작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시로파니스라는 이름의 한 유명한 귀족이, 죽은 아들을 위해 울고 통곡하며, 슬픔을 달래고자 아들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 죽은 자의 관 위에 세웠고, 그것을 바라보며 슬픔을 조금이나마 달랬다. 그의 통치 아래 있던 백성들은 주인의 뜻에 따르려 하여, 제물을 바치며 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 사실을 황금입 성인은 에베소서 주해 설교에서 언급한 바 있다[209] .

성스러운 성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화는 바로 그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대화하시며 율법을 주실 때, 홍색과 자색 천으로 만든 휘장들로 언약궤와 증거의 성막을 만들 것을 명하셨고, 언약궤 위에 금으로 빚은 두 케루빔을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이다[210] . 또한 휘장에는 자수로 케루빔의 형상을 수놓으라고 하셨으며, 시나이 산의 구름 속에서 그 성소와 케루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성화상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려진 거룩한 케루빔의 형상을 그대로 따르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분명히 드러나듯이, 어떤 것은 우상, 즉 이교도의 더러운 신들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며, 또 어떤 것은 성화, 곧 신성한 영광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금하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늘 위에[211] , 곧 해와 달과 별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이는 그들이 이집트인들로부터 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갖 동물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법도 배웠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그 악한 우상 숭배를 금하시고, 성전에서 거룩한 케루빔들의 성화를 그려 그 성화를 경외하며, 경멸하지 말고 존중하라고 명하셨다.

제3고찰

누가 우상에게 절했는가*?*

---

[208] 『소보르니크』 325쪽.

[209] 제5장, 제18강, 1757쪽.

[210] 출애굽기 25장과 26장.

[211] 출애굽기 20:4.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잃었으며, 자신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을 줄도 기대하지 않았고, 이 생애 외에 다른 생명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악마에게 현혹되어 마법에 빠지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던 바로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누가 성인의 성화를 공경했는가*?*

모세와 아론, 거룩한 자들이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었다. 그들은 증거의 성소에 들어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였으며, 언약궤와 언약궤 위에 배치된 그룹들, 그리고 휘장에 그려진 형상들 앞에서 경배하며, 이를 거룩한 성상으로 공경하였다. 성 바울 사도도 이를 언급하며 말하기를, *"*하늘의 형상과 모형을 섬긴다[212] ," (즉, 케루빔의 형상들)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보라, (하나님께서) 산에서 네게 보여준 형상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셨다.*"* 그들이 언약궤와 케루빔 형상 앞에서 주 하나님께 드린 그 섬김과 경배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는 불경한 행위로 간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극한 경건함으로 여겨졌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통해 '지성소'라 불리는, 두 번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에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성 다윗도 바로 그 성상들과 케루빔의 형상들을 공경하며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의 거룩한 성전에 경배하리니*,* 주의 성소 안에서[213] ." 여기서 모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윗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케루빔의 성상 앞에서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을 금으로 된 케루빔으로 장식했을 때,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며 기도했을 때, 그가 케루빔의 형상들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겠는가[214] ? 또한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 성모 마리아께서도 어린 시절 성소 안에서 양육받으시며, 두 번째 휘장 너머에서 밤낮으로 기도하셨을 때, 그곳에 있던 케루빔의 형상들을 공경하지 않으셨겠는가? 진실로 그분은 그들을 경멸하지도, 하찮게 여기지도 않으셨으며, 오히려 하느님의 거룩한 중재자들의 형상으로 공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단 앞에서 땅에 엎드려 하느님께 기도하실 때, 그분의 눈앞에는 언약궤와 제단을 감싸고 있는 영광의 케루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즉, 그 형상들 앞에 절하셨을 뿐, 제단의 물질이나 언약궤, 혹은 케루빔의 물질 자체에 절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는 물질들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로 드높이셨으며, 그 물질들을 하느님의 성소로 공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성화상 앞에서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성화상의 물질에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이고 보이지 않는 분을 마음으로 바라보며, 성화상 자체는 성인들의 형상으로 공경합니다.

4. 고찰

우상 숭배가 금지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상 숭배가 금지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상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니라"[215] . 따라서 우상 숭배는 불경스럽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행위이다.

2) 우상 속에 악령들이 깃들어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이다.

3) 우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교 신들의 추악한 모습이 떠오르니, 그 우상들은 바로 그 신들이었으며, 그들의 삶과 비정상적인 음행, 그리고 그 밖의 온갖 추악한 행위들이 기억나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것들을 떠올림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은 더러운 생각으로 타락하여, 그들의 신들이 행했던 바로 그 불법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

212 히브리서 8:5.

213 시편 5:8.

214 열왕기상 8장.

215 고린도전서 8:4.

4) 우상 숭배의 명절에 그들의 신전에서는 지독한 불법이 자행되었으니, 과식, 술취함, 음행(뻔뻔하게 자행되는), 그리고 살인이 그것이었다.

5) 불경건한 자들은 짐승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로 도살하였으니, 이는 시편에 기록된 바와 같다. *"*그들은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악마에게 잡아먹혔으며*,* 무고한 피*,* 곧 자기 아들들과 딸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잡아먹혔기 때문이다"[216] ; 또한 다시 말하기를: *"*아들들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은 갓난아이들에게 주었다"[217] , 즉, 악마에게 제물로 바쳐 도살되고 구워진 자기 아들들의 고기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직접 먹고, 남은 것은 다른 갓난아이들에게 주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상 숭배는 왜 금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장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화상은 성인들의 형상을 담고 있어, 우리를 성스러운 삶으로 이끄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성상은, 그분의 인간적인 형상을 따라 그려졌기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분의 성육신과, 지극히 순결한 동정녀에게서 이루어진 형언할 수 없고 썩지 않는 탄생, 그리고 그분이 젊은 시절부터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다니시며 행하신 수고와: 그분의 기적과 능력,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 매장, 부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는 큰 감사를 드리고, 신성한 사랑에 불타오르며, 그분의 거룩한 성화 앞에서 겸손히 경배합니다.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성화를 바라볼 때, 그분의 흠없고 지극히 거룩한 생애를 떠올리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분은 자신의 태중에 하느님의 말씀을 잉태하셨으며, 탄생 전에도, 탄생 시에도, 탄생 후에도 변함없이 동정녀로 계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녀적인 젖가슴으로, 만물을 양육하시는 아기를 먹이셨습니다. 어떻게 그분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하셨고, 거기서 돌아오셨으며, 그분의 어린 시절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그분을 양육하셨는지. 어떻게 십자가 곁에 서서 울부짖으시며, 인류를 위해 그분이 겪으신 그 엄청난 고통을 바라보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진 그분의 몸을 눈물로 씻어 주시고, 수의로 감싸 무덤에 안치하셨는지. 그분의 부활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으며, 그분의 눈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분을 배웅하셨고, 수면 중에 그분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분께로 가셔서 그분의 보좌 우편에 서시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를 기억하며,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신 분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고, 감동을 받아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힘쓰며, 우리에게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강력한 중보자가 계심을 믿고 소망 속에서 굳건해집니다.

다른 하나님의 성인들의 성화를 주의 깊게 바라볼 때, 그들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과 위업, 수고를 떠올리게 하며, 우리가 그들을 본받도록 격려해 줍니다.

그 때문에 성화상은 금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배하도록 맡겨져 있습니다.

5번째 고찰

누가 교회들에게 성화를 공경하도록 명하셨는가*?*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물로 지극히 거룩하신 얼굴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으셨을 때, 그 수건에 신성한 얼굴의 지극히 거룩한 형상이 나타나게 하셨으며, 이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를 에데사의 아바르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8월 16일.

그리스도 주님에 이어 성 루카 복음사가가 전하였는데, 그에 대한 전기에 따르면, 그는 성화 화가 중 첫 번째로,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계신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뛰어난 회화 기법으로 그려냈으며, 다른 두 점의 성모 성화도 그려 주님의 어머니께 바쳐 그분의 기

---

[216] 시 105:37.

[217] 시편 16:14.

뽐을 구했다. 성모님께서는 그분께서 그리신 성화들을 보시고, 지극히 순결하신 입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안에서 태어나신 분의 은총과 나의 은총이 그 성화들과 함께 하기를." 또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두 대 사도의 형상도 바로 그 성 루카가 나무판에 그려냈으며, 그를 통해 온 세상에 성화 제작이라는 선하고 존귀한 일이 시작되었다. 성 다마스쿠스도 루카의 성화 제작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복음 전도자이자 사도인 루카가, 영원히 동정녀 마리아의 존귀한 성화를 그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을 테오필로에게 보냈[218] ."

또한 교회 역사에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성화에 대해 전해지는데,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출혈에서 치유받은 여인이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상과 나이를 닮은 모습을 돌로 새겨, 자신의 고향인 페니키아의 파네아다라고 불리는 도시에서, 특별한 장소에 세웠는데, 그 아래에서 자라는 풀과 과거의 병들이 치유되었다[219] . 그 그리스도의 형상은 그 자리에 유리아누스 배교자의 통치 시기까지 서 있었다. 율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형상, 즉 우상을 세웠으나, 곧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둥이 그 우상을 강타하여 율리아누스의 우상을 흙먼지로 산산조각 냈다. 콘스탄티노플의 역사학자 게오르기 케드린이『율리아누스 왕조에 관한 시노프시아』[220] 에서 이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니키포로스 칼리스토스도 제10권 30장에서, 에르미우스 소조메노스도 제5권 20장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10월 20일 성 순교자 아르테미아의 행전[221] 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늘은 베드로의 육신과 닮은 것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치유 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 자신도 가졌던 것과 같았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병자들을 짚더미 위에 눕히거나 침상이나 침대에 눕혀 두면, 베드로가 올 때 적어도 그의 그림자가 그들 중 누군가를 덮어 줄 것이라"[222] . 그렇다면 오늘날 베드로의 성화나 다른 성인의 성화는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그의 몸의 그림자와 같지 않은가? 믿는 자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화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인쇄된『모스크바 대성당 전례서』에서, 대순교 기간 둘째 주 월요일에 낭독되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방대한『스비트체』에도 성모 마리아의 성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시대에 리다에 세워진 성 베드로와 성 요한 교회에서 기둥 위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려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책의 341쪽과 367쪽을 참조하라. 또한 키예프에서 인쇄된『미네이 체티』에서도 6월 26일, 177쪽 뒷면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성 바울 사도의 제자였던 성녀 제1순교자 테클라의 행전에는, 우상 숭배 사제가 그녀의 성화상에서 치유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9월 24일, 103쪽을 참조하라.

이러한 진실된 교회 기록들을 통해, 초기 교회에서 그리스도 주님과 성도 사도들로부터 성화상으로 교회를 장식하고 이를 경건하게 숭배하는 관습이 전해졌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와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모욕당하고 찔려 피를 흘리신 비리테의 그리스도 성상에 관한 성 아파나시우스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10월 11일 서문에서, 그리고 인쇄된『미네이 체티』의 같은 달 같은 날, 179쪽 뒷면과 180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니, 성녀 대순교자 예카테리나가 세례를 받기 전에, 한 영적 스승이 신성한 아기를 품에 안고 계신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성화를 주며, 그분께 기도하라고 명하였으니: 그리하여 예카테리나는 놀라운 환시를 보게 되었고,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약혼 반지를 육안으로 직접 받아들였다. 이에 관한 내용은 11월 24일자『[223]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18]『소보르니크』, 327쪽 뒷면.

[219] 누가복음 8장, 39절 시작 부분.

[220] 305쪽.

[221] 209쪽.

[222] 사도행전 5:15.

예루살렘 총대주교 성 소프로니아의『리모나르』제180장에 따르면, 덕행이 뛰어난 한 은둔자 아바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약 20 포프리스 떨어진 세후스타 마을 근처에서 살아 계실 때, 자신의 셀리에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 마리아의 성화를 모시고 계셨다. 그리고 그가 먼 길을 떠나거나, 멀리 떨어진 사막으로 가거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지와 주님의 성묘에 경배하고 생명을 주는 십자가에 입을 맞추거나, 기도를 위해 시나이 산으로 가고자 할 때면,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성스러운 순교자들의 무덤으로 향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 노인이 승리한 순교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에페소스의 성 요한 신학자의 무덤으로, 때로는 에우칸토스의 성 테오도로스에게, 때로는 셀레우키아의 이사우리아에 있는 성 테클레에게, 때로는 사라파스의 성 세르기우스에게, 때로는 이 성자에게, 때로는 저 성자에게 찾아가곤 했다. 그는 수도실에서 나올 때면 성화상 앞에 등불을 놓고 불을 붙인 뒤, 기도를 드리고는 나갔는데, 길을 다녀와 보면 길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등불이 꺼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때로는 한 달, 때로는 두 달 동안 머무르기도 했는데,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

성녀 마리아 이집트인은 예루살렘 성당 현관에 있는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 성화 앞에서 기도하던 중, 성당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나,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그녀를 교회 문에서 밀어내어 들어갈 수 없었으나, 다시 그 성화상 앞에서 기도한 끝에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성한 도움을 받아 사막으로 떠났다[224] .

성 요한 다마스쿠스는 성화를 옹호하다가 오른손이 잘리는 고난을 당했으나, 지극히 순결하신 성모 마리아의 성화 앞에서 기도한 끝에 치유를 얻었다. 그의 잘린 손이 제자리에 놓이자, 마치 예전과 같이 다시 붙어서 살아났으며, 교회에 유익한 서적을 저술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그의 행전, 12월 4일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225] .

그러나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을 잊지 말자. 성 실베스트로 로마 교황은 병들어 있었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두 사도의 성화를 보여주었더니, 황제는 꿈속에서 그 사도들을 뵙게 되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1월 2일[226]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 대순교자 머큐리우스의 행적에는 11월 24일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227] , 즉 그가 순교한 지 꽤 오랜 세월이 흐르고, 배교자 율리아누스가 왕위에 올라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던 때, 성 바실리우스 대교황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는 성 메르쿠리우스의 성화가 나무 판에 그려져 있었는데, 그가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나무 판에 그려진 성화의 형상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오직 성화 없는 나무 판만 보였습니다. 한 시간 후, 피 묻은 창을 든 성화가 다시 나무 판 위에 나타났습니다. 그 후 곧 줄리아누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고, 그 시간을 기록한 정통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시각, 즉 순교자의 성화가 보이지 않게 된 바로 그 시각에, 줄리아누스가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내용은 성 바실리오 대성인의 행전에서도 1월 1일, 219쪽에 기록되어 있다.

그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성화상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러나 소위 '성상파괴자'라 불리는 분열주의자들은 교회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승을 배척한다; 놀라운 것은, 사탄이 그들 안에 들어와 성화 숭배를 지독히 미워한다는 점인데, 이는『리모나레』제*45*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된 바와 같다. "엘레온산에는 어떤 은둔자가 있었는데, 그는 음탕한 악마와 싸우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악마와의 치열한 싸움이 극에 달하자, 그 노인은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악마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냐? 이제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와 함께 늙어버렸도다." 그때 악마가 그

---

[223] 404쪽.

[224] 4월 1일, 171쪽 뒷면.

[225] 26쪽.

[226] 228쪽 뒷면.

[227] 412쪽.

에게 뚜렷이 나타나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말해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노인은 그에게 맹세하며 말하였다. “하늘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내게 시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그때 악령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성상에 절하지 마라. 그러면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그 성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팔에 안고 계신,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 마리아 성모님의 성상이었으니, 은둔자는 악령에게 말하였다. “나를 내버려 두어, 생각 좀 하게 해 달라.” 이튿날, 그는 당시 파라니 수도원에 거주하던 아바 테오도르 엘리엇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바로 그 무렵 하나님의 섭리로 아바 테오도르가 그곳을 방문한 참이었다. 아바는 은둔자에게 말하였다. “네가 악마에게 맹세했으니 크게 모독을 당한 것이나, 네가 고백했으니 잘 한 일이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어떤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곳의 어떤 음란한 곳도 피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극히 순결하신 성모 마리아의 성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보다 네게 더 쉬운 일이다. 아바는 은둔자에게 많은 말로 훈계하고 격려한 뒤, 그를 그 자리에 머물게 했다. 그때 다시 악령이 은둔자에게 뚜렷이 나타나 말하였다. “어이, 수도사여, 내게 내가 한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네게 찾아온 다른 사람에게 말해 버렸느냐? “이 때문에 너는 심판의 날에 맹세를 어긴 자로 정죄받을 것이다.” 이에 은둔자는 대답하였다. “내가 맹세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주님께 맹세한 것이니,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시라 그분께 경배하는 것을 그치지 않을 것이며, 너의 말은 듣지 않겠다.” 그러자 악마는 그에게서 사라졌다.

제7차 세계 공의회에서 낭독되고 성부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이 진실한 기록들을 통해, 사탄이 경건한 성상 숭배를 얼마나 증오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왜냐하면 사탄과 뜻을 같이하는 분열주의자들도 성상을 증오하며, 숭배하지 않고 모독하기 때문이다.

누가 성화 숭배를 거부하기 시작했는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성상 숭배 반대 운동이 시작된 것에 대해, 성 스테파노스 노보스의 행적록 11월 28일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228] 레오 이사우리아 왕의 통치 초기, 페니키아의 라오디키아 출신 유대인 몇 명이 아라비아의 왕 이지프에게 찾아가, 거짓 예언과 마법으로 그에게 40년 동안 아라비아인들을 다스리며 통치할 것을 약속하고, 그가 자신의 영토 전역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서 성스러운 성화상을 모두 내쫓고 파괴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이에 이지프는 그들의 말을 듣고 즉시 성스러운 성화상을 곳곳에서 내쫓아 불에 태우라고 명령했으나,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곧 죽고 말았으며, 1년도 채 살지 못했다.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그의 아들은, 그 유대인들을 거짓 예언자들과 마법사들로 여겨 잔혹한 죽음으로 몰살하려 했으나, 그들은 왕의 분노를 느끼고 사형을 두려워하여 이사브리아로 도망쳤다. 그곳에서 어떤 샘가에서 쉬고 있던 그들을 지나가던 이사브리아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레브[229] 였으며(그는 나중에 이렇게 불리게 되었으나, 태어날 때 이름은 코논이었다), 키가 크고 용모가 훤칠한 청년이었다. 그는 그 샘가에서 쉬고 싶어 길을 벗어나 그 유대인 점술가들과 함께 앉았다. 그들은 그를 바라보며, 그가 그리스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 시작했으나, 그는 온갖 방법으로 이를 부인했다. 자신이 천하고, 소박하며, 가난하여 겨우 생계를 꾸려갈 뿐이고, 그것도 형편없는 수공예(그는 석공이었다) 로만 버티고 있는 처지라, 그런 일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굳게 주장하며, 그에게 단 한 가지 선물만을 요구했는데, 바로 왕위에 오르면 그들이 요청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곳에 있던 성 테오도르 교회에서 그들에게 맹세했고, 그들은 흩어졌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시니아 가문의 그 청년은 군대에 입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파파리우스로 승진했으며,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동방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테오도시우스가 그리스 왕국을 계승했을 때, 그는 통치 초기에는 매우 경건한 모습을 보였으나, 나중에는 타락해 버렸다. 그의 왕위를 예언했던 유대인들은 그에게 찾아와, 맹세로 약속했던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달

[228] 뒷면 425쪽. 게오르기 케드린.

[229] 다마스킨, 『소보른』 334쪽.

라고 간청했다. 왕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그들은 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앙을 적대시하는 자들이었기에 금이나 은, 혹은 그 밖의 어떤 보물도 요구하지 않고, 성스러운 성당들에서 성상들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며 말하였다. "만약 이 일을 행하신다면, 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오랫동안 지켜 주실 것이니, 만일 그렇지 않다면 곧 왕국과 목숨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왕은 그들의 첫 번째 예언, 즉 왕국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며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왕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 번째 예언까지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려, 하나님의 성전과 모든 사람의 집에서 성스러운 성화상을 쓸어내어 짓밟게 하였으며, 그것들을 우상이라 칭하고, 그것에 경배하는 자들을 우상 숭배자라 불렀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큰 혼란이 일어났으니, 어떤 이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존귀한 성화를 짓밟았으나, 다른 이들은 강력히 저항하여 많은 고문을 당했다.

코논 또는 레오 이사우리아누스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 콘스탄티노스 코프로니모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악의 뿌리에서 뻗어 나온 가장 사악한 가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혼란에 빠뜨리고, 정통 신자들을 박해하며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블라케르나 성당에서 성상파괴론자들의 공의회를 소집하였다. 그 공의회는 그리스도 탄생 후 751년에 열렸으며, 그 사악한 공의회에서 성상들을 우상으로 규정하고, 성상에 경배하는 모든 이를 저주받게 하였으나, 그 이단적인 공의회는 후에 폐지되었다. 코프로니모스와 그의 아들 레오(하자리스라고도 불리는)가 세상을 떠난 후, 코프로니모스의 손자 콘스탄티노스가 어머니 이리나와 함께 왕위를 계승했을 때, 제7차 전 세계 정교회 성부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 공의회에서 성부들은 이전에 열렸던 이단적인 성상파괴 공의회를 폐지하고 저주를 내렸으며, 성스러운 성상을 경배하는 경건한 관습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그 후 다시 그 이단이 부활하였고, 레온 아르메니누스와 테오필로스에 의해 교회에 대한 박해까지 함께 일어났다. 그러나 그들도 소란 속에서 파멸되었고, 테오필로의 아들 미하일과 그의 아내 테오도라가 다시 정통 신앙을 확립함에 따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상파괴 이단은 사라졌으며, 이는 루터와 그의 동료 칼빈이 그리스도 탄생 후 천오백 년이 지난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이단을 퍼뜨리고 성상을 배척하기 시작했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우리 시대에 러시아 왕국에서는 수많은 분열주의자와 분열이 일어나, 그로부터 성화를 숭배하지 않고 우상으로 간주하는 이 이단이 파생되었다.

그러니 오늘날 이단을 퍼뜨리는 성상파괴론자들은 자신들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마치 사다리를 오르듯 자신들의 지도자와 스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 올라가 보아야 한다. 그들은 그 이단을 칼빈, 루터, 테오필로스, 레오 아르메닌, 코프로니모스, 코논 또는 레오 이사브리아노스, 유대인들, 그리고 엘레온의 은둔자에게 성모 마리아의 성화를 숭배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사탄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의 품에 안긴 아기 그리스도를 숭배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바로 그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성부, 즉 성 그레고리우스 오미리투스와 성 스테파노스 노보스가 성상 반대론자들과 나눈 간략한 논쟁을 상기하고자 한다.

제*13*장. 성 그레고리우스 오미리트스키와 유대인 에르반 사이의 성상 논쟁

오미리트의 성 그레고리 대주교는 12월 19일에 기념되며([230]), 지극히 현명한 유대인 에르반과 논쟁을 벌였다. 네 번째 날, 네 번째 토론에서 에르반은 성도들의 성화를 숭배한다고 기독교인들을 질책하기 시작하며, 성화를 우상이라 칭하고, 이를 숭배하는 자들을 우상 숭배자이자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상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명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대주교가 그에게 물었다. "노아 시대에 있었던 대홍수 때, 노아는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았는가?" 에르반*:* "나무로 지은 방주로 말입니다." 대주교*:* "하나님께서 방주용 나무 없이도 노아를 대홍수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

[230] 4부 미사, 132쪽 뒷면.

을까, 아니면 못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르반: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주교: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면,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 왜 방주가 필요했습니까? , 노아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방주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에르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지, 생명이 없는 사물에 감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대주교: 그러나 당신은 방주가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통해 구원을 마련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이 성상들을 통해, 비록 그것들이 무생물일지라도 우리의 구원에 유익하게 만드십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마음을 원형으로 향하게 하고, 신성한 소망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것이니, 신성(神性)이 아니라 인성(人性)을 따라 그리는 것이며, 그 신성은 형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며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나니,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대홍수의 재앙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는 그분의 인성을 또 다른 방주로 여기나니, 그분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가운데서 죄를 제거하시며, 그분의 신성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느니라.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았던 그분을 캔버스에 그려, 그분의 지극히 순결한 인성을 형상화하며, 육신의 형상이라는 그늘 아래서 그분의 신성을 함께 경배하고, 그분 안에서 아버지와 성령을 마땅한 경배로 동등하게 공경합니다. 그러나 에르반은 여전히 거룩한 성화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나는 너희 기독교인들의 우화 같은 말을 거부하노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벽과 판자에 그려진 성화들에게, 걷지도 말하지도 않은 것들에게도 그분의 은총을 주신다고 말하느냐?" 대주교는 반박하며 물었다. "에르반이여,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는 주셨으나 엘리사에게는 주지 않으신 은혜를 왜 주셨는지, 또한 살아 계신 선지자보다 죽은 자의 은혜를 더 높이신 이유를 내게 설명해 보시오. 왜냐하면 요단강의 물은 선지자가 스스로 건널 수 없었으나, 그 은혜로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을 걸어 건넜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엘리사도 행하지 못한 기적을, 죽은 자의 은혜가 이루어냈다. 또한 이집트 땅에서 기적을 행한 모세에게도, 왜 그에게가 아니라 그의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물을 피로 바꾸시고, 바다를 갈라놓으시며, 그 밖의 끔찍하고도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또한 증거의 장막과 언약궤,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지팡이, 진설상, 향로, 등잔대, 이 모든 것들이 비록 무생물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건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주님의 영광으로 비추어지고, 구름으로 가득 차며 둘러싸여 있었으며, 제사장과 레위인 외에는 들어갈 수도, 만질 수도 없었으니, 이는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약에서 그러했다면, 신약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은총이 담긴 성상에 대해 왜 놀라느냐? 다시 에르반: 시편에 기록되어 있나니, '우상은 이방인의 은과 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231] ; 그러므로 너희의 성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곧 우상이라. 대주교: 나도 이에 반박하지 않노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우상은 참으로 우상이니라; 그것들은 온갖 더러움 속에서 신을 저버리고 사는 자들, 곧 점술가들과 마법사들, 살인자들과 음행자들, 이생에서 악으로 인해 파멸당한 자들의 형상이며, 그들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어떤 이들은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러나 사탄에게 유혹당하고 눈이 멀어버린 마지막 세대는, 그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였으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며, 가나안의 우상[232] 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잡아먹었고, 죄 없는 피, 곧 여러분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아들들과 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록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형상으로서, 우상이 아니라 경건한 성상들이다. 우리가 그리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으며,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그분께 기쁨을 드렸고, 존경받고 거룩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었던 이들의 형상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231 시편 112:12.

232 시편 103:37.

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에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귀머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며, 침상에 누워 있던 중풍 환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사람들에게서 악령을 쫓아냈으니, 그들의 죽음은 존귀하고 그 기억은 찬양받으며 영원하도다. 주님 앞에서 경건한 이들의 죽음은 존귀하며, 의인의 기억은 찬양과 함께 하며, 의인은 영원한 기억 속에 남으리라. 다시 에르반이 "성상은 우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비방하자, 대주교가 말하였다. "에르반아, 네 옷과 증거의 천막은 둘 다 양모와 아마로 만들어졌는데, 그 힘이 과연 같단 말이냐? 네 지팡이와 아론의 지팡이, 그것이 살아난 지팡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느냐? 네 집에 있는 그릇과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 둘이 네게 있어 동등하냐? 네 시신을 안치한 네 관과 주님의 언약궤, 이 둘이 같은 영광을 누리느냐? 네 집에서 빛을 밝히기 위해 피운 불과 기름을, 일곱 등불이 달린 금 촛대와 동등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네가 거했던 집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동등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중하였으니, 그곳을 통해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어떤 것은 우상, 즉 파멸을 초래하고 지옥에 빠진 자의 형상이며,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의 성화상으로서, 그 성화상에 그려진 이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에르반은 또한 천사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천사들은 육체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그 자신의 영들'[233] ;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상에 천사들을 그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영들을 육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합니다." 이에 대주교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없겠군요. 우리가 바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에르반: 결코 우리에게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대주교: 너는 구약의 율법을 모두 지나쳤구나. 이것조차 알지 못했느냐? 에르반: 주님, 우리 가운데 천사의 형상이 그려지고 숭배되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대주교: 진실로 너희가 그 일을 시작하였도다. 솔로몬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성전을 지을 때, 성소 꼭대기에 제단을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상을 만들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성소의 첫 번째 문 위와 두 번째 문 위에도 그룹상을 설치하지 않았느냐? 또한 모세가 지은 증거의 성막에서도 언약궤 위에 케루빔의 형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휘장 위에도 바느질로 수놓은 케루빔의 얼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천사의 형상들은 성막과 성전과 함께 여러분에 의해 숭배받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무형의 존재들을 형상화하여 숭배했다면,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그 성도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숭배하는 우리를 왜 책망하십니까?

제*14*장. 신성 스테파노스와 코프로니모스의 논쟁

'새로운'이라는 별칭을 가진 성 스테판은 11월 28일에 공경받는 분으로[234] , 코프로니모스 왕에게 고문당하러 끌려가던 길에, 한 신실한 신자에게 왕의 초상이 그려진 깃털 한 개를 청하여 이를 몰래 자신의 수도사 모자 속에 넣었다. 이를 본 왕은 소리치기 시작하였다. "오, 곤경이로다! 오, 재앙이로다! 오, 내가 무엇을 견뎌야 하는가! 이 자가 감히 내 왕국을 모독하려는 것인가? 이 자가 감히 나를 모욕하고, 내 권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인가?" 성인은 침묵하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고, 왕은 마치 불을 뿜는 듯한 분노로 그에게 수많은 비난의 말을 퍼부었다. 또한 말하기를, "이 역겨운 자여, 내게 대답하지 않겠느냐?" 복자 스테판은 온유하게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왕이시여, 만일 나를 죽이려 마음먹으셨다면, 당장 죽이십시오. 그러나 만일 나를 이 자리에 불러내신 것이, 나에게 무언가를 묻고 내 말을 듣기 위함이라면,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비로이 대화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분노를 가라앉히고, 내게 묻고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우리에게 말하되(그가 말하길), "우리는 어떤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기에, 네가 우리를 이단자로 여기는가?"라고 물었다. 성자는 대답했다. "오래전부터 신을 숭배하는 성부들이 전한 경건한 성화 제작 전통을, 너희가 불경스럽게 교회에서 추방했기 때문입니

[233] 시편 103:4.

[234] 434쪽 뒷면.

다.” 박해자는 다시 말하였다. “그것을 경건한 성화 그리기라고 부르지 마라. 그런 것은 없으니, 그것은 우상의 형상일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이 성인과 함께 숭배될 수 있겠느냐?” 이에 그 거룩한 분은 대답하셨다.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는 물질 그 자체에 경의나 숭배를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영광은 원형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성 바실리오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때 박해자가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감각적인 형상으로 묘사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것들은 많고 모호하며, 이성으로 파악할 수도 없고, 어떤 말로도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인데. 또한 그 본질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물질에 숭배하는 것이 옳은가?” 경건한 분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성을 가진 사람 중 누가, 피조물로 만들어진 형상으로 비물질적이고 모든 지성을 초월하는 신성의 본질을 묘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겠는가? 그분의 형상은 이성으로 묘사할 수조차 없는데, 하물며 형상으로 그분을 묘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성화에서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신성의 본질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사도들의 손에 만져지신 그분의 신인(神人)의 형상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이는 성 요한 신학자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 손이 만졌도다[235] .” 만약 네가 모세가 말한 이 말씀을 내게 제시한다면,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236] , 바로 그 모세가 두 케루빔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었던 것을 네게 보여 주겠다. 이에 대해 신성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제단을 덮고 있는 영광의 케루빔들”[237] . 그러나 제단 자체와 성막, 지성소 또한 하늘의 형상을 묘사한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 사도가 다시 말하듯이: “하늘의 형상과 모형을 섬기는 것”[238] . 그러면 우리가 성화에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형상을 그려 경배할 때, 무엇이 불법이겠는가? 혹시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십자가에 절할 때, 우리가 물질 자체에 절하는 것으로 여겨지는가? 그러나 우리가 공경하는 성스러운 그릇들조차도 우리 양심에 아무런 흠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무엇이 더 있겠는가? 혹시 교회에서 성체와 성혈을 배척하겠는가? 그것들은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띠고 있으면서도 신비롭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담고 있으며, 그것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지금은 고통 없이 하늘에 계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바로 그것에 경배하고, 입맞추며, 그것으로 성찬을 받아 거룩함을 상속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화를 마치 아폴로의 형상처럼, 지극히 순결하신 성모 마리아의 성상을 마치 아르테미스의 조각상처럼 여겨 우상이라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발로 밟고 짓밟았습니다. 이에 왕이 대답하되, “아, 마음이 눈이 멀었도다! 무엇보다도 기억할 줄 모르는 자들아, 기억할 자격조차 없구나! 이 형상들을 짓밟았다고 해서, 과연 그리스도를 짓밟은 것이냐?” 그때 신성한 행위에 능숙한 스테판은, 악명 높은 전사들의 관습대로 적의 무기로 적을 상하게 하고, 그가 한 말로 그 자신을 물리치려 했으나, 손을 후드 안으로 넣어 그 불경한 왕의 형상이 그려진 왕관을 꺼내어, 곧 어떤 사람에게서 빌려온 것이었으니, 그것을 준비하여 왕에게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물었다. “이 형상과 ‘[239] ’라는 글자는 누구의 것입니까?” 왕은 놀라면서 대답했다. “다른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왕의 것이겠지요.” 성인은 다시 물었다. “만약 누군가 왕의 초상을 불경스럽게 땅에 내던지고 발로 밟았다면, 어떤 형벌을 받게 되겠는가?”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대답하되: “네, 그런 자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왕의 형상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성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슴 아픈 심정으로 외치며 말하였다. “오, 이 얼마나 큰 맹목과 광기인가! 만약 이 땅의 왕, 즉 죽을 운명에 처한 썩어 없어질 존재의 형상이 모독당했다는 이유로 큰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

235 요한일서 1:1.

236 출애굽기 20:4.

237 히브리서 9:5.

238 히브리서 8:5.

239 마태복음 22:20.

흠 없는 어머니의 형상을 짓밟고 불에 던져 넣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너희는 과연 어떤 형벌을 받아야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는 왕에게 침을 뱉고, 그를 땅에 내동댕이친 뒤 발로 짓밟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은 이를 보고 즉시 분노에 차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궁전에서 바다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으니, 그 궁전은 바다 위에 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은 위선을 부리며 온유한 척했고, 비록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음에도, 마치 분노에 굴복한 것처럼 보이며 그들에게 스테파노에게 어떤 해악도 가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그는 스테파노를 묶어 민중의 감옥인 프레토르로 데려가 그곳에 가두게 했다.

성스러운 성화 숭배에 관한 이와 같은 수많은 검토와 논증들을 통해, 이단적인 분열주의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이단을 퍼뜨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성스러운 성화들에 대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경건한 성화 숭배를 배척하며, 우리에게 묻기를, "누가 성화 숭배를 전했는가? 어떤 선지자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사도인가?"라고 한다. 이는 충분히 명백한 바, 옛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의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심으로써 이를 전수하셨으니,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이를 받아들였으며, 다윗과 솔로몬 및 그 밖의 거룩한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를 공경하였고, 하나님의 어머니께서는 어린 시절 지성소에 계신 케루빔 성화상 곁에서 자라셨다. 그러나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아바그에게 자신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형상을 보내주셨고, 사도이자 복음서 저자인 루카는 성화를 그리기 시작했으며, 지극히 순결하신 성모 마리아께서 이를 칭송하셨고, 최초의 교회가 이를 받아들였으며, 성부들은 이를 사랑하고 공경하였고, 그 영광을 위해 많은 이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제7차 세계 공의회에서 이를 확정하였으며, 블라디미르가 그리스에서 러시아로 가져왔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우리 정통 신자들이 이를 보존하며, 그 고대의 교회 관습에 따라 경건하게 숭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그레고리우스 더 디알로그스 로마 교황은 레오 이사우리아누스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보다 앞서 성직자들은 공의회에 참석할 때 성화를 지니고 다녔으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중 누구도 경건한 여정을 떠날 때 성화 없이 다니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240] " 여기까지가 그레고리우스의 말씀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새로 나타난 타락한 자들은 그토록 오래된 교회의 전통을 버리고, 칼빈, 루터, 레오 아르메니아누스, 코프로니모스, 코논, 혹은 레오 이사브리아누스의 뒤를 따랐으며, 유대인들과, 엘레온의 은둔자에게 성모 마리아의 성화를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사탄 그 자체의 뒤를 따랐다.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몫도 영원히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제7차 세계 공의회에서 아그키르의 주교 바실리오스 성부가 두루마리에서 낭독한 바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노니: 거룩한 성화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파문. 성화를 우상으로 칭하는 자에게는 파문[241] . 신성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거룩한 성화에 반대하는 자에게는 파문. 성부들의 전승을 배척하는 자, 곧 아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유티키우스, 디오스코루스가 배척했던 것처럼; 그리고 신성한 성경에 의해 그들에게 제시된 바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자, 파문. 성화상이 성부들에게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 파문. 가톨릭 교회가 우상을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자에게는 파문.

제*15*장. 성인의 유해에 관하여

성경뿐만 아니라 교리서들까지, 브린의 그릇된 해석자들은 이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나는 최근에 어떤 거짓 교사이자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자가, 성인들의 유해를 숭배하지 말라고 은밀히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거짓 교리를 입증하기 위해, 그 왜곡된 해석자는 성 마태 복음서에 대한 설교 중 34번째 교훈에서 성 금구(Zlatooust)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428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마

[240] 『소보른』 대전, 인쇄본 310쪽 뒷면.

[241] 2월 25일, 성 타라스의 생애, 741쪽 뒷면.

귀들이 무덤으로 몰려가듯이, 무덤 곁에 앉아 있는 많은 신자들도 항상 마귀들의 영혼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 외 등등." 그리고 그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은 이를 해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소모스가 나를 마귀라고 부르는데, 내가 왜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고 그들의 무덤에 경배하러 가야 하는가?"

그의 그릇된 해석에 대해 반박하며, 나는 다음과 같은 고찰을 제시한다:

1) 황금입은 성자는 앞서 언급한 말씀에서 어떤 무덤과 유해를 가리켜 썼는가?

2) 죄인들의 무덤과 유해는 성인들의 무덤과 유해와 정확히 동일한가?

3) 죄인들의 무덤과 유해와 성인들의 무덤과 유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4)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공경해야 하는가?

5)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는 관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제1고찰

금구*(Zlatooust)*는 어떤 무덤과 유해에 대해 앞서 언급한 말씀을 기록했는가?

성자 골로테우스가 쓴 그 교훈은, 사랑하는 친구와 지인, 친척의 죽음을 두고 끝없이 슬퍼하며, 그들의 무덤에 찾아가 통곡하고 가슴을 치는 자들을 향한 것이며, 성인들의 유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하신 성인들의 기도로 구원을 얻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여, 그릇된 해석을 하는 자여, 네 어리석은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그 성인의 스승이 그 교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라. 우선 죽음을 경시하도록 가르치시니, 즉 우리가 죽고 우리 육신이 무덤에서 썩어간다는 사실에 당황하거나 통곡하지 말고, 더 나은 삶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에 기뻐하라는 것이다; 오직 영원한 고통 속으로 떠난 이를 안다면, 그 일로 인해 울어야 할 뿐이다. 또한 스승은 우리 육신이 무덤에서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서 일곱 가지 해가 따를 것이라고 밝히시며, 이 썩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일곱 가지 유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신다.

첫째. 만일 우리 육신이 죽은 후 썩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교만에 빠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썩어가는 육신을 가진 자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신이 되기를 탐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나부코도노소르와 그와 같은 자들처럼). 썩지 않는 육신을 가진 자라면 어떤 교만이 없겠는가? 그러나 썩어감으로 인해 우리의 오만함이 겸손해진다.

둘째. 만일 우리 육신이 썩지 않았다면, 우리가 땅에서 났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나, 이 썩어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덧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셋째. 만일 육신의 형상이 썩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지극히 사랑했을 것이며, 육신에 더욱 집착했을 것이며, 친척과 친구들의 무덤과 시신에 더 애틋하게 달려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썩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육신에 대한 집착에서 멀어지게 된다.

넷째. 우리는 미래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섯째. 세상이 불멸, 즉 무한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더욱 확고히 했을 것이며, 심지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섯째. 영혼이 육체보다 얼마나 더 나은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일곱째. 가족, 즉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등을 잃은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거처를 떠나 죽은 자들 곁에서 살고 싶어 할 것이며, 만일 그들의 육신이 썩지 않았다면, 그들을 위한 신전을 짓고, 주술로 악령을 불러내어 그들이 그 시신에 깃들어 말하게 하려 할 것이니, 마치 오늘날 죽은 자들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러하듯이; 그리하여 거기서부터 우상 숭배의 큰 악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막으시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어가는 육신이 우리 눈앞에서 썩어가게 하셨으니, 아름다운 처녀를 사랑하던 자라도 썩어가고 악취를 풍기는 그녀의 시체로부터 도망칠 것이다.

또한 그분은 죽은 자들을 향해 끝없는 슬픔으로 애도하며, 그들의 무덤에 와서 울부짖고, 무덤을 치며 자책하는 이들을 가르치시며, 그러한 유익하지 않은 관습에서 벗어나게 하시되, 그들을 헬레니즘 무덤

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악마에 비유하시니, 마치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처럼, 그는 성전에 살지 않고 무덤에 살았으니[242] .

이것이 바로 황금입의 설교의 힘이며, 이것이 바로 그의 교훈을 설명한 것이다.

오, 미친 왜곡자여,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도다. 죄인들의 육체에 대해 말씀하신 스승의 말씀을, 경건한 성인들의 유해에 빗대어 말하고 있으니: 그분은 자신의 죽은 자들을 위해 끝없이 통곡하는 자들을 그 말씀으로 칭찬하지 않으셨거늘, 너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인들의 유해를 경건하게 공경하는 정통 신자들을 책망하고 있도다.

2. 고찰

죄인들의 무덤과 유해는 성인들의 무덤과 유해와 동일한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단 한 번의 죽음이 마땅하며,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어야 함을 안다 하더라도, 사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법이니라"[243] ;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죽었고, 수없이 많은 성인들이 죽었다. 땅에서 취해진 인간의 몸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시 땅으로 돌아가 심판의 날까지 무덤 속에서 썩어 가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인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과 같지 않다. 의인의 죽음은 시편에 기록된 대로 존귀하니, *"*주님 앞에서 그분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존귀하도다"[244] ; 그러나 죄인의 죽음은 불명예스럽고 고통스럽나니, *"*죄인에게 죽음은 혹독하도다"[245] . 의인 나사로는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으나*,* 부자도 죽어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올려 보았도다[246] .

죄인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과 같지 않은 것처럼, 죄인의 유해가 담긴 무덤도 의인의 무덤과 유해와 같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싫어하고 고기를 탐내며 하나님을 거스르니,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 주겠는가?"라고 하였다[247] . 주님께서 구름에서 내린 구름빵으로 그들을 먹이셨으나, 고기 맛이 입안에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 중 많은 이를 죽이셨다[248] . 그곳은 '탐욕의 무덤'이라 불리게 되었으니, 고기를 먹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묻혔기 때문이다. 그 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고*,* 그들은 그를 장사 지냈으나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의 무덤을 알지 못하느니라[249] . 이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천사의 손으로 장사되었기 때문이니, 이는 거룩한 사도 유다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나니, 그가 말하기를 *"*대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시신에 대하여 말하되"[250] *,* 그 밖의 구절들에서도 그러하도다. 이곳에서, 오, 비뚤어진 자여, 육신을 탐한 자들의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한 자들의 무덤을, 천사들에 의해 장사된 주님의 종인 거룩한 모세 선지자의 무덤과 동일시하겠는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다윗: 유다의 왕 요아킴, 곧 예리야킴도 죽으리니,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주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그의 죽음을 직접 예고하시며 말씀하셨나니, *"*나귀처럼 묻히리니*,* 악취를 풍기며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내쫓기리라"[251] . 이곳에서, 오 이 이단자여, 이 죄인인 나귀와 같은 악취 나는 시신을 그 의인들의 유해와 동일시하는가?

---

242 누가복음 8:27.

243 히브리서 9:27.

244 시편 115:6.

245 시편 33:22.

246 누가복음 16:22, 23.

247 민수기 11:4.

248 시 77:30, 31.

249 신명기 34:5, 6.

250 유다서 1:9.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하여 죽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죽었고, 그들을 죽인 자들도 죽었다. 여기, 오 거짓 교사여, 살인자들의 무덤과 시체를, 살해당하여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과 유해와 비교해 보았느냐?

그리스도의 세례자 요한 성인은 헤로데가 헤로디아의 유혹에 빠져 목을 베어 죽였으니, 헤로데와 헤로디아도 죽을 것이다. 과연 네가 헤로데와 헤로디아의 뼈를 주님의 세례자의 유해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거짓 사도이자 그리스도의 배반자인 유다는 목이 졸려 죽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인 거룩한 사도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각기 다른 고난의 죽음을 당하며 죽으리라. 과연 유다의 뼈를 거룩한 사도들의 유해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지극히 거룩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네로에게 사형을 선고받아 죽었으며, 그들을 죽인 네로도 죽었다. 과연 네로의 시체와 무덤을 사도 베드로와 바울의 유해와 무덤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 밖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성스러운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고난을 겪으며 죽었고, 그들을 박해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막시미아누스, 배교자 율리아누스 및 그 밖의 박해자들도 죽었다. 과연 그 사악한 박해자들의 유해가 성스러운 순교자들의 유해와 같겠는가?

성 요한 황금입이 유독시아 여왕에 의해 추방당하고 죽자, 그를 추방했던 유독시아 여왕도 죽었고, 그녀의 무덤은 32년 동안 흔들렸다. 과연 누가 감히 유독시아의 무덤을 황금입 성인의 무덤과 동등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

이는 죄인들의 무덤과 유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무덤과 유해와 결코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3고찰

죄인들의 무덤과 유해와 성인들의 무덤과 유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차이는 이러하다.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였으므로 그 뼈도 죄악된 것이요, 성인은 하나님의 친구였으므로 그 뼈도 거룩한 것이다. 시편 기자는 죄인들의 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뼈가 음부에서 흩어졌도다"[252] , 즉 지옥의 고통 가까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반 부활 때 자신의 영혼과 합쳐져 곧바로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인들의 뼈에 대해서는 같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뼈를 지키시니, 그중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리라"[253] ; 마치 땅속에 감춰 둔 귀중한 보물처럼 지키시되, 때가 되면 하늘의 보물 창고로 가져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은 영혼의 옷과 같다. 마치 옷으로 몸을 덮듯이, 영혼도 몸으로 덮여 있다. 그리고 밤잠을 자러 가는 사람이 옷을 벗듯이, 영혼도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잠에 드는 사람의 몸을 벗어 버린다. 죄인의 경우, 영혼이 육신을 떠난 후 그 육신은 마치 거지에게서 벗겨진 누더기처럼 썩어가는 쓰레기 더미 위에 내버려진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영혼이 육신을 떠난 후 그 육신은 마치 왕의 보배로운 포르피라처럼 귀중하게 간직되며, 장차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에게 다시 입혀질 것이다. 가난한 자의 초라한 누더기와 왕의 보라색 비단 사이의 차이가 어떠한지, 바로 그것이 죄인의 시체와 성인의 유해 사이의 차이이다.

죄인들의 관 사이에는 악마들이 깃들여 있는데, 이는 헬레니즘 묘지에 깃들었던 것과 같으며, 이는 성인들의 행적 기록서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자 알리피우스 기둥수행자는 황량한 곳에 정착했는데, 그곳에는 수많은 고대 헬레니즘 무덤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수많은 불결한 영들이 살고 있었기에, 그 장소는 모든 이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으며, 누구도 악마들이 일으키는 끔찍한 공포 때문에 그곳을 지나갈 수 없었다[254] . 이와 유사한 내용이 성자 팔라레이우스의 행적에도 기록되어 있다. 시르스(Sir) 도시,

---

[251] 예레미야 22:19.

[252] 시 140:7.

[253] 시 33:20.

[254] 11월 26일, 420쪽 뒷면.

즉 ‘가발’(Gaval)이라 불리는 곳에서 스무 스타디온 떨어진 곳에 어떤 거대한 무덤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낡은 악마 숭배의 제단이 있었고, 헬레니즘 시대의 묘지가 있었으며, 수많은 악마들이 그곳에 서식하고 있었다. 그곳은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끔찍한 곳이었으니, 악마들이 단지 꿈과 유령으로만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을 죽이려는 듯 공격하고 해치며 많은 사람과 가축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이를 들은 성자 팔라레이는 그곳으로 가서 정착하였다[255] . 한편 이집트의 성자 마카리우스는 테리누프의 은둔처에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잠을 자기 위해 그리스인 묘지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낡은 그리스인의 유골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중 하나를 집어 자신의 머리 밑에 베개로 삼았다. 악령들은 그의 대담함을 보고 분노하여 그를 위협하고자 했으며, 여자의 목소리로 외치며 말하였다. “오, 그대여, 목욕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자 노인의 머리 밑에 놓여 있던 죽은 뼈에서 또 다른 악령이 대답하며 말하였다. “내 머리 위에 낯선 이가 있으니, 그들이 올 수 없도다.” 그러나 노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하게 그 뼈를 치며 말하였다. “일어나 가라, 할 수 있다면[256] .” 또 다른 마카리오스 성인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불리는데, 이집트의 고대 동방박사 야니아와 야므브리아의 묘지에 다가가자, 칠십 마리의 악마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에게 달려들며 큰 분노로 외쳤다. “마카리오스여, 여기서 무엇을 원하느냐? “왜 우리에게 왔느냐? 왜 우리 장소[257] 에 머무르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죄인들의 무덤과 그들의 유해 곁에 악령들이 깃든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성인들의 무덤과 유해 앞에서는 악령들이 두려워하며 도망친다. 안티오키아 성 근처에 다프니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시절 우상 신전이 있던 곳으로, 악령이 우상 속에 깃들어 있어 무엇이든 묻는 사람들에게 ‘ ’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의 아들 콘스탄티우스 황제 시대에, 성스러운 순교자 바빌라의 유해가 그곳으로 옮겨지자, 악마는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곳에서 도망쳤고, 우상은 침묵에 빠졌다[258] .

마찬가지로 알렉산드리아 근처에는 마누핀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고대의 신전과 악마들의 거처가 있었으며, 수많은 부정한 영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기에 그 곳은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인 성 키릴이 그 장소로 성 순교자 키라와 요한의 거룩한 유해를 모셔 오자, 악마의 세력이 즉시 그곳에서 도망쳤다[259] ;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성인들의 관과 유해 곁에는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르며,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곳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성 첫 순교자 스테파노의 유해가 예루살렘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질 때, 유해 위 공중에서 천사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성물함에서 지극히 향기로운 향기가 퍼져 나왔다. 또한 멀리서 악령들의 목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으니, “화 있을진저, 스테파노가 오니 우리를 때리리라.” 그러나 밤이 되자 성인의 유해 위에 빛이 나타났[260] .

성 대순교자 디미트리오스 셀룬스키의 관 곁에는 두 명의 하나님의 천사가 서서 순교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261] . 전 러시아의 대주교이자 그리스도의 성자 베드로의 관 곁에서는 촛불이 저절로 타오르며 모든 이에게 보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으로서, 그분의 성인의 관 위에 빛을 비추고 있었다. 발견된 페체르스크의 성 테오도시우스의 유해 곁에서, 한밤중에 동이 트는 빛이 동굴 위로 환히 비추는 것

---

[255] 2월 27일, 510쪽.

[256] 1월 19일, 321쪽 뒷면.

[257] 1월 19일, 327쪽.

[258] 9월 4일, 21쪽.

[259] 6월 9일, 51쪽.

[260] 8월 2일, 414쪽(뒷면) 및 415쪽.

[261] 10월 26일, 237쪽 뒷면 및 2월 12일, 456쪽 뒷면.

과 수많은 촛불이 타오르는 것이 목격되었다[262] .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의 유해를 이토록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다!

불경건한 자와 경건한 자, 지옥의 주민과 천국의 시민, 어둠의 악마와 빛의 천사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바로 그만큼 죄인들의 관과 유해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들의 관과 유해 사이의 차이도 크다.

또한 이 점에서도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죄인들의 무덤은 악취 나는 뼈와 온갖 불결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성인들의 무덤은 깨끗하며, 썩지 않고 향기를 풍기며, 어떤 것들은 성유를 흘리기도 하는데, 이는 옛날 성 대순교자 디미트리오스 '성유 흘리는 자'와 찬양받는 성 대순교자 에우피미아의 경우와 같다[263] ; 또한 러시아의 왕도 카잔에서는 성자 그리스도 구리우스의 유해가 성유를 흘렸으며; 또한 키예프의 성스러운 동굴들에서는 미로토치비예 두상들을 볼 수 있다[264] . 죄인들의 뼈는 그 자체로 치유력을 전혀 지니지 않지만, 성인들의 뼈는 신자들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는데, 이는 성인들의 행적에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다. 그리고 무엇이 놀라운가? 성 사도 바울의 살아 있는 손뿐만 아니라, 그의 수건과 땀으로 젖은 머리띠조차도 병든 자들에게 얹히면 병을 고쳤기 때문이다[265] ; 하물며 그의 유해와 모든 하나님의 경건한 이들이 죽은 후에는 얼마나 더 강력한 치유력을 발휘하겠는가. 우리는 신성한 성경에서, 어떤 죽은 자의 시신이 성 예언자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졌을 때,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던져진 죽은 자가 즉시 살아나서 자신의 발로 일어서[266] , 살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인들의 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는가? 무덤과 죄인들의 뼈, 그리고 성인들의 유해 사이에는 지대한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 차이점의 극치는 마지막 날, 대천사의 나팔 소리가 창세 이래 죽은 자들을 모두 죽음의 잠에서 깨울 때, 의인들의 육체는 살아나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고, 죄인들의 육체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의인들의 육체는 하늘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며; 반면 죄인들의 육신은 검은 숯과 그을음, 송진, 지옥의 에티오피아인처럼 검게 물들 것입니다. 과연 누가 감히 지금 죄인들의 뼈를 성인들의 유해와 동등하게 여기며, 성인들의 유해를 마치 죄인들처럼 취급하겠습니까? 오직 이단자이자 거룩한 교회의 적, 마귀의 아들이자 지옥의 상속자뿐일 것입니다.

4번째 고찰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공경해야 하는가?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

1) 성인들의 유해는 여전히 그들의 성스러운 영혼과 결합되어 살아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우리가 왕을 깨어 계실 때만 극진히 공경할 뿐만 아니라, 잠들어 계실 때도 불경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가 잠에서 깨어나 우리와 대화를 나누실 것을 알기 때문이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그리스도의 왕국 백성이 되고자 하되, 지금은 육신으로 잠들어 있는 이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들은 필멸의 잠에서 깨어날 것이니,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2)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유해를 존중하시어, 당신의 천사들로 지키시고, 당신의 은총으로 비추시며,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3)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그들의 썩을 몸은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은 불멸의 몸으로 변할 것이며, 기쁨의 소리 속에서 땅에서 하늘로 영광스럽게 들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

[262] 파테르 페체르, 89쪽

[263] 10월 26일 목요일, 236쪽 뒷면. 6월 11일, 284쪽.

[264] 10월 4일, 157쪽.

[265] 사도행전 19:12.

[266] 열왕기하 13:21.

4)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해야 마땅하니, 그들은 하늘 영광의 거처가 되고, 영광스러운 영혼들의 그릇이 되며, 하늘 궁창에 빛나는 별들이요, 맑고 눈부시며, 깜빡임도 없고, 줄어들지도 않는 태양들이며, 언제나 온전하고 빼앗길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과 영광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5)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해야 마땅하니, 이는 그들이 자신의 영혼과 합쳐져 천사들과 동포가 되고, 대천사들과 동지이며, 케루빔과 세라핌의 형상자, 빛나는 면류관을 쓴 자들,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들, 신성한 영광의 보좌 앞에 서 계신 분들,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분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아들들, 영생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이다.

6)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니, 밝은 곳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공경해야 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성서, 마카베오서 제2권 15장에서 확증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유다 마카베오가 성 예레미야 예언자의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레미야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난 후, 오니아 대제사장과 함께 그에게 나타나셨으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마카베오에게) 다음과 같은 환상이 있었다. 오니아 전 대제사장은 선하고 착한 사람으로, 외모는 수줍어 보였으나 성품은 온유하고 말투는 우아했으며, 어릴 적부터 모든 선한 일에 힘쓰던 자로서, 두 손을 들어 모든 유대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가 바라보니[267] . 그 후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는데, 흰 머리와 영광으로 놀라우었으며, 그 주위에는 위대한 위엄이 감돌았다. 오니아가 말하기를, "이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해 많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이다." 그때 예레미야가 오른손을 뻗어 유다 마카베오에게 금칼을 건네주며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칼을 받으라. 이 칼로 네 원수들을 무찌를 것이다." 이 환상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치 성 예레미야가 유다 마카베오를 도와 원수들을 물리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거룩한 유해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도우미로서 공경해야 합니다.

7)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그들의 거룩한 영혼들이 우리가 그들의 존귀한 유해에 바치는 공경을 알고 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 주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기 때문이다. 이는 성 순교자 우아르가 전한 바와 같이, 10월 19일에 공경받는 그분은, 자신의 유해를 사랑하고 공경하던 복된 클레오파트라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네가 이집트와 여정 중에 내게 베풀어 준 선행을 내가 과연 잊었단 말이냐? 아니면 네가 짐승들의 시체 더미 속에서 내 시신을 건져내어 네 침상에 뉘어 주었을 때, 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과연 네 기도를 항상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느냐? 먼저 나는 네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네가 나를 그들과 함께 무덤에 안치하였으니, 그들의 죄가 사해지기를 바랐노라. 또한 네 아들을 하늘의 왕의 군대에 속한 자로 노래하였노라[268] , 그 밖의 것들도.

8)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렸고, 어떤 이들은 매일 스스로를 죽이는 고행으로 괴로워하며 자발적으로 피 흘림 없는 순교자가 되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제 그들의 거룩한 유해를 바라보며, 그들이 이 생에서 그리스도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행한 위업과 수고, 그리고 모든 선한 행실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들의 생애에 관한 신성한 기록을 통해 우리 영혼에 많은 유익을 얻으며, 그들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9) 성인들의 유해를 하나님의 존귀한 친구들로서 공경해야 마땅하니, 다윗이 하나님께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나니: *"하나님이시여, 주의 친구들은 내게 지극히 귀했습니다[269] !"*

---

[267] 마카베오 2서 15:12. 5월 1일 목요일, 305쪽 뒷면.

[268] 10월 19일, 206쪽 뒷면.

10) 우리는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위대하시고 그들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한다.

5번째 고찰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는 관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 에프라임의 스승이었던 야코브 에데스키의 신뢰할 만한 기록에 따르면, 노아는 대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갈 때, 무덤에서 아담의 성스러운 유해를 꺼내어 방주로 가져갔으며, 그 기도를 통해 대홍수에서 구원받기를 희망했다고 한다. 대홍수가 끝난 후 그는 이를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장남 시므에게 가장 귀한 부분인 아담의 이마를 주며, 훗날 예루살렘이 세워질 그 땅에서 살도록 지시했다. 시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를 따라, 아담의 이마를 예루살렘이 세워질 곳에서 멀지 않은 높은 곳에 매장하고, 이마 위에 커다란 무덤을 쌓아 그곳을 '이마의 장소'라 불렀으니, 바로 그곳에 아담의 이마가 묻혀 있었고, 훗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로 정하신 곳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의로운 노아로부터 성인들의 유해를 공경하는 관습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집트에서 세상을 떠난 훌륭한 요셉의 유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숭배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은 요셉의 유해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야곱의 마을인 세켐(나중에 시하르라고 불리게 된 곳)에 정중히 안치하였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는지 생각해 보라. 그러나 오직 요셉의 유해만이 그곳에서 옮겨졌으니, 이는 그가 유일하게 의롭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은인(은총을 받은 자)이었기 때문이라. 그의 생애가 이를 증명하느니라.

또한 성예언자 엘리사의 유해는, 그 유해에 닿기만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났던[270],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지 않았던가?

또한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들의 무덤이 세워지고, 의인들의 유해를 기리기 위해 성스러운 유해의 관이 장식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고[271], 그 밖의 일들을 하고 있으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 테오필락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분은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운다는 이유만으로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이는 선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위선으로 이를 행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테오필락트의 말이다. 그러니 주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왜 책망하고 꾸짖으시는지 잘 들어보라. 선한 일이었던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민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위선과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악의,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명백한 거짓말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살인을 계획하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든 죽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 곧 그리스도의 시대에도 이스라엘에서 성인들의 유해는 공경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성 루카 복음사가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여러 도시와 나라를 순회하다가, 세바스티아 성에 그곳에는 세례자 요한 성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었는데, 루카는 그곳에 이르러, 거기서 자신의 고향인 안티오키아로 가려고 할 때, 썩지 않고 온전한 세례자 요한 성인의 유해를 가져가 그곳으로 옮기기를 원했으나[272]; 그러나 세바스티아 주민들이 세례자 요한의 유해를 지극히 공경하고 위험할 정도로 엄중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직

---

269 시편 138:17.

270 사무엘상 13:21.

271 마태복음 23:29.

272 월·목. 1월 7일, 232쪽 뒷면.

그 성인의 시신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하신 오른손 한 가지만을 복음서 저자 성 루카가 가져가 자신의 도시 안티오키아로 가져왔으니, 마치 어떤 귀중한 보물처럼, 그곳에서 자라게 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도시에게 바친 것이었다. 그 때부터 세례자 요한의 성스러운 오른손은 안티오키아 신자들 사이에서 큰 존경과 경외 속에서 모셔졌으니, 그 손을 통해 적지 않은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시메온 메타프라스트는 세례자 요한의 손이 옮겨진 것에 관한 설교에서 이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성 첫 순교자 스테파노의 존귀한 유해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 유해로부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신자들이 그 존귀한 유해를 어떻게 공경했는지에 대해서는 8월 2일자[273] 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성인들의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유해와 그에 대한 숭배에 관한 무수한 이야기들이 성인전기에 기록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다룰 시간은 부족합니다. 에서 다음의 여러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성 니콜라오의 유해에 관하여[274] , 치유력을 지닌 성 순교자 미나의 유해에 관하여[275] , 그리고 존경받는 성 대순교자 디미트리오스의 유해에 관하여[276] , 또한 온 세상의 신자들이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들었던 찬양받을 만한 성 대순교자 에우피미아에 관하여[277] ; 그 밖에도 예로부터 신자들이 경건하게 숭배해 온 다른 성인들의 유해에 대해서는, 곳곳의 교회 서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거짓된 해석자는, 성 금구(Zlatooust)의 말씀 중 죄인들의 무덤과 시체에 관해 언급된 부분을 가져다가 성인들의 유해를 모독하고, 이를 공경하는 이들을 괴롭히며 그들을 악마라고 칭하는 자니, 그는 육신을 입은 악마이자 악마들과 뜻을 같이하는 자이다.

제*16*장. 마지막 때에 대하여

우리 귀에 이 소식도 전해졌으니, 브린의 거짓 교사들이 교사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지금 이 시기를 바로 최후의 때라고 주장하며, 서민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설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들은 마치 지금 이 시기에 도시와 마을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브린의 사막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교하고 있다. 그들의 그 거짓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브린 사막에서 온 어떤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로스토프로 들어와, 평소 습관대로 그리스도의 양들을 은밀히 유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건하고 정직한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 그곳에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거처로 유혹하여 데려가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성읍에 사는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미 마지막 때가 왔고,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통치하며, 무서운 심판의 날이 이미 코앞에 다가왔고, 교회는 마치 외양간 같으며, 사제들은 마치 늑대 같고, 너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으니, 너희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너희의 금식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니라. 설령 너희가 몸을 찢어 가며, 고된 삶을 살아가고 온갖 방법으로 수련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으니, 너희의 모든 것이 이미 그분께 거슬리기 때문이라. 오직 우리의 광야와 은둔처에서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그곳으로 그분의 얼굴을 돌리셨고, 오직 그곳에서만 그분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유혹했으나, 유혹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서 유혹받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이 일이 우리의 겸손함에 전해졌으나, 이미 그 늑대는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우리 교구의 다른 도시와 마을들에서도 브린 사막에서 나온 늑대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

[273] 목요일, 412쪽.

[274] 5월 9일.

[275] 11월 11일.

[276] 10월 26일.

[277] 7월 11일.

그들은 바로 그러한 거짓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양들을 유혹하고 빼앗아 간다.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을 확증하기 위해 성 히폴리토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이를 왜곡하여 해석한다.

성 히폴리토스는 고기 금식 주간에 대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마치 허술한 성전처럼 될 것이며, 교회는 곳곳에서 타락할 것이다. 성경은 소홀히 여겨질 것이며, 그 밖의[278] ; 그리고 아래에서: 목자들은 마치 늑대처럼 될 것이며, 사제들은 거짓을 사랑할 것이다; 수도사와 수녀들은 세속적인 것을 탐낼 것이며, 그 밖의 일들도 있을 것이라; 그리고 훨씬 아래에서는: 많은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피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모략이 함정임을, 그의 아첨이 교만임을 깨닫고, 그의 손길을 피하여 산과 동굴에 숨을 것이며, 눈물과 상한 마음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며, 그분께서 그들을 그의 그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악한 유혹으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분께 합당하고 의롭게 엎드리는 자들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덮어 주실 것이다. 보라, 그 당시 성인들이 금식 중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도시와 마을에 사는 이들도, 앞으로 닥칠 시대가 얼마나 혹독할지 깨달아야 하리라[279] . 여기까지가 히폴리투스의 말씀이다.

그들은 성 히폴리트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이제 마지막 때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단순한 성소와 외양간일 뿐이며, 목자와 사제들은 목자도 사제도 아니라 늑대들이다. 도시와 마을에는 잔혹한 시대와 날들이 닥쳤으니, 하나님께서 도시와 마을에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다. 산과 광야, 동굴에 숨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산과 광야, 동굴에 숨지 않고 도시와 마을에 사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직 우리의 황야 수도원들에서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우리만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와 마을에 머무는 너희는 완전히 멸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너희의 수고도 받아들이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브린스키의 거짓 교사들이 히폴리토스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며, 그들은 교회의 혼란과 성직자들의 타락, 그리고 도시와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의 구원받지 못함을 오직 '마지막 때가 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기인한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마지막 때'라는 단 하나의 근거 위에, 마치 이미 마지막 때가 도래한 것처럼 자신들의 거짓 설교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마치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마지막 때'라는 것에 의해 일어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이루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거나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그들의 허약한 토대가 무너지고, 그들의 거짓 해석이 드러나 수치를 당하게 하려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찰해 보자:

1) 시간이란 무엇이며, 시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행하는가?

2) 소위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교회를 단순한 성전이나 외양간으로 만드는가?

3) 언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단순한 성전처럼 되는가?

4) 러시아 제국에서 이미 도시와 마을의 교회들이 단순한 성전과 외양간이 되어야 할 그 시기가 도래했는가?

5)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목자들이 늑대가 되는가?

6) 마지막 때와 혹독한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에 있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는가?

7)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오직 광야에서만 사시며, 오직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만 들으시고, 오직 광야의 은둔자들만을 구원하시는가?

---

[278] 107쪽.

[279] 같은 책 116쪽 뒷면.

8) 인간의 영혼의 구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결정되는가?

제1 고찰

시간이란 무엇이며, 시간 그 자체가 무언가를 행하는가?

시간은 이 가시적인 세상과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천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척도이며, 날, 달, 해, 백 년, 천 년 단위로 측정된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과거의 시간은 '그랬다'고 알지만, 이미 지나가 버리고 사라졌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의 시간은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고 불리는 아주 짧은 순간 외에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지금'은 존재하지만 곧 사라지니,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지금'이 찾아오지만, 그것도 지나가 버린다. 마치 시계가 움직이고 조정될 때, 분침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친구들을 따라가듯이; 마치 달리는 수레의 바퀴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멈출 수 없이 이곳저곳으로 흘러가듯이; 우리 삶의 '지금'도 마찬가지라, 멈춰 서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며, 우리의 '지금'은 지나간 시간과 다가올 시간 사이의 경계와 같아서, 지나간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시간을 시작하는 것이다. 마치 책에서 문장을 나누고, 한 문장을 끝내며 다른 문장을 시작하는 구두점처럼; 그러나 마침표는 한 자리에 머무르는 반면, 우리가 '지금'이라 부르는 이 현재 시간은 결코 멈춰 서지 않고, 마치 아래로 흘러내리며 그 뒤로 선을 남기고 앞을 향해 뻗어 나가는 물방울처럼, 고갈되어 마를 때까지 끊임없이 흘러간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짧은 현재가 과연 스스로 무언가를 행하거나, 창조하거나, 혹은 파괴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빼앗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끊임없이 흘러갈 뿐이다. 그러나 그 흐름은 마치 공중을 나는 새처럼, 바람에 밀려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당겨진 활에서 쏜 화살처럼, 혹은 장전된 대포에서 발사된 포탄처럼, 우리의 시간은 작은 선 하나에도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 그러니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현재 시간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원할 때 무엇이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때와 해와 날과 시간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 않은가? 바로 그 이유로 주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후 사도들이 "주님, 이 해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시겠습니까?"라고 묻자,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 안에 두신 때와 시기를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니라[280]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열주의자들은 헛되이 자신들의 거짓 가르침의 근거로 '마지막'이라 일컬어지는 현재를 내세우며, 이를 빌미로 성당을 훼손하고, 사제들을 쫓아내며, 도시와 마을에 사는 이들에게서 구원을 빼앗는 권세를 주장한다.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셨단 말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셨단 말입니까? 시간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여,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시단 말입니까?

네가 말하리라: 한 성직자가 기록하기를, 해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뜯어낼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으며, 돌을 흩어 버릴 때가 있고 모을 때가[281] 등등. 아,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시간이 행하는 것이다. 대답하노니: 하늘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 때에 이루어지나, 시간이 저절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마땅한 때에 각자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가 올 것이다. 과연 시간이 사람 없이 스스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가? 수확하고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것이다. 과연 시간이 사람 없이 스스로 수확하고 거두는 것인가? 사람이 없고 땅이 황량한 곳에서는, 비록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수확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분명히 시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

[280] 사도행전 1:6, 7.

[281] 전도서 3:1 이하.

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사람들은 제 때에 일을 행하는 것이니, 창조주께서 그들의 삶과 행위에 대한 때를 정해 두셨기 때문이다.

만일 때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이라면, 어찌 지금의 이 시대가 교회들의 거룩함을 빼앗고, 사제들에게 사제직을 포기하게 하며, 도시와 마을에 사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그들이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 마치 옛날에 정통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말이다? 도시에나 마을에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말씀,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282] 는 읽히지 않는 것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 모든 때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브리냐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권능과 질서 속에 있는 것들을 인간의 임의적 선택에 돌리며, 이를 마지막 때의 일로 치부하고 있다.

[283]이단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따르면, "마지막 날에는 험악한 시절이 올 것이니,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며, 거만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에게 대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의하며, 사랑이 없고, 화해할 줄 모르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비방하고, 부모에게 대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의하며, 이는 마지막 날들이요, 현재가 악한 때라, 도시와 마을의 사람들을 악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 거만한 자, 교만한 자 등으로 만들고 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들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이는 지금 도시와 마을에 구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들의 말씀에 비추어 두 가지로 논해 보겠다. 즉, 시대가 험난하고 사람들이 악하여 타락으로 치닫는다는 점에 대해, 잘못된 사고방식에 맞서 더욱 강력한 반론을 제시하며, 사도들의 말씀의 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자 한다.

시대에 관하여, 그리고 사람들에 관하여.

시대에 대하여, 그 사도들의 말씀을 해석하는 성 요한 황금입은 이렇게 대답하며 말합니다.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날들을 정죄하지 말고, 시대도 정죄하지 말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라 하셨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대를 교활한 시대와 교활하지 않은 시대로 구분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는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 때문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황금입의 요한입니다. 금구사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날도 아니고, 시대도 아니라, 사람들이다." 즉, 바울은 날이나 시대를 탓하지 않고, 사람들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구사의 저서에서 그 해석과 반대되는 대목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은 선하나, 사람들의 악의는 사악하다." 이로부터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시대가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대를 악하고 잔혹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자신도 이를 분명히 밝혔으니, "잔혹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하며, 그 시대가 잔혹한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자들이 될 것이며," 등등이라고 말했으니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질 것이니, 그로 인해 잔혹한 시절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잔혹한 시절이 올 것이니, 사람들이 악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께서는 인간의 악함에 대한 책임을 시절에 돌리지 않으시고, 잔혹한 시절에 대한 책임을 사람들에게 돌리십니다. 시절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시절을 잔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시대는 선하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 동안 악한 일을 행함으로써 선한 시대에 모욕을 가하며,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 시대가 악하고 혹독한 시대라고 불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이 현세와 이 험난한 시대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돈을 탐하며, 거만하고, 교만하며, 그 밖의 여러 가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그 옛날의 혹독한 시절에도 그러한 자들이 무수히 많았으며, 사도들의 시대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멀리하라고 명령한 바로 그 자들이 있었다. "이들(이라)을 멀리하라[284] ." 사도 시대에도 시

---

[282] 고린도후서 6:2.

[283]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및 그 이후.

몬 마법사, 메난데르, 카르포크라트, 헤린트, 영지주의자들 등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그 잔혹한 시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도 악한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지 않았던가? 사도도 디모데에게 보낸 그 서신에서, 모세를 대적한 이집트의 두 점술가 야니아와 야므리아를 언급하며 이를 분명히 밝혔는데, 이에 대해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는 단지 최근의 일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에서도 이를 보여준다; "이방인들(이집트 마법사들)의 방식대로(그가 말하길) 이아니아와 이암브리아가 모세에게 대적하였으니[285] ."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티모테오나 우리 중 누구도 악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모세 시대에도 그들이 있었으니, 이 시대에도 있을 것이므로, 우리 시대에도 그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황금입의 요한입니다. 마치 과거의 험난한 시절에 악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과 같은 마지막 험난한 시절에도 많은 악한 사람들 가운데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는 자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돈을 탐하는 자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거만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교만하지도 않으며, 모든 사람이 비방하는 자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부모에게 대항하는 자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배은망덕한 자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불의한 자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사랑이 없는 자도 아니며, 그 밖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자기만 생각하는 자도, 돈을 탐하는 자도, 거만하고 교만한 자도, 비방하는 자도, 그 밖의 자들도 아닌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며, 오히려 그들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탐욕이 없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품성과 생활이 경건하고, 참된 하나님의 종들이며, 영원한 구원에 합당한 자들이다.

"마지막 날들이 왔고, 악한 사람들의 시대가 닥쳐와 도시와 마을에서 구원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2. 고찰

소위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단순한 성전과 외양간으로 만들고 있는가?

만약 분열주의적 거짓 가르침에 따라 '마지막 때'가 하나님의 교회를 단순한 성전과 외양간으로 변모시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믿음의 시작인 사도 시대부터 천하 어디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단 하나도 없었고, 모두 단순한 성전과 외양간이었을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던 시절부터,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던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니, 성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여름의 끝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아들을 보내셨으니, 그분은 여인에게서 나셨도다[286] ." 여름의 끝, 즉 마지막 시대는, 성 바실리우스 대교부가 성찬 기도문에서 그리스도께 드린 말씀처럼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시작이 없으신 아버지께 동질하시며 시작이 없으신 아들이시여, 끝없는 자비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들에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이다."

마지막 시대는 사도들의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니, 성 요한 신학자가 말하듯이: "자녀들아, 마지막 해가 이르렀도다. 너희가 들었거니와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 하였거늘,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느니라"[287] ; 또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가 올 것이라 하였거늘, 이제 세상에 이미 있느니라"[288] . 바로 이 거룩한 사도는 생전에 이미 마지막 때가 올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

284 디모데후서 3:5.

285 같은 장 8절.

286 갈라디아서 4:4.

287 요한일서 2:18.

288 같은 곳 4장 3절.

왜냐하면 분열주의적 사고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시대와 사도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1700년 이상 동안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서 통치해 왔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교회라 할 수 없었고, 항상 텅 빈 성전과 축사였으며, 그곳에서 행해지는 성례는 결코 성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마지막 때가 그리스도의 시대와 사도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추론하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고 영혼을 해치는 것이며, 이단적인 것이다. 사도들의 시대부터 거룩한 믿음이 빛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기독교 최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왕국을 거룩한 믿음으로 비추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지극히 많이 늘렸으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무덤 위에 성전을 세우고, 로마에는 사도들의 무덤 위에, 그리고 다른 도시들에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은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국가들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결코 누구도 하나님의 성전을 단순한 사원이나 축사로 일컫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라고 말해지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브리냐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텅 빈 성소와 외양간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3. 고찰

언제 하나님의 교회가 단순한 성전처럼 되는가*?*

어떤 집이든, 낡아서 무너져 내리거나, 비록 낡지 않았더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없고, 잠겨 있지도 않으며, 누구에게도 지켜지지 않아 지나가는 모든 사람과 가축이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그 집은 진정으로 '비어 있다'고 말해질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러하다: 반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없더라도 문이 잠겨 있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 아무도 그 집을 훼손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집은 '집'이라 불릴 수 없으며, 주인이 있는 집으로 여겨져야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들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하는데, 어떤 성전은 너무 낡아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거나, 어떤 성전은 낡지는 않았으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그곳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찬양을 받지 못하거나, 자원이 부족하여 잠겨 있고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 교회를 누군가는 단순한 성전에 비유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가장 단순한 성전조차 아니며, 마구간보다도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위를 내려다보시고 지켜보시기 때문이다.

러시아 제국에는 이러한 교회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심한 노후화로 인해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찬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비록 노후되지는 않았더라도 신자와 성직자들의 감소로 인해 찬송 없이 방치되어 있다; 이는 우리 교구 내에 몇몇 마을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국왕의 명령으로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고, 성직자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가 없어 그 교회들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잠겨 있거나 방치되어 훼손되고 있다: 그 교회들은 이제 마치 단순한 성전과 같아서 찬송 없이 서 있지만, 가장 단순한 성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전과 장소는 하느님께 성별된 날부터 그 자체에 어떤 하느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장소, 곧 성 야곱이 여행 중 잠들었다가 기이한 꿈을 꾸었던 곳—천사들이 오르내리는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가 있던 곳—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 있었기에,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두려워하며 이렇게 결심하였으니: *"*이 곳은 두려운 곳이니, (평범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며*,* 이 문은 하늘의 문이다[289]*.*" 하듯이, 새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별된 장소와 성전들이 비록 찬송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재하지 않는 법이 없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 총대주교 성 소프로니우스의 저서 『리모나르』(즉 『꽃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책 제4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아바 레온티우스가 우리에게 전하기를, 우리 성부 테오도시우스의 키노이 수도원 원장인 그가 말하기를: "노보라브란이 쫓겨난 후, 오리겐의 추종자들이 쫓겨난 후, 그 새로운 라브라에 정통파 수도사들이 들어왔고, 나도 그들과 함께 그 새로운 라브라에 정착했다. 어느 주일 날, 성찬을 받기 위해 교회에 갔더니, 들어가 보니 제단 오른쪽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

[289] 창 28:17.

았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내 방으로 돌아왔더니, 나에게 목소리가 들려와 말하기를: '이 제단은 이미 성별되었으니, 내가 그곳에 머물도록 맡겨졌다.' 우리는 이를 경청한다. 비록 오리겐파 이단자들이 정통 교부들보다 먼저 그곳에 머물며 자신들의 이단적인 예배를 거행했더라도, 태초부터 존재해 온 정통 신자들에 의해 하느님께 봉헌된 이 제단은 하느님의 천사를 곁에 두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또한 같은 책의 10장에는 요르단 동굴에서 살았던 은둔자 아바 바르나바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자신의 동굴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성별하였으며, 그곳에서 몇 해를 지낸 뒤, 피르기아라고 불리는 라브라로 옮겨갔는데, (다리에 가시가 박혀 심한 궤양이 생겨 썩어 들어가던 병 때문에 그곳으로 옮겨간 것이었다). 그가 동굴을 떠난 후, 어떤 은둔자가 그의 동굴에 머물고자 들어갔더니, 제단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고, 은둔자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곳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곳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어떤 교회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 찬송이 없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천사가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다면, 그 교회는 여전히 성스러운 곳임을 보여준다. 아마도 찬송이 없어 텅 빈 교회를 단순한 성전에 비유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가장 단순한 성전으로 간주하는 것조차 무죄한 일은 아니며, 하물며 그것을 곡식 창고라고 부르는 것은 죄악이다. 아래에서 성 히폴리토스는 하나님의 교회가 텅 비어 있는 것을 '곡식 창고'라고 불렀으나, 단지 그것을 단순한 성전에 비유했을 뿐이며, "하나님의 교회들은(그가 말하길) 단순한 성전들과 같을 것이다"라는 말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분열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미워하여, 자신의 악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하듯이 '헛간'이라 칭하며, "교회들은 헛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들이 찬송이 없는 교회들을 헛간이라 부른다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이 놀랍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단순한 성전 일 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찬양이 드려지고, 무혈 제사가 거행되며, 모든 기독교 성사가 행해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헛간'이라 부른다. 분열주의자들은 특히 그러한 교회들을 '헛간'이라 부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성 소프로니우스의 저서에서 알 수 있듯이, 제물이나 찬송 없이 서 있는 하나님의 제단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천사들의 보호가 임해 있습니다. 하물며 도시와 마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하나님 찬양과 거룩한 전례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며, 단순한 성전이나 축사(축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성전, 천사들이 머무는 곳,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 신실한 자들의 피난처,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곳, 하나님의 집이자 천국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와 마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단순한 성전이나 외양간이라고 부르는 분열주의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 이단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거나,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도시와 마을을 파괴하고 황폐화시킬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는 약탈당하고 황폐해진 채, 단순한 성전과 같아지며, 심지어 외양간이나 말 마구간과도 같아집니다. 하가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기 위해 자기들의 말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보내며 온갖 더러운 것으로 그것을 더럽힙니다. 그때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이방인들이 주의 소유에 들어와 주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나이다[290] ."

4번째 고찰

과연 러시아 제국에서 도시와 마을의 교회들이 단순한 성소나 외양간으로 전락해야 할 때가 이미 도래한 것일까?

우리는 주님의 교회들이 황폐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학대하는 이단자들 때문이거나,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는 이방인들의 침략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

[290] 시 78:1.

러시아 제국에서는 세례를 받은 이래 지금까지, 정교회를 압도하고 주님의 제단을 모독할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이단 세력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반란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일부 이단들이 미미하게 드러나 성스러운 교회들을 모독하며, 단순한 성전이나 외양간이라 칭했던 것들, 즉 프스코프 출신의 스트리고니키들이 있었을 뿐이며, 그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겠다. 위대한 노바그라드에서는 새로운 유대인들, 즉 현재 타치라고 불리는 브리냐네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며, 백성들에게 기도하러 교회에 오지 말라고 가르쳤다.

러시아 제국에는 이방인들의 침입이 있었으니, 바티예프 시대와 그 후 아가리안들이 여러 차례 예기치 않게 러시아 땅을 침입하였고, 마찬가지로 폴란드인들의 침입도 스트리스티고 왕국 시절과 그 이후에 있었다. 그 악한 시절에 러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치 평범한 사원이나 축사처럼 이방인들에 의해 황폐화되고 더럽혀졌다.

그러나 오늘날, 대러시아 제국 내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로 보호받고 있어, 비록 전쟁 소식은 들리지만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화되는 일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죄로 인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모든 교회가 어디서나 항상 텅 비어 있지는 않을 것이며, 오직 때와 장소에 따라, 마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구름이 때와 장소에 따라 지나가듯이, 부분적으로만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곳마다 당신의 거룩한 교회들을 온갖 파괴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열주의자들은 때때로 이단의 폭력이나 이방인의 침략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나님의 교회 황폐화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악의로 어떤 다른 것을 꾸며내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한 주님의 교회들을 단순한 성전이나 외양간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악의에 맞서 반박함에 있어,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가해지는 박해의 심각성을 밝히고, 또한 그들의 모독에 맞서 반박해야 한다.

온 우주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특히 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일부만이, 때로는 교회 전체가 박해를 받습니다. 일부만이 박해를 받는 경우는, 어떤 나라에서는 박해를 받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평온을 누릴 때입니다. 어떤 왕국에서는 억압받고, 모욕당하며, 폄하되지만, 다른 왕국에서는 자유롭게 번성하며 늘어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 지역에서는 박해를 받고 터키인들에게 억압당하고 있지만, 러시아 지역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아직 박해를 겪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는 그 초창기인 사도 시대와 그 이후, 심지어 콘스탄티누스의 개종 시기까지 약 300년 동안 박해를 겪었으며; 그 당시 온 우주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박해를 받고, 억압당하며, 악의에 시달렸고, 동서남북을 막론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박해를 온 교회는 세상의 종말, 즉 적그리스도의 시대에도 다시 겪게 될 것이니, 온 땅의 끝에서 적그리스도의 숭배자들에 의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받고 살해당하며, 하나님의 성전들은 황폐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비록 '마지막'이라 불리는 이 시대라 할지라도, 온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러한 박해는 아직 없으며, 오직 일부 지역(예를 들어 그리스와 같은)에서만 부분적으로 일어날 뿐이다. 아직 적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재림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열주의자, 즉 적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임박했다고 주장하며, 아직 황폐해지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를 단순한 성전이나 외양간이라 칭하고, 히폴리토스의 말씀을 자신의 거짓된 음란한 말에 증거로 내세우는 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대답하노니:

성 히폴리토의 말씀의 참된 요지는, 그 때가 오면 도시와 마을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치 단순한 성전과 축사처럼 황폐해지고, 예배와 제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성 에프렘도 마찬가지로 예언하였다. 그러나 너희 브린의 그릇된 해석자들아, 선조들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며 거짓말을 하고, 너희가 따르고 해석하는 바로 그 성부들의 믿음을 훼손하고 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재림이 감각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로부터 이미 전해진 바와 같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들과

정반대로, 적그리스도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만 존재한다고 말하며, 이미 그가 왔고 모스크바에서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부 히폴리토스와 에프렘은,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는 날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텅 비게 되고, 단순한 성전들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아직 육체적으로 오지 않았음에도) 지금 이미 하나님의 교회들이 단순한 성전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할까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성스러운 교부들의 말씀인가, 아니면 거짓말을 하며 진리에 대항하여 마치 낫으로 베어내듯 거스르는 여러분의 말인가?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텅 비어 있지 않고, 단순한 성전도 아니며, 축사도 아니라, 주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차 있고, 피 흘리지 않는 제사를 반드시 품고 있음을 보더라도, 여러분은 그 성전들을 단순하고 텅 빈 곳이나 축사라고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보고도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눈조차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악의가 여러분의 눈을 가려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며, 그 이단적인 악의 속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하노니, 비록 마지막 때가 왔고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세상의 종말이 온 것은 아니며, 다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98장 초반부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따로 그분께 다가와 말하기를, '주님,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니, 많은 사람이 미혹될 것이다." 너희는 분쟁과 분쟁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니, 보라, 당황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마땅히 일어날 것이나, 그때가 세상의 끝은 아니니라[291] . 마가복음 58장 초반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이다'라고 말할 것이니, 많은 사람이 미혹될 것이다. 그러나 분쟁과 분쟁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292] . 누가복음 105절 초반: 조심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이다'라고 말할 것이며, 때가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전쟁과 혼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먼저 있어야 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종말은 아닙니다[293] .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전쟁과 혼란이 먼저 있어야 하지만, 그때가 종말은 아니며, 종말이 아니며, 결코 종말이 아닙니다. 전쟁과 혼란은 이미 존재하며, 우리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도 아니고,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와 황폐화를 당할 그 날들이 이미 도래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아직 육신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는 이전에 이미 밝혀진 바와 같고, 하나님의 자비로 보호받는 기독교는 아직 쇠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그리스도가 와서 기독교를 쇠퇴시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텅 비게 될 것이니;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산과 광야, 동굴로 도망쳐야 할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현혹되어 그에게 가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는 황폐해질 것이며, 단순한 성소와 축사로 변모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러시아 제국 내의 성스러운 교회들은 아직 비어 있지도 않고, 단순한 창고로 변모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피 흘리지 않는 제사가 바쳐지며, 모든 기독교 성사가 변함없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살하는 자도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 러시아인들을 박해하고 고문하는 자도 없으며,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자도 없고, 기독교 성사가 거행되는 것을 막는 자도 없습니다; 여전히 이 러시아 왕국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번성하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숭배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회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성 히폴리토스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

291 마태복음 24:3, 4 및 그 다음 구절들.

292 마가복음 13:6, 7.

293 누가복음 21:8, 9.

말씀하시기를, 적그리스도가 실제로 통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들은 큰 통곡으로 울게 될 것이니, 이는 그 안에서 제사도, 향로 의식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도 행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거룩한 교회들은 마치 과일 저장고와 같아질 것이며, 그(적그리스도의) 날들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예배는 사라지고 성경 읽음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294] . 여기까지가 히폴리투스의 말씀이다. 또한 성 에프렘도 말하기를, 이 모든 일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일어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가 오면 성스러운 교회들을 황폐화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평범한 예배당으로 바꿔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오지 않았으니, 온 세상 도시와 마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텅 빈 평범한 예배당이나 외양간이 될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295] .

이로써 브린파의 그릇된 해석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으니, 그들은 지금이 이미 교회가 황폐해지고 단순한 예배당이나 외양간으로 변모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오직 그들의 광기 속에서만 다음과 같이 상상할 뿐입니다: 우리 안의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하나님의 낙원이자 지상의 천국과 같아서, 그곳에 육신으로 서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서 있는 듯하며, 우리 마음은 주님을 향해 높이 솟아 있습니다.

5번째 고찰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목자들이 늑대가 되는가?

그리고 성 히폴리토스의 이 말씀, "목자들은 마치 늑대처럼 될 것이다"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는 생전에 미래를 내다보며, 자신 이후의 시대에 대해 예언하였으니, 그 말씀은 이미 어떤 목자들에게는 이루어졌으나 모두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지금도 어떤 이들에게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도 어떤 이들에게는 이루어지겠지만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성 히폴리토스의 말씀은 늑대 같은 성향을 가진 어떤 목자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그의 생애 동안 많은 이단적인 주교들과 사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리우스파였던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유독시우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마케도니우스는 영적 적대자였으며, 그 밖에도 여러 주교좌에 앉은 주교들과 사제들이 있었으니, 어떤 이들은 유티키우스파, 어떤 이들은 디오스코리우스파, 그 외 영적 직분을 가진 이단자들이었다. 이 목자들은 늑대들이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시대에 경건한 목자들 또한 있었으니, 그리스도의 성 니콜라오, 스피리돈, 그리고 그 밖의 위대한 성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으며, 이들은 마치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처럼 빛났고, 이 목자들은 늑대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참된 목자들이었다.

오늘날에도 성 이폴리토의 말씀이 어떤 늑대 같은 목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 들어보라.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지 않거나, 악하고 타락한 삶의 방식으로 자신의 양들을 유혹하거나, 고의로 악을 가르쳐 자신의 양들이 멸망하는 데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혹은 이단을 퍼뜨리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파문당하고, 다른 이들을 이단으로 유인하는 자들, 마치 과거 분열의 주동자들이었던 카피톤, 아바쿰, 라자르, 니키타 푸스토스비야트,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자들처럼 말이다. 지금도 그러한 자들이 많으니, 그들 중 일부 사제들은 자신의 교회와 집을 버리고 분열주의자들의 거처로 가며, 다른 이들은 비록 자신의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정통 신자라고 위선적으로 말하지만, 실상은 분열주의자들과 결탁하여 그들과 뜻을 같이하며, 자신의 신도들을 이단자들에게 현혹된 신자들을 숨겨 주고, 그들을 방조합니다. 이러한 목자들은 참으로 늑대들이니, 그리스도의 양 떼를 괴롭히고 그리스도의 양들의 영혼을 삼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도시와 마을에 있는 모든 목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며, 모두가 소홀히 하는 것도, 모두가 유혹하는 것도, 모두가 악을 가르치는 것도, 모두가 이단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대다수는 참된 목자들로서, 인간의 영혼 구원을 염려하며, 말과 덕스러운 삶의 모범으로 유익을 주고, 경건한 믿음을 흠 없이 지키

[294] 123쪽 뒷면.

[295] 시편 106, 272쪽 뒷면.

며, 이단자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썩은 지체처럼 그들을 교회의 몸에서 잘라내는 자들이다. 이 목자들은 늑대가 아니라 참된 목자들이다.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성 히폴리토스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 곧 목자들이 마치 늑대처럼 될 것이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도, 평신도들 중에서 그러하듯이, 성직자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미혹되어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나, 어떤 이들은 미혹되지 않고 굳건히 맞서며, 다른 이들을 권면하고 거룩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직자 중에서 미혹되어 적그리스도 편에 서는 자들은 늑대 같은 목자들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심지어 피를 흘릴 지경에 이르기까지 견디는 자들은, 그들이야말로 참된 목자로 드러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들과 순교 사제들에 대하여, 성 히폴리토스는 이렇게 말하노니: "그 때에 박해자에게 맞서 싸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초기의 순교자들보다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높게 나타날 것이니라; 초기 순교자들은 그(적그리스도의) 종들을 이겼으나, 이들은 바로 그 멸망의 아들을 물리치고 승리자가 될 것이니[296] . 여기까지가 히폴리트의 말씀이다.

성 히폴리토스의 말씀은 늑대 같은 성향을 가진 일부(모든 사람이 아닌) 목자들에 대해 진실로 옳습니다. 그러나 브린의 거짓 교사들과 왜곡된 해석자들은 모든 성직자들을 늑대라고 칭하며,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의 아들들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모독적인 말대로 모든 성직자 계층이 늑대라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양들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자신이 머리가 되신 교회를 가지실 수 없으실 것이고, 그 머리는 자신의 지체들, 즉 교회의 몸,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직자 계층이 늑대로 변해버린 상태에서 지체 없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양 떼와 그리스도의 양 떼를 돌보는 목자들은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많은 이들이 떨어져 나가 밀에서 쭉정이처럼 걸러지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밀은 타작마당에 남을 것이니; 그리스도 께서 계셨던 날에도 그러했으니, 그의 제자들 중 많은 이가 뒤로 물러나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나이까*?* 주께서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니[297] ."

6번째 고찰

마지막 때와 환난의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에 있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는가*?*

이 점을 더 명확히 알기 위해, 먼저 '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때를 '잔혹한 때'라고 부르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잔혹한 때*'*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잔혹한 시기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거룩한 교회, 곧 그분의 존귀한 피로 구속받은 교회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시기이다.

또 다른 '잔혹한 때'는 하나님 그분 자신께가 아니라 오직 사람들에게만 전쟁을 일으키는 때이지만, 하나님의 계명, 즉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는 때이다.

첫 번째 흉악한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미워하며, 그분의 거룩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시기인데, 이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 이전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얹어 쫓아내며*,* 너희를 군중과 감옥에 넘겨주어 왕들과 통치

---

[296] 132쪽 뒷면.

[297] 요한복음 6:69 및 그 다음 구절.

자들에게 인도할 것이니, 이는 내 이름 때문이라.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298] ; 또 다시: '그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어 죽일 것이다[299] ."

그러나 또 다른 잔혹한 시기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시적인 복을 위한 것이다. 이는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영광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며, 내전이 일어난다. 그 다른 시기에는 백성에게 고통이 닥치고, 가난한 자들은 억압을 당하며, 죄 없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며, 수많은 강탈과 약탈, 폭력과 불의가 자행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시기는 잔혹한 시기인 것이다.

첫 번째 잔혹한 시대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여 일어난 것으로, 이미 디오클레티아누스, 막시미아누스 및 그 밖의 잔혹한 박해자들이 있던 시절에 지나갔습니다. 이는 육신으로 실체적으로 오실(브리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영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다시 반복될 것이며, 그때 다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은 미움을 받고, 그 교회는 박해를 당하며, 신자들은 살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으니, 아가리안들이 점령한 기독교 국가들만을 제외하고는 그렇다. 러시아 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아직 거룩한 신앙이 박해받지 않고 있으며,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하거나 죽이지 않으며, 그 누구도 다른 이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웃을 대적하며,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싸움을 부추기며, 백성에게 고통을 가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며, 죄 없는 자들을 악의적으로 대하고, 약탈하고, 납치하며, 불의와 폭력을 자행하는 그 잔혹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마땅하지만, 곧바로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300] .

이제 성 히폴리토스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 히폴리토스는 앞서 언급한 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와 마을에 사는 자들아, 이 시대와 날들이 얼마나 잔혹할지 미리 알아두라[301] ."

성 히폴리토의 그 말씀들을 바탕으로, 브린의 그릇된 해석자들은 자신들의 허구로 성 히폴리토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현재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지금 도시와 마을에는 끔찍한 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도시와 마을에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며, 이제 도시와 마을에는 구원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정통 신자들은 이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며,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거룩한 교회를 대적하던 최초의 그 잔혹한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시와 마을, 즉 도시와 마을에 거주하던 신실한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만약 그때 신실한 자들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셨다면, 지금도 우리에게서 돌리시는 것이니, 만약 그때 돌리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우리에게서 돌리지 않으시는 것이다.

초창기 그리스도의 교회는 얼마나 혹독한 시기를 겪었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모르는 자는 사도행전과 순교자들의 고난을 읽어보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혹독한 시절, 브린의 말을 빌리자면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도시와 마을에 사는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말했을 터이다. 그들이 광야로 피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예루살렘에서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의 위업을 보라. 그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

298 누가복음 21:12, 17.

299 마태복음 24:9.

300 누가복음 21:9.

301 133쪽.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고, 열린 하늘 위에 서 계신 주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그분이 자신의 위업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302] . 주님께서는 그 잔혹한 시기에 예루살렘 성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종을 바라보시고 계신다; 그를 바라보시면서, 동시에 살인적인 도시 예루살렘도 함께 바라보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넘겨준 그 도시를, 사도들을 살해한 그 도시를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도시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분을 위해 고통받는 신실한 종들 때문에 그 도시를 바라보시는 것이며; 그분은 그 잔혹한 시기에 산과 광야로 도망치지도 않고, 굴속에 숨지도 않은 자신의 종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로운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시니, 마치 돌로 맞으며 죽임을 당하던 첫 순교자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는 숨지 않고 담대히 백 명의 유대인들에게 맞서 주님을 위해 싸웠던 자이다. 그러면 성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임을 당했을 때, 또 다른 야고보, 곧 주님의 형제라 불리는 이가 교회의 지도자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주님께서는 하늘 높이에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내려다보지 않으셨겠는가? 그분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온 도시와 모든 신자와 불신자들을 함께 바라보셨다. 신자들은 자신의 종들처럼, 불신자들은 자신의 원수들처럼 대하셨다. 신자들을 사랑하시고, 불신자들에게는 인내로써 용서해 주셨다. 그들을 헛되이 응징하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고난을 겪었던 다른 도시들과 지역들에서도,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당시 위에서 그들의 용맹한 행적을 지켜보시며, 고난 속에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겠는가? 마찬가지로, 육신을 입은 적그리스도 자신이 오실 때 그 잔혹한 시기가 다시 찾아온다면, 주님께서 자비로운 얼굴로 도시와 마을, 즉 도시와 마을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당신의 종들을 돌보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산과 광야로 도망쳐 동굴에 숨는 자들만을 돌보실 것인가? 그러나 도시와 마을 한가운데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들을, 과연 외면하시겠는가? 그들을 버리시겠는가? 그들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즉 산과 광야로 피신하여 고난을 피하는 자들보다, 그분의 빛나는 얼굴과 지극히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들에게 더욱 자비롭고, 친절하며, 정성스럽게 돌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군에게 있어 용감하게 원수와 싸우는 전사가, 군대에서 도망쳐 숨는 자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며 그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를, 광야에서 수행에 힘쓰는 성자보다 더 사랑하시니, 이는 하늘에서 순교자의 모습이 성자의 모습보다 더 높고, 더 빛나며, 더 존귀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면, 마치 그 첫 번째 잔혹한 시절, 곧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교회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때와, 적그리스도 시대에 다시 닥칠 그 시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도시와 마을, 즉 도시와 마을에 거주하던 그분의 종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확고한 담대함으로 말하노니, 이 또 다른 격동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웃을 대적하며, 분쟁과 혼란을 일으키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자들 앞에서, 주 하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 즉 성읍과 마을에 거주하며 환난으로 억압받고, 괴롭힘을 당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분의 충실한 종들에게서, 주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며, 오히려 광야에 숨어 어떤 환난이나 괴로움도 겪지 않는 자들보다 그들에게 더 자비로운 시선을 보내신다.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본보기이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혹독한 시기였으니,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강제로 노역하게 하여 가혹한 일들[303] 로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일들로 인해 신음하였으나, 그 혹독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던가?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비로운 얼굴을 그들에게 돌리신 것이

[302] 사도행전 7:55 및 50.

[303] 출 1:13, 14.

아니겠는가? 주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노라"[304] .

오 브리냐의 여러분, 광야의 은둔처에서 조용하고 고요하게,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고, 원한을 사지도 않으며, 모욕당하지도 않은 채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기를 바란다면, 도시와 마을에서 고난을 겪고, 억압받고, 원한을 사며 고통받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더욱 하나님의 자비를 포기하지 않고,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곤란과 슬픔을 보시며,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이 혹독한 시기를 통해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자들을 채찍질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교회 밖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피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치 어떤 가증한 것, 혐오스러운 것처럼 여기는 자들이, 자신들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자랑한다면, 하물며 우리처럼 그분의 거룩한 교회 안에 있으며, 그분의 지극히 순결한 몸과 생명을 주는 피를 성찬으로 받아 그분과 교제하는 자들은, 그분의 임재를 확신하며,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분의 거짓 없는 약속에 따라 앞으로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305] ; 또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잊을지라도, 자궁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지라도, 설령 그 여인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306] . 이것이 바로 우리 정통 신자들이 성경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우리의 소망을 확고히 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의 모독적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통 신자들을 버리신다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짓되신 것보다 너희가 거짓말을 하는 편이 더 편할 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는데, 이는 너희가 거짓의 아버지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니,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나 너희는 환난의 때에 고통받는 우리를 떠나신다고 말하면서, 정작 너희에게로 돌아와 자랑하는 자들아, 스스로 판단해 보라. 과연 누구에게 더 빛나는 면류관이 있을 것인가? 고난 없이 광야의 고요함 속에서 평온하게 지내는 자들의 것인지, 아니면 도시와 마을에서 험난한 시기에 환난과 박해를 겪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것인지? 지금 도시와 마을에 닥친 이 험난한 시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시험하시고, 마음속의 금을 정화하시는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사, 그분께 합당한 자들로 인정하셨다[307] ." 여러분은 광야와 산과 동굴에 거주하고 계시니, 비록 스스로를 금이라고 여길지라도, 진정한 금 그 자체는 아니요, 오직 땅속 깊은 곳에 감춰진 금광석과 같으니, 그것은 완전한 금이 아니라 단지 땅의 은밀한 곳에 놓여 있는 금광석일 뿐입니다. 반면, 우리는 도시와 마을에서 혹독한 시련으로 인해 억압받고 괴로워하고 있으나, 우리는 마치 순수한 금과 같아서, 시련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고 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혹독한 시련 때문에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의 인내와 감사를 지켜보신다고 믿습니다. 성스러운 교회가 박해와 환난 속에서 수련꽃처럼 활짝 피어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신실한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과 고난, 그리고 험난한 시기가 가져오는 시련을 감사함으로 견디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해지며,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끝까지 견뎌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거기서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도시와 마을에 거주하는 신실한 종들에게 왜 험난한 시기를 허락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나은 구원을 마

---

304 같은 책 2:23 및 24.

305 히브리서 13:5.

306 이사야 49:15.

307 잠언 3:6.

련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독한 시기를 겪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종들의 죄가 씻겨지고, 밀에서 쭉정이처럼 제거되며, 고난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더욱 빛나는 면류관이 엮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위에서 당신의 종들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들의 인내를 보시고, 고난받지 않는 자나 고통받지 않는 자들보다 그들에게 더 큰 상을 준비해 주십니다. 혹시 오늘날 도시와 마을에 옛날처럼 순교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도 무고하게 고통받으며, 족쇄에 묶여 고문당하고, 모욕당하고, 살해당하며, 재판에서 죽을 때까지 매질당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이들은 자신의 무죄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순교자들이니, 비록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받지는 않더라도, 그 무죄함 그 자체로 인해 그리스도께 사랑받으며, 그분으로부터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의 성 글렙과 보리스, 그리고 성 디미트리 차레비치와 같이, 비록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성스러운 순교자들과 함께 영광을 얻은 이들처럼, 지금도 부당하게 고통받는 이들도 순교자들이다. 주님의 종들인 그들과 그들과 같은 이들, 즉 도시와 마을에서 고난을 겪으며 사는 자들에게서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 이웃을 위로하며, 그들을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는 우리도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실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계시며, 부당하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러하심과 같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 브리냐네여, 여러분이 이폴리토스의 말을 해석한 것은 거짓입니다. 성 이폴리토스가 쓰지 않은 내용을 스스로 지어내어, 마치 오늘날의 흉악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시와 마을에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 고찰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직 광야에만 계시는가? 오직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만 받아주시는가? 오직 광야의 은둔자들만을 구원하시는가?

성 히폴리트는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며, 적그리스도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산과 사막의 동굴에 숨어, 그곳에서 눈물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기도할 것이며, 그분께서 그들을 적의 그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악한 유혹으로부터 구원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감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폴리토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 브린의 비뚤어진 해석자들은 오늘날 우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산과 광야, 동굴에 숨어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만, 산과 광야, 동굴에 숨지 않고 도시와 마을에 사는 자들은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니, 오직 우리의 황량한 은둔처에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우리만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해하는 자들은 두 가지 점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첫째, 성 히폴리트가 현재의 시대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썼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를 현재 시대로 끌어와, 그리스도의 앞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적용하려 한다: *"끝이 오지 않을 것이다"*[308] , *"끝이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309] .

두 번째 주장은 거짓입니다. 성 히폴리투스가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왜곡된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히폴리트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말세에 오직 광야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며, 산과 광야, 동굴에 숨어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숨지 않고 도시와 마을에 남아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대해 쓰지 않았으나, 분열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들이 이를 지어낸 것이다. 그러니 성 히폴리토스가 어떤 구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지 분별하라: 하나는 영원한 고통, 즉 지금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악마들의 손으로부터, 끝없는 세월 동안 죄인들을 괴롭히려 하는 자들의 손으로부터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시적인 고통, 즉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고문자의 손으로부터 육신을 일시적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시

308 마가복음 13:7.

309 누가복음 21:9.

대에 산과 동굴, 광야에 숨어 지내는 자들의 구원에 대해 성 히폴리토스가 논할 때, 그는 그들이 일시적인 고통과, 그들의 육신을 고문하고 몸을 때리려 하는 눈에 보이는 고문자인 적그리스도의 손아귀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대해 선포합니다. 이 사실은 앞서 언급된 히폴리토스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니, 여기서 다시 반복하겠으니, 여러분은 분별력을 가지고 경청하십시오. 히폴리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피할 것이니, 그의 함정이 덫임을 깨닫고, 그의 아첨이 교만임을 알아차려 그의 손에서 벗어나 산과 동굴에 숨을 것이며, 눈물과 상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그들을 그의 그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악한 유혹으로부터 구원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들을 감싸 주실 것이다[310] . 여기까지가 히폴리트의 말씀이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 성인은 일시적인 구원, 즉 눈에 보이는 고문자인 적그리스도의 손과 고문으로부터 육신을 구해내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유혹하여 사악한 죄의 유혹에 빠뜨려 자신을 숭배하게 하거나, 그들을 고문하고 멸망시키려 할 것이다.

또한 성 에프렘의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때 함께 모인 수많은 성도들은 악한 자의 도래를 듣자마자, 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거룩하신 하느님께 탄식하며 눈물의 강을 흘리고, 큰 수고를 들여 광야로 도망쳐 산과 동굴에 숨을 것입니다[311] . 여기까지가 성 에프레모의 말씀입니다. 에프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적그리스도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는 히폴리토스와 에프렘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 두 스승은 지옥의 고통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고통스러운 손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또한 보이지 않는 악마의 손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인들이 흠 없는 믿음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해 확신할 수 있는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히폴리토스와 에프레모스는) 눈에 보이는 고문자와 눈에 보이는 고통으로부터의 일시적인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는 뱀, 즉 적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 그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님을 배척하도록 강요받지 않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중, 고문을 두려워하여 광야와 산과 동굴로 도망치는 이들에게는, 광야와 산과 동굴이 그들의 육신에 대한 일시적인 구원이나 해방이 될 것이니, 그곳에서 그들은 육신을 죽이는 적그리스도로부터 피할 수 있으나, 영혼을 죽일 수는 없는 자로부터 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리스도를 위해 두려움 없이 고난을 자처하는 자들은, 일시적인 고난으로부터 육신에 대한 일시적인 구원이나 해방을 얻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영원한 상은 배가되어 더욱 커질 것이며, 광야와 산과 동굴에 숨은 자들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는 도시와 마을에 있는 자들 중, 산이나 동굴, 광야로 도망쳐 숨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서서 자신의 영혼을 바칠 자들이기 때문이다.

네가 말하리라*:* 성 에프라임이 이르기를, 산과 언덕, 들판의 나무들이 울부짖을 것이며, 하늘의 두 빛과 별들도 인류를 위하여 울부짖으리니, 이는 모든 이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께로부터 떠나, 믿음의 사다리를 버렸기 때문이라[312] : 등등. 이는 적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도시와 마을에서 누구도 주님을 위해 굳건히 서지 않을 것이며, 영원한 구원으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에프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겠지만, 오직 광야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답하노니*:* 믿음에 굳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을 품지 못한 자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며, 믿음에 굳건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떠나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고, 멸망하는 자들의 수가 구원받는 자들보다 훨씬 많을 것이므로, 그 때문에 '모든 사람이 떠나갈 것'이라고 말해지는

---

[310] 133쪽.

[311] 잠언 106, 272쪽.

[312] 272쪽.

것이다. 이 말은 시편 기자의 표현을 따른 것으로, 그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떠나갔고, 함께 부패하였도다[313]"라고 한 것과 같다. 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으나,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타락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으니, 곧 선지자 나핫과 그 시편을 지은 다윗,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은밀한 종들처럼, 그들 없이는 어떤 시대도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성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와 같아서, 그가 말하기를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314];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신의 은밀한 종들이 칠천 명 있다고 하셨다[315];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고 말했으나, 많은 이들이 떠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마찬가지로 성 에프렘도 말하기를, 적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며, 그 수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배교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은 수많은 배교자들 가운데서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떠나게 될 것이나, 떠나지 않는 소수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도시와 마을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렇다면 성 히폴리토스가 앞서 언급한 그 말씀은 누구를 두고 한 것입니까? "그때 박해자(즉, 적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초기의 순교자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높게 드러날 것이니[316]" 등등. 만약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도시와 마을에, 주님을 위해 굳건히 서서 그분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바칠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없다면, 천사들이 누구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 즉 이마에 거룩한 십자가를 새겨[317],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알리고, 마귀의 종들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구별될 수 있겠는가? 알려진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도시와 마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수고하며, 영원한 구원으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만약 그토록 잔혹한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기에도 도시와 마을에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과 경배자들이 있어,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구원으로 구원하고 있다면,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아닌 지금의 이 잔혹한 시기,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앞당기는 이 끔찍한 시기에, 도시와 마을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과 경건한 자로서 자신의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성적인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므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자유 의지에 있어, 예전에도 자기 주인이었듯이, 지금도 자기 주인이며, 앞으로도 자기 주인이 될 것이다.

8번째 고찰

인간의 영혼의 구원이 시간과 장소에 의해 결정되는가?

브리냐네파는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통해, "지금과 같은 마지막 시대에 광야에서 사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으나, 도시와 마을에 머무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인간의 구원이 시간과 장소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탐구해야 한다.

때로는 시간과 장소가 구원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즉, 시간이 평온하고 장소가 고요할 때 말이다. 그러나 구원은 시간이나 장소에 달려 있지 않다. 왜냐하면 평온하고 고요한 시기에도 많은 이가 멸망하며, 고요한 사막 같은 곳에서도 많은 이가 큰 죄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마음과 하나님 안에 있다. 스스로 결심하고, 시작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안에; 그리고 도우시고, 협력하시며, 마침내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

만일 영혼의 구원이 어떤 특정 시기에 의해 결정된다면, 12월 8일 '프로로그'에 기록된 아프리카의 순교자는, 아리우스파로부터 그리스도를 위해 당한 고난 끝에 육신의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잃게 되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박해와 고난의 시기에도 그리스도 하나님을 노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313 시 13:3.

314 열왕기상 19:10.

315 열왕기하 19:18.

316 132쪽 뒷면.

317 계시록 7:2.

비록 그분을 화나게 하도록 강요당했더라도, 평온하고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오자 자신의 음행으로 그리스도를 화나게 하지 않았을 것이며; 혀가 잘려나간 후에도 분명히 말하던 그가, 죄에 빠진 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서 떠나버려 말을 잃었을 것이다. 잔혹한 시절에는 순교자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았으나, 선하고 평온한 시절에는 그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지 않았다. 영혼의 구원은 특정 시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니, 누구도 '과거에는 구원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하나님, 곧 인류의 구세주께서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예전 시대에 많은 종들을 구원하셨던 그분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시겠는가? 누가 지금 하나님께 인간 영혼을 구원하실 능력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막힘 없이,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셨는데 말이다.

만약 영혼의 구원이 장소에 의해 결정된다면, 소돔이라는 지독히 부도덕한 도시 한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았던 롯이 광야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었겠는가? 또한 첫 사람 아담은 낙원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았는가? 교회 서적에서 읽을 수 있듯이, 사막에서 수년 동안 만족스럽게 거주하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많은 이들도, 하나님의 허락으로 원수에게 유혹당하여 심한 죄의 타락에 빠졌고, 회개를 통해 다시 일어난 이는 거의 없었으며, 나머지는 구원을 잃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도시와 마을에서 세속적인 삶의 소란 속에 살던 많은 이들이 영혼의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구원은 시간이나 장소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편에서 시간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나는 모든 때에 주님을 찬양하리니*,* 내 입술에 그 찬양이 항상 있으리라"[318] . 우리가 모든 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또한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믿기 때문이다. 또한 시편에서 장소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통치하심 있는 모든 곳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319] . 우리가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금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도시와 마을 한가운데서도 구원에 적합한 장소를 찾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구원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장소를 찾지 못할 것이다.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협력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는 인간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 의지하는 사람에게 구원은 어디서나 준비되어 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니, 광야에서도 뜻을 다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나니; 성읍과 마을에 하나님이 계시니, 성읍과 마을에서도 뜻을 다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나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곳에는 인간의 구원도 있을 수 없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에 있겠는가? 시편 기자가 말하되, *"*주의 영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으며*,* 주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주께서 거기 계시니*,* 내가 아침에 날개를 펼치고 바다 끝으로 피하여 거기 머물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320] ."

거짓 교사들과 비뚤어진 해석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도시와 마을에는 계시지 않고 오직 그들의 황야 수도원에만 계신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시와 마을에서 그분께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오직 황야에서의 기도만 받아들이신다고 말하는 자들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도시와 마을에 사는 자들은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은둔자들만을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

318 시 33:1.

319 시 102:22.

320 시 138:7 이하.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구원을 시간과 장소로 규정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사막 기도만이 하나님께 들린다고 허세 부리는 자들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막의 은둔처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을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에게 '그리스도께서 사막에 계신다'고 말하면, 나가지 말라. '보물 창고에 계신다'고 말하면, 믿지 말라[321]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 테오필락트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해설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미혹된 자들이 와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광야에 숨어 계시거나, 어떤 성소에 계시거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방에 계신다'고 말한다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미혹되지 말라."

제17장. 땅 위의 믿음에 대하여

분열주의자들은 또 거짓말을 하며, 마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미 땅 위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마치 믿음이 이미 땅에서 사라진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증거를 얻은 것으로 여깁니다. "인자가 왔을 때, 땅에서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322] ?"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고, 그리스도의 두 번째 무서운 재림이 이미 가까워졌으며, 우리는 매일 밤낮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땅에는 믿음이 더 이상 없으므로, 주님께서 오셔도 믿음을 찾지 못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구하기 전에, 브리냐인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오, 그릇된 해석자들아, 그리스도의 두 번째 두려운 재림의 때가 이미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비밀을 누가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하늘의 천사들조차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말이다. 오직 한 분 아버지[323] 만이 아시는 그 비밀을 말이다." 우리는 밤낮으로,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그 두려운 재림은 아닙니다. 아직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대로) 하늘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지나가고, 원소들이 불타며 무너지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버릴[324] 그 순간을 매 순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와 영혼을 육신에서 분리할 것이며, 그 순간 각자에게는 행한 일에 대한 특별한 형벌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누구나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복음서에서 가르치신 대로 "준비하라. 그 시간을 알지 못하니, 인자가 올 것이니라"[325] .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같은 두 번째 심판이 될 그 끔찍한 공동의 심판을 기다리나, 그것은 우리 시대에도, 우리 현생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오히려 그때가 되면 우리 무덤에서 대천사의 나팔 소리에 깨어날 것입니다. 만일 그 밤이 온다 하더라도(8천 년을 말합니다), 그 밤에 신랑이 오실 것이라고 성부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한밤중(8천 년의 절반)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성복음서는 신랑이 한밤중에 오신다고 전하고 있으며, 그분은 한밤중이 지난 뒤에 오실 수도 있는 자유가 있으시니, 지금 살아 있는 우리로서는 그 때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며, 오직 무덤에 누워 있을 때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이미 우리 생애 중에 그리스도의 두 번째 두려운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 때문에 땅 위에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없다고 말하거니와, 스스로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리스도의 두 번째 두려운 재림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땅 위에 믿음이 없다면, 사도 시대부터 이 땅에 믿음이 없었던 적은 없었으니, 사도 바울이 이미 이렇게 말하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 무엇을 염려하겠느냐?"[326]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이 구절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

---

321 마태복음 24:26.
322 누가복음 18:8.
323 마태복음 24:36.
324 베드로후서 3:10.
325 누가복음 12:40.

합니다. “이미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빚진 대로 갚을 것이다.”[327] ; 그리고 다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미 보응의 때가 이르렀느니라.” 보십시오, 주님의 임박한 두려운 재림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선포되어 왔는지, 그러나 거룩한 믿음은 땅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 성도 도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선포하며 땅 끝마다 거룩한 믿음을 전파하였고, 황금입 성도도 심판과 보응이 임박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땅 위에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과 흠 없는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서 ‘이제 땅 위에 믿음이 더 이상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온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까? 과연 여러분이 성 바울 사도와 성 요한 황금입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브린의 평민들에게, 그분의 위대한 성도와 온 우주의 스승들에게보다 더 많은 신비를 드러내 주셨다는 말입니까? 그분들은 주님의 두 번째, 두려운 재림이 임박했음을 전파하면서도, 거룩한 믿음을 땅에서 몰아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히 심고 증진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유로, 온 땅에서 믿음을 쓸어버리며, 평민들 사이에서 ‘이제 땅에는 믿음이 없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묻노니, 오 브리냐네여, 온 땅에 걸쳐, 곧 하늘 아래 모든 곳에, 지금 믿음이 없는지, 아니면 단지 일부 지역에서만 없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만일 온 땅에 믿음이 없다면, 너희 안에도 믿음이 없는 것이니, 너희도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여러분이 황량한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우리 지역, 즉 도시와 마을에서도 믿음이 있는 것을 막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교회 밖에 있으면서 성령의 성사를 외면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경멸하며, 교회의 교제를 피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물며 우리처럼 교회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완성되는 성사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찬하며, 그리스도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몸의 지체로서 거룩한 교회를 굳게 붙잡고 있는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하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곧 터키인, 타타르인, 유대인,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이단자들과 그릇된 기독교인들, 즉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내세우면서도 그리스도 그분과는 멀어지는 자들처럼,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멀리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으니, 다른 불신자들과 이단적인 민족들에게도 그러하듯이, 그러나 온 땅에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온 땅에 터키인이나 타타르인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온 땅에 유대인이나 우상 숭배자가 있는 것도 아니며, 온 땅에 이단자나 그릇된 기독교인 브리냐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러시아와 소러시아,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진정으로 그분을 섬기는 많은 기독교 도시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 분열주의자들아, 이제 이 땅에 믿음이 더 이상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다시 묻노니, 어찌하여 너희는 땅 위에 믿음이 없다고 단정하느냐? 믿음이 과연 땅 위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다니는 것이냐? 믿음은 희망과 사랑, 그리고 마음속에 감춰져 있어 알 수 없는 다른 미덕들처럼, 오직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인간 마음의 비밀이 아니냐? 과연 누가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만약 믿는다면, 어떻게 믿는가? 올바른 믿음인가, 그릇된 믿음인가? 만약 믿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로 믿지 않는가? 오직 마음과 속을 살피시는 하나님만이 이를 아신다. 그러나 여러분, 브리냐인들아, 여러분은 사람일 뿐 신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우리는 성 바울 사도로부터, 사람 안에서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배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느니라. 마음으로 진리를 믿으며(사도가 말하듯이),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느니라’*[328]* .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곳에는 마음

---

[326] 빌 4:5, 6.

[327] 리스트 2006.

[328] 로마서 10:10.

속에도 믿음이 없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우리 안에서 정통 신앙의 고백을 듣지 못하십니까? 혹시 귀가 먹었기에, 모든 도시와 마을, 모든 거룩한 교회에서 우리 안에서 경건하게 고백되고 찬양되는 거룩한 삼위일체, 곧 성부, 성자, 성령, 유일한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하지만 귀를 막고 있으니, 마치 귀머거리 뱀들처럼, 우리 정통 신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입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신앙 고백을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을 듣는 것이 괴로우시겠지요. 너희는 마치 사탄이 베드로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로부터 믿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니, 그리스도께서도 사탄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듯이,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로 쳐내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나는 네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329] .

그러나 여러분에 대해서는 진실로 말할 수 있노니,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없나니, 이는 여러분의 불신을 드러내는 명백한 징후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라. 하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모든 교회의 성사를 멀리한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성 삼위일체를 올바르게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단적으로 모독한다는 것이니, 이는 첫 번째 부분, 의 두 번째 조항에서 드러났듯이, 그 밖에도 여러분의 셀 수 없이 많은 분쟁과 분열, 그릇된 사색, 거짓 가르침, 그리고 비뚤어진 해석들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수많은 이단적 불신에 빠졌음을 드러내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인자가 오셨을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얻으실 것인가[330] , 이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결코 이 땅에서 믿음을 얻지 못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얻으실 것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테오필락토스의 해석에 따르면) 믿음을 조금밖에 찾지 못할 것이니, 이는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인해 신실한 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테오필락토스의 해석을, 너희 분열주의자들의 그릇된 해석보다 더 신뢰하며, 담대히 말하노니: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로다, 그릇된 해석자들아, 주님의 재림 때에 땅 위에 믿음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아: 더욱이 적그리스도가 아직 육신으로 오지 않았고, 기독교가 쇠퇴하지 않았으며, 주님의 재림의 날이 도래하지 않은 지금,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얼마나 더 거짓말을 하는가.

제*18*장.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하여

또한 분열주의자들이 잘못 해석하는 성경의 한 구절을 상기해 보자. 모세 오경 제1권 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331] 고 하셨다. 그 분열주의자들은 자신의 무지함으로 인해 이 성경 구절을 인간의 육체적 형상에 적용하여, 마치 하나님이 머리와 수염, 눈, 입술, 귀, 손, 발 등 인간의 신체적 형상을 지닌 것처럼, 그리고 그로 인해 마치 자신의 형상대로, 머리와 수염, 그리고 다른 신체 부위를 가진 자신과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해석합니다.

그들의 그릇된 해석에 대한 반박으로, 여기 성부들이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노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은 인간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이시며, 인간의 영혼도 육체가 없이, 자신과 닮고, 자율적이며, 이성적이고, 불멸하며, 영원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이를 육체와 결합하셨으니, 이는 성 다마스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같다: "하나님이시여, 신성하고 생명을 주는 영감으로 내게 영혼을 주시고, 흙으로 내 몸을 지으셨나이다[332] ." 영혼은 삼위일체의 힘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단일한 본성을

---

329 누가복음 22:31, 32.

330 누가복음 18:8.

331 창세기 1:20.

332 장례 찬송가에서.

가지고 있기에,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 영혼의 힘은 기억, 이성, 의지이다. 기억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성은 하나님 아들에게, 의지는 하나님 성령께 닮아 있다. 성삼위일체에서 비록 세 위격이 있으나,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인간의 영혼에서도 비록 (앞서 말한 대로) 세 가지 영적 능력이 있으나, 세 영혼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이다.

성부들은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닮음 사이에 차이를 두는데, 바실리우스 대교부는 『창세기 주석』 제10강에서, 황금입은 요한은 『창세기 주석』 제9강에서[333] , 예로니모는 『에스겔서 주석』 제28장에서 이를 다루었다. 이러한 차이를,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닮음은 세례를 통해 완성된다; 형상은 이성에, 닮음은 의지에; 형상은 주권에, 닮음은 미덕에 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되라." 즉 온유함, 선함, 악의를 품지 않음 등으로 닮아야 한다.

바실리우스 대교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가 사람을(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과 닮음대로 창조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닮음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완성되는 것이다. 첫 번째 창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났으나, 자유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닮음대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남기신 것은 하나님의 닮음대로 되는 것이다. 형상으로는 말씀대로 되는 것이며, 닮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334] .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서 닮음대로 되라고 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을 닮는 바로 그곳입니다[335] . 만일 네가 간사를 미워하되 원한을 품지 않고, 어제의 원한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만일 네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비롭다면, 너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마음속으로 원수를 용서한다면, 너는 하나님과 같아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인인 자에게 대하시는 대로, 너도 너에게 죄를 지은 형제에게 대한다면, 너는 자비로움으로 하나님과 같아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니, 말로만 그분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을 닮아, 선한 행실로 실천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성 바실리우스 대교황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니, 하나님의 형상은 불신자의 영혼 속에도 있으나, 그 닮음은 오직 덕을 갖춘 그리스도인 안에 있을 뿐이니;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치명적인 죄를 지을 때,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닮음만을 잃을 뿐, 형상은 잃지 않는다. 설령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영원히 그 안에 남아 있으나, 닮음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옛날에 '안트로포모르피트'(인간형론자)라고 불리는 이단자들이 있었는데, 성 에피파니우스가 그들에 대해 언급하며, "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말씀을, 마치 오늘날의 분열주의자들이 해석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과 같은 모양을 가지시고, 사람의 형상을 띠시며, 머리와 수염, 손과 발,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지체를 가지고 계신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했는데,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해석한다. 그러나 당시 인격신론자들은 미친 자들이었고, 이단으로 간주되어 교회에서 배척당했으며, 유대인들과 함께 취급되어 파문당했으니, 이와 같이 오늘날 이 무지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단을 행하며, 유대인들과 닮았고, 교회에서 배척당할 만하니, 그들은 유대인들과 인형론자들(인간 형상을 닮은 자들)과 함께 저주에 처해졌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머리이시며, 손과 발이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이고 영적인 것임을 믿지 않기 때문인데, 그것들은 바로 그분의 신성한 전능과 권세, 힘, 만물의 근원, 전지전능, 그리고 편재하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333] 37쪽 뒷면과 38쪽.

[334] 38쪽.

[335] 마태복음 5:45.

하나님은 온전히 머리이시니, 그분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온전히 눈이시니, 온 것을 보시기 때문이다. 온전히 귀이시니, 온 것을 들으시기 때문이다. 온전히 손이시니, 온 것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온전히 발이시니, 어디에나 계시고, 그분의 임재로 온 것을 채우시기 때문이다.

인간형상론자들에 대해서는 성 바실리우스 대교부가『창세기 주석』제10강에서[336]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꾸짖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단 말인가? 무지한 마음과 훈련되지 않은 이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생각을 깨끗이 씻어내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면,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께 머리카락과 귀, 머리가 있는가? 손과 그 위에 앉아 계신 성기가 있는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그분께 걸으시는 다리가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인가? 마음속의 터무니없는 환상을 떨쳐 버리고, 하나님의 위엄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네게서 물리쳐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며, 단순하시고, 위엄이 없으시며, (나이로) 측정할 수 없으시니, 그분에 대한 형상을 상상하지도 말고, 유대인의 위대한 지혜를 잃어버리지도 말라;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헤아리지 말며, 네 지성으로 그분을 묘사하지도 말라. 그 위엄은 헤아릴 수 없으니라. 위대한 분을 생각하고, 위대한 분께 훨씬 더 큰 것을, 훨씬 더 큰 분께 훨씬 더 많은 것을 부여하며, 네 생각이 무한한 것을 헤아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하라. 형상을 상상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만 이해되시니라. 하나님 안에는 우리와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나니, 우리는 우리 육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이 아니니라. 썩어 없어질 육신에 있는 형상은 썩어 없어지나, 썩지 않는 것에는 썩지 않는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몸은 자라고, 작아지고, 늙고, 변한다. 젊음에는 이렇고, 늙음에는 저렇고, 평안할 때는 이렇고, 고난 중에는 저렇고, 두려워할 때는 이렇고, 기뻐할 때는 저렇고, 평화로울 때는 이렇고, 전쟁 중에는 저렇고, 깨어 있을 때는 이렇고, 잠들었을 때는 저렇다. 변하는 것이 어떻게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실 때, 내면의 사람을 가리키시는 것이며, 사도도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나, 내면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337] ." 우리는 내면에 사람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결코 외적인 존재가 아니니, '우리는 내면에 있다'는 말이 진실이다. 나는 내면의 사람으로서 존재하노라. 외적인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본질일 뿐이니, 나는 손이 아니라 영혼의 언어이며, 손은 사람의 일부일 뿐이다. 인간의 몸은 영혼의 도구이며, 사람은 영혼 그 자체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 본질은 동등하나 육체적으로는 더 연약할지라도, 영혼에 있어서는 강력하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동등하기 때문이다[338] ." 여기까지가 바실리우스 대주교의 말씀이다.

이 말씀들을 통해, 오늘날의 새로운 인형론적 분열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얼굴, 눈, 입, 수염, 그리고 다른 육신의 가시적인 지체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 즉 언어를 구사하고 이성을 지니며, 자기 주권을 가지고 불멸하는 영혼에 있음을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다.

제*19*장. 수염에 관하여

여기서는 수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수염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수염을 하나님의 위대한 계명이자 큰 구원으로 여기고, 수염을 깎는 것을 중대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이자 영원한 파멸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1705년 여름, 제가 6월과 7월에 야로슬라블에 머물고 있을 때, 어느 일요일 성대한 성찬 예식을 마치고 대성당에서 나와 제 저택으로 향하던 중, 수염을 기른 두 사람이—비록 늙지는 않았지만—제게 다가와 외치며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주교님! "주교님께서 어떻게 명하시든, 차르의 칙령에 따라 우리에게 수

---

[336] 성 바실리우스 대주교, 37쪽.

[337] 고린도후서 4:16.

[338] 같은 대담집, 38쪽 아래.

염을 깎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머리가 잘려나가더라도, 수염은 깎이지 않게 하겠소." 나는 그 뜻밖이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라, 성경 구절로 즉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맞받아쳐 물었다. "잘린 머리와 깎인 수염 중 무엇이 다시 자라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수염은 다시 자라나겠지만, 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머리는 단 한 번 잘려도 다시는 자라지 않는데, 열 번을 깎아도 다시 자라는 수염을 아끼지 않겠느냐? 단, 모든 죽은 자의 대부활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 많은 경건한 시민들이 나를 배웅해 주었고, 내 방으로 함께 들어와 수염을 깎는 것과 깎지 않는 것에 대해 꽤 오랫동안 토론을 나누었다. 그리고 나는 황제의 칙령에 따라 수염을 깎은 많은 이들이 마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것처럼, 수염을 깎은 탓에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수염이나 눈에 보이는 인간의 얼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수염을 깎는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국왕의 칙령에 따른 것이므로, 누구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권세를 가진 자들의 명령은, 하나님께 거스르지 않고 신앙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겠지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수염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구약성경에서 누구에게 수염을 깎지 말라고 명하지 않았는가?

2) 왜 깎지 말라고 했는가?

3) 유대인들 사이에서 수염을 깎는 관습이 있었는가?

이 수염에 관한 탐구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점은, 수염이 하나님의 형상과 유사성인지 여부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성 바실리우스 대성인이 수염이 하나님의 형상과 유사성이 아니라고 밝혔으므로, 우리가 제시한 다른 주제를 검토해 보자.

1. 고찰

구약성경에서 누구에게 수염을 깎지 말라고 명하셨는가?

수염을 깎지 말라는 그 계명은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에게 주셨으나, 특히 성직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특히 적용되었다[339] . 이는 레위기 21장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들에게 수염을 깎지 말라고 명하라고 하셨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주님의 제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직접 바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하므로[340]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봉사를 의미한다. 과연 누가, 즉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가? 오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뿐이었다. 다른 지파들은 비록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지라도, 그것을 제단에 올릴 때는 자신의 손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손을 통해 드렸으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주님께 제물을 드렸다. 주 하나님께서 수염을 깎는 것을 금하시고, 제물을 직접 드릴 수 있도록 수염을 기르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 수염을 기르라는 계명이 무엇보다도 주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다. 이 계명은 나사렛 사람들에게도 주어졌는데, 이는 민수기 6장과 사사기 13장,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서 볼 수 있다. 비록 세속적인 계층, 즉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수염을 깎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켰으나, 때로는 깎는 것을 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깎도록 명하기도 했는데, 이는 제3항에서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제2 고찰

---

[339] 레위기 19:27.

[340] 레위기 21:1, 5, 6.

구약 시대에는 왜 수염을 깎지 말라고 명했는가?

구약에서 수염을 깎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악이 아니었다. 앞서 분명히 밝혔듯이, 수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악한 죄로 인해 악이 되었을 뿐이다. 만일 수염을 깎는 것이 그 자체로 악이었다면,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자들에게 수염과 온몸의 털을 깎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다[341] ; 만약 수염을 깎는 것이 그 자체로 악이었다면, 레위인의 직무에 임명된 자들에게 온몸, 즉 머리, 수염, 그 밖의 털을 모두 깎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며[342] , 또한 유대인들이 큰 슬픔에 빠졌을 때 수염을 기르도록 허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다[343] ; 만약 수염을 깎는 것이 그 자체로 악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머리와 수염을 깎으라고 명하지 않으셨을 것이다[344] .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루겠다. 여기서는 구약 시대에 수염을 깎지 말라고 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그 계명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 특히 이시스라고 불리는 여신을 섬기던 자들, 고대 이집트의 여왕이었던 이시데에게, 신전에서 부정한 제물을 바치고 우상들에게 불경스러운 기도를 드리며, 머리와 수염을 깎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지자 바룩 성인은 이 관습을 비난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들의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의 예복은 찢겨 있고, 머리와 수염은 깎여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들 앞에서 울부짖으며 부르짖는다[345] .”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내시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들의 직무에 배치하신 뒤,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보았던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장들처럼 머리와 수염을 깎지 말라고 명하셨으며,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셨다: *“*너희는 머리의 털을 깎지 말며*,* 수염도 깎지 말라*”[346]* .

또한 우상 숭배자들은 죽은 자를 애도할 때 머리와 수염을 깎고, 얼굴과 몸을 긁어 상처가 나고 피가 날 때까지 찢는 풍습이 있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러한 행위를 삼가게 하사, 불경건한 자들과 같아지지 않도록 명하셨으며,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를 위해 머리를 기르지 말며*,* 수염을 기르지 말며*,* 자신의 살에 상처를 내지 말라*”*고 하셨다*[347]* .

이러한 죄악들 때문에 수염을 깎는 것은 악한 일이었으며,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를 금하셨다.

3. 고찰

유대인들 사이에서 수염을 깎는 관습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때로는 있었다. 처음에는: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때, 온 몸의 털을 깎았는데, 레위기 14장에 다음과 같이 명되어 있다: “그의 모든 털*,* 곧 머리와 수염과 눈썹과 온몸의 털을 다 자라게 할지니라”[348] .

또한,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인의 봉사에 임명된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식이 행해졌다. 먼저 그들은 대제사장에게로 인도되어 정결의 물로 뿌려진 후, 온몸의 털을 깎았는데, 이는 민수기 8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온 몸에 면도칼을 대고*,* 옷을 갈아입게 하여 정결하게 하라*”[349]* ; 그 후 그들을 제물과 함께 증거의 성전 앞으로 데려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손을 얹었다. 우리는 이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새로 임명된 레위인들의 온 몸에 수염이 자라게 하였는데, 온 몸이라 함은 턱수염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임명된 후에는 죽을 때까지 더 이상 몸의 털을 깎지 않았습니다.

---

341 레위기 14:9.

342 민수기 8:7.

343 예레미야 41:5.

344 에스겔 5:1.

345 바룩서 5장.

346 레위기 19:27.

347 레위기 21:5.

348 같은 책 14:9.

349 민수기 8:7.

또한 나사렛 서원이 끝날 때면 머리 전체를 깎았는데, 이는 그들 중에 나사렛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부류는 평생 동안 절제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자들이었고, 다른 부류는 평생이 아니라 단지 몇 년 동안만 나사렛 서원을 지키는 자들이었다. 나사렛 사람들은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즉 '구별된' 또는 '거룩하게 된'이라는 뜻으로, 이들은 세속적이고 쾌락을 좇는 인간의 삶에서 스스로를 분리하여, 육체를 죽이는 엄격한 생활에 전념하였으며, 나사렛 서원을 지키는 동안에는 머리와 수염을 깎거나 다듬지 않았다. 약속된 때가 될 때까지 나사렛 서원을 지킨 이들은, 그 약속된 때가 차면 제물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나아가, 자라난 머리카락을 그 머리카락을 성전 문 앞에서 깎은 뒤, 깎아낸 머리카락을 주님의 제단 불 위에 올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렸으니, 이는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기록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다[350] .

다시 말해,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슬픔과 애통의 시기에 수염을 깎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으니, 성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킨 후, 고돌리아가 유다 땅에 남아 소수의 남은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왕족 출신인 유다인 이스마엘이 와서 고돌리아를 죽였으니; 그때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에서 머리에 수염이 무성하고 옷이 찢어진 *80*명의 남자들이 와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애도하며 울부짖었다[351] . 누군가 말하길: "여기 예레미야서에는 '머리'에 대해 기록되어 있지, '수염'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답하노니, 슬라브어 성경에는 '머리'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다른 번역본들에는 '수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슬라브어 번역본이 '머리'라고 말할 때, 이는 수염을 포함하여 모두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머리와 수염을 함께 깎았음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바로 그 예레미야 예언서에서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되고*(*깎일 것이며*),* 모든 수염은 자라날 것이다"*[352]*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예루살렘의 파괴와 유다 백성의 멸망을 예언했던 성예레미야 선지자이자 제사장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머리와 수염을 깎으라고 명하셨으며, 깎은 머리카락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은 불에 태우고, 한 부분은 칼로 잘게 썰고, 한 부분은 바람에 날려 보내며, 가장 작은 부분은 자신의 옷자락에 넣으라고 하셨다[353] . 이는 유대 백성 중 한 부분은 포위된 상황에서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며, 다른 한 부분은 칼데아인의 칼에 베어질 것이며, 세 번째 부분은 온 세상에 흩어질 것이며, 네 번째 부분은 아주 적은 수만 제자리에 남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추론한다. 만일 수염을 깎는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악한 죄 때문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에스겔에게 수염을 깎으라고 명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유대인들이 고통과 슬픔 중에 머리 전체를 깎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나소르인들에게도 그들의 나소르 기간이 끝난 후 머리 전체의 머리카락을 깎아 하나님을 기리는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레위인의 봉사에 임명된 자들에게 온몸을 면도하도록 법으로 정하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자들에게도 수염을 깎으라고 명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는 구약성경에서 수염을 깎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수염을 깎음으로써 불경건한 우상 숭배자들의 풍습을 닮는 것이 죄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약에서 수염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서도 동일한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고찰을 이어가겠습니다:

1) 그리스도인들에게 수염에 관한 어떤 율법적 규정이 있는가?

2) 수염을 깎는 관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3) 수염을 깎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인가?

---

[350] 민수기 6:18.

[351] 예레미야 41:3.

[352] 같은 책 48:37.

[353] 에스겔 5:1, 4.

4) 수염을 기르는 것에서 구원이 있는가?

첫 번째 고찰

기독교인들에게 수염에 관한 어떤 법규가 있습니까?

대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은 수염을 깎지 않는 관습을 구약성경에 기록된, 앞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 주신 수염에 관한 계명, 즉 "너희는 수염을 깎지 말라(말씀하시기를)[354]"에 근거하여 정당화하곤 하며, 그리스도께서도 구약의 계명을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355]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계명을 지키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며, 구약의 계명에 따라 수염을 깎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수염을 깎지 않으셨고, 그분과 함께 다니던 사도들도 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수염을 깎지 않는 것을 옹호하는 이들에게는 먼저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지식을 제시해야 한다:

구약성경의 계명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계명,

육체적인 계명,

법적 계명;

더 명확히 말하자면:

신성한 계명,

관료적인,

시민적인;

더 명확하게:

신앙과 신 숭배에 걸맞은 것;

이것은 교회 의식과 인간의 세속적 삶에 걸맞은 것이며;

이것은 정의에 합당한 것이다.

이 세 가지 계명은 신명기 5장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곳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서라. 내가 네게 모든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말하리라"[356]; 또한 6장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이 계명과 규례와 법도들"[357]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세 구절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계명,

규례, 그리고

판결.

하나님의 계명은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358] 등등: 이 계명들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신성하고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규례는 교회 의식과 예식에 관한 것이었으니, 어떻게 제물을 바칠지, 어떻게 부정에서 정결하게 될지, 어떻게 염소와 암소의 피와 송아지의 재로 뿌릴지[359];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지; 언제 머리를 깎지

---

354 레위기 19:27.

355 마태복음 3:17.

356 신명기 5:31.

357 같은 책 6:1.

358 출애굽기 20:2, 3.

359 히브리서 9:12, 13.

말아야 하고 언제 깎아야 할지; 그 밖에도 이와 유사한 수많은 것들이 모세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은 두 가지 이유로 육체에 관한 것이었다: 하나는, 말 없는 동물들의 고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명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 생에서 자신의 육체를 어떤 규율로 다스려야 하는지를 가르쳤기 때문이다. 이 육체의 다스림에 대해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관한 사도들의 말씀을 해석하며 다음과 같이 분명히 설명하였다: *"*그분은 육체의 계법에 따른 것이 아니셨다[360] " 등등. 그는 말하기를, "그분은 육체의 계법에 따른 사제가 아니셨다. 그 계법은 많은 면에서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분이 그것을 육체의 계법이라 부르신 것은 옳았다." 왜냐하면 그 법이 정한 모든 것은 육신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육신을 할례하라, 육신에 기름을 바르라, 육신을 씻으라, 육신을 정결하게 하라, 육신을 깎으라*,* 육신을 묶으라, 육신을 먹이라, 육신으로 명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 말들, 이것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겠는가[361] ? 여기까지가 황금입 성인의 말씀이다.

법규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해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않도록 의를 실천하도록 가르쳤으며, 시민적 정의로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362] 라는 법을 제정하였고*,*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대신 그의 피가 흘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363] .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 가지 계명을 지켜야 했다: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고,

자신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이웃을 의롭게 돌보아야 했다.

그 세 가지 계명(구약에 기록된 것들)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명들은 지켜야 하지만, 저 계명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

즉, 신앙과 신학, 그리고 신에 대한 경배에 합당한 계명과, 의로운 행실과 시민적 정의에 합당한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나는 성전에서 구약의 규례와 의식에 따라 행해야 할 일들과, 육신에 속한 규율에 따라 지켜야 할 일들에 있어서, 단지 무의미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느니라. 왜냐하면 구약의 육신적인 규정들, 즉 의식과 예식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육신적 강림과 그분의 사제직, 그리고 희생 제사와 현재 새로운 은혜 안에서 행해지는 교회의 성사들을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예표와 그림자를 그분 자신의 실체로 성취하시자, 예표와 그림자는 폐지되었다. 열매가 자라나면 꽃은 지고, 해가 빛나면 별들은 희미해지듯이, 새로운 은혜가 임하자 율법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만일 지금도 여전히 그 옛 율법의 의식과 예식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이므로 거짓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실 것을 여전히 예표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는 아래에서 더 명확히 설명될 것이다.

주 그리스도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의식법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으시고,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에 드려지셨으며, 율법에 따른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 밖의 유대인의 의식들을 다 행하신 후, 그것들을 새로운 은혜 속에 있을 것들의 그림자였던 것으로 여겨 버리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폐지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율법을 제정하셨으니, 이로써 율법의 장막은 지나가고 은혜가 도래한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이렇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완전하고 미흡했던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셨다. 모세의 율법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에서 구원할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새

---

360 히브리서 7:16.

361 황금판 2897.

362 마태복음 5:38.

363 창세기 9:6.

로운 은혜로 구원하는 신비들로 채워,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관한 율법(구약의 의식이나 예식이 아닌)을 그리스도께서는 폐하지 않으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수염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수염을 깎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염을 기르는 것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수염을 깎는 것을 중대한 죄로 여겨 자신의 구원을 절망하는 자들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안드로포모르피트파, 즉 인간형상론자들의 이단을 폭로하노니, 그들은 수염을 하나님의 형상과 유사함으로 여긴다.

수염에 관한 계명은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계명들 중에서 나온 것입니까? 신학이나 신앙에 관한 계명들 중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러나 그 계명은 모세의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들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의를 행하고 시민적 정의를 실천하는 계명들 중에서 수염을 기르지 않는 것이 계명인가? 그러나 수염에 관한 계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계명에서 수염을 기르지 않는 것이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관습, 즉 의식과 예식에 관한 계명들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사도들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를 폐지하셨음을 위에서 분명히 설명했듯이, 이러한 계명들은 육적인 것들입니다[364] .

그러므로 구약의 근거를 들어 수염을 기르지 않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명령에 따라 수염을 깎은 자로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 헛되이 의심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하신 거룩한 사도들이 수염을 깎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영적 계급의 법에 따라 행하셨기 때문이니, 곧 교회의 첫 번째 제사장이 되고자 하신 것이며, 또한 머리를 기르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주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365] . 비록 그들(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도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 머리를 기르기는 했으나, 그 모세의 율법은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판결은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들을 모든 구약의 규례나 의식과 예식으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5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예루살렘의 주요 사도들이 우상 숭배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안티오키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여,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기로, 우리 중 몇몇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여 너희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가 명하지 않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모여, 선택된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밖의 내용은 그곳에 기록된 대로이며; 또한 아래에 적힌 바와 같이, 성령 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셨으니, 다만 이 필요한 것들, 곧 우상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행하지 마십시오[366] . 또한 같은 사도행전 21장에서, 성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의 다른 장로들은 그곳을 찾아온 성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그 어떤 규례도 지키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결정하였으니, 다만 우상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고기와 음행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367] .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는 분별력을 가지고 경청하라. 우상 숭배의 불경함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에 대해, 거룩한 사도들이 모세의 구약 율법에 따른 모든 규정, 즉 의식과 예식으로부터 그들을 자유

---

[364] 11월 7일, 2897쪽.

[365] 시 109:4. 히 5:5.

[366] 사도행전 15:23, 25, 28, 29.

[367] 같은 책 21:25.

롭게 해 주었음을. “그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며,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 그리고 이웃을 해치지 않는 것만을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너희가 남에게서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행하라”[368] .

또한 러시아 민족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우상 숭배의 불경함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들이니, 모세의 율법에 따른 규례와 예식, 의식들에 얽매이지 않고 사도들의 판단에 따라 그로부터 자유롭다. 또한 수염에 관해서도 그들에게는 율법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자유의지에 달려 있을 뿐이며, 수염 문제로 인해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 논쟁자가 내게 말하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할례를 세례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할례 대신 세례를 주셨는데, 수염은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구약의 수염 대신 새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그에게 대답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할례를 받고 수염을 깎지 말라는 등의 규정이 있었다.”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는 구약의 할례 대신 거룩한 세례가 주어졌으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전에 우상 숭배의 불경함에 빠져 있었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았으며, 유대인의 규례와 예식, 의식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할례와 수염을 깎지 않는 관습은 우리 선조 대에 들어본 적조차 없었으며, 오직 우상 숭배의 불경함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결코 가졌던 적이 없는 할례 대신이 아니라, 우리가 빠져 있던 우상 숭배의 불경건 대신에 거룩한 세례를 주셨으며, 수염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으셨고, 거룩한 사도들도 우리에게 구약의 유대인 규례와 의식, 의식을 지키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사도 야고보가 말하길)는 그들에게 보내어 그러한 것을 지키지 말라고 판단하였습니다[369] ; 이는 수염 문제로 인해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자유 의지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들 가운데서는 수염을 깎는 일로 인해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러시아 서적들에는 수염에 관한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여기서 논의하고자 한다.

서두에서:

『코르치야』라 불리는 책, 스투디우스 수도원의 장로이자 ‘스키피타’라 불리는 니키타 수도사의 47장에 실린 라틴인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388쪽 뒷면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수염을 깎는 것에 관하여, 율법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너희 수염을 깎지 말라. 이는 여자들에게는 아름답으나, 남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셨기를: “수염을 깎아도 턱수염이 자라지 않게 하라. 이는 주님께 가증한 일이니라.” 또한 콘스탄티노스 카발린 황제, 곧 이단자였던 자로부터 이 관습이 합법화되었으니, 수염을 깎은 자들은 이단의 종들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 이를 행하며 율법에 거스르므로, 너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논평

니키타의 그 말들에 믿음을 두어야 할까요?

질문:

누구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믿음이 주어지는가?

답:

1) 성인의 반열에 속한 자라면.

2) 교회의 올바른 교리를 전하는 교사들 중 한 사람이라면.

3) 자신의 말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자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믿음이 주어진다.

---

368 사도행전 15:29.

369 사도행전 21:25.

고찰

니키타에 대하여.

스투디오스의 수도사 니키타가 성인으로 추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니, 성인록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통 교회 교사들 사이에서는 언급되지 않으며, 오직『코르메차』에서만: 게다가 그는 자신의 말에서 안트로포모르피트(인간형상론) 이단의 추종자로 드러나는데,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수염 깎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수염을 기른 인간과 같은 형상이셨고, 그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이다.

니키타의 주장이 거짓임은 성경에 첨부된 그 말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수염을 깎아도 너희 수염이 자라지 않게 하라; 이는 주님께 가증한 것이니라. 레위인이 수염을 깎지 말라는 것은 레위기 19장과 21장에 기록된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님의 계명에는 (이는 주님께 가증한 것이니라)라는 말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니키타의 말에 믿음을 두어서는 안 되나니, 이는 그가 성경에 거짓된 말을 덧붙여 진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올바르게 생각하지도 못하며, 성도들 가운데서도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토글라브니크』에서

7059년 여름, 2월, 전 러시아의 독재자이자 신실한 왕이자 대공 요한 바실리예비치의 통치 기간에, 모스크바 및 전 러시아의 대주교 마카리우스 성하께서 주재하신 가운데, 수도 모스크바에서 성직자들과 존경받는 대수도원장 및 수도원장, 그리고 모든 성직자들이 모여 교회 내 일부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공의회가 열렸으며; 그 공의회에는 로스토프와 야로슬라블의 대주교 니칸드르 성하께서 참석하셨으며, 영적 업무의 관리에 관한 책인『스토글라브니크』가 작성되었는데, 그 책의 제10장 '수염'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수염 깎기에 관한 성스러운 규율

또한 성스러운 규정은 모든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수염을 깎거나 콧수염을 다듬지 말 것을 금하고 있다. 이는 정통의 관습이 아니라, 그리스 왕 콘스탄틴 카발린의 라틴식이며 이단적인 전통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도들과 교부들의 규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부정하고 있다; 성 사도들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수염을 깎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에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며, 그를 위해 40일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고, 성병이나 양초를 교회에 가져와서는 안 되며, 이교도들과 함께 여겨져야 한다. 이는 이단자들로부터 배운 관습이기 때문이다." 같은 주제에 대해 제6차 공의회, 즉 트룰레 궁정 공의회의 제11조 규정은 수염 깎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수염 깎는 것에 관해, 율법에 기록된 바가 없느냐? "너희 수염을 깎지 말라; 이는 여자들에게는 아름답으나 남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수염을 깎아도 수염이 자라지 않게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 이단자 카발린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그 당시 모든 이가 알다시피 이단자들의 종들은 수염을 깎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스토글라브니크』이다.

논고

그 말씀들 속에서 다음 세 가지를 논증하여 탐구해야 한다*:* 사도들의 규율*,* 교부들의 규율*,*

제*6*차 세계 공의회*,* 그리고 카발린 황제의 규정.

사도 규정은 모스크바 왕도에서, 신실한 황제이자 대공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 치하, 성 요셉 총대주교 재임 시절인 7161년에 인쇄된『코르치이』라는 책에서 읽을 수 있다. 그 사도 규정들에는 수염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다;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한, 아직 인쇄되지 않은 사도 규칙이 어딘가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성스러운 사도들이 규칙을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예루살렘에서 이교도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문제에 대해 열린 그들의 공의회는, 오직 다음 다섯 가지 유언만을 기록했을 뿐이다:

1) 우상 숭배의 의식에서 입을 씻어내야 한다.

2) 음행을 멀리할 것.

3) 목 졸라 죽이는 것을 피할 것.

4) 피, 즉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을 피할 것.

5)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370]. 그리고 수염에 관해서는 그 사도 공의회에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니, 이는 이방인들을 구약의 모든 의식과 관습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성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했듯이: "그러한 것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371]." 성 사도들 이후로, 최고 사도인 성 베드로의 제자였던 성 클레멘트 로마 교황이 규율을 기록하였으며, 그 규율을 '사도적 규율'이라 명명하였으나, 『코르치야』라는 책은 그 규율들이 이단자들에 의해 왜곡되었으며, 정통 교부들의 공의회에 의해 배척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코르치야』 17쪽, 제60조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단자들에 의해 많은 책들이 왜곡되어, 가장 순진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으니, 성 클레멘트 주교가 기록한 사도적 계명들도 그러하여, 그 때문에 공의회에 의해 배척되었다." 제6차 세계 공의회의 두 번째 규칙도 이를 증언하고 있으니, 『코르치야』 177쪽을 참조하라. 설령 그 '사도적'이라고 불리는 규칙들에 수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규칙들은 이단자들에 의해 왜곡되었으므로, 이를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반면 인쇄된 사도적 규칙들에는 (앞서 말했듯이) 수염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모든 세계 공의회와 지역 공의회의 교부 규칙들 역시 수염에 관해 어디에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만일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 모든 공의회와 성부들의 모든 규칙을 조사해 보라. 과연 수염에 대한 언급이 단 한 군데라도 있는지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스토글라브니크』가 제6차 세계 공의회 제11조 규정을 인용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뿐, 형제들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무교병은 배척된다. 그들의 의사를 부르거나 그들과 함께 목욕하는 자는 배척된다[372]." 여기까지가 스토글라브니크가 인용하는 제6차 세계 공의회 제11조입니다. 분명히 볼 수 있듯이, 그 규정은 수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어떠한 교제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 규정의 해설에서도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그곳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6*차 공의회와 카발린 왕은 어느 해에 있었습니까*?*

『스토글라브니크』는 그 공의회에서 수염을 깎지 말라는 제11조 규정이, 수염을 깎으라고 명한 카발린의 칙령과 정면으로 상충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 제6차 세계 공의회는 그리스도 탄생 후 680년에 열렸고, 카발린은 719년에 태어나 741년에 즉위하였으니, 제6차 세계 공의회부터 카발린의 통치 시기까지 60년이 지났습니다. 카발린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제6차 세계 공의회가 어떻게 카발린의 법령에 반하는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사실과 다른 기록에 믿음을 둘 수 있겠습니까?

옛 예배서에서 발췌.

7155년,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 황제의 통치 첫해이자 성 요셉 총대주교 재임 시절, 모스크바에서 예배서가 인쇄되었는데, 그 말미에 정통 기독교인들은 수염을 깎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첨부되어 있으며, 성 에피파니우스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인용되어 있다:

또한 성 에피파니우스는 자신의 저서 『포나리아』에서 유히트 이단을 질책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도들의 설교[373]에 따라,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공의회 교회에 어긋나는 일

---

[370] 사도행전 15장.

[371] 같은 책 21:25.

[372] 180쪽 뒷면.

이다.” “남자는,” 그가 말하길, “머리를 기르면 안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악하고 반항적인 자들은 수염을 깎는다. 사도들의 계명에서 신성한 말씀은, 수염의 형상을 해치거나, 음탕하게 꾸미거나, 교만함으로 인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들은 성 에피파니우스의 이름만으로도 신빙성이 있을 만하지만, 여기에서 비롯된 어떤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다면 말이죠. 첫 번째 인용문은 마치 사도들의 증언인 양 제시되었는데, “남자는 머리카락을 기르면 안 되는데,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서신 중, 바울의 고린도전서 11장 147절에 나오는 그 구절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이다.” 이 사도는 머리의 머리카락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니, 성 에피파니우스의 이름으로 기록된 그 말씀들은 사도들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워졌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사도들의 계명(말씀)에서 신성한 말씀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코르므차야』에 인쇄된 사도들의 계명에는 수염에 관해, 깎지 말라는 것도, 깎으라는 것도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인쇄본 외에 다른 사도들의 계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코르마차』는 그것들이 이단자들에 의해 왜곡되었고 공의회에서 배척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또한 그 『예배서』에 첨부된 저자의 수염에 관한 가르침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수염에 관한 세 번째 고찰에서 부분적으로 밝혀질 것이다.

우리는 성 에피파니우스의 이름을 공경하지만, 그의 이름으로 기록된 글들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다.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록된 글들 중에는 성인들이 직접 쓴 것이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그 에피파니우스의 글들이 진실된 것이라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서 비롯된 글을 썼기 때문이다. 그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이는 그의 행적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방인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사도들의 판단으로 구약의 멍에에서 해방된 우리에게는, 그 에피파니우스의 글들(만약 그것이 에피파니우스의 것이라면)이 구속력이 없다.

위대한 옛 예식서에서 발췌.

창세 7133년, 미하일 페오도로비치 황제 겸 대공의 통치 시절, 성하 필라레트 총대주교의 재임 기간에 모스크바에서 인쇄된 예식서에는, 라틴 교회에서 성스러운 동방 교회로 오는 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음란을 사랑하는 유혹과, 영혼을 죽이는 어두운 이단, 즉 수염을 깎는 관습을 저주하노니, 그 이단의 우두머리는 불법의 수장인 로마 교황 페트르 구그니비였느니라. 왕들 중에서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인 악명 높은 콘스탄틴 카발린, 즉 성상파괴자가 있었으며; 그 이단에 다른 로마 교황들도 빠져들었으며, 모든 라틴계 주교와 사제들, 그리고 많은 세속인들까지 이성을 잃고 그러한 부패에 빠졌으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들의 모습에 담긴 선함을 훼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선함으로 인간을 아름답게 장식하신 그 선함을 잃어버렸다. 여기까지가 그 전례서이다.

여기서 모든 이는 귀를 기울여 보라.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묘사하며, 자신의 형상대로 마치 사람의 얼굴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하고, 인간의 영혼이 아닌 육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안트로포모르피트(인간형상론자)들의 이단이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지 보라.

이는 곧, 우리 러시아의 책들에 기록된 ‘수염을 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법규가 진정한 법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진리와 일치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격신론자들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 러시아 기독교인들은 헛되이 그 법규를 옳다고 주장하며, 헛되이 칙령에 따라 수염을 깎은 자들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게다가 또 놀라운 점은, 구약의 계명을 근거로 수염을 기르는 것을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수염을 깎는 것을 큰 죄로 여기는 우리 러시아인들이, 머리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데는 주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

[373] 628쪽 뒷면.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에서 수염을 깎지 말 것과 머리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 것을 모두 동등하게 명시하고 있다. 레위기 19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너희는 머리의 털을 깎지 말며, 수염을 깎지 말라.” 그러나 우리 러시아인들은 수염을 깎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만을 굳게 지키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계명은 무시하며, 머리카락을 깎고 있으니, 그로 인해 그들이 근거로 삼는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로 드러나고 있다. 하나만 지키고 다른 하나는 어기니, 한 가지에서 죄를 지은 자는 다른 것에서도 옳지 않은 것이다. 과연 한 분 하나님이 이 두 계명을 모두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어느 한 계명이 더 크고, 어느 한 계명이 더 작단 말인가? 이 두 계명이 모두 하나님의 한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러시아인들아,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수염을 깎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너희 머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게 깎는 것이냐? 너희가 순종하는 그 한 분 하나님께, 정작 그분께 대항하는 것이냐? 만일 수염을 깎는 것이 큰 죄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머리를 깎는 것도 큰 죄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동등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리를 깎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수염을 깎는 것도 죄가 아니다.

너희는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르기를,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그에게 수치가 되리라[374] .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머리를 기르는 것을 칭찬하지 않는 바울의 그 말씀이, 머리를 자르지 말고 기르라고 명하신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명하시고, 바울은 또 다른 것을 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르지 말라”고 명하시지만, 바울은 “자르라”고 명합니다. 만일 바울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다르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어야 합니까? 바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만약 하나님을 따르신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게 머리카락을 자르십니까? 만일 바울의 계명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데 주저함이 없다면, 어찌하여 수염 문제로 인해 많은 의심을 품고, 수염을 깎는 것을 이유로 구원을 포기하려 하십니까? 알아야 할 것은, 앞서 언급된 그 말씀들을 성 바울이 머리카락을 기르던 유대인과 레위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헬라인의 불신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자들에게 쓴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이전에 우상 숭배자였던 고린도인들에게(우리 러시아 민족들도 옛날에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듯이), 그들에게는 머리를 기르지 않는 관습이 있었으며, 머리를 기르는 것은 그들에게 불경스러운 일이었으니, 성 바울은 그들의 헬레니즘적 관습을 바꾸지도 않았고, 유대인의 관습을 그 백성에게 도입하지도 않았으니, 사도의 판결은 이방인들을 유대인의 구약 율법 의식(예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다(앞서[375]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들의 고대 헬레니즘 관습을 배려하며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너희(고린도인들에게 말하노니) 헬레니즘에서 기독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구약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달음을 얻고 유대인의 구약 관습과 의식(예식)에 얽매이지 않은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기르라는 그 계명을 주신 것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오직 유대 민족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민족들은 머리를 기르지 않는 관습과 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머리와 수염을 자르고 면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키예프 사람들과 벨리코노보고로드 사람들이 번개에서 유래한 이름인 ‘페루나’를 신으로 모시던 것처럼, 그에게 경배하러 올 때는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는, 마치 불꽃에 타버린 듯한 모습으로 와야만 했다. 유대인들에게는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이 영광이었으나, 이방인들에게는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이 수치였다. 그래서 성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말하기를, “남자가 머리카락을 기르면, 그것은 그에게 수치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머리카락에 관한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과 상충되는 내용을 주저 없이 기록했는데, 이는 고대의 이방 관습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러시아인들도 유대인이 아니라, 머리를 기르지 않던

[374] 사도행전 15장과 21장.

[375] 사도행전 15장과 21장.

우상 숭배자 출신의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았으며, 구약 시대의 유대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수염에 대해 의심하며 자신의 구원을 절망하는가? 수염을 깎지 않는 것이 과연 신앙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수염을 기르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이 말은 오래되고 정직한 수염을 폄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수염이 마치 하나님의 형상인 양 여기는 그릇된 견해를 근절하고, 명령에 따라 수염을 깎는 자들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뿌리 뽑기 위함이다.

2. 고찰

수염 깎기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 러시아의 서적들(앞서 들었던 바와 같이)은 수염 깎기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성상파괴주의자 콘스탄티노스 카발린 또는 코프로니모스 황제에 의해, 고대 로마에서는 로마 교황 피터 구그니비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우리는 카발린에 대해, 과연 수염 깎기가 그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 스테판 노보이'의 행적에 관한 기록인『위대한 미네이 체티』에는, 콘스탄틴 코프로니모스 황제가 자신의 귀족들에게 수염을 기르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기록되어 있다[376]; 그로 인해 수염을 깎은 자들은 황제의 신하들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코프로니모스 이전, 즉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가장 오래된 왕들 시대에도 이미 수염 깎는 관습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플루타르코스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어느 날 전투를 위해 군대를 배치한 뒤, "더 이상 무엇을 지시하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다. 다만 마케도니아인들의 수염을 깎아 주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놀란 그의 친구 파르메니온에게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염이 전투에서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모르겠느냐? 적군이 가까이 다가와 백병전을 벌일 때, 수염이 있는 자는 적에게 수염을 잡혀 쉽게 제압당하기 마련이다."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코프로니모스 이전의 옛날부터 전사들은 전투에 나설 때면 수염을 깎곤 했다. 그렇다면 성 대순교자 게오르기우스와 디미트리오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들은 보통 성화에서 20세도 채 되지 않은 소년처럼 수염이 없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과연 그들이 성숙한 남성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채 군대를 지휘했던 것일까요? 실로 성숙한 나이에 지휘를 맡았습니다. 미성년자인 유아들에게는 군대에서 지휘관 직책을 맡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염이 없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옛날에는 군대의 관례에 따라 수염을 깎았기 때문입니다. 서쪽과 동쪽을 지배했던 로마 황제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들은 수염을 기르던가, 아니면 깎던가? 이교도의 고대 사적을 기록한 디온은,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얼굴에 있던 우스꽝스러운 흉터를 머리카락으로 가리기 위해 최초로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만약 아드리아누스가 왕들 중 최초로 수염을 기른 사람이라면, 그 이전의 모든 왕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고 면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배교자 율리안 황제가, 기독교인에서 악마의 종으로 변모하여 긴 수염을 기른 채 안티오키아에 도착했을 때, 안티오키아의 백성들, 즉 정통 기독교인들이 그 수염을 보고는 그의 수염을 비웃으며 서로 조롱하며, 그 황제를 '염소 수염'이라고 불렀다. 이 사실을 성 그레고리우스 신학자( )도 줄리아누스에 대한 두 번째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며 말합니다. "로마 황제의 턱수염이 우스꽝스러워 많은 웃음을 자아내는 것을 보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377]?" 그리고 다시 아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수염은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으며, 고된 일을 하는 자들과 함께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신학자의 글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황제의 수염이 안티오키아 백성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면, 평범한 사람들의 자라난 수염은 그들에게 얼마나 더 큰 불쾌감을 주었겠는가? 그들은 노

[376] 11월 28일.

[377] 바로니우스 362년, 38쪽과 41쪽 뒷면.

년에 이르기 전부터 수염을 기르곤 했으나, 수염을 위대한 성물이나 구원으로 여기지는 않았다. 분명히 수염 깎기 관습은 카발린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카발린은 콘스탄티노플에서, 특히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행해지던 그 고대의 수염 깎기 관습을 다시 부활시킨 것에 불과하다.

피터 구그니비(Petrus Gugnivus)라는 로마 교황에 관해, 과연 그로부터 고대 로마의 성직계에서 수염 깎는 관습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로마인들과는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 논의는 그들에게 할 말이 아니라, 우리 러시아의 분열주의자들에게 할 말이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황 목록에서 피터 구그니비가 교황들 사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뿐이다.

『코르메차』 책 말미에는 로마의 배교에 관한 글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그 글에서,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교황들은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 1. 포모스, 곧 이단의 수장이었던 자, 2. 보니파티우스, 3. 로마노, 4. 스테판, 5. 테오도르, 6. 요한, 7. 베네딕트, 8. 레온, 9.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다음에는 페트르 구그니비(Petr Gugniv)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치 그가 자신의 로마 사제들에게 일곱 명의 아내를 두게 하고, 첩은 원하는 만큼 두게 하며, 모든 사람의 수염과 콧수염 등을 깎도록 명령한 것처럼[378] .

그러나 로마 및 기타 외국 카탈로그에서는 크리스토퍼 다음에 세르게이가, 세르게이 다음에는 아나스타시우스가, 그 다음에는 랜던이, 그리고 그 외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나, 페트르 구그니비에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믿음이 없는 자는 직접 로마 교황들의 목록을 조사해 보라, 과연 찾을 수 있겠는가? 크리스토포로 시대 이후 다른 시기에 피터 구그니비 교황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후의 교황들 중에서도 피터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으니, 로마인들이 그 교황의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닐까. 어떤 교황이든 자신의 사제들에게 일곱 명의 아내를 두게 하고, 첩은 원하는 만큼 두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로마 사제들은 단 한 명의 아내조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모두에게 잘 알려져 있으니, 비밀리에 부도덕하게 사는 자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리고 어디에 죄가 없겠는가?

로마인들의 평신도 면도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마 황제들 중에서도 아드리아누스 황제 시대까지, 그리고 예로부터 전사들 사이에서도 그러했음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베드로 구그니비 교황이 로마에서 성직자들에게 면도를 의무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창세 7152년 여름, 신실한 황제이자 대공 미하일 페오도로비치의 통치 시기이자, 성 요셉 총대주교의 재임 기간에, 모스크바에서 성 키릴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된 책이 인쇄되었는데, 책의 서두에는 마치 해설된 것처럼 보이는 그의 짧은 글 몇 마디가 실려 있고; 나머지 모든 내용은 그의 것이 아니라 덧붙여진 것이다. 그 책에는 마치 철학자인 듯한 파나기오트라는 인물이 아지미트와 벌이는 논쟁이 실려 있는데, 파나기오트는 235쪽에서 로마 교회 내에서 수염 깎는 관습이 교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교황의 이름이나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밝히지 않고, 단지 교황이 수염을 깎게 된 계기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그 이야기는 순결한 귀에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그 논쟁이 지혜의 방식에 맞지 않았듯이, 그 이야기 역시 신빙성이 없다. 분별력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고찰

수염을 깎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죄인가?

하나님의 계명이 정해진 곳에는 죄도 있다고 말해진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곧 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정해지지 않은 곳에는 죄가 있을 수 없다. 계명이 없는 곳에는 범할 것도 없고, 따라서 죄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수염에 관해, 깎으라는 것도, 깎지 말라는 것도 아무런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수염을 깎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아니다.

[378] 고린도전서 11장과 15장.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수염에 관한 계명이 없으므로, 이는 성복음서에도, 사도 서신에도, 성부들의 공의회 어디에도 수염에 관한 규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성경 외에 전승이 있을 뿐이며, 이는 영적(세속적이지 않은) 규율을 지켜야 함을 의미한다.

만약 성스러운 사도들의 규율과 성부들의 공의회에 의지하여, 마치 그들이 수염에 대해 법을 제정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라면, 사도나 성부들의 공의회 규율이 어디에 있는지 적어도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보여 주기를 바란다. 또한 에서 스투디오스의 수도사 니키타와 소위 철학자 파나기오트가 수염에 대해 말한 바는, 그 말들이 규정이 아니며, 성부들의 공의회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그들의 말 자체에도 근거가 없으며,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할 의무도 없다.

반면, 우리의 러시아 고서들은 더 면밀한 검토와 고찰, 그리고 수정이 필요하다.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에 관해 앞서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구약에 기록된 형제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은 영적이며 신성한 계명, 즉 신앙과 하나님 경배에 합당한 계명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켜야 할 시민적 의무를 다하는 계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육신적인 계명, 즉 의식과 예식에 속한 것들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오심으로 이를 폐지하셨고, 성도인 사도들은 이방인 출신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으니, 이는 이미[379] 에서 밝힌 바와 같습니다. 또한 성 요한 황금입이 히브리서 7장을 주석하며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말한 증언도 인용될 수 있다. “육체를 씻고, 육체를 정화하고, 육체를 깎고, 육체를 묶으라”[380] , 그리고 그 밖의 것들: “이것들이, 내 말대로, 육신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까지가 황금입의 말이다. 그 말씀들, 즉 “육체를 깎으라”는 구절은 수염을 깎지 않는 것과 수염을 깎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데, 이는 옛날 육체적·의식적 계명에 속했으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폐지된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수염에 관한 법이 아니라 자유 의지가 있을 뿐이며, 수염을 깎는 것을 이유로 구원에 대해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수염을 깎지 않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수염을 깎는 것을 크고도 지극히 큰 죄로 여기는 자들의 생각이 옳은지, 이성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언급한『스토글라브니크』제40장에서, 수염을 깎는 것이 얼마나 큰 죄로 여겨지는지 들을 수 있다. 성스러운 사도들의 규칙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수염을 깎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에게 봉사할 자격이 없으며, 그를 위해 40일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성병이나 양초를 교회에 가져다 바칠 수도 없으며, 불신자들과 함께 여겨져야 한다. 이는 이단자들이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의 규칙은 수염을 인간의 영혼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다. 그 규칙의 논리에 따르면, 아무리 덕이 있고 의로우며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염을 깎았다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며,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영혼은 기독교적인 추모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규칙은 성스러운 사도들의 이름으로 위장되었으나, 사도들의 규칙들 사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이치에 맞지 않게 기록되었으며, 거짓되고 건전한 이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므로,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해야 한다:

수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수염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수염이란 무엇인가? 수염은 감각이 없는 털로, 인체의 과잉물이며,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이지만 인간의 삶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람을 살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물질로서, 육체와 함께 무덤의 흙 속으로 들어가 흩어지며, 죽기 전부터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무용지물이며, 이로움도 해악도 주지 않으며, 육체의 습한 부위에서 자라는 것이다. 마치 땅 위에서 진창이거나 습한 곳에는 잡초와 사초, 갈대가 자라나듯이, 이와 같이 인간의 몸에서도 습한 부위에는 털이 자란다.

---

[379] 사도행전 15장.

[380] 요한. 즈라트. 2897쪽.

그렇다면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영혼은 보이지 않고, 불멸하며, 영원히 머무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영혼은 육체가 없는 이성적인 본성으로, 우리의 육체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인간의 삶에 영혼은 필수불가결한데, 영혼 없이는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조차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수염을 위해, 즉 수염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깎지 말라고 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영혼을 위해, 즉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까? 만약 수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진실로 수염을 깎는 사람은 죽은 후 교회의 추모를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만약 인간의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미 세상을 떠난 영혼이 수염을 깎는 것을 무엇이 막겠는가? 진실로 그리스도는 수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의 구세주라 불리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지극히 거룩한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하고 불멸의 생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수염은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이름으로 위장된 그 규정은 거짓된 것이니, 기독교인의 영혼이 세상을 떠난 후 교회 추모 예배에서 그 영혼을 기리는 것도, 그 영혼을 위해 프로스포라나 양초를 바치는 것도, 수염을 깎았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그 은밀한 규정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자들로부터 수염 깎는 습관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이에 반박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러시아에서 세례를 받기 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수염을 깎았는가, 아니면 깎지 않았는가? 만약 누군가 깎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유대인의 구약 율법을 따르지 않았고, 당시 이곳 사람들은 수염을 깎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에게 절하며 악마를 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수염을 깎는 것이 관습이었다. 러시아에 거룩한 신앙이 자리 잡자,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특히 나이 든 남성들은 그것이 마땅한 일이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여전히 면도했는데, 이는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들에 대해 사도들의 판결이 구약의 육신적인 계명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단자들 때문이 아니라, 세례 이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오래된 관습—사도들이 금지하지 않았던—때문에, 수염을 깎는 기독교인들은 깎고, 깎지 않는 습관이 있는 이들은 깎지 않는데, 이는 기독교인들이 정한 어떤 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이다.

앞서 언급한 고전 인쇄본 예배서에서 수염 깎지 않음에 관한 글의 끝부분, 626쪽과 627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 밖에도 우리는 이 이단을 말로써 금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니, 이에 대하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너희는 수염을 깎지 말라[381]." 이 말씀에 대해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그러나 분명히 금해진 것이며, 하나님께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담한 자들에게 더 큰 수치와 두려움이 되지 않겠는가? 참으로 신성한 황금입(크리소스토모스)의 말씀대로,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군대이다. 그리고 어떤 이가 말하듯이, 그의 순교자의 피조차도 이 죄를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여기까지가 그 말씀이다.

그 잘못된 말을 누가 지어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거짓말쟁이이자 미치광이로 보인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치 황금입 성인이 수염에 대해 썼고, 수염 깎기를 교회의 군대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를 비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금입 성인이 어디에, 어떤 책에, 어떤 말씀이나 대화, 혹은 어떤 교훈에서 그렇게 썼는지, 그 잘못된 말을 지은 자는 밝히지 않는다. 이는 그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의 저자는 미친 자이다. 왜냐하면 그는 수염을 깎는 죄를 순교자의 피로도 씻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

[381] 레위기 19:27.

아, 지극히 미친 자여! 수염이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자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한다면, 순교자의 피가 그의 죄를 씻어 주며, 하늘에서 순교자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의 본보기가 바로 11월 27일에 기념되는 성 야고보 페르시아인 순교자입니다. 그는 한때 그리스도를 부인했으나, 후에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여 피를 흘렸고, 그 피가 그의 죄를 씻어 주어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이와 같은 성스러운 순교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가 다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며, 자신의 순교자의 피로 이전에 저지른 부인이라는 죄를 씻어냈습니다. 그러나 옛 인쇄본 예배서에 수록된 그 잘못된 글의 저자는, 수염을 깎는 죄는 순교자의 피로 씻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미친 추론에 따르면 수염이 그리스도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의 순교자의 피는 죄를 씻어내지만, 수염을 깎는 죄는 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미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이런 불경스러운 고백이 담겨 있는가?

다시 그 이름 모를 저자는 자신의 글에서 수염 깎기를 근절하고, 수염을 기르는 것을 가르치며, 마치 성스러운 사도들과 일곱 성부, 보편 공의회들, 그리고 아홉 지역 공의회들이 그리스도인은 수염을 깎지 말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한 것처럼 말하거나, 더 정확히 말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사도들과 성부들의 모든 규정을 철저히 연구한 바, 앞서 말했듯이 사도들의 규정이나 성부들의 규정 어디에서도 수염에 관한 내용은 거짓된 주장들을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교부들의 규정을 비방하는 자에게 묻노니, 수염을 깎는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큰 죄인가? 수염을 깎는 것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요,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과연 누가 더 중한 죄를 짓는가? 인간적으로 죄를 짓는 자인가, 아니면 마귀처럼 죄를 짓는 자인가?

이 말을 한 뒤, 우리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과 마지막 장에서, 어떤 죄는 순교자의 피로도 씻을 수 없으며, 어떤 성스러운 스승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분명히 밝힐 것임을 알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하건대, 모든 죄는 감각적이나 육체적인 것, 혹은 정신적인 것에서 어떤 쾌락을 안겨준다. 육체적인 감각에는 정욕이 담겨 있고, 정신적인 감각에는 분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분노는 복수로, 정욕은 육체적인 쾌락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나 감각이 없는 머리카락을 깎을 때, 어떤 쾌감이 느껴지겠는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그 일에는 어떤 죄도 없으며, 면도를 이유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어떤 이들은 수염을 깎는 것이 곧 스스로에게 손을 얹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빗이나 빗살로 수염을 건드리는 것조차 해서는 안 된다. 빗질로 인해 수염이 찢어지면, 너희는 마치 스스로에게 손을 얹는 자들처럼 정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무지한 자들아, 수염을 깎는 것이 과연 자기 손에 손을 얹는 것일까? 이미 깎여 감각이 없는 털이 살아 있는 몸에 무슨 해를 끼치겠는가? 자기 손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고의로 자신의 살아 있는 몸의 어떤 지체를 잘라내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를 죽이는 것을 말한다. 유다가 목을 졸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다윗의 원수 사울은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382] . 분열주의자들은 어떤 이들은 불로, 어떤 이들은 굶주림으로 스스로를 죽이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떤 죽음으로든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이 곧 자기 손에 손을 얹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는 이 책의 세 번째 부분에서 밝혀질 것이다.

4번째 고찰

불의 가운데 구원이 있는가?

성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에게 구약의 할례에 대해 "할례도 무익하고, 할례받지 않은 것도 무익하다"*[383]* 고 썼듯이, 우리는 수염에 대해서도 "수염을 깎는 것도 무익하고, 깎지 않는 것도 무익하다"고 말할 수 있다.

---

[382] 열왕기상 31:5.

왜냐하면 구약의 할례는 우상 숭배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자들, 즉 처음부터 할례를 받으라고 부름받은 자들에게 있어, 그 할례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했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선한 행실만이 구원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384] : 이와 같이 구약의 할례는 그리스도인 중 누구에게도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하며, 오직 바른 믿음과 선한 행실만이 구원을 가져다줍니다.

수염을 기르는 이들은 빌렌의 성인 순교자들인 안토니우스, 요한, 유스타티우스를 예로 들며, 마치 그들이 수염 때문에 순교한 것처럼 말합니다[385] . 그러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그들이 수염 때문에 순교한 것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그들의 수염은 이교도들 사이에서 기독교의 표징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은 불을 신으로 삼아 숭배하며, 자신들의 신인 불을 기리기 위해 머리와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러시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 숭배가 없으며, 불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으며, 수염을 깎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서 기독교의 표징이 될 수 없듯이, 수염을 깎는 것도 우상 숭배의 표징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통 신자들 사이에는 차이가 없으며, 모두 똑같이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날 분열주의가 수염을 깎지 않는 것을 표징으로 삼는다면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수염을 기르지 않는 것에서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죄악된 쾌락이 느껴지지 않는 곳에는 죄에 대한 유혹도, 죄와 싸우고 저항하는 고행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유혹도 없고, 투쟁도 없는 곳에는 면류관도, 구원도 있을 수 없다. 머리카락이 있든 없든, 그로부터 어떤 쾌락도 느껴지지 않으니, 면도하는 데 죄가 없듯이, 깎지 않는 데에도 구원이 없다.

만약 깎지 않고 기른 수염에 구원이 있다면, 수염이 풍성한 사람들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염이 많은 사람일수록 구원도 더 클 것이며, 수염이 적은 사람은 구원도 적을 것이고, 수염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갓난아기들은 어떻게 될까? 여성들은 또 어떨까? 수염이 없는 자들처럼 그들에게는 구원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 모든 말은 늙고 존경받는 분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수염과 백발은 하나님과 자연이 거의 장식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수염을 깎으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수염을 기르는 것을 칭송하거나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모두 구원과 무관하며,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해가 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수염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바는, 수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위대한 거룩함과 구원으로 여기는 이들을 권면하기 위함이다: 수염을 깎는 것을 중대한 죄로, 구원의 헛된 것으로, 심지어 파멸 그 자체로 간주하며, 자신의 영혼보다 수염을 더 높이 여깁니다. 그들은 영혼의 구원보다는 수염의 온전함을 더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도, 수염을 깎지 않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의로 인해 영혼을 잃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나, 수염을 잃는 것은 큰 죄이다. 수염을 위해 많은 루블을 지불하면서도, 영혼은 푼돈에 팔아 지옥으로 보내려 한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수염은 영혼보다 더 높은 것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수염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들은 매일 자신의 비열한 생각과 행실로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깎아내리면서도 이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염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며,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려 애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신성한 성찬을 피하며, 마치 어떤 불경스러운 일인 양 혐오하지만, 수염은 큰 경건함으로 여기니, 그리하여 그들에게 수염은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해졌다. 진실로 이런 자들은 기독교인이라기보다 '수염파'라고 불릴 만하다; 그들에게는 영혼도, 그리스도도 그들의 수염만큼이나 큰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도둑은 도둑질과 강도질을 하러 가면서, 그리스도를 잊고 자신의 영혼도 잊은 채,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수염에 대해서는 큰 관

---

[383] 갈라디아서 6:15.

[384] 사도행전 15:1, 5.

[385] 4월 14일.

심을 보인다. 이웃을 해치고, 약탈하고, 납치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악의를 품고, 무고한 자들의 눈물과 피를 흘리게 하며, 그리스도와 자신의 영혼을 잊어버린다.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구원에 필요한 것은 오직 깎지 않은 수염을 기르는 것뿐이다. 음식과 술에 탐닉하고, 육체의 부정한 행위와 간음, 소돔의 죄, 그리고 그 밖의 온갖 추악한 일들로 더럽고 돼지 같은 삶을 살며, 그것들로 인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것, 이 모든 것은 하찮은 일이며, 헛된 일이다: 오직 한 가지만이 정직하고 거룩한데, 그것은 수염을 훼손되지 않게 보존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할 것이며, 그것이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어리석은 자들의 극심한 미친 짓이여! 늙은이의 수염은 존경받을 만하나, 그 자신이 수많은 죄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 거룩함은 전혀 없다. 흰머리는 존경스럽지만, 그 자신이 자신의 구원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안에 구원은 전혀 없다. 바빌론에서 육체와 영혼이 붉고 순결한 수산나를 강간하려 했던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그들의 수염과 흰머리로 인해 존경받았으나[386] , 그들에게 수염과 흰머리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과 엄중한 시련의 날에,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수염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덕행이 드러난다면 수염을 깎는 것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거기서는 수염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에 대해 심판할 것이며, 수염으로 인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인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면도날이 닿지 않은 수염을 가진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자가 복된 것이다.

그러므로 수염을 기른 자 중 누구도 자신의 수염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며, 또한 누구도 수염을 깎는다고 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제*20*장. 콧수염에 대하여

여기서 콧수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잘못들 때문에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어떤 이들이 성스러운 분이자 정통 주교이신, 복된 기억을 간직한 키예프 대주교 페트르(모길라라고 불리는 분)를 이단자라고 비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위대한『키예프 예식서』에서 콧수염이 덥수룩한 사제들에게, 입술 위의 과도한 털을 조금만 깎아 그리스도의 피에 많이 적시지 않도록 조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식서 제1부 249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만약 사제가 덥수룩한 콧수염을 가지고 있어,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신성한 피에 적시는 경우, 죄를 짓게 된다. 그러나 먼저 입술을 깨끗이 핥아(닦아)낸 다음, 수건으로 닦아내야 한다. 그러니 사제여, 이러한 죄를 피하고자 한다면, 수염을 단정히 묶거나, 예배 전에 미리 다듬으라. 여기까지가 예식서이다.

그 때문에 그 주교를 이곳의 어떤 이들은 비방하고 욕하며, 이단자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그 비방자들에게, 대답 대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제시한다:

로스토프의 주교 관저에는 바르라암이라는 이름의 늙은 흑인 사제가 있었는데, 그는 모든 로스토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인물로,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되었다. 그 사제는 수염이 꽤 길었을 뿐만 아니라 콧수염도 컸으며, 특히 입술 위로 지나치게 길게 자라 있었다. 어느 날 제가 성찬식을 집전할 때, 그 사제가 저와 함께 봉사를 했는데, 신성한 피가 담긴 성배에서 성체를 영할 때, 콧수염 전체를 피에 적신 채, 콧수염으로 성배에 담긴 그리스도의 피 대부분을 훔쳐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콧수염을 제대로 닦지도 않은 채 그대로 안티도르와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러한 부주의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독에 경악하여, 그 사제에게 다시는 나와 함께 예배를 집전하지 말고, 따로 혼자서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야만 거룩한 성찬식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독을 내가 보지 않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여기서 묻노니, 무엇이 더 존귀하고 거룩한가? 입술 위의 콧수염이 너무 길게 자란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인가? 그리고 어느 쪽이 더 큰 죄인가? 입술 위의 콧수염을 조금만 다듬는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도 경계심도 없이 커다란 콧수염으로 성찬 그릇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피를 훔쳐내는 것인지?

---

[386] 단 13장.

모두가 알다시피, 모독자들은 모스크바에서 인쇄된 고서들, 앞서 언급한『예식서』와『예배서』를 인용할 것이니,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마귀가) 그들로 하여금 수염을 깎고, 콧수염을 이발사나 면도칼로 다듬도록 부추긴다. 더욱 악랄한 짓을 저지르니, 마치 자기 몸을 뜯어먹는 자처럼 자신의 이빨로 수염과 콧수염을 물어뜯기도 한다.

이에 대해 간결한 말로 답하노라.

그 말을 쓴 자의 머릿속에는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이성도 없었다. 죄가 없는 곳에서 죄를 찾는 자는 마치 모기를 짜내면서 낙타를 삼키는 자와 같다. 혹시 누군가 빗이나 솔로 수염과 콧수염을 빗다가 털이 뜯겨 나간다면, 이를 어떤 죄로 간주해야 하겠는가? 때로는 먹는 중에 콧수염 털이 음식에 섞여, 음식과 함께 이 사이로 들어갈 때도 있다. 그러면 (그 판단에 따르면) 그런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제*21*장. 복음서의 이야기와 비유에 관하여

또한 이 분열주의자들의 어리석음, 조롱받을 만한 일이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최근에 알게 된 바에 따르면, 그들은 복음서의 이야기를 실제로 일어난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비유로 치부하며, 복음서에 대한 해석을 통해 자신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옳다고 입증하려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께서 황량한 곳에서 다섯 개의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오천 명의 백성을 배불리셨는데, 이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라고 한다[387] . 황량한 곳이란 여러 언어를 뜻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을 떠나 그곳으로 오셨다. 다섯 개의 빵은 다섯 가지 감각을, 두 마리의 물고기는 두 권의 책, 즉 복음서와 사도서를 의미한다; 12 개의 바구니는 12 사도를 상징한다. 이는 복음서 주석에 기록된 바와 같다.

또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복음서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입니다[388] . 사마리아인은 인간의 영혼이며, 우물은 세례를, 생수는 성령을, 다섯 사람은 모세의 다섯 권의 책을 상징합니다.

다시:

나사로의 부활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비유입니다[389] . 병든 나사로는 인간의 연약함에 굴복하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며, 나사로의 죽음은 죄를, 나사로의 자매들은 육체와 영혼을 나타냅니다. 육체는 마르다, 영혼은 마리아입니다; 관 – 세속적인 근심; 관 위의 돌 – 마음의 굳어짐; 라자로가 천으로 묶여 있는 것 – 죄의 속박에 얽매인 마음; 라자로의 부활은 죄에 대한 회개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일 뿐이다. 암나귀는 유대인의 종족을 상징하며, 모세의 율법이라는 멍에를 지고 있는 자들이다; 새끼 나귀는 이방인의 종족을 상징하며,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들에게로 가신 것을 의미한다; 앞서 가던 제자들은 구약성경을, 뒤따르던 제자들은 새로운 은혜를 나타낸다; 길가에 버려진 옷은 죽어가는 육신을, 야자나무 가지들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소리치는 소년들은 악의 없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러저러한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행적들은, 성스러운 교부들이 탁월한 비유적·도덕적 해석을 통해 명확히 설명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친 분열주의자 현자들은 이를 비유로 치부할 뿐 실제 사건 자체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며, 테오필락토스의『복음 해설서』에 수록된 해석들만을 근거로 삼고, 그들은 비유적 표현과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사와 비유의 차이를 알지 못하며, 역사와 비유의 해석을 구분하여 논할 줄도 전혀 모르니, 마치 건전한 이성을 상실한 자들처럼, 이성의 빛으로 깨우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의 광기는 마치 이집트의 어둠처럼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390] ; 그리고

---

[387] 마태복음 14장.

[388] 요한복음 4장.

[389] 같은 책 11장.

[390] 출애굽기 10:21, 22.

그들은 평민들 사이에 자신들의 가라지를 퍼뜨리며, 무지한 이들의 영혼을 해치고, 복음의 이야기를 폄하하고 있다. 그들의 어리석은 추론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기에, 나는 침묵으로 넘어가고 싶었으나; 그러나 내가 침묵함으로써 그 해악이 백성들 사이에서 더욱 커지고, 더 큰 이단의 씨앗이 뿌려질까 두려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 그리고 그분의 모든 영광스러운 행적과 기적들을 실제 사건이 아닌 비유로 치부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육신 취하심과 고난을 실제 사건이 아닌 환상으로 여기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는 마치 옛날 마니교의 악의적인 이단이 가르쳤던 바와 같으니,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해로운 이단들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교회를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이에 더해, 어떤 경건한 분들의 질문으로 인해 나는 자극을 받았으니, 그들은 그 분열주의적인 헛소문을 듣고 나에게 다섯 덩이의 빵과 두 마리의 물고기, 사마리아인, 나사로의 부활,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 물었으니; 그것이 과연 실제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비유인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분열주의적이고 어리석으며 영혼을 해치는 추론을 내 힘껏 반박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성서 복음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2)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가?

3) 해석이 필요한 구절들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4) 다섯 덩이의 떡, 사마리아인, 사흘 동안 무덤에 있던 나사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테오필락토스의『복음 해설서』에는 어떤 해석이 기록되어 있는가?

5) 복음서에서 실제 사건은 어떻게 식별되며, 비유는 어떻게 식별되는가?

첫 번째 진술

성복음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복음서에는 다음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이야기

그분의 가르침의 말씀.

이 역사는 성육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상에 나타나 인간과 함께 사시며 행하신 모든 행적과 기적을, 그분의 흠 없는 동정녀의 태중에서 태어나신 것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음, 부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에 이르기까지 서술하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행적과 더불어, 세례 요한의 생애, 헤로데의 생애, 사도들의 생애, 유대인 대제사장들의 생애, 빌라도의 생애,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생애와 일화들도 부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동사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을 나타내는데, 이는 그분이 지극히 순결한 입술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이며, 오늘날 복음서 봉독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들이다.

두 번째 설명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가?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오직 모든 이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만이 해석이 필요합니다. 반면, 모든 이에게 명백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해석되지 않고, 단지 설교될 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행적과 기적에 대해 설교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동정녀에게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뉘어지셨고; 천사들이 찬양하며, 목자들이 그분께 경배하였고, 별이 그분 위에 머물렀으며,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고; 또한 할례를 받으시고 성전에 드려지셨으며, 의로운 시므온의 품에 안기셨고,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헤롯이 죽은 후 거기서 돌아오셨으며, 열두 살의 어린 시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성한 지혜로 유대인의 노련한 스승들을 놀라게 하셨고; 서른 살이 되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유혹자 마귀를 물리쳤으며; 또한 자신의 성도들과 사도들을 모아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기적을 행하시고, 팔레스타인의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으니: 소경에게 시력을 주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황

량한 곳에서 오천 명의 백성을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파보르 산에서 변모하셨으며, 그 후 사흘째 되는 날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영광스럽게 입성하시고,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며,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 모든 그리스도의 행적은 그 자체로 진리(비유가 아닌)이며,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지극히 명백하여 그 자체로 어떠한 해석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오직 그분께서 미리 본보기를 보이신 미래의 일들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것뿐이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행적은 미래의 일을 미리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니,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이야기할 것이다.

한편,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언은 그분의 신성한 지혜에서 비롯되어 백성과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선포된 것이나, 모든 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람들의 이해력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것이며,
어떤 것은 은유적이며,
어떤 것은 비유와 예시이며,
어떤 것은 계명이며,
어떤 것은 권면이며,
이것은 약속과 위로이며,
이것들은 책망과 징벌이며,
이 예언들.

그 밖에도 다양한 주제에 관한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해석이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여기서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의 분명한 말씀과 교령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회개에 관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391] . 덕스러운 삶에 관하여: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그렇게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392] .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할 때, 네 형제가 네게 원한을 품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해한 다음, 다시 와서 네 예물을 드리라[393] . 기도에 대하여: 기도할 때 헛된 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394] 등등. 금식에 대하여: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척하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얼굴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395] . 악을 품지 말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396] ; 그 밖에도 이와 유사한,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명료한 말씀들은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은유적인 말씀과 표현들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 돌에 으스러질 것이요[397] . 또 다시: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을 잘라 버리고, 만일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을 잘라 버리고,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을 뽑

391 마태복음 4:17.
392 같은 책 5:16.
393 마태복음 5:23, 24.
394 같은 책 6:7, 9 등.
395 16절.
396 14절.
397 같은 책 21:42, 44.

아 버리라. 또 다시: 모든 것은 불로 소금에 절여지고, 모든 제물은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너희 안에 소금을 간직하라[398]. 또 다시 이르시되, 주머니가 있는 자는 그것을 챙기고, 여행용 가방도 챙기라. 그러나 없는 자는 자기 겉옷을 팔아 칼(칼날)을 사라[399].

또 다시: 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일 것이니라[400]; 그 밖에도 이와 유사한 그리스도의 은유적인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해석이 필요하며, 사도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 미리 말씀하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는 말씀이나 그 밖의 말씀들처럼, 제자들은 이 말씀들 중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으며, 그들이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지 못하였느니라[401]; 그들에게는 해석이 필요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와 예화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덤불 속,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비유. 원수가 밀 한가운데에 뿌린 가라지에 관한 비유[402]. 백 달란트의 빚을 종에게 탕감해 준 왕과, 자신의 빚 100 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종에 관한 비유[403]. 강도들에게 잡힌 자와 자비로운 사마리아인에 대하여[404]. 밭이 말라버린 부자에 대하여[405]. 거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또 다른 부자에 대하여[406] 바리새인과 세리, 그들이 교회에 들어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407]. 포도원과 일꾼들에게 살해당한 상속자에 대하여[408]. 아들에게 혼례를 베풀어 준 아버지와, 혼례 예복을 갖지 못한 자에 관한 이야기[409]. 큰 만찬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으나, 그들이 거절한 이야기에 관한 것[410]. 종들에게 나눠준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411]. 방탕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412].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속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천국은 좋은 구슬을 찾는 상인과 같다.

천국은 바다에 던져진 그물과 같다[413].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414].

그 밖의 다른 비유와 예화들, 곧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은유적인 말씀들은 해석이 필요하다.

---

398 마가복음 9:43, 45, 47, 49, 50.

399 누가복음 22:36.

400 마태복음 24:28.

401 누가복음 18:31, 34.

402 마태복음 13:4–24 등.

403 같은 책 18:24 등.

404 누가복음 10:30, 33.

405 같은 책 12:19 등.

406 같은 책 16:18 등.

407 같은 책 18:10 등.

408 마태복음 21:37 등.

409 마태복음 22:2 등.

410 누가복음 14:16 등.

411 마태복음 25:15.

412 누가복음 15:11 등.

413 마태복음 13:31 등.

414 같은 책 25:1.

그리스도의 계명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서로 사랑하라"[415].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나 땅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416].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아니하리라"[417]. "너희의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418].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그 밖의 그리스도의 계명들. 이 계명들은 명백하므로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주라. 네 겉옷을 가져가려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내어주라. 또 누가 너와 한 마일을 함께 가자고 하면, 그와 두 마일을 가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리고 너를 붙잡으려는 자를 물리치지 말라[419]. 땅에 보물을 쌓아 두지 말라[420].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때문에 너희 영혼을 염려하지 말라[421]. 또 다시: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누구든지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니라[422].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423].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424].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명백하여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권고된 십자가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이해해야 할 뿐이다. 또한 영혼의 파멸은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 혹은 자신의 욕망을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약속과 위로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에 대해 의논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425]. 집이나 형제나 그 밖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백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426]. 나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427]. 믿는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표적이 따를 것이니, 내 이름 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릴 것이며, 설령 독이 있는 것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니라[428].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것을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429].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430].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431].

---

415 요한복음 15:17.
416 마태복음 5:44 및 34.
417 마태복음 7:1.
418 마태복음 7:6.
419 마태복음 5:39 등.
420 같은 책 6:19.
421 같은 장 25절.
422 같은 책 16:24 및 25.
423 같은 책 19:21.
424 같은 책 20:26, 27.
425 마태복음 18:19.
426 마태복음 19:29.
427 같은 책 28:20.
428 마가복음 16:17, 18.
429 같은 책 11:24.
430 마태복음 10:32.
431 같은 책 6:33.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432].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로 오셔서 그와 함께 거처를 마련하시리라[433]. 내가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위로자, 곧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434].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435].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가리라[436]. 또 다시 말하노니,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리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437].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고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하려 함이라[438].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어떤 이들에게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노라[439].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너희는 슬퍼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440].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며,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441]; 그 밖에도 그리스도의 이러한 약속과 위로의 말씀들은,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던 것들이므로, 명백하여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하신 책망과 경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 버리니, 너희는 들어가지도 않을뿐더러 들어가는 자들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과부들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눈먼 지도자들이여! 너희는 모기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내되, 속은 강탈과 불의로 가득 차 있도다.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자의 뼈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도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게헨나의 불의 심판에서 피하겠느냐[442]? 또 다시, 우박을 내리시며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호라진아, 화 있을진저, 벳세이다야[443]," 그 밖의 것들도 그러하도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올라갔으나 지옥까지 내려가리라. 심판의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기쁠 것이니라[444]. 유혹을 일으키는 세상에 화가 있을지어다. 유혹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445]. 부자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잃을 것이니라. 지금 배부른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굶주릴 것이니라. 지금 웃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울며 통곡할 것이니라[446].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모두 마찬가지로 멸망할 것이다[447].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호하지도 않고, 많은 해석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다만 모기는 작은 죄를,

---

[432] 요한복음 14:12.
[433] 23절.
[434] 16절.
[435] 18항.
[436] 2절.
[437] 요한복음 14:3.
[438] 요한복음 15:11.
[439] 14절과 15절.
[440] 같은 책 16:20.
[441] 22절.
[442] 마태복음 23장.
[443] 11장 21절.
[444] 마태복음 11:21–24.
[445] 같은 곳 18:7.
[446] 누가복음 6:24, 25.
[447] 같은 책 13:3.

낙타는 큰 죄를 상징한다는 것과,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찬 그릇은 위선자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의 예언들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며, 그들은 그를 사형에 처하고, 조롱과 매질과 모욕을 당하게 할 것이나,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448]. 또 사도들에게 다시 예언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회중들 앞에 넘겨질 것이요, 그들의 집회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며,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니라[449]. 또한 교회에 닥칠 박해에 대해 예언하시기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줄 것이며,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항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일 것이다*"*[450].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예언하시기를: *"*그 날들이 네게 닥칠 것이요, 네 원수들이 너를 에워싸고, 네 주위를 둘러싸며, 사방에서 너를 포위할 것이며, 너와 네 안에 있는 자식들을 멸망시킬 것이요, 네 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451].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예언하시기를: *"*이곳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파괴될 것이다*"*[452].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구자들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453]: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적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454]. 또한 온 세상의 혼란에 대해 예언하셨으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며, 기근과 재앙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455] 이라 하셨고, *"*그때에는 창세 이래로 없던 큰 환난이 있을 것*"*[456] 이라 하셨다. 마지막으로, 끔찍한 심판에 대해 충분히 말씀하시며, 장래를 예언적으로 예고하셨다. 그러나 그분의 모든 예언적 말씀은 명료하고 누구에게나 이해하기 쉬워 해석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중 일부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명료하지만, 그리스도의 행적 중 진리 그 자체로서 비유가 아니며, 그 어떤 모호함도 없는 것들은 해석될 필요가 없고 오직 전파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그 행적들이 예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해석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의 어떤 행적들은 그 자체로 미래를 드러내는 것이며, 어떤 것은 이미 일어났고, 어떤 것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은 복음서에서 해석되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설명

해석이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성경, 즉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신성한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즉, 영적인 의미와 문자적인 의미;

문자적, 즉 신비적인 의미.

문자적 의미는 역사적이고 서사적인 반면, 영적 의미는 신비롭고 미스터리하다. 문자는 사건을 말하지만, 영은 신비를 논한다. 문자는 고대의 행적에 대한 역사를 서술하는 반면, 영은 그 고대 행적 속에 예표된 바를 해석한다.

글자적 이성은, 곧 신성한 성경의 역사적 이성이기도 한데, 이는 자기 자신에게 가깝고, 어떤 사건이 서술되는 방식 자체를 통해 스스로를 설명하며, 이해하기 쉽게 다가온다.

---

448 마태복음 20:18, 19.

449 10장 17절과 18절.

450 마태복음 10:21.

451 누가복음 19:43, 44.

452 마태복음 24:2.

453 5절.

454 24절.

455 7절.

456 21절.

반면, 신성한 성경의 영적 이성은 신비롭고, 심오하며, 멀리 떨어져 있어 서술적인 말들로 가까이서 드러나지 않지만, 서술된 사건을 통해 멀리서 그 존재를 알린다. 왜냐하면 서사적인 말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그대로 드러내지만, 서사적인 말들로 드러난 그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을 신비롭게 암시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성 바울 사도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에서,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건넜으며*,* 모두 모세를 통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모두 같은 영적인 양식을 먹고*,*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 말씀과 그 뒤를 잇는 사도들의 말씀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와 가깝게 있으며,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구름 아래를 행진한 것처럼 말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바위에서 물을 마셨다.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것으로, 서술적인 말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서술된 사건들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원죄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임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홍해는 거룩한 세례를 예표하였습니다. 만나의 형상은 성찬례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냅니다. 돌에서 흘러나온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였으며, 그 돌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형상화한 것이니, 사도가 말하듯이: *"*그들은 영적인 돌에서 마셨으니*,* 그 돌은 그리스도[457] 이셨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그들은 영적인 바위에서 마셨다"는 것은, 실제로는 물질적인 바위에서 마셨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적인 바위에서 마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 물질적인 바위가 영적인 바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물질적인 바위가 영적인 바위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문자적인 의미에서 돌은 물질적인 돌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돌은 그리스도이시다. 성서에 담긴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는 사도들의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다.

또한, 신비롭고 심오한 영적 의미는 신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해석의 형태로 구분되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뉘며, 이는 그리스어로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알레고리,

아나고가,

트로폴로지.

신학에서 가장 훌륭한 세 가지 미덕, 곧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것처럼, 영적 해석의 방식도 세 가지가 있다.

알레고리는 믿음과 일치하며,

아나고가는 소망에,

트로폴로지는 사랑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알레고리, 아나고가, 트로폴로지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갈라디아의 무지한 자들, 분열을 일으키는 헛된 교사들과 왜곡된 해석자들을 가르치고자 한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하십시오.

알레고리는 그리스어 표현으로, 슬라브어로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4장 210절 초반, 24절에서 '은유'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 해석에는 문자적 의미 외에도, 믿음이나 땅 위에서 싸우는 교회에 적합한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는 방식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인[458] 에게서 낳았다. 이는 문자적 기록에 따른 사실이다. 그러나 우화적으로, 즉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두 아들을 두신 하나님, 즉 두 백성과 그분께서 주신 두 언약을 상징한다. 유대교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기독교는 이방인들에게서 비롯되었다. 유대교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고,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유대교 율법은 육신적인 것이었고, 기독교는 영적인 것이니,

---

[457] 고린도전서 10:4.

[458] 갈라디아서 4:22.

마치 그 당시 육신으로 태어난 자(아브라함의 아들)가 약속에 따라 태어난 영적인 자를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대인 무리는 악의적인 증오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아나고가(Anagoga)는 그리스어 표현으로, 슬라브어로 번역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하지만, 슬라브어로 '높은 지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성경에는 문자적 의미 외에도, 우리가 소망하는 영생이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희망하는 하늘에서 승리를 누리는 교회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상징하는 해석의 방식이 있다. 마치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진노 중에 맹세하노니*,*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459] ."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데,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직 그들의 자손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으니; 반면, 비유적인 의미, 즉 더 높은 차원에서 볼 때, 이는 하늘에서의 영생을 뜻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를 약속하셨으니, 거기에서는 승리의 교회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 회개 없이 떠나는 죄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트로폴로지'는 그리스어 표현으로, 인간의 미덕에 대한 훌륭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알레고리와 은유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은 다른 것을 말하며, 또 다른 것은 다른 것을 뜻한다. 다만 그 차이점은, 알레고리가 신앙의 대상과 교회를 수호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반면, 트로폴로지는 인간의 미덕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데 있다. 이 해석의 방식은 성경에서 문자적 의미 외에도 인간의 개선과 덕스러운 삶에 적합한 무언가를 나타내는데, 이는 성경에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460] 고 기록된 것과 같다. 문자 그대로는 가장 진정한 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만, 비유적으로는, 즉 도덕적 교훈을 주는 의미에서, 말씀의 설교에 힘쓰는 성직자들을 가리키며, 그들이 백성들의 헌금으로 생계를 꾸리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세례 요한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베어지 고 불에 던져지[461] 게 된다*."*라고 하셨다. 이는 문자 그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말씀이지만, 비유적으로는 덕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성경은 네 가지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1) 문자 그대로,

2) 알레고리적으로,

3) 아나고기적으로,

4) 트로폴로지적으로

이 모든 비유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예루살렘

문자적 의미, 즉 역사적이거나 서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에 위치한 도시로 묘사된다.

알레고리적으로, 즉 은유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전쟁 중인 교회를 상징한다.

아나고기적으로, 즉 초월적인 이성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천국에서 승리를 거둔 교회를 상징한다.

트로폴로기적인 관점, 즉 교훈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영혼을 상징한다. 또한 신성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이 네 가지 해석 방식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10절 초반부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두 아들에 대해 기록된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자적 또는 역사적 해석은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다른 하나는 자유 여인에게서[462] *."*

이 말들에서 알레고리적 또는 은유적 의미는 '이 두 가지가 곧 두 언약이다'라는 것이다.

---

459 시 94:11.

460 신명기 25:4. 고린도전서 9:9.

461 마태복음 3:10.

462 갈 4:22.

이 말들에는 아나고기적, 즉 높은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 “위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이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다.”

이 말씀에 담긴 트로폴로기적, 즉 교훈적인 의미는 이러하니, 곧 그 당시 육신으로 태어난 자가 영적인 자를 쫓아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복음서에 기록된 것 중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은 문자의 의미대로, 즉 역사적으로, 다시 말해 서사적으로 전해지고 설교된다.

반면 해석이 필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혹은 알레고리적으로, 즉 비유적으로:

혹은 아나고기적으로, 즉 더 높은 이성으로:

혹은 트로폴로지적으로, 즉 교훈적인 방식으로.

이 성서의 해석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간결하고 명료한 체계가 있는데, 이는 잔치의 비유로 설명되며,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성경의 잔치에는 세 가지 식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이고 서사적인 이성으로, 글로 기록되고 전파되는 식사이다.

두 번째 식사는 신비적, 즉 신비롭고 영적인 이성입니다.

세 번째 식사는 교훈적인 이치이다. 첫 번째 식사는 배운 바 없는 평신도들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식사는 현명한 이들을 위한 것으로, 교사들을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식사는 학식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두를 위한 공통된 식사이다.

첫 번째 식사의 음식은 가장 푸짐하다.

두 번째 식사의 음식은 가장 정교하다.

세 번째 잔치에서는 음식이 가장 달콤하다.

첫 번째 식사는 고대의 업적의 맛을 담고 있다.

두 번째 식사는 신비의 맛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식사는 선한 품성의 달콤함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식사는 옛날에 있었던 기적들로 우리를 채워줍니다.

두 번째 식사는 학문으로 영양을 공급한다.

세 번째 식사는 영혼에 유익한 말씀으로 양육한다.

이러한 신학적 성경에서 성스러운 이성의 배열은, 첫 번째 식사인 역사적 이성, 즉 서사적 이성에 이어: 두 번째 식탁인 신비적, 즉 신비롭고 영적인 이성의 식탁에서는, 그 안에 담긴 알레고리와 아나고기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의 형상을 통해 영적인 이성이 설명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식탁인 교훈적인 이성의 식탁에서는 트로포로지가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설명

다섯 개의 떡, 사마리아인, 사흘 동안 무덤에 있던 나사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서에는 어떤 해석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는 앞서, 성서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행적들이 미래의 일들을 예표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스도의 행적은 진실된 것으로, 비유가 아닌 실제 사건이었기에, 기록된 이성, 즉 역사적이고 서사적인 방식으로 전해지고 설교되나, 그리스도의 행적으로 예표된 미래의 일들은 그에 걸맞은 해석으로 해설된다.

그리스도께서 다섯 개의 떡으로 오천 명의 백성을 배불리신 일은 그 자체로 실제 사건이었지 비유가 아니었으며, 이는 복음서의 기록이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설교 두 번째 해에, 세례 요한이 순교한 후에 일어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헤롯에 의해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떠나, 그곳은 갈릴리 지방에 있던 그분의 고향이었으며, 헤로데의 영토를 피하여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백성들이 이를 듣고 각 도시에서 걸어서 그분을 따라갔다.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곳 광야에서 다섯 개의 떡으로 그들을 먹이셨다[463]. 이 그리스도의 기적은 그 자체로 미래를 예표하였다: 황량한 곳은 여러 민족을 상징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전해질 것이었으니; 다섯 개의 떡은 다섯 가지 감각을 상징하거나, 더 나아가 신자들에게 양식이 될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의 다섯 가지 큰 상처를 예표하였으며, 두 마리의 물고기는 복음서와 사도서를 예표하였고, 열두 개의 바구니는 열두 사도를 예표하였다. 그 기적적인 그리스도의 양식 공급 사건에 나타난 이러한 상징들의 해석은 테오필락토스의『복음 전파자』와 여러 교리 서적들에서 영적이며 신비로운, 즉 알레고리적 해석의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신학 서적들은 그 기적적인 그리스도의 행적이 비유가 아니라, 그 자체로 실제 사건이며, 그 사건이 후에 드러난 미래의 일을 예표했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신 복음서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다. 이 이야기에서 복음서는 영적이며 우화적인 해석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을 인간 영혼의 본질을 상징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드러내고 있다. 우물은 세례의 징표이며, 생수는 성령의 선포를,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을 가진 다섯 남자는 구약성경의 모세 오경이 인간의 영혼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 수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이를 설명할 때, 실제로 일어난 복음서의 이야기를 왜곡하지 않고, 그 사건 속에서 형성된 신비를 보여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사로의 부활도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으며, 그 사건은 그 자체로 인간의 도덕을 형성해 주었다. 복음 전도자의 해석은 문자 그대로의 역사적 해석이 아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역사는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해 마련된 상징적 해석이며, 사건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서 인간의 품성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마치 나사로가 병들었던 것처럼, 인간의 연약함에 굴복하는 우리 마음은 고통받는 영혼을 만들어 내며, 그 밖의 다른 것들도 거기서 도덕적 교훈으로 해석되어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사건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묘사된 것들은 알레고리적인 방식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미래의 예언이자 이전에 예언된 것들의 성취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암나귀와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심으로써, 이에 대해 예언했던 이사야와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셨으니[464]; 또한 그들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훗날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분의 새로운 예언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 골로티우스는 마태복음 주해 제6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분께서 친히 (나귀에) 타셔서 이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다시금 예언을 시작하셨으니, 이를 통해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골로티우스의 말씀입니다[465]. 마찬가지로 성 테오필락트도 요한 복음서를 해석하며,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카리아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의 딸아,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시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느니라'[466], 이는 또한 장래의 모형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입에서 나온 부정한 자들의 형상인데, 그 위에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사, 말처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굴복시키시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바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하시며, 그분에 대해 미리 예언했던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표로 삼아 자신의 예언을 시작하셨고, 그 일들은 후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예표들은 영적인 이성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복음서와 그 밖의 교리 서적들에는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한 이러한 해석이 담겨 있는데, 이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실 그 자체입니다.

---

[463] 마태복음 14:13, 14, 19.

[464] 마태복음 21:4 이사야 62:11. 스가랴 9:9.

[465] 221쪽 뒷면.

[466] 요한복음 12:15.

만일 백성들에게 빵을 나누어 준 일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빵 다섯 개를 떼어 오천 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너희가 빵 부스러기를 몇 바구니나 채웠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467]. 또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 아니냐"[468].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짓인가?

만약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비유일 뿐 실제 사건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이 와서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왜 멀리 떨어져 있었겠는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께 그들과 함께 머물러 달라고 간청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르셨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네 말 때문만이 아니라[469]"라고 했습니다.

만약 나사로의 부활이 비유일 뿐 실제 사건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되었겠는가?[470] 또한 대제사장들이 라자로까지 죽이기로 의논한 것은[471]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비유는 실체가 아니라 말에 불과한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또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리스도의 사건이 비유일 뿐 실제 일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 처형 또한 비유로 여겨질 것이다. 무덤에 안치되심과 부활하심도 비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가 환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뿐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고대의 마니교 이단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성을 잃은 분열주의 거짓 교사들과 왜곡된 해석자들의 극단적인 광기입니다.

다섯 번째 선언

복음서에서 실제 사건은 무엇으로 식별되며, 비유는 무엇으로 식별되는가?

거룩한 복음서에서, 신성한 전례 중에 그리스도의 어떤 행적이 설교될 때, 복음서 봉독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그 때에"; 반면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씀하신 어떤 비유가 설교될 때는, 복음서 봉독이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여기서, 오, 비뚤어진 해석자들아, 떡에 관한 복음과 사마리아인에 관한 복음, 나사로에 관한 복음,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에 관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라.

떡에 관한 복음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그 무렵,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472]."

사마리아인에 관한 복음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시하르라는 마을에 이르셨다[473].

나사로에 관한 복음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그 무렵, 벳아니아에 나사로라는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474].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야기에 대해 복음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그곳은 나사로가 죽었던 곳이었다."[475].

---

467 마가복음 8:18, 19.
468 요한복음 6:26.
469 같은 책 4:40, 42.
470 요한복음 11:45.
471 요한복음 12:10.
472 마태복음 14:14.
473 요한복음 4:5.
474 같은 책 11:5.
475 같은 책 12:1.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제 행적이었으니, 비유처럼 시작되지도 않았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도 기록되지 않았으며,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고"와 같은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비유이고, 어떤 것은 그분의 기적적인 행적이다. 행적은 행적대로 역사적인 이야기로서 글에 기록되어 전파되지만, 비유는 비유대로 은유적인 말로 전해져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행적 중에 장래를 예표하는 것들은 신비로운 것으로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 진리를 깨닫고, 눈먼 자들은 복음의 진리의 빛을 보게 되며, 길을 잃은 자들은 바른 길로 인도받게 하라. 그리고 복음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행적 이야기와 비유의 본질,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제*22*장. 은밀한 자선에 대하여

또한 자선에 관해 무지한 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가르치는 바를 여기서 바로잡고자 한다.

거룩한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선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여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며, 또 "네가 자선을 베풀 때, 네 왼손이 네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하라. 이는 네 자선이 은밀히 이루어지도록 하려 함이니라[476]."라고 하셨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뜻을 지극히 단순한 무지한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말고 오직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은밀히만 베풀라고 가르친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자선을 베푸는 것이 죄라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오른손이 무엇을 하는지 얄미운 자가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해석하여, 자신들은 보는 이들의 눈앞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선을 베푸는 자들을 꾸짖고 금지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난한 자와 자신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다. 가난한 자에게는 사람들의 자선을 박탈함으로써 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을 잃음으로써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무지가 드러나고, 여기서 반박되며, 이 문제는 겸손한 나로부터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의 스승이신 성 요한 황금입과, 그의 주해를 명확히 설명한 불가리아 대주교 테오필락토스로부터 바로잡힐 것이다.

성 요한 황금입은, 마태복음 19장에 대한 설교에서 앞서 언급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앞에서 (자선을) 행하지 말라.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자도, 보이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는 자도, 역시 보이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단순히 일어나는 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살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황금입의 설교입니다. 그의 이 말씀을 성 테오필락트, 불가리아 대주교는 더 명확하게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사람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더라도, 칭찬받기 위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며, 네 상을 잃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허영심을 품고 있다면, 비록 네 보물 창고에서 베풀더라도 정죄를 받게 될 것이며, 네 상을 잃게 될 것이다. 이는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의해 고통받게 하기도 하고, 영광을 얻게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테오필락트는 오른손과 왼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왼손은 허영이며, 오른손은 자선입니다. 그러므로 허영이 네 자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테오필락트의 말씀입니다.

교회 교사들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사람들 앞에서 자선을 베푸는 것이란 보는 이들의 눈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허영과 칭찬을 얻기 위해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네 손에 있는 그 자선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칭찬을 갈망하는 그 허영심 어린 생각이 문제이다. 설령 누군가 은밀히 자선을 베푼다 해도, 허영심 어린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

[476] 마태복음 6:1, 3, 4.

는 은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그의 그 허영심 어린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테오필락트는 이렇게 말하였다. “만약 자만심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다면, 비록 네 보물창고 안에서 자선을 행한다 해도 정죄를 받게 될 것이며, 네 상을 잃어버린 것이다. 반대로, 비록 사람들 앞에서 자선을 행한다 해도, 자만심을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은밀히 행하는 것처럼 행한다면 말이다.” 금구(Zlatou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자도, 남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선이 하나님께 불쾌한 것은 아니지만, 남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자선은 불쾌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는 자선이 하나님께 불쾌한 것이 아니라, 허영심에서 일부러 행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고 칭찬받으려는 자선이 불쾌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선을 행할 때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자 니콜라이도 밤중에 숨어서 창문 틈으로 거지에게 금 세 뭉치를 던져 주곤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경건한 이들도 은밀히 베풀며, 베풀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은밀히 베풀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의 눈에서 숨길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극도로 궁핍하여 당신의 자선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가난한 이를 보게 된다면, 나중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 베풀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가진 대로 그에게 주십시오. 비록 사람들의 눈앞에서라도 주어야 하며, 무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위해 네 상을 헛되이 잃어서는 안 되니, 이는 허영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이의 필요를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만약 베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베풀 것 또한 있으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가난한 이를 지나쳤다면, 너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어긋난 죄를 지은 것이다. 완전한 사랑은 자기의 영광 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의 보상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의 칭찬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가난한 이웃을 그의 궁핍함 속에서 위로하는 것[477] 만을 바라본다.

사람들 앞에서 자선을 베풀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황금입(크리소스토모스) 및 테오필락토스의 올바른 해석에 반하여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그와 같은 자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이들은 분열주의자들이 성서와 교부들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한 것을 모두 여기에서 근거로 삼고, 그 잘못된 해석을 폭로하고 올바른 해석으로 설명하기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그들의 해석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이므로, 영혼에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이다.

제2조

제*23*장. 브리냐네의 이단적 가르침에 관하여

그들의 교리가 이단적이지 않은가*?*

이는『조사』의 첫 번째 부분, 즉 ‘신앙’에 관한 두 번째 조항에서 분명히 드러났는데, 분열주의자인 브리냐네파가 그들의 저명한 스승 아바쿰의 뒤를 이어 극심한 이단을 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삼위일체의 동질성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하나의 하나님의 아들을 두 아들로 나누고 있다.

삼위일체를 사위일체로 만듭니다.

진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고백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성 삼위일체와 별개의 보좌에 앉힌다.

---

[477] 고린도전서 13:5.

그리고 신앙의 교리와 교회의 전통에 반하는 그들의 그 밖의 이단적 주장들은 이미 그곳에서 충분히 기술되고 폭로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이단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는 영혼에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해롭기 때문이다.

제3조

제*24*장. 사각형 십자가에 대한 분파주의자들의 모독과 십자가에 관한 조사

그들의 가르침 속에 거룩한 것들에 대한 모독이 있지 않은가*?*

예로부터 교회 성물을 모독하는 사나운 이단들이 있었으니, 마치 오늘날의 브린 이단들처럼, 그들의 무덤은 목구멍이 찢어져 모독의 악취를 뿜어내는 자들이다: 그들은 성스러운 교회의 성물을 비롯한 모든 것을 심하게 모독할 뿐만 아니라, 마치 어떤 가증한 것인 양 그것을 경멸하며, 스스로를 모든 성물보다 더 높게 여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들의 악의와 광기, 완고함, 그리고 그릇된 믿음을 폭로하기 위해 그들의 모독 중 일부를 제시하고, 진리를 밝힘으로써 이에 반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그들은 네 갈래의 거룩한 십자가를 모독하며, 이를 '로마의 십자가', '텅 빈 십자가', 구약에 등장했던 여덟 갈래 십자가의 그림자, 황폐함의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우상,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인장이라고 칭한다. 그들의 모독과 편지 내용을 여기서 언급하고자 한다.

아바쿰 신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마귀가 어떻게 가련한 러시아 백성들을 속였는지: 그들은 분명히 파멸로 향하고 있다; 로마의 창녀를 사랑하게 되었으니, 네 갈래 십자가를, 참된 십자가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으니, 그 참된 십자가는 세 그루의 나무, 즉 키파리스와 페브카, 그리고 삼나무로 만들어졌으나, 그들은 그 네 갈래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새기고 있다. 그리하여 폴란드의 십자가가 되었고, 로마 교회의 사생아가 되었다.

아바쿠모프의 제자인 예로페이는 다음과 같이 비난한다*:*

보라, 이 두 부분으로 나뉜 십자가는 로마의 십자가일 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다; 그리고 교회 예식 곳곳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용되지만, 이 두 부분으로 나뉜 십자가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 꼭대기는 텅 비어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못 박히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땅 위의 십자가들은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생명의 십자가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하기 위함이지, 땅 위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만일 이 네 갈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부른다면,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을 로마의 창녀라고 부르겠다. 만일 그것을 구세주의 십자가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것을 밟아버리겠다. 우리는 몸에 두 개의 십자가를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텅 빈 것이다. 삼각형 십자가가 몸에 닿지 않도록 몸을 조심하라. 여기까지가 에로페이의 글이다.

이 글을 쓰는 나에게, 거짓과 이단,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악랄한 모독으로 가득 찬 어떤 고대의 분파적 두루마리가 내 손에 들어왔다. 그 두루마리에는 그리스도의 네 갈래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 적혀 있는데, 그것을 우상이나 적그리스도의 우상이라 칭하며, 거룩한 곳에 서 있는 황폐함의 가증한 것과 저주받은 나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악랄한 두루마리는 또한 네 갈래 십자가를 적그리스도의 인장으로 칭하고 있다. 그와 같은 거룩한 네 갈래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 곳곳에서 들리는데, 이는 분열주의자들의 악의에 찬 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세례 후 성령의 은사의 인장으로 인치어지는 거룩한 성유례에서, 네 갈래 십자가의 형상으로 기름을 바르는 성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분열주의자들은 이를 성령의 인장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인장이라 칭한다. 이 이단적인 모독은 예로부터 불링거*(Bullinger)*라 불리는 어떤 독일인 루터교 이단자가 성

유식을 모독한 데서 비롯되었으나, 어떻게 러시아 땅의 분열주의자들에게까지 스며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외국 이단자들 안에서 활동하던 그 악한 영이 러시아의 이단자들 안에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경하고 이단적인 그리스도의 네 갈래 십자가에 대한 모독은 나를 그분에 대한 열정으로 일으켰으며, 모독자들을 반박하고, 거룩한 십자가의 모든 힘이 그 네 갈래에 있음을 분명히 증언하게 했다. 만일 주님의 십자가에 횡목이 있었고, 받침대가 있었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여덟 갈래 십자가를 그리거나 만들었겠는가? 그러나 횡목과 받침대는 짧은 가로대일 뿐, 십자가의 폭이 아니라 길이에 속해 있었다. 반면 십자가 자체는 네 갈래로 되어 있으며, 여덟 갈래로 보이지 않는데, 이는 두 팔을 벌린 사람의 형상을 닮아 우리 구세주를 품고 계시며, 그분께서 그 위에 지극히 순결하신 두 손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날처럼 불필요한 여덟 갈래 모양으로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는 여덟 갈래 십자가를 비방하지도, 배척하지도 않으며,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경건하게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숭배한다.

그러나 우리는 네 갈래 십자가에 대한 모독을 반대합니다.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표징이자 성령의 은사의 인장으로, 우리의 세례 때 미로 성유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표기된 것이며, 이를 통해 교회의 모든 성사가 축복받고, 거룩하게 되며,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그릴 때, 여덟 갈래가 아닌 네 갈래의 십자가를 마음에 그리며 표를 씁니다.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도 여덟 갈래가 아닌 네 갈래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자들의 모독하는 입이 막히게 하려니와, 우리는 여기서 네 갈래 십자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구약 시대에 네 갈래 십자가가 있었는가, 아니면 여덟 갈래 십자가였는가?

2)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는 로마식 십자가였는가, 아니면 브린식 십자가였는가?

3) 네 갈래 십자가가 로마의 십자가인가?

4) 네 갈래 십자가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이나 우상 숭배의 대상이며,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가증한 황폐함인가?

5) 네 갈래 십자가가 적그리스도의 인(印)인가, 혹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러나 네 갈래 십자가에 대해 제기된 이러한 논점들을 조사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나무에 대한 지식을 여기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십자가에 관한 예언이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60장과 예수 시라크의 24장입니다. 이제 이 두 구절을 그 해석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바논의 영광이 향나무와 노래하는 자와 삼나무와 함께 네게로 올 것이니라[478] ." 이 말씀의 해석은 두 가지, 즉 역사적 해석과 영적 해석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해석은 십자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재건된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것이다. 이는 먼저 유대 땅이 황폐해질 것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이다. *"*도시들은 사람이 살지 않아 황폐해질 것이며(그가 말하되), 집들은 사람이 없어 비어 있을 것이며, 땅은 텅 비어 남으리라[479] ." 이 예언이 이루어지려 할 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였고, 그때 유다의 왕도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으며, 솔로몬의 성전은 불타고 파괴되었고, 그 땅은 텅 비어 버렸다 . 또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사람들이 돌아온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부흥에 대해서도 예언하였다. "깨어나라(그가 말하되), 깨어나라 예루살렘아, 네게 빛이 왔고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비추었느니라.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네 자녀들을 보라. 보라, 네 모든 아들들이 먼 곳에서, 곧 바빌론에서 돌아왔느니라[480] ." 예루살렘 성전

---

[478] 이사야 60:13.

[479] 이사야 6:11.

[480] 같은 책 60:1, 4.

의 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레바논의 영광이 향나무와 백향목, 삼나무와 함께 네게 올 것이니, 이는 마치 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가져온 향나무와 백향목, 삼나무로 성전을 장식했던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족속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조상인 조로바벨 왕도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황폐해진 성전을 재건하고, 같은 키파리스나무, 피브나무, 삼나무로 그것을 장식하였다. 이것이 성경 본문 자체에 따른 역사적 해석이다.

반면 그 예언적 말씀들의 영적 해석은, 새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관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모으신 교회이며, 그분의 은혜의 영광으로 비추시고 계속 비추시는 교회이며, 성령의 은사로 장식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의인들은 마치 레바논의 삼나무와 같이, 또 다른 향기로운 나무들처럼 자라나고, 번성하며, 영적인 교회와 성령의 성전으로 세워지니,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라"[481] . 또한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482] . 그 새로운 예루살렘, 곧 거룩한 교회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기로 원하신 십자가 나무인 레바논의 나무로 말미암아 영광이 임하였으니, 교회 오크토이히에서 그 나무가 키파리스, 페브카, 그리고 삼나무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나무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적용됩니다. 제2음조, 수요일 아침 예배, 제9곡, 제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주님, 자비로움으로 인해 키파리스와 페브케, 그리고 삼나무 위에 높이 들려지신 것이 보였나이다." 또한 제3음조에서는 수요일과 금요일 아침 예배에서 다음과 같은 세달렌이 있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이시여, 키파리스와 페브케, 그리고 삼나무 위에 높이 들려지셨나이다." 또한 『옥토이흐』의 다른 구절들과 그 밖의 교회 서적들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발견됩니다.

그 나무들 중에서 삼나무는 알고, 키파리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으나, '페브카'가 어떤 나무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소나무라고 말합니다. 키예프 출신의 예피파니우스 신부, 즉 성 바실리우스 대주교의 『6일 주일』을 헬레니즘 그리스어에서 슬라브어 방언으로 번역한 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는 제5장 16쪽 뒷면, '페브카'라는 단어 맞은편에 '소나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다. 솔로몬과 소로바벨도 썩지 않는, 즉 쉽게 썩지 않는 나무로 지은 건물로 성전을 장식했기 때문이다. 삼나무와 사이프러스는 천 년이 지나도 썩지 않을 수 있지만, 소나무는 겨우 백 년 정도만 온전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예수 시라흐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그 지혜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아에르몬 산맥의 사이프러스처럼, 해안가[483] 에 있는 야자나무(혹은 피닉스)처럼 높이 솟아올랐다." 시라코의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며, 그 안에 삼나무, 측백나무, 그리고 대추야자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의아한데, 여기서는 대추야자나무가 언급되었지 측백나무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측백나무와 대추야자나무, 즉 야자나무가 사실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십자가에 야자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카르타고의 주교이자 성 키프리아노 성순교자, 가장 오래된 교회의 스승은 그리스도 주님께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님, 주님은 야자나무에 오르셨나이다. 이는 주님의 십자가 나무가 마귀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였기 때문이니[484] ." 여기까지가 키프리아노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은 틀리지 않으니, 고대인들에게 야자나무는 언제나 원수에 대한 승리와 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주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서, 그리고 야자나무가 십자가가 될 것을 미리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 야자나무 가지로 그분을 맞이하였다. 또한 성경의 또 다른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내가 야자나무 위로 올라가 그 꼭대기를 붙잡으리라"[485]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카시오도르와 성 키

---

[481] 고린도후서 6:16.

[482] 고린도전서 6:19.

[483] 시라 24:14 및 15.

[484] 그의 기념일: 8월 31일.

프리아누스는 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에 대한 비유로 해석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를 붙잡으시고, (이 세상의 어둠을 다스리는 자들인)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무력화시키셨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야자나무는 삼나무와 키파리스처럼 썩지 않는 나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 야자나무와 찬송가에서 언급된 것이 동일한 것인지 , 아니면 다른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깊이 따질 필요는 없다. 이는 신앙의 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주님을 믿을 뿐, 십자가를 이루는 나무들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네 갈래 십자가에 대한 탐구도 앞서 언급되어 있으니, 비록 기이할지라도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닌,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한다.

여러 책에서 모아진 십자가 나무에 관한 이야기.

『이해의 열쇠』라는 책*(*리비우 인쇄본*)* 중, 존귀한 십자가의 봉헌에 관한 설교, 335쪽.

요한 카르파엔의 저서 제10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설교 19편.

니콜라이 리란의『요한 복음 주석』제5장.

야코프 베르고미타의『연대기』, 59쪽.

나브클이라라고 불리는 요한 연대기 작가, 163쪽.

그리고 외국 방언으로 기록된 다른 저자들의 글들.

또한, 비록 표현은 다르지만, 러시아 필사본인『이즐브라니크』에도 기록되어 있다.

아담이 죽을 병에 걸리자, 아들 세이프를 낙원으로 보내, 낙원을 지키는 천사에게 건강을 지키고 지상에서 삶을 연장할 수 있도록 치료법을 청하게 하였다. 그 치유는 자비의 기름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을 그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나, 결국 그를 낙원에서 쫓아내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기름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니, 바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땅으로 보내신 것이다. 아담은 그 물질적인 치유의 기름을 생각하며, 그것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이것이 놀랍지 말아야 하니, 시프라는 이 사람이 천사에게 보내졌기 때문이다. 시프가 천사와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태어난 지 10년이 되던 어린 시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사에 의해 높은 곳으로 데려가져, 수많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지식과 산속 생물들의 배열을 배웠으니, 곧 하늘의 움직임, 태양과 달, 별들의 운행, 그리고 천상의 행성들의 구조와 그 작용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콘스탄티노플의 게오르기 케드린이 자신의 역사서에서 이를 증언하고 있다. 아담의 아버지께서 낙원을 지키시는 천사에게 이와 같은 이를 보내셨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천사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금단의 나무에서, 아담이 그 열매를 맛봄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바로 그 나무에서, 아담에게 세 알갱이를 주었는데, 이는 인간의 죄가 시작된 바로 그 나무로부터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시프는 천사에게서 그 씨앗들을 받아 자신의 아버지 아담에게로 돌아갔으나, 아담은 이미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에 없었고, 죽어 묻혀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 씨앗들을 아버지의 무덤 곁 땅에 심었다. 그 씨앗들로부터 삼나무, 사이프러스, 대추야자, 즉 야자나무 (혹은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그 싹들은 하나의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으니, 뿌리부터 꼭대기까지 하나의 나무였으나, 꼭대기에서는 각 나무의 가지들이 따로 갈라져 나갔다. 그 나무는 솔로몬 왕의 시대까지 남아 있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소(성소 중의 성소)를 건축할 때, 사방에서 가져온 훌륭한 나무들이 많았기에, 그 나무도 훌륭한 것으로 여겨져 베어졌으며, 예루살렘의 건축 현장으로 운반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 건축에 사용되지 못하고, 어떤 곳에서는 오랫동안, 어떤 곳에서는 잠시 머물렀다. 그 때문에 그 나무는 성전 벽 옆의 헛간에 남겨져, 찾아오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하고, 수고에서 쉬고자 하는 이들이 쉴 수 있게 하였다. 그때 사바의 여왕 니카블라, 곧 고대 예언자 중 한 명이자 시빌라로 불리던 이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녀는 경이로운 성당 건물을 둘러보던 중 그곳에 있는 그 나무를 보고 경악하며, 예언의 영으로 말하기를, 그 나무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죽으실 것이라고

---

[485] 아가 7:8.

예언하였다. 러시아의 책인『이즈브라니크』라고 불리는 책도, 그때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예언이 전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 삼중으로 복된 나무여, 그 위에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리라!"

그 때문에 그 나무는 솔로몬 왕의 명령에 따라 양 목욕탕 옆 땅속 깊숙이 묻혀, 결코 사람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의 섭리로 땅에서 솟아나와 양 목욕탕의 물 위를 떠다녔다. 그 나무 때문에 주님의 천사가 매년 여름마다 그 목욕탕에 들어가 물을 휘저으며[486], 그 나무를 씻어 주었고, 물이 휘저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목욕탕에 들어간 병자에게 치유의 은혜가 주어졌다. 그 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땅에 나타나셔서 사람처럼 사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분을 붙잡아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으며, 그리스도께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 십자가에 얹을 가장 무거운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세례탕의 물 속에 잠겨 있던 앞서 언급한 양가죽으로 된 나무 를 발견했는데, 물에 젖어 매우 무거웠기에, 그것을 거기서 꺼내 십자가를 만들 재료로 주었더니, 그 나무가 너무나 무거워 누군가가 그것을 운반하는 데 그리스도께 도움을 주어야 할 지경이었으므로, 시몬 키리아이스를 시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증하지도 않고, 일부 사람들이 이를 외경(위작)으로 여기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으니, 이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으며, 전능하신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바는, 주님의 십자가가 삼나무, 키파리스, 야자나무 또는 페브크 나무 등 세 그루의 나무가 하나로 합쳐진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네 갈래 십자가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이 점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발받침대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십자가에 걸린 표지판은 복음서에 언급되어 있지만, 발받침대는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하리라: 발판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다고. 다윗이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시고*,* 그분의 발판에 경배하라. 이는 거룩함이니라"[487]. 또한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말하기를, *"*내 발의 자리를 영화롭게 하리라"[488]. 우리는 이 두 예언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고, 어느 발판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발등상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배하라고 명해진 발등상이 있고, 경배하라고 명시되지 않은 발등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의 발판이라"[489] 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발판인 땅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우편에 앉으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 삼으리라*'* 하셨느니라"[490].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발등상, 곧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누가 경배하려 하겠는가? 다윗은 도대체 어떤 발등상에게 경배하라고 명령하는 것인가?

다윗의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다: 성경 본문 자체에 따른 해석과 성례에 따른 해석이다.

문자적 해석은 이러하니,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살아 있었고, 언약의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 있었으니, 그 성막은 하나님의 발판이라 불리는데, 이는 역대하 28장에 기록된 대로, 다윗 왕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님의 언약궤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발판이 쉴 집을 지으리라"[491]. 그런데 왜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 불렀을까? 그 이유는 언약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언약궤 위로 펼쳐진 그들의 날개 사이에, 순금으로 된 덮개가 날개들에 의해 지탱

---

486 요한복음 3:4.

487 시편 98:5.

488 이사야 60:13.

489 이사야 66:1.

490 시 109:1.

491 역대기상 28:2.

되어, 마치 성막을 덮는 덮개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보좌나 왕좌와 같은 모양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아 계신다고 믿었으니, 바로 그 시편의 첫 번째 절에 "케루빔 위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기록된 것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석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말씀을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케루빔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든 눈에 보이는 금으로 된 케루빔, 곧 언약궤 위에 세워진 것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서 네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두 케루빔 사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정결소 위에서 네게 말하리라"[492] 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케루빔들 사이에 금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 보좌는 케루빔들의 날개로 지탱되고 있었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었으므로, 그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판'이라 불렸으며, 다윗은 그 앞에 경배하라고 명했습니다. "그의 발의 발판에 경배하라. 이는 거룩함이니라"[493] . 이것이 성경적 해석입니다.

그러나 신비적인 해석에 있어 성 아타나시우스 대주교와 다른 성부들은 하나님의 발판이 곧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이해합니다. 아파나시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살아 계신 하나님, 그분의 발 아래 모든 피조물을 두신 분께서 변함없이 사람이 되셨으니, 이는 우리 본성과 연합하신 것이며, 그 본성이 바로 그분의 발판입니다." 또한 키예프의 위대한 인쇄판 시편집, 즉 여백에 해설이 실린 책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판은 땅이며, 지극히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은 땅에서 지극히 순결한 동정녀의 몸에서 취해졌으니,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신성과 하나의 위격으로 연합하셨으므로, 그분은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하시다."

이 두 해설, 즉 글자적 해석과 성사적 해석 모두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듯이, 여기서 언급된 발판은 십자가에 만들어지거나 그려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거룩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니, 십자가를 위해 부르는 프로키멘이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 주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분의 발 의 발판에 경배하라. 이는 거룩하니[494] ."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발판처럼 눈에 보이는 작은 일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이사야의 말씀, "내 발의 자리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구절은 러시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트리오디와 파레미아, 즉 대토요일에 낭독되는 구절들에서만 발견되며; 그 말씀들은 로마 가톨릭 성경, 즉 히에로니무스의 번역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말씀들에 대한 문자적 해석은 앞서 언약궤에 대해 언급한 것과 동일하며, 성사적 의미에서는 거룩한 교회에 관한 것이다: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싸우는 그분의 거룩한 교회를 발판으로 삼으시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받침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도, 신성한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성 안토니우스의 성구들 중에는, 거룩한 성작 위에 받침대 없이 네 갈래로 뻗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으며, 그리스도의 칭호가 나무판이 아닌 종이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495] . 우리는 십자가 받침대에 그려지거나 새겨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대의 성서들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나 확실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릴 뿐입니다.

더욱이 분열주의자들의 두루마리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으니, 이는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인가:

십자가 받침대에 관하여 『알파비트』의 질문을 보라: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른쪽 받침대 쪽은 산이 솟아오르는 것으로, 왼쪽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묘사하는가?" 해설: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오른쪽으로 기울이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머리를 숙여 그분을 믿고 경배하게 하려 하심

---

[492] 출애굽기 25:22.

[493] 시 98:5.

[494] 시 98:5.

[495] 8월 3일.

이며; 오른쪽 발은 그 때문에 가볍게 하여, 그분을 믿는 자들의 죄가 가벼워지고, 재림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가게 하려 함이며; 왼쪽 발은 그 때문에 무겁게 하여, 발이 아래로 향하게 함으로써,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이 무거워져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려 함이다. 여기까지가 그 해석이다.

나는 그 추론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반하는 것도 아니며, 거룩한 믿음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나, 단순한 사람들이 그 우화를 마치 복음의 진리 그 자체인 양 믿고 있는 것을 듣기 때문에; 흠 없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어떠한 우화적인 추론이나 자의적으로 지어낸 해석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오직 신성한 성경에 근거해야 하고, 위대한 우주적 스승들(평범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아니라)의 참된 해석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의 진리를 위해 열심을 내며, 주교의 직분을 지키면서, 그 거짓된 추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십자가의 받침대가 비스듬하든 아니든, 나는 그 받침대를 딛고 경배하며, 십자가 제작자와 설치자들의 관습에 따라, 교회에 반하지 않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관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분열주의자들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십자가 받침대의 비스듬함에 대한 해석은, 고대 성부들과 주석가들 중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열주의자들의 모독에 대항하여 제시된 앞서 언급한 주장들을 검토해 보겠다. 그들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네 갈래 십자가가 여덟 갈래 십자가의 그늘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덟 갈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 그늘과 형상은 단순한 네 갈래 십자가였으며, 이미 그 네 갈래 십자가는 마치 로마의 십자가와 황폐함의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의 우상,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인장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 진실을 찾아보자.

첫 번째

네 갈래 십자가는 구약성경에서 여덟 갈래 십자가의 형상을 나타냈는가?

만약 분파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네 갈래 십자가가 여덟 갈래 십자가의 모형이었다면,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네 갈래 십자가가 실제로 어떤 물질로 만들어져 특정 장소에 세워져 있었음을 온갖 방법으로 입증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니 분열주의자들은 우리에게 구약성경에서 네 갈래 십자가가 어디에 나오는지 보여 주겠는가? 아니면 적어도 '십자가'라는 이름이 러시아어 성경의 구약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말해 주겠는가? 또한 성부들(자신들의 브린파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로부터 어떤 증거를 제시하여, 구약성경에 네 갈래 십자가가 여덟 갈래 십자가의 형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겠는가? 의심스러운 주장에는 확실한 증거 없이는 믿음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분 앞에 이 문제를 조사하며, 구약 성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안에 네 갈래 십자가가 언제든지 등장했는지, 아니면 적어도 '십자가'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 즉 러시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비밀리에 십자가를 형상화한 구절들( )을 제외하고는,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낸 것들 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약 구약성경에서 십자가나 '십자가'라는 명칭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떤 죄로 인해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기원과 예표에 대한 고찰

먼저 이 점을 분명히 해 두자. '십자가'라는 이름은 구약성경, 특히 러시아어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여기서는 다른 언어로 된 외국 성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러시아어 성경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러시아인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어 성경을 능숙하게 읽는 독자는 누구인가? 누가 구약성경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았는가? 그 안에서 네 갈래 십자가를 발견했는가? 아니면 적어도 '십자가'라는 명칭이라도 발견했는가? 러시아의 분파주의자들이 사방에서 모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러시아 성경의 구약성경을 새로운 은혜, 즉 복음(내가 말하노니)이 전해지기 전까지 부지런히 읽어본다 해도, 그곳에서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비록 구약성경에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암시하는 것들이 많았을지라도, 정작 '십자가'라는 이름 자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 예표들이 '십자가'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도 십자가에 관한 기록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께 계시받은 몇몇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알려졌을 뿐이다. 그러나 이미 새로운 은혜 안에서, 구약의 율법을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하여 그것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임을 알아낸 기독교인들에 의해 그 예표들이 밝혀졌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여기서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형적이면서도 뚜렷한 사물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기적적인 힘을 지닌 것들이었다.

이것은 인간의 행적 속에서, 예언적으로 미래를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성스러운 조상들과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환상과 계시 속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예표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과 형상을 은밀히 묘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 힘과 형상을 함께, 나아가 주님의 고난 그 자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예표와 그 그림자를, 감각으로 알 수 없는, 그러나 위대하고 기적적인 사물들 속에서 보여주었다.

태초에, 낙원 한가운데 있던 생명나무는 땅 한가운데 세워질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그 그림자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성 요한 다마스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존귀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낙원에 심으신 생명나무를 형상화한 것입니다[496]." 여기까지가 다마스쿠스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낙원의 나무의 열매는 생명을 주는 것이어서, 그것을 먹는 자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기 때문이니,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열매인 그리스도는 그것을 맛보는 자에게 끝없는 생명을 주시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497]. 그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교회에서 이르모스에서 생명나무로 불리는데, 거기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땅에 심겨진 십자가는 생명을 주는 나무라"[498].

여기서 나는 구약성경에서 십자가가 네 갈래이며 그 그림자가 여덟 갈래라고 말하는 분열주의자들에게 묻노니, 우리에게 말하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곧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그 나무가 과연 네 갈래였는가, 마치 네 갈래 십자가와 같이?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는, 그 덕분에 인류가 전 지구적 대홍수에서 구원받았는데: 그 방주(모스크바에서 요시포프 총대주교 재임 시절인 7156년에 인쇄된, 저자 미상의 『신앙에 관한 책』 67쪽 뒷면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는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그 형상을 닮은 것으로, 이를 통해 기독교인류가 죄의 대홍수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묻노니, 주님의 십자가를 형상화한 그 방주는, 마치 네 갈래 십자가와 같이 십자형이었는가?

아버지에 의해 하느님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이삭이 자신의 어깨에 메고 갔던 장작은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경건한 에프렘은 다음과 같이 묵상한다. "이삭이 장작을 지고, 악의 없는 어린 양처럼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듯이, 구세주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어린 양처럼 희생당하기 위해 십자가 처형장으로 향하셨다." 칼을 볼 때, 창을 이해하라. 제단을 생각할 때, 십자가의 장소를 보라. 그리고 장작더미 (дровныя)를 볼 때, 십자가[499] 를 이해하라. 여기까지가 에프렘의 말씀이다. 묻노니: 주님의 십자가를 형상화한 그 장작더미들은, 네 모서리가 있는 십자가처럼 네 모서리가 있었는가?

---

496 전서 4장 12절.

497 요한복음 6:54.

498 센텐티아 14, 제9편.

499 성 에프라임,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설교 109.

이집트에서 통치했던 요셉의 지팡이, 곧 그 지팡이 끝을 야곱이 경배했던[500], 이는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그 그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십자가 높이 들림 축일의 캐논, 제7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팡이가 요셉의 땅을 감싸리니, 장차 이스라엘이 볼 것이요, 위엄 있는 왕국이리니: 이는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드러남으로써 그 위엄을 나타내리라.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그 요셉의 지팡이는, 네 갈래 십자가와 같이 네 갈래였을까?

또한: 모세의 기적의 지팡이는 뱀으로 변하여 마법의 뱀들을 삼키고, 이집트의 물을 피로 바꾸며, 이집트인들에게 다른 재앙들을 내렸던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또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는 마른 길을 만들어 주었으니, 이는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그 그림자처럼 작용하여 지옥의 뱀들을 멸절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물들이며,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국으로 가는 편리한 길을 마련해 주려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의 지팡이는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이니, 과연 네 갈래로 갈라진 십자가처럼 네 갈래였을까?

마찬가지로 아론의 지팡이도 싹이 트고 그늘을 드리운 것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였으니, 교회가 노래하듯이: *"*지팡이는 신비의 형상으로 받아들여지나니*,* 싹이 트는 것으로 제사장을 예표하며*,* 이전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던 교회가 이제 십자가의 나무로 번성하리라"*[501]* .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그 아론의 지팡이는, 네 갈래 십자가와 같았는가?

쓴 메레의 물에 담가져 그 괴로움을 달게 한 나무[502] 는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그 그늘이 되었다. 이와 같이 십자가 높이심 축일 캐논의 4번째 찬송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옛날 광야에서 모세가 쓴 샘물을 나무로 바꾸어, 이방인들의 경건함을 위한 십자가의 변화를 나타내셨도다." 마찬가지로, 축일 전 카논의 저자인 요셉은 제5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이전에 메르레의 물을 달게 하여*,* 그 나무로 네게 존귀한 십자가를 상징하며*,* 그로써 인간에게 구원의 달콤함을 쏟아 부으셨도다*[503]* ." 그 나무, 메르르의 물을 달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형상화한 그 나무는, 네 갈래로 뻗은 십자가처럼 네 갈래였을까?

예언자 데보라가 그 아래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던 야자나무[504] 는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그 그늘을 드리운 것이었으니, 주님께서는 그 위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에게 심판을 내리사 그를 쫓아내셨다: "이제(그가 말하길)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였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는 쫓겨날 것이다"*[505]* . 그 데보라의 야자나무, 곧 주님의 십자가를 닮은 그 나무는, 네 갈래로 뻗은 십자가처럼 네 갈래로 갈라져 있었는가?

삼손이 그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쳐 죽였으나, 목마름을 느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턱뼈에 구멍을 내시니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 그가 마셨다*[506]* . 그 턱뼈는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었으니, 영적인 삼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옥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시고, 당신의 지극히 순결한 갈비뼈에 상처를 내시어 피와 물의 샘을 솟아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을 적셔 주셨습니다. 그 나귀 턱뼈는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였는데, 과연 네 갈래로 갈라진 십자가처럼 네 갈래였을까?

다윗의 거슬, 곧 다윗 자신이 달콤한 노래로 사울에게서 그를 괴롭히던 더러운 영을 쫓아냈으니, 이는 "[507] "이라 한 바와 같다. 그 거슬은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으니, 그 위에 그리스도의 육신이

---

[500] 창세기 47:31.

[501] 『센텐티아』 14, 제3가.

[502] 출애굽기 15:25.

[503] 제13편.

[504] 사사기 4:5.

[505] 요한복음 12:31.

[506] 사사기 15:19.

마치 거슬판 위의 현처럼 뻗어 있었다. 그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달콤한 기도를 노래하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러자 악한 영들은 멀리 도망쳤으니, 자비로우신 주님의 자비로 이겨지고 쫓겨난 것이었다.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형상화한 다윗의 거문고는, 네 갈래로 뻗은 십자가처럼 네 갈래였을까?

다윗의 몽둥이에는 개울에서 골라낸 다섯 개의 좋은 돌이 달려 있었는데, 다윗은 바로 그 돌들을 가지고 골리앗을 맞서 나갔으니, 그 거인이 다윗에게 직접 말하기를 *"*내가 개나 다름없기에*,* 네가 몽둥이와 돌[508] 만으로 나를 맞서려 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 지팡이는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그 그늘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다섯 개의 좋은 돌들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다섯 가지 상처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다윗의 지팡이는, 네 갈래 십자가처럼 네 갈래였을까?

엘리사벳이 물속에 던져 넣은 나무는, 물속에 가라앉은 쇠가 물 위로 떠오르게 한 것[509] 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성 테오도르 스투디트는 십자가 경배 주간의 캐논, 제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엘리사야, 선지자여, 그대가 물속에 던진 그 나무가 무엇인지 말하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썩어가는 깊은 곳에서 건져 올려졌느니라." 그러니 엘리사베의 나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그 나무는, 네 갈래로 뻗은 십자가와 같이 네 갈래였을까?

그 밖에도 구약 성경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를 모두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탐구하고 있는 이 주제를 설명하는 데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오직 한 가지만 더 상기해 보자. 아모니의 총독 아키오르가 올로페르네에 의해 베풀리야 성문 앞에서 손과 발이 묶여 있던 그 나무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이었다[510] . 이에 대해서는 유디트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원하시는 분은 거기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는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앞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아키오르의 나무, 즉 주님의 십자가를 형상화한 그 나무는, 네 갈래로 뻗은 십자가처럼 네 갈래였을까요?

구약성경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그 그림자를 비추는 것들이 무형의 사물들 속에서 나타났으며, 그중 일부는 네 갈래 십자가와 같이 네 갈래로 되어 있었다. 구약성경에서 네 갈래 십자가가 여덟 갈래 십자가의 예표가 될 수 있었겠는가? 물질적인 예표와 상징들 속에서 네 갈래 십자가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혹시 분열주의자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그 나무[511] 가 네 갈래 십자가였다고 말할까? 왜냐하면 성화 화가들도 뱀이 나무 위에 들어 올려진 모습을, 네 갈래 십자가와 닮은 형태로 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의 성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깃발 위에 세웠다." 어떤 깃발 위에였는가? 혹시 누군가 십자가 깃발 위에였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그리스어 성경의 해당 구절을 살펴보아, 그곳에서 읽고 깨달아야 하리니, 그 깃발은 십자가 깃발이 아니라 군대 깃발, 즉 군용 깃발, 다시 말해 깃발이나 군기였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군대에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와 12명의 지도자가 있었듯이, 12개의 깃발, 즉 군기(십자가가 아닌)가 펄럭였기 때문이다; 이는 민수기 2장에 기록된 바와 같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계급과 깃발*,* 그리고 그들의 조상의 집안[512] , 즉 그들의 족보

---

[507] 사무엘상 16:23.

[508] 같은 책 17:43.

[509] 열왕기하 6:5, 6.

[510] 유딧 6:10, 11.

[511] 민수기 21:8, 9.

[512] 민수기 2:1.

에 따라 어떻게 편성해야 할지 가르치셨다. 각 족보의 사람들은 자기 군대와 깃발을 따랐다[513] . 모세가 광야에서 군대의 깃발로 뱀을 들어 올렸는데, 그리스어 본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ἐπὶ σημείου, 즉 깃발 위에[514] . 이 성경 구절을 성스러운 순교자 유스티노스 철학자도 자신의 『변증서』에서 인용했는데, 그는 로마 황제 안토니누스에게 쓴 이 글에서 모세가 그 뱀을 깃발(기)의 창 끝에 높이 들어 올리고,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교회 대신이 되었던 성막 위에 세웠다고 전하고 있다[515] . 그 깃발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표한 것이자 그 그늘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할 것이다"*[516]* . 그러나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모세가 뱀을 올려놓은 그 나무는 네 갈래로 뻗은 십자가의 형상이 아니라고 한다. 설령 뱀이 네 갈래로 뻗은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해도, 깃발이나 기에 그려진 것과는 달리: 요셉, '십자가 높이 들기' 전의 캐논에서, 시편 8편에서 말하듯이: *"*나무 위에 높이 들어 올리라*,* 뱀을 대적하여*, ' '*라고 기록된 대로*,* 모세가 그 지극히 거룩한 나무를 세웠으니*[517]* ; 깃발 위에 놓인 뱀을 대적하여, 네 갈래 십자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나무 자체는 네 갈래로 나뉜 십자가처럼 네 갈래가 아니었다. 만일 그 나무가 네 갈래였다면, 그것은 여덟 갈래가 아닌 네 갈래 십자가의 형태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화 화가들이 십자가 모양의 나무 위에 뱀을 그리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그리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성화를 그릴 때, 성모 마리아가 구유 곁에 누워 있는 모습을, 마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병든 것처럼 묘사하는데, 비록 그녀가 병 없이 아이를 낳았고 누워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마치 부정에서 벗어난 것처럼 여인이 안고 씻겨 주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정 없이 태어나셨고, 탄생 시 여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셨으며, 이는 우리 책의 12월 25일,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글에서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성화 화가들에 대해 이 점도 언급하고자 한다. 어떤 경건한 수도원의 교회 현관에서 벽화를 보았는데, 그 그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이 가시적인 세상이 묘사되어 있었는데, 그 글에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었다. 침대가 서 있고, 침대 위에는 베개가 깔려 있으며, 그 베개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워 계시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라고 적혀 있었다. 아,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필이면 하나님이 베개와 침대 위에 누워 계시단 말인가? 그 외에도 많은 터무니없는 그림들을 그리는 것이 관례가 되었으니, 예를 들어 성 크리스토퍼 순교자가 노래하는 머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나, 성 플로라와 라우라 순교자가 말과 함께 있는 모습 등이 그러하다. 이는 모두 허구일 뿐이다. 그들은 십자가 모양의 나무 위에 뱀을 그리는 것과 같은 식으로 그렸으나, 이는 교회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분열주의자들을 위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일 뿐이다. 그 나무는 네 갈래 십자가가 아니라 군대의 깃발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마치 그것이 네 갈래 십자가인 양, 여덟 갈래 십자가의 지붕이나 네 갈래 십자가의 상징인 것처럼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지붕(그들의 추론에 반하여 말하건대)은 그 지붕이 있는 대상의 형상을 닮아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사람이 낮에 걸어갈 때 우리 눈이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면, 그 그림자가 온전히 사람의 형상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과 같다. 사람은 머리가 하나뿐이므로, 그 그림자가 두 개의 머리를 보여주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두 손을 가진 사람의 그림자도 네 개의 손을 보여주지 않는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그 기구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 만일 그 기구가 분열주의자들의 견해(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에 따르면 네 갈래로 나뉜 것이라면, 그것은 네 갈래 십자가의 형상이었지, 여덟 갈래 십자가의 형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

[513] 민수기 2:2.

[514] 민수기 21:8, 9.

[515] 그의 기념일은 6월 1일.

[516] 요한복음 3:14.

[517] 잠언 13장.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또 다른 예표와 그림자는 인간의 행적 속에서 나타나며, 이는 장차 올 일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준 것이다.

구약의 의인 야곱은 예언의 은사를 충만히 받은 자로서, 임종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오른손을 막내 아들 에브라임에게 얹고 왼손을 맏아들 므낫세에게 얹음으로써 자신의 양털을 바꾸었으니[518] ; 이것이 곧 십자가의 예표였다. 이와 같이 우리 정교회는 거룩한 십자가의 승천 축일에 리티아의 스티히르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야곱 총대주교가 손을 바꾼 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위엄 있는 표징으로 드러내소서"*[519]* . 이에 분열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여덟 갈래 십자가의 지붕을 덮는 네 갈래 십자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야곱의 손이 십자가 모양으로 놓여 있었던 것은 그 자체가 네 모서리 십자가도 아니었고, 그곳에 십자가라는 이름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단지 십자가의 은밀한 형상일 뿐이었다; 그 십자가는 여덟 모서리 십자가가 아니라 네 모서리 십자가였다. 만약 분열주의자들이 야곱의 그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된 손 모양이 여덟 갈래 십자가의 형상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들에게는 야곱의 손을 두 개 이상으로 그려서 끝이 더 많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집트에서의 어린 양의 피, 곧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하사 자기 집 문설주와 양쪽 문설주[520]에 바르도록 하신 그 피는 (성 키프리아누스가 가르치듯이) 거룩한 십자가의 예표였으니, 이는 그들이 먼저 문 위의 윗문설주와 아랫문설주, 그리고 양쪽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네 군데에 바른 피는 십자가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십자가를 암시하는 상징일 뿐이었다. 그곳에는 '십자가'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를 바른 이들도 그것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은혜 안에 있으며, 구약의 규례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십자가의 징표였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 십자가는 여덟 갈래가 아닌 네 갈래의 십자가였다. 만일 분열주의자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기름 바르기가 여덟 갈래 십자가를 상징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에 첫 번째 문설주와 문지방에 각각 두 개씩 더 추가하여, 이집트의 유대인 집 모든 문에 네 개의 문설주와 네 개의 문지방이 있게 함으로써, 여덟 갈래 십자가의 예표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일[521] 은 십자가의 형상을 이루었다. 모세의 지팡이가 바다의 길이를 가로질러 놓이자 십자가가 형성되었기에, 교회에서는 이를 노래하며 찬양한다: *"*모세가 곧은 지팡이로 십자가를 그어(바다를) 홍해를 가르고, 걸어가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도다*[522]* ." 그러나 그 바다를 가른 것은 십자가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십자가를 암시하는 상징에 불과했다. 당시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고, 사람들도 그것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은혜 안에 있으면서 구약의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십자가의 형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 십자가는 여덟 갈래가 아닌 네 갈래의 십자가였다. 만약 분열주의자들이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이 여덟 갈래 십자가를 상징하기를 원한다면, 왜 성 모세에게 간청하여 그가 지팡이로 바다의 길이를 가로질러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세 번 치게 하여, 그들의 소망대로 여덟 갈래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지 않았겠는가?

솔로베츠키에서 복된 기억을 간직한 신실한 차르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에게 바친 청원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보편 교회의 스승 요한 황금입은 이가 사순절 셋째 주일 주일 설교에서, 라틴식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로 여기지 않고, 단지 그 형상과 그늘일 뿐이라고 말했으며, 그 밖의 내용도 있었다. 나도 그 책을 집어 들고 그 말씀을 읽어 보았으나, 그 안에서 라틴식 십자가도, 네

---

[518] 창세기 48:14.

[519] 잠언 14장 2절. 키프리아노스의 저서.

[520] 출애굽기 12:7.

[521] 출애굽기 14:21.

[522] 제8성가, 제1곡.

갈래 십자가도, 여덟 갈래 십자가도 찾지 못했고, 오직 모세의 지팡이로 예표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언급만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 십자가가 네 갈래인지, 여덟 갈래인지는 거기서 언급하지 않고, 오직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메레의 쓴 물을 달게 하며, 마른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고, 이집트를 괴롭히며 물을 피로 바꾸고, 그 밖의 기적들을 행한 것이, 신성하고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과 그늘이었다.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과 그늘이 되었는지, 그 끝부분 때문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는 네 개의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팡이처럼 두 개의 끝만 있었으며, 그 끝들로 십자가의 형상을 이루지 않았다. 그렇다면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과 그늘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부여하신 기적의 능력 때문이었으니, 그 능력은 어떤 십자가의 형상도, 십자가 뿔의 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었으나, 그 자체로 기적적인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솔로베츠의 청원서는, 소위 '금입술'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마치 금입술이 라틴식 십자가에 대해 썼고,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처럼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 게다가 그 말씀은 금입술의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두 가지 근거로 드러난다. 첫째, 그 설교는 복음서 저자 마가를 해설하고 있는데, 성 금입의 마가에 대한 해설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마태와 요한에 대한 해설만 존재한다. 둘째, 그 설교에는 모세가 기록한 신성한 성경의 역사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 구절에는 마치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로 메레야의 쓴 물을 달게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모세는 메레키아의 물을 자신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어떤 나무로 달게 했으니, 이는 출애굽기 15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곳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를 보여 주시고, 그것을 물에 넣으시니 물이 달아졌다[523]"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로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나무가 쓴 물을 달게 한 것이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다. 유대교 랍비들은, 메레의 물을 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나무가 '아델파'라고 불리며, 그 본성상 매우 쓰고 치명적이라고 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적을 행하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 쓰라리고 치명적인 나무를 통해 쓰라리고 치명적인 물을 달콤하고 건강하게 만드셨으니, 이는 정반대의 것으로 정반대를 치유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슬픔을 예표한 것이라고 말하노니, 그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슬픔에 잠긴 인류와 죽음으로 치닫던 자들에게 구원과 불멸의 생명의 달콤함이 주어졌느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괴로움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겪는 질병과 수고, 순교자들의 고통스러운 투신, 경건한 이들의 금식 수련을 달콤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이들에게 모든 고난의 괴로움을 달콤하게 해 줍니다. 한때는 나무, 즉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광야에서 물로 인한 괴로움을 달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근거로 보아, 그 말씀은 황금입의 것이 아니라, 그다지 능숙하지 않은 다른 누군가의 것임이 드러난다. 우리는 다시 인간의 행적 속에 나타난 십자가의 예표들로 돌아가 보자.

세 성자, 곧 모세와 여호수아, 선지자 요나는 두 손을 높이 뻗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였다.

모세에 대해서는 거룩한 십자가의 승천 축일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모세는 너를 미리 예표하며, 두 손을 높이 뻗었도다. 그리고 고문자 아말렉을 물리쳤으니, 지극히 존귀한 십자가여, 신실한 자들의 찬미로다."

예수 나빈에 대해서는 그 축일의 세달나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옛날 예수 나빈은 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뻗으시며, 나의 구세주여! 십자가의 형상을 신비롭게 예표하셨나니, 원수들을 쓰러뜨릴 때까지 백 번이나 해를 막으셨도다."

요나에 관해서는 여섯 번째 찬송가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물속의 짐승 뱃속에서 요나는 두 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벌리며, 구원의 수난을 명백히 예표하였다.

---

[523] 출애굽기 15:25.

그러나 그들의 손을 뻗은 것이 바로 십자가 그 자체는 아니었으며, 단지 십자가의 은밀한 예표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손을 뻗을 때 '십자가'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선지자의 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실 고난을 예견하고, 그렇게 뻗은 두 손으로 그분께 기도하며 스스로 십자가의 형상을 이루었을 뿐이다; 십자가는 끝이 여덟 개가 아니라 네 개인 것이다. 만약 분열주의자들이 그 성인들의 두 팔을 벌린 자세가 여덟 갈래 십자가의 형상을 띠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각 사람에게 두 쌍의 손을 더 붙여, 각자에게 여섯 개의 손이 있게 하여,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소망대로 여덟 갈래 십자가가 형상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자 우리 속에서 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벌리고, 기도의 입으로 짐승들을 막아낸 다니엘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는데, 교회 찬송가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다니엘이 두 팔을 벌리니, 사자들의 벌어진 입을 구덩이 안에서 막았도다[524] . 그러나 그 두 팔을 벌린 모습과 그 형상은 여덟 갈래가 아닌 네 갈래 십자가의 형상을 띠고 있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네 부분으로 나뉘어 배치된 것[525] 은 주님의 네 갈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으니, 다음과 같다:

가운데에는 언약궤가 있는 증거의 장막과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가 있었다.

동쪽 앞쪽에는 유다 지파, 잇사갈 지파, 즈불론 지파의 세 군단이 있었다.

뒤쪽 서쪽에는 세 대대, 곧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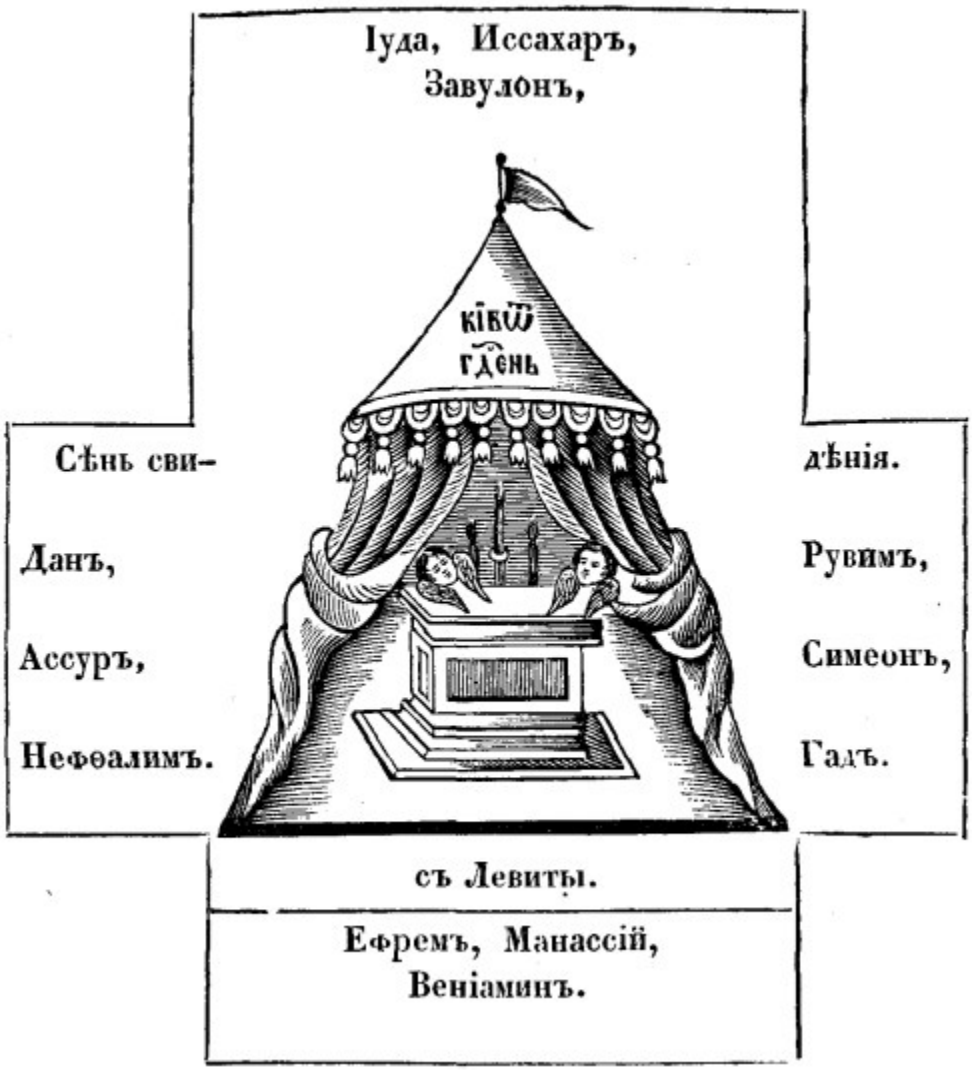
남쪽 오른쪽 편에는 세 부대가 있었는데,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가드 지파였다.

북쪽 왼쪽 편에는 세 부대가 있었다: 단 지파, 아슐로 지파, 납탈리 지파.

---

[524] 4음조, 8번째 찬송.

[525] 민수기 2



이처럼 광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배치는 십자형이었다.

이는 우즈데니안 캐논의 제4편 제3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성막의 증거를 앞세운 네 부분으로 나뉜 백성들이 성스러운 군대를 이루며, 십자가 모양의 진형으로 영광을 드러내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그 십자형 진형은 진정한 십자가가 아니라, 단지 십자가의 은밀한 예표에 불과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진형에 대해 ‘십자가’라는 이름이 언급된 바 없으며, 당시 사람들도 그것이 십자가의 형상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은혜 안에 있으면서 구약의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십자가의 예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여덟 갈래가 아닌 네 갈래의 십자가였습니다. 만일 분열주의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십자형 진형이 여덟 갈래 십자가의 예표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모세가 군대를 네 부분으로 나누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들어 군대를 여덟 부분으로 나누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야만 그들이 원하는 여덟 갈래 십자가가 이루어졌을 테니 말이다.

시돈의 사레프에 사는 과부가 작은 무교병[526] 을 굽기 위해 모았던 두 땔감은 (주석가들의 말에 따르면)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 때문에 과부는 두 땔감을 모았으니, 이는 엘리야의 형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며, 두 땔감을 모으고자 한 것은 십자가의 신비를 알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 두 땔감은 십자가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십자가의 은밀한 예표였을 뿐이며; 십자가는 여덟 갈래가 아니라 네 갈래였다. 만일 분열주의자들이 그 장작더미들이 여덟

[526] 열왕기상 17장 12절.

갈래 십자가의 그늘을 상징하기를 원한다면, 그 과부에게 두 개가 아니라 네 개의 장작더미를 모으도록 간청했어야 했으며, 그리하여 그들이 바라는 여덟 갈래 십자가가 나타났을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그늘에 대한 세 번째 형상은, 성스러운 조상들과 예언자들에게 주어진 환상과 계시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야곱이 꿈에서 본, 땅에 굳게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사다리는, 성스러운 동정녀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이었으니, 이는 성 키릴로 알렉산드리아와 성 게르만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527] : 주님께서는 그 사다리 위에 서심으로써, 지극히 순결한 동정녀의 태중에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며, 그 사다리를 통해 십자가를 하늘로 이끄실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사다리를 타고 친히 올라가셨으니,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528] .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즉 고난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라고 명하시며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529] . 이와 같이 2월 1일에 공경받는 성녀 페르페투아는 고난을 당하기 전,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황금 사다리를 보았는데, 그 사다리의 양쪽 측면에는 수많은 날카로운 철제 무기들이 빽빽이 박혀 있었는데, 칼, 단검, 면도날, 창, 못, 낚싯대 및 그와 유사한 것들[530] ;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고난과 하늘로 향하는 영광스러운 승천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2월 20일에 기념되는 페르시아의 주교 성 사도프도, 고난을 겪기 전에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보았고, 그 위에 위대한 영광 속에 서 계신 먼저 순교하신 성 시메온 주교를 보았으며, 땅에 서 있는 그에게 외쳤다. "사도프여, 내게로 올라오라[531] !"

그리스어 '타우(ταυ)'라는 글자는, 우리 언어의 강세 초성자와 비슷하게 쓰이며, 주님의 천사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이 표식을 새겨, 그들을 닥쳐올 치명적인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게 한 바로 그 글자입니다. 이는 성 예레미야 선지자의 계시록[532] 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그 글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니, 우리는 성유 예식을 통해 그 표식을 받으며, 그 표식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도다*"*[533] 라고 말하며 위로받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는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성 아파나시우스 대주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신자들에게 십자가이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굳건해지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석가 유프티미오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십자가로 이해하라. 이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막대기는 곧게 서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미혹 속에 누워 있던 자들을 일으켜 세웠으며, 가로로 뻗은 부분은 지팡이라 불리는데, 주님께서 이를 사용하여 악마들을 치시고 분쇄하셨다." 왜냐하면 채찍으로 때리려는 자들은 지팡이를 높이 들어, 반대 방향으로 휘둘러 타격을 가함으로써 더 고통스러운 매질을 가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유프티미우스의 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팡이와 몽둥이는 예언의 계시에서 십자가의 형상을 나타내며, 그 십자가는 네 모서리가 있는 것이지 여덟 모서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

[527] 키릴,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해설 제8권. 게르만, 십자가 숭배에 관하여.

[528] 누가복음 24:20.

[529] 마가복음 8:34.

[530] 2월 1일, 406쪽.

[531] 2월 20일, 483쪽.

[532] 에스겔 9:8 7월 21일, 343쪽 뒷면.

[533] 시 22:4.

에마누엘의 어깨에 있는 권세는, 이사야가 예언한 바와 같이, "그의 어깨에 권세가 있으리라[534]"라고 한 것이며, 이는 (해설가들의 말에 따르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어깨로 지실 그 십자가를 가리킨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에 관한 많은 계시가 있었으니, 마치 다윗이 그리스도의 입을 빌려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뚫었도다"[535]. 또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많은 이의 죄를 나무에 지셨도다"[536]. 예레미야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그분의 양식인 나무에 덫을 놓자"[537]. 이는 곧 십자가라는 나무를, 하늘의 양식이라 불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씌우겠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도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그 일에 관한 예언들이 있었으나, 이를 모두 여기에 모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앞서 언급된 것들만으로도 우리가 탐구하는 바를 설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와 상징을 이만큼 제시하였으니, 어떤 것은 비물질적인 것에서, 어떤 것은 인간의 행실에서, 예언적으로 미래를 예표한 것에서,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선지자들의 계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여덟 갈래 십자가의 형상을 닮은 네 갈래 십자가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구약성경 어디에서도 '십자가'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여덟 갈래 십자가가 아니라 네 갈래 십자가의 형상이 일부 존재했다는 사실뿐이며, 그것도 꿈과 점술 속에서였지, 현실에서는 아니었습니다.

분열주의자들은 주님의 네 갈래 십자가를 모독하며, 그것을 '텅 빈 십자가'라 칭하고, 여덟 갈래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비방하며, 그 밖의 온갖 모독적인 말로 비난함으로써 이단을 자처하고 있다.

우리는 여덟 갈래 십자가나 더 많은 갈래를 가진 십자가도 배제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이)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기 위해 모든 십자가를 동등하게 공경하지만, 주님의 네 갈래 십자가를 모독하는 분열주의자들의 미친 주장은 규탄하고 배척한다.

구약성경에서 십자가나 '십자가'라는 명칭이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의 형벌이 아니라 이교도의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와 헬레니즘, 그리고 다른 이교도 민족들의 것이었습니다. 반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형으로 누군가를 처형하는 관습이 없었다. 그들이 이집트를 떠난 때부터 왕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일반적인 사형 방식은 세 가지였으니, 돌로 쳐 죽이는 것, 산 채로 불태우는 것,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었다. 십자가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방식은 아니었다; 만약 십자가 나무에 누군가를 처형했다면, 그들의 경전 곳곳에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나무, 즉 교수대나 뿌리에 서서 가지가 달린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교수형에 처해진 자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538]. 그러나 그들의 왕국이 세워지자, 그때서야 네 번째 형벌이 추가되었으니, 곧 칼로 죄인을 죽이는 것이었다; 솔로몬이 칼로 아도니아와 요아브를 죽인 것이 바로 그 예이며[539],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전혀 없었으며, 그들의 조상 대대로 십자가를 다룬 적도 없었고, 심지어 로마 총독 폼페이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타인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온 유대 지역을 로마 제국에 복속시켜 조공을 바치게 할 때까지는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 50년 전, 혹은 그보다 더 오래전이었다. 그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보고 알게 되었으니, 로마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로마식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기 시작했을 때였다. 히로데

---

534 이사야 9:6.

535 시 21:18.

536 이사야 33장 1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24.

537 예레미야 11:19.

538 신명기 21:23.

539 열왕기하 2:25.

왕 이전에 통치했던 유대 왕 안티고노스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놓이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알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그들의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십자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십자가라는 명칭도 언급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분명히 드러나는 바는, 구약성경에는 네 모서리가 있는 십자가나 여덟 모서리가 있는 십자가의 형상이 없었다는 것이다.

오직 네 갈래 십자가와 그 그림자만 있었을 뿐, 여덟 갈래 십자가는 없었습니다.

만약 분열주의자들이 고집을 부리며, 네 갈래 십자가에 대한 자신들의 거짓 모독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려 한다면,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나 성부들로부터(자신들이 새로 지어낸 거짓되고 모독적인 서신이 아니라, 고대의 교회 문헌에서) 네 갈래 십자가를 모독하고 오직 여덟 갈래 십자가만을 숭배하라고 명하는 증거를 단 하나라도 제시해 보라. 여덟 갈래 십자가는 정당한 것이나, 네 갈래 십자가도 부당한 것이 아니니, (앞서 말했듯이) 구약의 모든 예표가 그것에 대한 것이었으며, 그 네 갈래의 형상을 통해 모든 것이 축복받고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덟 갈래 십자가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확립하며, 앞서 『옥토이헤』에 기록된 "키파리스와 페브케와 케드르 나무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540] 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세 그루의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며, 이는 네 갈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덟 갈래도 아니라고 말하노니, 설령 여섯 갈래라면 모를까. 세 그루의 나무로는 여덟 갈래 십자가가 될 수 없으니, 여덟 갈래 십자가가 완성되도록 네 번째 나무를 덧붙이지 않는 한 말이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빌라도가 십자가에 걸어 놓은 표지판이 바로 그 여덟 갈래 십자가를 완성했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우리에게 그 표지판이 무엇에 쓰여 있었는지 알려주라. 종이 위에 쓰여 있었는지, 마치 성화화가들이 그린 것을 볼 수 있듯이(그리고 성 안토니우스 로마인의 성기구들 사이에 있는 성작 위에 그려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종이 위에 쓰인 그리스도의 표어가 보이듯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표어가 양철판에, 혹은 구리에, 혹은 나무에 쓰여 있었다고 말해 줄 것인가? 우리 러시아 서적들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티틀라가 무엇에 쓰여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어디엔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러시아 서적이 아니라 외국 서적에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티틀라가 종이, 주석판, 혹은 구리에 쓰여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경우, 세 개의 나무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여섯 끝 중에서 두 끝이 두드러질 수 없었을 것이며, 여덟 끝 을 가진 십자가의 형태도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 표지가 나무에 새겨져 있었다면, 어떤 나무였을까? 앞서 언급된 세 나무에 어떤 네 번째 나무를 반드시 덧붙여야만 십자가가 여덟 끝을 갖게 될 것이다. 세 나무에 네 번째 나무가 더해지면, (비록 분파주의자들의 사고방식에 반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옥토이헤』에 기록된 앞서 언급된 교회 말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 오직 세 나무 위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내용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십자가에는 네 번째 나무가 자리 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열주의자들이 무엇을 고집하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여덟 갈래 십자가를 주장할지, 아니면 세 갈래 십자가를 주장할지이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직 세 갈래 나무로만 이루어졌다고 말한다면,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십자가는 여덟 갈래가 아니라 여섯 갈래가 될 것이다. 만약 그들이 여덟 갈래 십자가를 실천하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 갈래가 아니라 네 갈래가 될 것이다. 이처럼 그들의 믿음, 즉 세 갈래 십자가를 믿는 것이든 여덟 갈래 십자가를 믿는 것이든,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확고한 근거를 갖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네 갈래(여덟 갈래가 아닌) 십자가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께 믿음과 소망을 두며, 세 갈래 십자가나 여덟 갈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교회와 함께 말하노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 갈래였으며, 십자가 위의 표지판도 있었으나, 그 삼목 십자가와 팔각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네 모서리 십자가를 부정하지도 않고,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우상이나 황폐함의 가증한 것, 또는 적그리스도의 인장으로 변질시키지도 않습니다.

---

[540] 제2음조, 수요일, 제9곡 및 제3음조, 수요일과 금요일의 세달니.

과연 어느 성경 구절이 그리스도의 네 모서리 십자가를 이처럼 모독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도들과 온 세상의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네 갈래 십자가를 부정하겠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분열주의자들만이 그들의 미친 추론으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보다 여덟 갈래 십자가를 더 믿으며, 그 여덟 갈래 십자가에 그들의 모든 지혜의 수고와 온전한 믿음을 두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 지나치게 깊이 탐구하는 것은 경건함이라기보다 호기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이에 대한 분열을 일으키고, 평신도들을 교회의 연합에서 떼어내는 것은 불경건한 행위이며,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십자가의 나무 수나 십자가의 뿔 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그리스도 한 분께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십자가의 나무나 뿔의 수에 믿음과 구원의 소망을 두는 것이 그리스도께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나무들이나 십자가의 뿔들이 우리를 구속했단 말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무의 수나 뿔의 수로 인해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피로 물들여진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 인해 거룩한 것이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어떤 십자가라도, 그 자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 행하는 것이다. 여덟 갈래 십자가도 존귀하고, 네 갈래 십자가도 존귀하니, 둘 다 똑같이 존귀하며, 둘 다 똑같은 능력을 지녔다; 그 어떤 십자가로 불리든 그것은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우리가 믿어야 할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수난을 나타내는 표징일 뿐이며,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믿으며, 그분을 위하여 어떤 십자가든 숭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네 갈래 십자가를 두고 왜 분열되어야 하는가? 과연 네 갈래 십자가가 이단이며 신성모독인가? 마찬가지로 여덟 갈래 십자가가 과연 신앙의 교리인가?

또한 신성모독적인 이단자들의 입을 막고, 네 갈래 십자가에 대한 증거를 여기에 제시하고자 한다.

네 갈래 십자가에 대한 증거*:*

9월 14일, 아침 예배 때, 대찬송 후, 십자가 경배를 위한 시티라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오늘 네 모퉁이를 가진 세상이 거룩하게 되나니, 네 부분으로 나뉜 주님의 십자가여,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모스크바의 '존귀한 십자가' 캐논집에 수록된, 성 그레고리 시나이티의 작품인 그 캐논의 첫 번째 찬송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지극히 존귀한 십자가여, 네 갈래의 힘, 사도들의 영광이시여."

같은 카논의 제4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생명을 주는 십자가여, 당신의 높이는 공중의 통치자를 물리치고, 모든 심연의 깊이는 뱀을 찌르며, 다시 넓이를 나타내시어, 당신의 요새로 세상의 통치자를 무너뜨리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높이, 깊이, 넓이를 지닌 네 모퉁이의 십자가이다.

또한 같은 캐논의 8번째 찬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신 신성한 높음이시여, 형언할 수 없는 깊음이시여, 그대는 그리스도의 표징이시며, 지극히 풍요로운 십자가이시며, 헤아릴 수 없는 넓음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의 불가사의한 표징이시니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덟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즉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찬양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세 가지 사랑을 지닌, 세 가지 복을 주는,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불립니다. 높이는 하늘에 계신 성부를, 깊이는 지옥까지 내려가신 성자를, 넓이는 또한 길이는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성령을 함께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표징을 띠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 아파나시우스 대성인은 제41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 나무로 이루어진 십자가 형상에 경배하노니*,* 이는 네 방향으로 나뉘어[541] ."

---

[541] 『지즐』 66쪽.

성 요한 다마스쿠스는『정통 신앙에 관하여』제4권 제12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네 모서리는 중앙을 중심으로 서로 맞물려 있으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너비가 유지된다.”

모스크바에서 인쇄된『부활절 교훈 복음서』라는 책의 ‘성스러운 십자가의 승천’에 관한 설교, 347쪽 뒷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십자가의 형상은 네 방향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표징을 통해 모든 것이 신성한 힘으로 지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쪽은 위쪽 뿔로, 아래쪽은 아래쪽 뿔로, 가운데는 두 방향, 즉 지극히 거룩한 십자가 나무의 두 끝으로 지탱되고 있다.

또한 같은 곳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가리켜 복된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542] ”라고 하였다. 높음은 하늘을, 깊음은 지옥을, 넓음과 길이는 그 중간 지점들을 가리키며,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권능으로 지탱되고 있다.

금입 성인은 바로 이 바울의 말씀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언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그것이 온 세상에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543] .”

그 밖의 네 갈래 십자가에 관한 증거들은『지팡이』라는 책과『우베트』라고 불리는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세상 또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네 갈래 모양을 닮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동쪽, 서쪽, 정오, 자정이라는 네 부분으로 나누셨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십자가의 네 갈래 모양을 닮게 창조하셨으니, 사람이 두 팔을 벌리면 마치 네 갈래 십자가와 같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성부들과 교회 서적들이 네 갈래 십자가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분열주의자들은 이를 온갖 방법으로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관한 두 번째 고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어디였을까*?* 로마의 십자가였을까*,* 아니면 브린의 십자가였을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규명하고자 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너희는 말하리라. “유대인들이 못 박았다.” 답하건대, 유대인이 아닙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거나, 더 정확히 말해 빌라도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사들였으며, 그 비유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에 죄가 있기는 하지만: 남을 통해 행하는 것은 스스로 행하는 것과 같으니;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며, 자신들의 유대 율법(그 율법에는 십자가 처형이 없었음)에 따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긴 것도 아닙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심판하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누구도 죽일 권한이 없다[544] ”고 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미 예전의 자치권을 상실하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누구도 심판하거나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카이사르 총독인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모든 재판을 주관하며,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을 사형에 처했다.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 넘기며, *“*우리는 누구도 죽일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의 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

[542] 에베소서 3:18.

[543] 금구, 1638쪽.

[544] 요한복음 18:31.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빌라도와 그의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반란자이자 카이사르의 적대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선동하고,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막으며, 자칭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말하는 자를 발견했다[545]"라고 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며,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기에, 로마의 법과 관습에 따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빌었다. 그들은 두 가지 죄목을 꾸며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던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함이었고, 마치 자신들이 어떤 악의로 인해 그를 죽음에 넘긴 것이 아니라, 카이사르의 불명예를 훼손한 죄로, 마치 그가 카이사르에게 반역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한 이교도식이지 유대식 방식이 아닌, 더욱 치욕스러운 죽음, 즉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으로 그를 파멸시키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다시 묻노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와 그의 병사들은 출신과 신앙 면에서 유대인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고, 로마인이었다. 로마 황제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 파견된 자로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의 멍에 아래에서 노역하고 있었다. 또한 빌라도와 함께한 군대도 모두 로마인이었다. 왜냐하면 노예로 전락하여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유대인 군대를 가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달리 말할 수 없고 오직 이렇게만 말할 수 있습니다. 곧 로마인들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였으며, 유대인들이 이를 강력히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내신 나사렛 예수, 곧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신 그분을, 여러분은 불의한 자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부활시키셨습니다[546]. 여기까지가 사도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불의한 자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가 말하길) "여러분 자신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는 누구를 불의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세의 율법이 없었던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자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할 때, 이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만일 로마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누구의, 어떤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 사회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그들의 율법은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규정하지 않았고, 그들 사이에서는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브린 수도원들에는 여덟 갈래 십자가(이단자들이 마치 신을 믿는 것처럼 숭배하는 바로 그 십자가)가 보내지지 않았다. 당시 러시아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 그리스도도, 십자가도 알지 못했고, 브린의 숲에는 지금의 수도원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 로마인들이 러시아 땅, 브린의 은둔처에서 여덟 갈래 십자가가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려 했을 리도 없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십자가, 즉 그들이 모든 악당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평소 사용하던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만약 로마인들이 로마식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면, 네 갈래 십자가(분열주의자들이 로마식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를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로 숭배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정통 신자로서 여덟 갈래 십자가를 네 갈래 십자가와 동등하게 숭배하며, 이는 '옥토이흐'라는 교회 전례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키파리스 나무, 피브 나무, 그리고 삼나무 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해석을 따릅니다. 또한 그 명칭에 관해 어떤 주석가들은, 그것이 올리브 나무 판에 쓰여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 판은 오늘날까지도 로마의 성 십자가 교회에 보관되

---

[545] 누가복음 23:2.

[546] 사도행전 2:22, 23, 24.

어 있다고 전해지며, 로마인들은 그 교회를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 로스토프에도 '종 아래'에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것과 같다); 그 주석가들은 시라크서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십자가 나무에 대해 예언한 대목과, 그곳에서 찬양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 내용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내가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높이 솟아올랐고, 아에르몬 산의 측백나무처럼, 해변가의 야자나무처럼, 들판의 아름다운 올리브나무처럼 솟아올랐다[547]." 이 네 그루의 나무는; 그것들에 비유된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이 말하길, 십자가는 삼나무, 측백나무, 야자나무(혹은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노래하는 자)에서 비롯된 것이며, 올리브나무 가지에서는 십자가의 띠가 나온다고 한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양은 여덟 갈래가 아닌 네 갈래 십자가로 묘사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상판과 받침대(만약 받침대가 있었다면)는 짧은 나무 조각들이어서, 십자가의 폭이 아니라 길이로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의 형상을 닮아 두 팔을 벌리고 있으며, 그 위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니, 그분께서는 그 위에 지극히 순결하신 두 손을 벌리고 계신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네 갈래로 나뉜 것으로 우리에게 숭배받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네 부분(여덟 부분이 아니라)으로 못 박히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머리는 위쪽에, 몸과 발은 세로 방향으로, 두 손은 가로 방향으로 놓여 있다.

십자가에 관한 세 번째 고찰

네 갈래 십자가가 로마식 십자가인가?

여기서 어리석은 농부들의 추측에 맞서 간결한 말로 이야기하며, 간단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 브리냐네여! 네 갈래 십자가를 십자가가 아니라 '크리예'라고 부르는 자여, 우리에게 말하시오: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에게서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끌려가시며, 자신의 어깨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는, 프리토르로부터 골고다까지 이어진 그 십자가는, 과연 십자가인가, 아니면 '크리예'인가? 그리고 시몬 키리네오 에게 지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아니면 '크리예'인가? 만약 십자가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자신의 사고방식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네 모서리가 있는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부르지 않고, 로마의 십자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어깨로 십자가를 지고 계셨을 때, 그 십자가는 아직 여덟 갈래가 아니었고, 단지 네 갈래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는 아직 표지판도, 받침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표지판이 없었던 것은, 골고다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야 빌라도가 십자가에 달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받침대가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직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병사들은 그리스도의 발이 어느 높이까지 닿을지 알지 못했으므로 받침대를 만들지 않았던 것이다. 3 단, 골고다에서 이미 만들어 놓았다면 모를까. 그리스도의 두 팔로 지고 가신 십자가는 결코 여덟 모서리가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네 모서리가 있는 것이었도다. 달리 말할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의 두 팔로 지고 가신 십자가는 네 모서리가 있는 것이라고만 할 수 있도다. 그리고 너희 분열주의자들은 너희의 추론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부르지 말고 '크리제'라고 불러야 마땅하니, 그것은 네 갈래이기 때문이지, 여덟 갈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을 '크리제'라고 부른다면, 너희는 러시아어로 번역된 네 복음서 저자 모두에게 명백히 반대하는 것이 될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크리제'가 아니라 '크레스토'라고 부르며, 네 갈래라고 기록하고 있다.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548]." "나아가다가 키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를 만나, 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549]." 이 성스러운 복음서 저자들은 러시아 방언으로, 그리스도의 네 모서리가 있는 십자가, 즉 그리스도의 두 팔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크레스트(крест)'라고 부르지 '크리젬(крыж)'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주받을 자들아, 누군가 그런 십자가를 '크레스트'라고 부르는 것을 듣기조차 원치 않으면서, 그것을 '크리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낫겠는가? 성령으로 지혜를 얻

547 시라 24:14, 15, 16.

548 요한복음 19:17.

549 마태복음 27:32.

은 성스러운 복음서 저자들인가, 아니면 너희 같은 단순하고 미친 자들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하겠는가? 성스러운 복음서인가, 아니면 너희의 미친 추론인가?

다시 묻노니:

네 갈래 십자가를 '크리예'라고 부르는 자들이 우리에게 먼저 이 점을 말해 보라: 그들이 로마어를 아느냐? 또한,

그들이 말하게 하라: 십자가는 로마어로 무엇이라 부르느냐? 그다음에 이 말 '크리즈'가 어느 언어의 표현인지 말하게 하라. 그들은 천하 모든 민족과 이방인들이 거룩한 십자가를 러시아어로 '크리즈'라고 부르기를 원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예루살렘과 골고다에서 러시아어로 말했고, 주님의 십자가가 러시아어로 '크리츠'라고 불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주님과 성스러운 사도들, 그리고 성스러운 교부들 모두가 러시아어로 대화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오 무지한 자들아!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나뉘었던 것을 듣지 못했느냐? 그리고 모든 민족과 나라가 모든 사물을 각자의 고유한 언어로 부른다는 것을 모르느냐? 유대인들은 유대어로, 그리스인들은 그리스어로, 로마인들은 로마어로 말하며, 우리 러시아인들은 우리 언어로, 즉 러시아어로 말한다. 그리고 십자가도, 각 언어로 제각기 다르게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게츠'라고 부르고, 그리스인들은 '스타우로스'라고 부르고, 로마인들은 '크루크스'라고 부르지 '크리즈'라고 부르지 않으며, 우리는 '크레스트'라고 말합니다. '크리즈'라는 말은 로마의 말이 아니라 폴란드의 말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폴란드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십자가를 '크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러시아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만의 폴란드어를 쓰기 때문이다. 모든 언어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민족과 나라에 주신 것이다. 터키어든, 타타르어든, 독일어든, 유대인 언어든, 그리스어든, 로마어든, 그 어떤 것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고 구분하신 것이다; 폴란드어도 하나님께서 폴란드인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 러시아인에게 러시아어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이다. 폴란드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십자가를 '크리지(kryż)'라고 부르는데, 이는 거룩한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 아니다. 폴란드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그것을 '크리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러시아인들이 '크레스트(krest)'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네 갈래 십자가가 로마식 '크리쥬'가 아니라 폴란드식 '크리쥬'임을 분명히 보여주며, '크리쥬'라는 명칭은 모독이 아니라, 우리 말의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존경스러운 표현이다. 그러나 이단자들은 십자가를 모독적인 '크리쥬'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모독하고 있으니, 이는 그들이 어리석고 무지하여 다른 언어의 표현을 알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십자가에 관한 네 번째 고찰

네 갈래 십자가는 우상이나 적그리스도의 우상이며, 거룩한 곳에 서 있는 황폐함의 가증한 것이 있는가?

저주받을 분열주의자들의 두루마리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네 갈래 십자가를 모독하며, 이를 우상이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며 황폐함의 가증한 것으로 칭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증거인 양, 그리스도의 말씀과 아키바 황금입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

마태복음 99장 서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그 황폐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거기서는 있어서는 안 될 곳이니,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550]."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분파주의적 해석:

'거룩한 곳'이란 기독교 교회들이 제단 안에 성좌를 둔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 그곳은 성직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거룩하게 성별하는 거룩한 장소이다; 왜냐하면 제단 안, 즉 기독교 교회에는 두 개의 거룩한 장소가 있으니, 바로 제단과 보좌이다. 하나는 제물을 바

[550] 마태복음 24:15, 16. 다니엘서 9:27.

치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성별하는 곳이다; 이에 대해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도래 이전에 곳곳에 자신의 제단을 세울 것이라고 말하노니, 참된 제사를 근절하고 거룩한 곳에 자신의 우상, 즉 라틴 미사를 세우기 위함이라.

그의 거짓된 말들은 아래에서, 더 잘 알려진 대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주석 1, 150절.

이에 대해 황금입은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재림 전에 곳곳에 자신의 제단을 세우고, 참된 제물을 멸절시킬 것이며,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없애고, 거룩한 곳에 자신의 우상을 세울 것이니, 바로 저주받은 라틴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니 분열주의자들의 거짓이 드러나도록,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참된 해석을 찾아보자.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황폐의 가증한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어떤 시기에 대해 예언하신 것입니까?

어떤 거룩한 장소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가증한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기는, 분열주의자들이 이미 적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우리의 현재 시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4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장군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아들 티투스를 앞세워 유대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성 요한 황금입은 마태복음 제15강해(511쪽)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며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때에 종말이 올 것이니,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종말이다." 또한 성 테오필락트도 155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 종말이 올 것이니, 온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종말이라." 다시금 황금입 성 요한은 마태복음 해설 76편, 320쪽 뒷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재앙의 위엄을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치지 않도록 기도하라[551] ." 보라,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이며, 그들 중 악한 자들에게 닥친 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다.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키거나, 베스파시아누스가 이 일을 행했을 때 그곳(유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그보다 훨씬 앞서 떠났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남아 있었다면, 그 당시에는 우주 다른 나라들에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321쪽 뒷면에는 "만약 그 날들이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552] "라고 기록되어 있다. 만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모두 멸망했을 것이니, 여기서 '모든 육체'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황금입의 설명이다.

이 해석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 시대에 대해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에 의해 유대와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던 그 시기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저주받을 분열적인 두루마리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유대와 예루살렘의 멸망 시기를 우리 현시대에 억지로 끌어다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한 장소는 어디인가? 바로 그 당시 그들에게 있던 유일한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에 관한 것이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기독교 교회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성소에 서 있는 가증한 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예루살렘의 성소,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신 것이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의 성소들을 가리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시 예루살렘의 단 한 번의 멸망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의 유일한 교회에 대해서도 그러하셨습니다.

---

551 마태복음 24:20.

552 같은 곳 2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곡한 분열주의적이고 음란한 두루마리는, 유일한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에 대해 말하면서 모든 기독교 교회로 그 주장을 확대하고 있다.

주님께서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그 가증한 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로마 황제의 우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로마인들은 성을 점령한 후, 그 우상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 거룩한 곳에 세우려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성 요한 황금입은 마태복음 제15강해, 512쪽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그때 성을 점령하고 황폐하게 만든 자가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으니, 이를 '가증한 것'이라 하고, '황폐함'이라 부르는 것이다. 또한 성 테오필락트도 155쪽 뒷면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황폐함의 가증한 것'은 바로 이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점령한 자가 그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황폐함이라 일컬어지며, 이는 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가증한 것은 우상과 인간의 형상 때문인데, 유대인들은 이를 가증한 것으로 여겼다." 여기까지가 테오필락트의 설명이다. 이는 분열을 조장하는 음란한 두루마리로, 로마 황제의 우상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네 갈래 십자가를 암시하고 있다.

또한 그 불경한 두루마리는 부끄러움도 없이 거짓말을 하며, 앞서 언급된 마치 성 황금입 아키바의 말씀인 양, 자신의 미친 추론에 대한 확증과 증거로 내세우는데, 그 말씀들은 황금입 아키바의 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아키바 황금입은 성인은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150절 초반부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곳곳에 제단을 세우고, 참된 제물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여덟 갈래)를 멸망시키며, 그 자리에 자신의 우상인 저주받은 라틴 십자가[553] 를 세울 것이라."

그 불경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거짓말을 확실히 알고자 한다면, 골로소모스의 바울 서신에 대한 해설서를 손에 들고, 그들이 인용하는 고린도전서 150절 초반부를 찾아 877쪽부터 893쪽까지 모두 읽어보라; 적어도 적그리스도, 희생, 십자가, 십자가에 대한 사소한 언급이라도 찾을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저 저주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머리에 거짓말을 씌우고, 그 거짓말로 성자 황금입을 비방하고 있다! 오, 다른 성자들에 대해서도, 마치 성자들도 그들의 거짓말에 가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루사코인들의 극심한 맹목으로 인해, 그들은 분열주의자들의 거짓말을 마치 진리인 양 믿고, 정통 교부들이 설교한 가장 거룩한 진리마저 거짓으로 몰아세운다!

그들의 명백한 거짓말은 그 거짓된 말들, 즉 '금입'이라는 이름으로 꾸며낸 거짓말들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은 추론에서 비웃음을 살 만한 엄청난 광기도 드러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참된 희생 제물이라고 불렀으니, 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과연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삼켜졌단 말인가? 과연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피(나무에는 피가 없는데)를 흘렸단 말인가? 과연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죽었단 말인가, 하나님의 어린양인 그리스도께서 아니라? 어떻게 감각이 없는 나무가 온 세상을 위한 제물이 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희생되셨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게 받으신 제물이 아니었는가? 또한 그들은 네 갈래로 뻗은 십자가(그들이 '크리젬'이라 부르는 것)를 우상이나 이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명백히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 있다. 우상이나 이돌은 그 우상의 모델이 되는 사람과 닮아야 하며, 그와 비슷한 머리, 얼굴, 손, 발, 그리고 온전한 인간의 형상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머리, 손, 발, 그리고 모든 인체의 지체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 갈래로 뻗은 십자가가 과연 인간의 형상을 닮았는가? 십자가에 머리, 얼굴, 눈, 귀, 입, 손, 발 및 그 밖의 인간의 사지가 있는가? 어찌하여 네 갈래 십자가가 인간의 형상을 갖추지 않은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의 우상이나 우상이 될 수 있겠는가? 또한, 네 갈래 십자가, 즉 그들이 '크리즈'라고 부르는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며, "저주받은 라틴식 십자가"라고 말한다. 또한 그들의 두루마리 다른 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상이 새겨진 나무, 즉 라틴어 '크리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불리며, 저주받은 것이며, 그것을 새긴 자 또한 저주받았다."

---

[553] 이 헛소리는 성 키릴로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된 책 32쪽에 인쇄되어 있다.

그들은 이러한 신성모독적인 말들에서 거짓을 퍼뜨리며 지나치게 대담하게 행동하고 있다. 거짓을 퍼뜨리며, 마치 누군가가 하나님 대신 네 갈래 십자가를 숭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누가 십자가를 신으로 숭배하겠는가? 로마인들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다. 십자가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그들이 분열주의자라 해도 여덟 갈래 십자가를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감히 네 갈래 십자가를 저주받은 것으로 칭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네 갈래 십자가에 대한 저주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느 공의회에서 나왔는지 보여 주라. 왜냐하면 교회 공의회의 저주 없이는 누구든, 무엇이든 저주받은 것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어느 공의회가 네 갈래 십자가에 파문을 선포했는가? 보편 공의회인가, 아니면 지역 공의회인가? 설마 브린 숲에서 모인 그들의 이단적인 공의회가, 주님의 거룩한 네 갈래 십자가를 저주에 내어주었다면, 그들 스스로가 저주받은 자들일 것이다. 오,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건방짐인가!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대해, 마치 살아 있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에게 짐승의 형상에 생기를 주어*,* 짐승의 형상이 *'*[554] *'*라고 말하게 하라*."* 그런데 분열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라 부르는 네 갈래 십자가가 과연 인간의 목소리나 말을 가지고 있겠는가? 십자가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겠는가? 말할 뿐만 아니라 입조차 없다. 어찌하여 네 갈래 십자가 가 반그리스도의 우상이나 형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조차 없는 것을? 분열주의자들은 그들의 음란한 두루마리를 들고 거짓말을 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네 갈래 십자가를 반그리스도의 우상이라 칭하고, 거룩한 곳에 서 있는 황폐함의 가증한 것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사색과 이단적인 가르침에서도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며, 마치 정신이 나간 자들처럼 자신들이 무슨 헛소리를 지껄이는지조차 모른다. 반면, 지극히 단순한 무지한 자들은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을 따라가며 미혹과 파멸로 빠져든다.

십자가에 관한 다섯 번째 고찰

네 갈래 십자가가 적그리스도의 인장인가*,* 혹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성 요한 신학자의 책, 즉『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마지막 날들, 즉 적그리스도가 올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은 모두 이마에 인을 받게 될 것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을, 반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그리스도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해 뜨는 곳에서 한 천사가 올라오는데*,*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치도록 허락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였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을 때까지 기다리라[555] *."*

반그리스도를 믿게 될 민족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반그리스도)가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식을 주리니*,* 그 표식을 가진 자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리라[556] .

반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반그리스도가 죽일 것이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557] .

그러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 기록된 바와 같이: 샘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고, 그 샘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 때문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땅으로 바퀴벌레들이 나왔는데*,* 그들에게 땅의 전갈들이 가진 권세를

---

[554] 계 13:13.

[555] 계시록 7:2, 3.

[556] 계시록 13:16, 17.

[557] 같은 책 13:15.

주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땅의 풀이나 모든 곡식이나 모든 나무에는 해를 끼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였다[558] .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이고,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의 인인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힐 하나님의 인은 무엇일까요? 카파도키아의 케사리아 대주교이자 요한계시록의 해석자인 성 안드레아는 그 인장이 거룩한 십자가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해석자는 요한계시록의 다음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장[559] 을 가지고 있었고, 글을 쓰며 말하기를: 이는 옛날 에스겔에게 계시된 바, 곧 긴 아마포 옷을 입고 이마에 표를 찍어 의인들이 불의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한 것과 같다. 이는 성도들의 숨겨진 미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며, 천사가 이를 알렸다[560] . 이것은 여기서 복자(요한 신학자)에게도 지시된 바로, 지극히 거룩한 권능이 심판자이신 거룩한 천사에게 명령하여, 진리를 섬기는 자들이 인장으로 구분되기 전에 죄를 지은 자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말게 하셨다. 이는 또한 옛날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있었던 일로, 로마인들에 의한 예루살렘의 파괴를 피한 자들이, 많은 어둠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서(즉, 수천 수천으로 늘어난 자들 가운데서), 위대한 야고보가 복된 바울에게 그들의 무리를 보여준 것과 같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적그리스도가 올 때면 (신자들의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며, 불신자들로부터 신자들을 구분해 내는 생명의 십자가의 인은, 불경건한 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표징을 드러낼 것이다[561] . 그러므로 천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말라"고 하였다[562] .

또한 성 안드레아 케사리우스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행위의 끝에는 영혼을 해치는 죽음이 숨겨져 있는데, 이 죽음은 이마에 신성한 인장을 받지 못한 자들과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빛으로[563] 비추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안드레아의 말씀입니다. 성 히폴리토스도 그의 설교 중 '고기 금식 주일' 편(127쪽 및 133쪽 뒷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신자들의 인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동의한다. 이는 또한 7156년 여름, 요시프 총대주교 재임 시절 모스크바에서 인쇄된 익명의 저자가 쓴 『신앙에 관한 책』에서도 증언되고 있는데, 그 책 제9장 '십자가' 부분, 69쪽 뒷면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의 표징으로 표기될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이다. 이 증언과 증거보다 더 명확할 수 있겠는가?

이단자들은 여덟 갈래 십자가가 신자들의 이마에 찍힌 인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러나 성 안드레아의 첫 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는 에스겔의 환상을 상기시키며 요한의 환상을 연결 지어 말하기를, "옛날 에스겔에게 드러난 바와 같이, 또한 이 모든 것이 여기 복된 자에게도 그러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에스겔은 무엇을 보았는가? 앞서 십자가의 예표에 대해, 예언자의 환상과 계시에서 나타난 바를 언급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도 다시 반복하겠노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표를 찍는 천사를 보았는데, 그 표는 그리스어 문자 *'ταυ'*로, 우리 말의 첫 글자 '트'와 비슷하게 쓰인 것이었다. 그 글자는 여덟 갈래 십자가가 아니라 네 갈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니, 그 글자 위에 그리스도의 칭호를 붙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네 갈래 십자가를 보게 될 것이다. 에스겔의 환상이 네 갈래 십자가의 예표인 것처럼, 요한 신학자의 『계시록』에서도 바로 그 네 갈래 십자가를 보았으니, 천사가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

558 계시록 9:2, 3, 4.

559 계 7:2. 31쪽과 32쪽.

560 에스겔 9장.

561 계 9:4.

562 계 7:3.

563 제9장, 말씀 9, 41쪽. 1월 30일 기념일.

종들에게 생명의 인을 찍었기 때문이다. 에스겔에게 드러난 바와 같이, 이 또한 여기에서 복된 자에게 드러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뜻이며, 다른 뜻이 아닙니다. 즉, 여덟 갈래 십자가가 아니라 네 갈래 십자가가 성 요한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이로부터 그리스도의 인장은 여덟 갈래 십자가가 아니라 네 갈래 십자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 히폴리토스는 사순절 전 주간에 대한 설교문 131쪽 뒷면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어째서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숭배자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자신의 인장을 찍게 할 것인가? 아무도 자신의 오른손으로 이마에 거룩하고 생명을 주는 십자가를 그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손은 묶여 있을 것이므로, 그로 인해 자신의 사지를 움직일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성 히폴리토스의 말씀이다. 또한 성 에프렘도 이렇게 말한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오른손과 이마에 가증스러운 표식을 찍어 줄 것이니, 그리하여 사람은 오른손으로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의 표식을 그릴 수 없게 될 것이다[564] . 여기까지가 에프렘의 말씀이다. 사실 우리는 네 갈래 십자가로 이마와 다른 신체 부위에 표를 그으며, 여덟 갈래 십자가로 오른손을 들어 십자 성호를 긋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갈래 십자가, 곧 그리스도의 인장은 지금과 같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신실한 사람들의 이마에도 그대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의 인장은 무엇이겠는가? 앞서 언급한 성 히폴리토스는 분명히 밝히기를,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적그리스도의 인장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성인은 앞서 언급한 자신의 저서 121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십자가를 표징으로 주셨으니, 그(적그리스도)도 이와 유사하게 자신의 표징을 줄 것이다. 또한 133쪽 뒷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그(적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주는 구세주의 십자가 대신에, 사악한 신을 대적하는 자의 표식을 받아들였다. "

이것은 주교와 순교자들 중에서 거룩하고 고귀하며 영광스러운 이 성자 히폴리토스의, 태양보다 더 분명한 증거로, 적그리스도의 인장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겠는가? 분열주의자들은 히폴리토스의 말씀에 거짓된 두루마리에 라틴식 십자가를 덧붙였으니; 마치 성 히폴리토스가 말하듯이, 적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십자가 대신 라틴 십자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러나 '라틴 십자가'라는 말은 히폴리토스의 글 어디에도 결코 없다. 그 거짓말쟁이들은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와 함께, 자신의 악의에서 우러나온 그 말들을 성인의 말씀에 덧붙였으니, 금에 진흙을, 빛에 어둠을, 진리에 거짓을 섞어, 네 갈래 십자가를 비방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인장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는, 성 요한 신학자가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곧 짐승의 표, 즉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565] ;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인장이 될 것이다. 성 안드레아 케사리우스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적그리스도)는 학살을 준비할 것이며, 자신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파멸을 부르는 배교자의 이름의 표식을 모두에게 강요하려 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안드레의 말씀이다. 이보다 더 감히 추측하려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혹시 누군가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호기심 앞에서 그것을 감추셨기 때문이다. 성 안드레아가 말하듯이, "만약 (일부 교사들이 주장하듯) 그 이름(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었다면, 그것을 본 자가 드러냈을 것이다. 그러나 신성한 은혜는 신성한 경전에 그 파멸적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기까지가 안드레이의 말씀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밝히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옛 성자들 중 일부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탐구하였고, 어떤 이들은 그 이름의 흔적과 유사점을 발견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추측에 그쳤다. 성 히폴리토스는 앞서 언급한 그의 글, 131쪽 뒷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인장의 수는 666이니, 나는 추측할 뿐, 이 글의 전체 내용을 밝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나는 생각한다'는 뜻이지만, 단정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글 전체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

564 말씀 106, 267쪽.

565 계 13:17.

말한다: “이 숫자에는 많은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에도 적그리스도의 숫자를 담고 있는 이름들에 대해서는 그곳에 기록되어 있으니, 읽고자 하는 자는 읽으라.” 마찬가지로 안드레이의『요한계시록 주석』13장, 62쪽에도 기록되어 있다.[566] . 또한 리아잔의 주교인 성 스테판의 소책자 8장에도 나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옛 성자들에게도 적그리스도의 진정한 이름을 알 수 있는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으신 그 비밀을 오늘날의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에 대해 시험해 볼 필요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다.” 성 안드레아께서 잘 말씀하셨다. “그(적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다른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숫자에 대한 알려진 지식도 때가 되면 밝혀질 것이다.”[567] .

그러나 주님의 네 갈래 십자가를 탐구하는 우리에게는, 성부들의 거짓되지 않은 증언을 발견했으니, 그리스도의 네 갈래 십자가가 적그리스도의 인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충분합니다. 분열주의자들은 거짓말을 하며, 그리스도의 네 갈래 십자가를 이단적으로 모독하고, 이를 부당하게 적그리스도의 인장이라 칭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거짓말을 옳은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적어도 신성한 성경이나 고대 성부들의 증언 중에서, 누가 기록했고 누가 말했는지, 사도 키오스인지, 예언자인지, 교사인지, 고백자인지, 순교자인지, 아니면 어떤 경건한 이인지, 혹은 교회 서적들이 네 갈래 십자가가 적그리스도의 인장이라고 증언하는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의 거짓되고 이단적인 허구로만 그렇게 말하는 자를 누가 믿겠는가? 마치 기초 없이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참되고 분명한 증거가 없는 모든 말과 가르침은 신뢰할 수 없고 확고할 수 없다. 그러니 성스러운 옛 증언서들에서 증거를 제시해야지, 자신들의 새롭고 거짓된 책들에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들은 어디에서도 그러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니, 오직 거짓의 아버지이자 자신들의 스승이자 지도자인 마귀를 인용할 뿐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무기인 거룩한 십자가를 미워하며, 그 십자가에 의해 정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늘을 두려워하고 떨며, 자신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 내뱉는다.

만약 그들이 퍼뜨리는 이단적인 헛소문대로, 적그리스도가 네 갈래 십자가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인장을 찍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때문에 거룩한 네 갈래 십자가를 혐오해야 하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 불릴 것이다. 그는 적그리스도라 불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조차도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적그리스도가 그 이름을 자칭할지라도,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임을, 성 안드레아는 제10편 제11장 49쪽에서 증언하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성 히폴리투스는 121쪽에서 말하기를, “모든 면에서 그 속임수의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고자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모든 면에서 그러하리니,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스스로에게 붙임으로써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다[568] .” ‘많은 사람’이란 곧 적그리스도의 선구자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스스로 취한다면, 하물며 적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더 많이 취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경멸하지 않는 것처럼, 설령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칭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네 갈래 십자가를 경멸하지 않을 것이며, 설령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표징이라 할지라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고백하며, 그분을 믿는 것처럼, 참된 십자가인 거룩한 네 갈래 십자가를 공경하고 입맞추며, 미로포마지(성유례)에서 그 십자가로 표식을 하고 인장을 찍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된 인장이지, 적그리스도의 인장

---

[566] 계시록 13:18에 대한 해설. 62쪽.

[567] 62쪽, 18절.

[568] 마태복음 24:5.

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로써 우리는 모든 성사를 완성하며,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과 식사를 축복하고, 어디에서나 네 갈래 십자가로 우리 자신을 보호한다.

만약 분열주의자들이 네 갈래 십자가를 혐오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망상하듯이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인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 자신도 혐오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어리석음과 이단적 사상과 악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은, 그 위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자신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점에서도 그들은 조롱받을 만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네 갈래 십자가를 모독하며,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인장이라 부르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네 갈래 십자가로 표식을 한다. 이는 (그들의 음란한 말에 따르면) 적그리스도의 인장으로 표식을 하는 것이니,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인이다. 오, 분열주의자들아! 네 갈래 십자가를 혐오하고 여덟 갈래 십자가를 사랑하는 너희는, 네 갈래 십자가가 아니라 여덟 갈래 십자가로 표식을 삼아야 한다. 먼저 이마에 십자 모양을 그리고, 배꼽까지 이어지게 한 뒤, 또한 어깨 너비만큼 십자가를 그리고, 그다음 발 부분을 배를 가로질러 비스듬히 그려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의 믿음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처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네 갈래 십자가에 대해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노라:

즉, 네 갈래 십자가는 구약에서 여덟 갈래 십자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으니,

즉 로마식의 네 갈래 십자가 위에, 브린식의 여덟 갈래 십자가 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네 갈래 십자가는

로마식 십자가가 아니며;

네 갈래 십자가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이나 우상 숭배의 대상이 아니며, 가증스러운 황폐함도 아니니;

또한 네 갈래 십자가는 적그리스도의 인장이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하지 않을 것이니,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장으로서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제25장. 십자가의 표징에 관하여

또한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분열주의자 중 일부는 그리스도의 네 갈래 십자가를 적그리스도의 인장이라 칭하며, 그 광기가 극에 달하여 이미 네 갈래인 십자가 표식, 즉 오른손으로 몸에 그리는 십자가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하여, 자신들이 반그리스도의 인장을 새기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교회에 가끔 우연히 들어가더라도 십자가를 긋지 않기도 한다. 그들은 묻기를, 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갈래로 뻗은 십자가 표식을 몸에 새기라고 명령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 묻습니다. 또한 다시 묻기를, 십자가 표식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그리고 몸에 십자가를 새기지 않고 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가 데살로니가 후서 제4강론에서 남긴 간결한 말씀으로 답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전승이 있으니,[569] . 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는 카파도키아의 케사리아 대주교인 성 바실리우스 대성인의 말씀도 적합합니다. 『우베트』라는 책 128쪽에 인용된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얼굴과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은 사도들의 고대 전승이며, 가르침으로 전해진 것이지 문자로 전해진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바실리오스의 말씀이다. 그러나 눈먼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이 확실한 근거를 찾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교회 전승을 통해 십자가 표시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밝혀 주겠다.

---

[569] 2344쪽.

십자가 표시의 관습은 초기 교회에서 사도 시대부터 시작되었으니, 바로 주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신 가장 거룩한 사도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 당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인도하시고,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을 때였다[570] . 그때부터 거룩한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들도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시작했고, 십자가의 표징으로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곧 밝혀질 것이다.

성 요한 신학자 복음사의 행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한때 (성 요한이) 길가에서 불에 휩싸인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표징으로 그를 치유하였다[571] ; 요한의 행전은 그의 제자 프로호르가 기록했다.

같은 행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어떤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극심한 빈곤에 빠져 빚을 갚을 돈이 없어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깊은 슬픔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유대인 마법사에게 치명적인 독을 마시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 마법사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원수이자 악마들의 친구로서, 그에게 치명적인 음료를 주었다. 그 기독교인은 그에게서 치명적인 독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며 두려워했다. 그러고 나서 잔에 십자가를 그은 뒤, 그것을 마셨으나 조금도 해를 입지 않았다; 이는 십자가의 표징이 잔에 든 독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무사하고 조금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에 스스로 크게 놀랐다. 다시금 대금업자들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한 그는 유대인에게 가서, 그에게 가장 독한 독을 달라고 했다. 유대인은 그 사람이 살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 그에게 가장 독한 독을 주었다.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 마시려 할 때 많은 생각을 하며, 그 잔에 다시 성스러운 십자가의 표식을 그어 마셨으나,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유대인의 집으로 달려가, 그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며, 유대인이 자신의 교활함에 서툴다고 조롱했다. 유대인은 두려움에 떨며 그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며 마시는가?” 그가 대답했다. “별다른 것은 없고, 단지 성스러운 십자가로 잔에 표식을 그렸을 뿐이다.” 유대인은 거룩한 십자가의 힘이 죽음을 쫓아낸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을 확인하고자 그 독을 개에게 주었더니, 개가 그 앞에서 그것을 맛보자마자 곧바로 죽고 말았다. 이를 본 유대인은 그 기독교인과 함께 사도에게 달려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성인은 그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를 믿도록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으며, 그 가난한 기독교인에게 건초 한 짐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사도는 십자가의 표징과 기도로 그 건초를 금으로 변하게 했고, 그 금으로 빚주인에게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가족을 부양하라고 지시했다[572] .

성 마태 복음사의 행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를 잡으려던 한 왕자가 갑자기 눈이 멀어 지도자를 찾고 있었다. 그는 사도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고, 눈이 멀어버린 눈을 다시 보게 해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사도는 왕의 눈 위에 십자가의 표징을 그어, 그에게 시력을 되찾아 주었다[573] .

열두 사도 중 한 분인 성 필립보 사도의 행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가 이루라는 이름의, 성 세례를 통해 빛을 받은 한 남자에게, 병든 아리스타르코의 상처 입은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자신의 손으로 십자가 모양을 그어주라고 지시했다. 그때 이루가 그렇게 행하자, 아리스타르코스의 마비된 손이 즉시 치유되었고, 눈은 다시 보게 되었으며, 귀는 다시 듣게 되었고, 온몸이 건강해졌다[574] .

성 디오니시오스 아레오파기타의 행적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성 사도 바울이 아테네 성을 떠나려 할 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모두에게 알려진 어떤 맹인이 사도에게 시력을 되찾아 달라고 간청했다. 사도는 그의 눈 위에 십자 성호를 긋고 말하였다. “나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행하사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자의 눈을 기름으로 바르시고 그에게 시력을 주

---

570 누가복음 24:50.

571 9월 20일, 117쪽.

572 120쪽.

573 11월 16일, 352쪽 뒷면.

574 11월 14일, 341쪽 뒷면.

셨으니,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너에게도 빛을 비추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그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자가 즉시 시력을 회복하였다[575] .

성녀 제1순교자 테클라, 사도 바울의 제자는, 그녀를 태우기 위해 많은 장작과 나뭇가지가 모아졌을 때, 그 모든 것 위에 십자가의 표를 그으며 올라가 그 꼭대기에 섰으나, 불은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576] .

성녀 순교자 바실리사 니코미디아는 자신에게 십자가의 표징을 그은 뒤, 불길 한가운데로 타오르는 화로 속으로 들어갔고, 타오르는 불 속에서 여러 시간 동안 서 있었으나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무사히 보존되었다[577] .

성녀 순교자 아브돈과 센니스, 페르시아의 왕자들은 로마 황제 데키우스에 의해 로마로 끌려가, 그리스도를 위해 짐승의 먹이로 내어주어졌으나, 십자가의 표징으로 보호받으며 짐승들의 손길로부터 무사히 살아남았다[578] .

성 순교자 지논, 알렉산더, 테오도르와 그 외의 이들은, 성 순교자 테렌티우스의 고난 당시, 4월 10일에 공경받는 성 테렌티우스의 고난 속에서 함께 기억됩니다. 그들은 헤게몬 포르투나티아누스에 의해 우상 숭배 신전 근처에서 순교당했을 때, 이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징을 새기고 신전을 향해 숨을 내쉬었더니, 즉시 그 안의 우상들이 큰 천둥소리와 함께 쓰러져 흙먼지로 흩어졌습니다[579] .

성 대순교자 프로코피우스는 그리스도를 위해 겪은 수많은 혹독한 상처들로 인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한밤중에 두 명의 지극히 빛나는 천사가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우리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보아라." 그가 그들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주님께서 너에게 보내신 천사들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순교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약 너희가 주님의 천사라면, 내 눈앞에서 주님께 경배하고, 십자가의 표징으로 너희를 보호하여, 내가 너희를 믿게 하라." 천사들은 즉시 그렇게 행하며 말하였다. "이제 믿으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셨으니[580] ."

네오케사리아의 주교인 성 그레고리우스가 광야에서 자신의 주교좌로 돌아오던 중, 길가에서 어떤 우상 숭배의 신전을 마주쳤다. 이미 저녁이 되었고, 큰 비가 쏟아지고 있었기에, 성인은 동행자들과 함께 그 우상 숭배의 신전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야만 했다. 그곳에는 우상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악마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성 그레고리우스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평소처럼 자정과 새벽 찬송과 기도를 드렸고, 악마들의 제물로 더럽혀진 공기를 십자가의 표징으로 축복했다. 악령들은 십자가의 표식과 성 그레고리우스의 기도를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성전과 우상들을 버리고 도망쳤다[581] .

성인 순교자 키프리아노스와 유스티나의 행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마귀들의 지도자 중 한 명이, 키프리아노스라는 마법사가 처녀 유스티나에게 보내어, 여자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다가와, 신성모독적이고 음탕한 청년 아글라이드와 결혼하도록 수많은 말로 그녀를 유혹하며, 신성한 성경의 사도들의 말씀을 인용하여 *"결혼은 정결하고 침상은 더럽혀지지 않는다"[582]* 라고 했다. 이러한 말을 들은 유스티나는 모든 계략을 다하는 유혹자 마귀를 간파하고, 하와보다 더 훌륭하게 그를 이겨냈으니, 그와 길게 대화를 나누지 않고 곧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피난처로 달려가, 자신의 얼굴에 정결한 표식을 새기

---

[575] 10월 3일, 151쪽.
[576] 9월 24일, 101쪽.
[577] 같은 곳 3, 18쪽.
[578] 7월 30일, 404쪽 뒷면.
[579] 207쪽.
[580] 7월 8일, 246쪽.
[581] 11월 17일, 355쪽.
[582] 히브리서 13장 4절.

고, 자신의 마음을 신랑이신 하나님께 드렸더니, 마귀는 이전보다 더 큰 수치심을 안고 즉시 사라졌다. 자만심에 찬 악마의 왕이 당황한 채 키프리아누스에게 다가왔으나, 키프리아누스는 그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악마에게 말하였다. “너도 그 처녀를 이기지 못했느냐? 너는 강력한 왕이자, 이런 일에서 다른 누구보다 더 능숙한 자인데: 그렇다면 너희 중 누가 그 소녀의 정복할 수 없는 마음을 이길 수 있겠느냐? “말해 보라, 어떤 무기로 너희가 막히고 있는가? 그리고 너희의 강력한 힘이 어떻게 무력해지는가?” 그러자 악마는 하나님의 권능에 강제로 굴복하여 마지못해 고백했다. “우리는 십자가의 표징을 바라볼 수 없으며, 마치 불이 우리를 태우는 것처럼 그로부터 도망치고, 멀리 쫓겨난다[583] .”

같은 문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키프리아누스는 십자가의 표징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정신을 차린 뒤 마귀에게 말하였다. “파멸의 자여, 모든 이를 유혹하는 자여, 온갖 불결함과 더러움의 보물아, 이제 네 무력함을 깨달았노라. 네가 십자가의 그림자조차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떨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네게 오실 때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십자가의 표를 이기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손에서 누구를 빼앗아 갈 수 있겠느냐? 이제야 깨달았노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복수할 힘조차 없도다. 저 저주받은 자는 네 말을 듣고 네 아첨을 믿어 속아 넘어갔으니, 저주받은 자여, 내게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구해야 하며, 의로운 이들에게 피신하여 나를 구원하고 나의 구원을 돌봐 달라고 청해야 한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불의하고 증오스러운 자여! 이를 들은 마귀는 키프리아누스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 했고, 그에게 달려들어 때리며 짓누르기 시작했다. 키프리아누스는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했고, 어떻게 스스로를 구할지, 악마의 사나운 손아귀에서 벗어날지 알지 못하여, 이미 간신히 살아 있는 상태에서, 유스티나스가 악마의 모든 힘에 맞서 싸웠던 성십자가의 표징을 떠올리며 말하였다. “유스티나스의 하느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는 손을 들어 십자 성호를 그었고, 즉시 악마는 팽팽하게 당겨진 화살처럼 그에게서 튕겨 나갔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 성호를 그었고, 악마를 저주하고 꾸짖으며 굳건히 저항했다. 악마는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서서, 십자가의 표식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히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그를 향해 위협적으로 소리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도 내 손에서 너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크게 분노하여 사자처럼 포효한 뒤, 떠나갔다[584] .

인도 출신의 성자 바르라암과 요아사프의 행적에는, 마법사 페브다가 보낸 악령들이 요아사프 왕자의 육체적 죄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려 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헛되이 돌아오자, 페브다는 그들을 꾸짖으며 말하였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단 한 명의 소년조차 이기지 못하다니, 그토록 무력한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강제로 제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고백하기를 원치 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견딜 수 없으며, 그 소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들고 있는 십자가의 표징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585] .”

위대한 성 힐라리온의 행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악마가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와서 그들에게 소리치자, 힐라리온은 그 목소리만으로도 몹시 두려워하여 그 광야를 떠나 도망쳤다. 그러나 일라리온은 그것이 악마의 공포 유발 수단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표징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믿음의 방패로 무장한 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하늘에서 오는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기도하며 엎드린 채, 그 위에 서 있던 원수를 물리쳤다[586] .

위대한 성 안토니우스는 자신을 공격하는 악마들과 맞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너희가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지배할 권한을 허락하시리니, 보라, 내가 여기 있으니, 바쳐진 이 몸을 삼

---

[583] 10월 2일, 141쪽 뒷면.

[584] 10월 2일, 142쪽 뒷면.

[585] 11월 19일, 376쪽 뒷면.

[586] 10월 21일, 213쪽 뒷면.

켜라. 그러나 만약 할 수 없다면, 왜 헛되이 수고하느냐? 십자가의 표식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뚫을 수 없는 성벽이기 때문이다[587] ."

또한 그 성자 안토니우스는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마음속에서 악마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그때는 환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며, 때로는 여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전갈의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거대한 육체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성전 꼭대기까지 머리를 뻗치기도 한다;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형상과 전쟁을 벌이는 군대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십자가의 표징이 나타나자마자 사라진다[588] .

바로 그 성 안토니우스 대성인은 사막에서 성 파블로 피베우스에게로 가던 중, 말과 닮은 한 사람을 보았는데, 시인들은 그를 '히포켄타우로스'라고 부른다. 그를 보고는 구원의 십자가 표징으로 무장한 뒤, 대담하게 물었다. "들으라, 하나님의 종이 어느 곳에 거하느냐?" 그 짐승은 성인의 말씀에 엎드려, 목소리로 말할 수는 없었으나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589] .

키프로스의 성 에피파니우스는, 아직 어린 시절 세례를 받지 않은 채 사나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소년이 나귀에서 떨어져 땅에 부딪혀 부상을 입고 울며 누워 일어나지 못했는데, 땅에 부딪혀 허벅지가 아팠기 때문이었다. 그곳에 우연히 지나가던 클레오비라는 이름의 한 기독교인이 다가와 그의 허벅지를 만지고, 십자 성호를 세 번 긋자, 그를[590] 으로 치유해 주었다.

또한 성 에피파니우스는 이집트 땅에 머물던 중, 어떤 그리스 철학자 에우데몬과 서적을 논하던 중, 그 철학자의 아들이 한쪽 눈이 먼 것을 보고, 그의 먼 눈에 십자가 표시를 세 번 그어 주었더니, 즉시 그 눈이 열려 소년이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591] .

성 바실리우스 대성인의 누이인 마크리나 성녀는 가슴에 심한 병이 생겼으나, 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그 부위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어머니께 간청하여, 어머니께서 오른손을 그 병 부위에 얹고 그 위에 십자가 표시를 그리게 하셨다. 그리하여 어머니께서 손을 그녀의 가슴 속으로 넣어 병든 부위를 만지며 십자가를 그으셨으나, 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치유되었고, 질병은 사라졌으나,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그 병의 흔적이 아주 조금만 남았습니다[592] .

성자 조시마가 광야에서 성녀 마리아 이집트인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악마의 환영인 줄 알고 몹시 두려워했다. 그는 떨며 십자가의 표를 그었고, 두려움을 떨쳐냈다[593] .

성 조시마가 공중에서 하느님께 기도하는 성녀 마리아를 보았을 때, 그녀는 땅에서 팔꿈치 하나 높이 정도 떨어져 서 있었는데, 성 조시마는 그녀가 유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당황했다. 성녀 마리아는 자신이 영이나 유령이 아니라 육신임을 스스로 깨닫고, 이마와 눈, 입, 가슴에 십자가의 표식을 그었다[594] .

그 성모 마리아께서는 요르단 강에도 십자 성호를 긋고 물 위로 올라가, 물 위를 걸으며 강을 건너셨다[595] .

예루살렘 총대주교 성 소프로니우스의『리모나레』에는 펜포클리 수도원에 거주하던 코노네라는 수도사 장로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헬레니안들 중에서 성스러운 신앙으로 개종해 오는 남녀들을 세례시키는 임무를 맡았었다. 그는 여성들에게 세례를 주던 중 유혹에 빠졌는데, 이는 자기 안에서 음탕한

---

[587] 1월 17일, 299쪽 뒷면.
[588] 1월 7일, 309쪽 (뒷면).
[589] 1월 15일, 287쪽 뒷면.
[590] 5월 12일, 385쪽.
[591] 391쪽.
[592] 7월 19일, 331쪽(뒷면) 및 332쪽
[593] 4월 1일, 169쪽.
[594] 170쪽.
[595] 173쪽 뒷면.

정욕을 느꼈기 때문이었으며, 그 유혹을 두려워하여 그곳을 떠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출신의 처녀 한 명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다. 코논 장로는 세례와 성유 예식 중에 그 처녀의 나체를 보지 않으려고 자신의 옷을 챙겨 그곳을 떠나며 말하였다. “나는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그가 그곳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자, 성 요한 세례자가 그를 맞이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하였다. “네 수도원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네 육신의 싸움을 덜어 주리라.” 그러나 아바 코논은 분노하며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너는 이미 여러 번 내게 이를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루지 못했으니.” 그러자 성 요한은 그를 앉히고, 그의 옷을 걷어 올린 뒤 배꼽 아래에 십자가 표시를 세 번 그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장로 코논아, 내가 네가 이 고난에 대한 상을 받기를 원했음을 믿어라; 그러나 네가 원하지 않으니, 보라, 이미 이 싸움이 네게서 떠나갔고, 그 대가도 잃게 될 것이다. 장로는 모든 것을 수도원으로 되돌려 보내고, 이튿날 아침 그 처녀에게 세례를 베풀고, 성유로 기름을 바르니, 마치 여성이 아닌 자에게 세례를 베푼 것처럼, 그녀의 나체를 보아도 전혀 정욕을 느끼지 못하였다[596] .

같은『리모나레』에는 보스트레템의 주교인 성 율리아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를 일부 위대하고 부유한 시민들이 미워하여 독으로 그를 죽이려 꾀했다. 그들은 주교에게 시중들던 소년을 매수하여 많은 선물을 약속하고, 소년에게 치명적인 독약을 주어, 주교에게 잔을 건네줄 때 그 안에 치명적인 독을 넣도록 지시했다. 소년은 지시받은 대로 행했다. 그러나 신성한 율리아누스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그들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잔을 들어 자기 앞에 놓았다. 그리고 소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도시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 중에는 그에게 치명적인 음모를 꾸민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성스러운 주교께서는 그러한 음모를 꾸민 자들을 폭로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온화한 목소리로 모든 이에게 말씀하셨다. “만약 여러분이 겸손한 율리아누스를 독으로 죽이려 한다면, 여기 여러분 모두 앞에서 여러분이 나를 위해 준비한 그 독을 마시겠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잔을 세 번 가리키며 그 위에 십자가를 그은 뒤, 말씀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잔을 마시겠으며, 다 마신 후에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독을 준비했던 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였다[597] .

마찬가지로, 존경받는 베네딕토 수도원장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던 몇몇 형제들로부터 점심 식사 시간에 치명적인 독이 음료에 섞여 유리잔에 담겨 전해졌습니다. 그가 유리잔 위에 십자가를 그렸을 때, 그 유리 그릇은 성스러운 십자가의 힘으로 마치 돌에 맞은 것처럼 즉시 갈라져 부서졌다[598] .

성 시메온 기둥수행자의 행적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선한 일을 시기한 마귀가 빛나는 천사로 변장하여,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 불타는 수레와 불타는 말들을 타고 기둥 근처에 나타난 성자에게 말하였다. “들으라, 시메온아,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서, 네가 보는 바와 같이 병거와 말들을 타고 나를 네게 보내셨으니,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신 것처럼, 네 삶의 거룩함으로 인해 너는 그러한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도다. 이제 네 시간이 이르렀으니, 네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주님의 손에서 선함의 면류관을 받으라.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오라, 주님의 종이여, 네 창조주를 뵙고, 너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분께 경배하라. 그리하면 너를 보고자 하는 천사들과 대천사들, 선지자들과 사도들, 순교자들이 너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과 비슷한 말을 악마가 하자, 성자는 원수의 유혹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말하였다. “주님! 이 죄인인 저를 하늘로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오른발을 들어 불타는 전차에 올라서려 했으나, 오른손을 뻗어 십자가의 표시를 그렸더니, 즉시 마귀가 전차와 말들과 함께 바람에 날려가는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다. 시메온은 마귀의 속임수를 깨닫고 회개하였다[599] .

---

[596] 리모나르, 제3장.

[597] 제94장.

[598] 3월 14일, 79쪽 뒷면.

[599] 9월 1일, 5쪽 뒷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표징과 십자가 표징의 기적적인 힘에 대한 증언의 일부일 뿐이며, 이에 관한 셀 수 없이 많은 증언을 성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작은 책 한 권에 담을 수는 없으며, 오직 방대한 책으로만 그 내용을 다 다룰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주제에 대해 스승들의 가르침 중에서 적어도 몇 가지는 언급해 보겠습니다:

성 히폴리트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믿게 될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표식을 줄 것이니, 아무도 오른손으로 이마에 거룩한 십자가를 그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손은 묶여 있을 것이니, 그로 인해 자신의 몸에 표식을 그릴 힘을 갖지 못할 것이다[600] ." 여기까지가 히폴리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듣는다. 성 히폴리토스는 십자가 표식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표식으로 자신을 표시하는 관습이 있었음이 분명하며, 세상의 끝날에도 지금 정교회 신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러할 것이다."

성 요한 황금입은 마태복음 해설, 54번째 교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면류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머리에 씌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그것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태어나야 할지라도 십자가가 따르고, 비밀스러운 성찬을 누릴 때에도, 성직 서품을 받을 때에도, 그 밖의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어디서나 우리의 적들에 대한 승리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성당과 벽, 문, 이마, 그리고 마음속에서 우리는 많은 정성을 다해 그것을 새겨 넣는다. 그리고 아래에: 아래에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그려야 마땅하나, 먼저 굳은 믿음으로 마음속에서 그려야 한다. 만일 네 눈앞에 이를 이렇게 그려낸다면, 불결한 영들 중 그 누구도 네 곁에 다가설 수 없을 것이니, 상처를 입히는 칼을 보고, 재앙을 불러오는 칼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죄받은 자들이 처형당하는 장소를 보면 공포에 휩싸이듯이, 마귀와 악령들이 그 무기를 보고 어떤 고통을 겪을지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모든 힘을 무너뜨리시고, 용(뱀)의 머리를 베어내셨으니[601] . 여기까지가 황금입 성 요한이다.

성 에프렘은 103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주는 십자가의 표징을 문에, 이마와 가슴과 입, 그리고 우리 온 몸에 새기라. 이것으로 우리 자신을 표징하고, 이것으로 무장하라." 이는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무기요, 죽음에 대한 승리이며, 신자들에게는 소망이고, 세상의 빛이며,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요, 이단의 파멸이며, 믿음에 대한 위대한 확증이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보호와 찬양이니,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매일 밤낮으로, 모든 때와 시간에, 어디서나 끊임없이 드리고 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하지도, 마치지도 말며, 잠들 때나 일어날 때나, 일할 때나 길을 갈 때, 설령 바다를 항해하든지, 강을 건너든지, 네 온 몸을 생명을 주는 십자가로 굳건히 세우라. 그러면 이 악을 보고 적대하는 세력들이 숨어 있다가 도망칠 것이니,[602] .

성 키릴 예루살렘은 7204년에 인쇄된 모스크바 교리문답서 43쪽에 실린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니, "먹을 때, 마실 때, 앉을 때, 설 때, 대화할 때, 혹은 걸을 때, 거룩한 십자가의 표징을 그리라." 또한 집 안에서든, 길 위에서든, 낮이든 밤이든, 어느 곳에서든, 거룩한 십자가의 표징을 그리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시작하지 말라.

십자가 표식에 대한 가르침은 이토록 분명하다! 이 말에 대해 무엇을 반박하겠느냐, 이 이단자여, 십자가 표식을 의심하고, 그것을 거부하며, 마치 악마가 십자가의 네 갈래 끝을 두려워하듯 두려워하는 자여? 성스러운 사도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축복의 본을 받아, 십자가의 표징으로 사람들에게 힘과 치유를 베풀기 시작하였으며; 성스러운 순교자들은 십자가의 표징으로 무장하였고; 주님의 천사들은 성 프로코피우스 순교자에게 나타나 십자가의 표징을 자신들에게 새겼으며; 성 요한 세례자는 자신의 죽음 후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사제 코논에게 나타나 십자가의 표징으로 그 안에 있던 정욕의 열정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십자가의 표징으로 악마의 힘을 물리치고 온갖 두려움을 쫓아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

---

[600] 9월 1일, 131쪽 뒷면.

[601] 제2부, 91쪽 뒷면.

[602] 236쪽.

교회는 창설 초기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의 표징으로 자신을 표시하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그 경건한 기독교 관습을 지켜오고 있다. 그러나 너, 오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여, 십자가의 표징을 두려워하며 마치 악마처럼 떨고 있으니, 십자가의 네 갈래 끝이 너를 덮치지 않기를 바라는구나.

만약 네 갈래 십자가를 적그리스도의 인장이라 부른다면, 도대체 무엇을 그리스도의 인장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여덟 갈래 십자가인가? 그러나 누가 언제 여덟 갈래 십자가를 자기 몸에 새겼던가, 혹은 새기고 있는가? 누가 여덟 갈래 십자가로 누구나 무엇을 축복하는가? 우리가 바로 그 네 갈래 십자가로 우리 자신과 사람들을 표시하고, 성사를 거룩하게 하며, 식사를 축복하지 않는가? 이것이 곧 우리 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참된 표징이자 인장이니, 다마스쿠스의 성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며 말하노라: "이 표징이 우리에게 이마에 주어졌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할례가 주어진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고 서로를 알아본다. 이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패이자 무기이며 승리이다. 이는 인장이니,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자[603] 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까지가 다마스킨의 말씀이다. 이 교회 교사는 앞서 언급된 교사와 일치하여, 상상 속의 네 갈래 십자가 표징을 적그리스도의 인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장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존귀한 네 갈래 십자가를 적그리스도의 인장이라 칭하며, 마치 악마들처럼 십자가의 네 갈래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입으리라.

제*26*장. 떨리는 자세에 대한 분열주의적 모독에 관하여

또한 브리냐네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인에 관한 또 다른 미친 주장이 들려오니, 십자가의 표징인 '떨리는 손동작'을 적그리스도의 인이라 칭한다. 그들의 이단적이고 신성모독적인 '스비트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손가락 세 개, 즉 세 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마에 십자표를 그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사탄에게 넘겨진다. 이는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인장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두루마리의 내용이다.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두 가지 적그리스도의 인장이 생겼다. 하나는 네 갈래 십자가인 적그리스도의 인장이고, 다른 하나는 세 손가락을 떨리는 듯이 모은 자세인 적그리스도의 인장이다. 도대체 그들의 어떤 주장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으니, 첫 번째인가, 아니면 두 번째인가? 그들은 스스로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적그리스도의 인장을 찾아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성 히폴리토스가 떨리는 손가락 모양을 적그리스도의 인장이라고 칭한 것처럼 그를 인용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어찌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성 히폴리토스는 손가락의 어떤 모양에 대해서도, 떨림에 대해서도, 두 손가락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네 갈래 십자가에 대해서도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인장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으니; 왜냐하면 네 갈래 십자가가 적그리스도의 인장이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두 손가락을 벌리는 손짓도 적그리스도의 인장이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분열주의자들이 의지하는 그 증인, 성 히폴리토는 그들의 허튼소리를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이다. 브리냐네가 의지하는 그 히폴리토의 말씀을 누구나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고 분별하여 읽어보라. 그리고 한 글자 한 문장씩 꼼꼼히 살펴보니, 거기서 손가락 모양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겠는가? 결코 없다. 어찌하여 거짓말쟁이들이 자신들의 머리에 대해 감히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성 히폴리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감히 하는가? 오로지 자신들이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의 자식들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아바쿠모프의 편지 목록에서 보았거니와, 그 거짓 교사는 (아르메니아식) 두 손가락 합장법을 가르치며, 세 손가락 합장법은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저주하며 말하더라:

그때 니코니안 일파는 독생자의 순수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합쳐진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세 손가락으로 세 영을 상징하는 불결한 자들이 울부짖을 것이니, 그들은 개구리 같은 악마의 영들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온 우주에 퍼져 나간다: 복 있는 자는 깨어 있어 자

---

[603] 제4권, 믿음에 관하여. 12장.

신의 옷을 지키되,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오, 나의 아버지들과 형제들이여, 떨림의 이단은 영적·육체적 벌거벗음이니, 우리가 온갖 방법으로 그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자. 여기까지가 아바쿰의 신성모독이다.

이러한 말들로 아바쿰은 자신이 거짓말쟁이, 이단자, 왜곡자, 신성모독자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분별력 있는 사고로 쉽게 밝혀질 것이다.

아바쿠무는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을 니코니안파라고 칭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과연 러시아 기독교가 니콘으로부터 그 기원을 받았는가? 과연 그로부터 성세례를 통해 빛을 받았는가?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니콘이 하나님의 위대한 주교이자 모스크바 총대주교였으며, 성경에 정통하고 경건하며, 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육신으로도 영으로도 조상이 아니며, 우리는 그에게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믿음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영적으로는 성 사도들과 동등한 공로자 블라디미르 대공으로부터 태어났으니, 온 러시아가 그분으로부터 믿음과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는 그리스인들로부터 받았고, 그리스인들은 고대의 성스러운 주교들과 만국의 스승들로부터 받았으며, 고대의 주교들과 스승들은 성스러운 사도들에게서 받았으며,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셨으니, 우리는 성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니코니안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새롭게 된 백성이다"[604] . 그러나 아바쿰과 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정통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너희는 도대체 누구의 자손이냐? 설마 그리스도의 적, 곧 마귀의 자손이겠느냐.

아바쿰은 다시 거짓말을 하며, 마치 우리가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합쳐진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고백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비방하고 있다. 그 자신도 바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제1부 제2편에서 드러난 바와 같다. 그곳에서 그는 하늘에서는 성부와 함께 계시는 별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지극히 순결한 동정녀의 태중에는 또 다른 아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적인 사고방식이 폭로되었다.

아바쿰은 우리가 십자가의 표징으로 경건하게 굽히는 자세를 모독하며, 이를 이단이라 칭합니다. 우리는 그 자세를 통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경건하고 정통적으로 표현하며, 스스로에게 십자가의 표징을 굽히는 자세로 새기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바로 그 경건한 자세를 배척함으로써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배척하는 것이다.

아바쿰은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왜곡자이자 동시에 큰 신성모독자로 드러났는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된 말씀이다: "뱀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의 입에서, 개구리처럼 나오는 세 더러운 영[605] " 등등. 그는 그 말씀들을 왜곡된 해석으로 우리의 불안한 심리에 주입하여, 마치 우리가 세 손가락으로 십자표를 그리는 행위가 세 더러운 영과 온 우주로 퍼져 나가는 세 개구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우리가 세 손가락으로 십자표를 그리며 "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을 세 마리의 부정한 영과 세 마리의 두꺼비로 칭한다. 오, 얼마나 무거운 모독이여! 오, 얼마나 하나님을 혐오하게 하는 모독이여! 오,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경함이여! 창세 이래 누가 성삼위일체에 대해 이토록 모독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겠는가? 그 어떤 이단도, 그 어떤 불경함도 아바쿰이라는 신성모독자가 모독한 것처럼 성삼위일체를 이토록 모독한 적은 없다. 분열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스승을 두고, 그를 따르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통 신앙이다.

또한, 분열주의자들의 두루마리에는 십자가의 표징을 모독하는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는데, 세 손가락을 모은 손을 그려 놓았으니; 한 손가락에는 *'사(sa)'*, 다른 손가락에는 *'타(ta)'*, 세 번째 손가락에는 *'나(na)'*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사악한 신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

604 베드로전서 2:9.

605 계시록 16:13.

이름이며, 그가 자신을 믿는 자들의 오른손에 새겨줄 것이라고 서명해 두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우리 정통 신자들을 모독하며,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세 손가락에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마치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 성호를 긋는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한 모독을 그 더러운 두루마리는 그리스도(반그리스도가 아니라)를 믿는 우리, 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그리지 않고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그리는 우리에게 가하고 있다. 그 거짓된 자들은 성 에프렘과 성 히폴리투스를 증거로 들며, 그들이 그 세 손가락으로 하는 십자 성호를 적그리스도의 표식으로 칭하지만, 그 성자들(앞서 알렸듯이)에게는 결코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바로 악마의 허구이며, 지옥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이다.

그들에게는 분열주의자로서 자신들의 아르메니아식 두 손가락 손짓으로 악마의 이름을 쓰는 것이 더 어울릴 것이다. 한 손가락에는 '데', 다른 손가락에는 '몬'을 쓰면, 그렇게 그들의 두 손가락 위에 그들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악마가 앉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 악마의 말을 듣고, 그 악마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독하고 거짓된 교리를 퍼뜨릴 것이다. 그러나 보복하시는 하나님, 주님,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실대로 갚아 주실 것이며, 그들의 간사함대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 분열주의적인 두루마리에서, 두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리는 법을 가르치는 아르메니아식 기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대형 인쇄된 예배서, 659쪽: "만일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두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리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는 그 큰 인쇄본 예식서를 가져다가 해당 부분을 살펴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다르게 인쇄된 것을 발견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두 손가락으로 십자 성호를 그리지 않는 자는." 이는 곧 분열주의자들의 거짓말임이 드러났으니, 인쇄본에는 '누구든지 십자가 표시를 하지 않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들은 여기에 '누구든지 십자가 표시를 하지 않는 자는'이라는 말을 덧붙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들은 서민들을 자신들의 거짓말로 속이며, 기록된 내용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덧붙이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누구든지 십자가 표시를 하지 않는 자는'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십자가 표시를 하는 것과 스스로에게 십자가 표시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건전한 이성으로 이 점을 생각해 보라.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실 때 십자가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으셨는가? 자신의 손가락을 모아 몸에 십자가의 표징을 그리셨는가? 그리스도의 수난 이전에,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도들이나 그 이전의 선지자들과 조상들 중에서 십자가의 표징을 행한 적이 있었는가?

또한 이 점도 있습니다. 주 그리스도께서 두 손가락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셨습니까? 그에 대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느 복음서 저자나 사도의 글에 있습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며 성도인 사도들을 축복하셨을 때, 그분은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으나, 손가락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그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손바닥 전체와 모든 손가락으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손가락을 모으는 관습은 후에 신자들 사이에 생겨난 것이며, 그 관습은 선한 것이지만, 신앙의 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이미 『지팡이』라는 책과 『우베트』라는 책, 그리고 개정된 시편에서 그 점에 대해 충분히 기록되고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원한다면 그곳에서 읽어보라.

제27장. 신성한 신비에 대한 그들의 모독

또한 이단자들은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거행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는 지극히 순결한 신성한 성사를 모독한다.

그들은 그 지극히 높으신 성물을 마치 어떤 가증한 것인 양 모독하고 경멸하며, 신성한 성사의 성찬을 모든 더러움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것으로 칭하고 있다. 오, 우리 주 그리스도께 대한 이 신성모독과 잔혹한 모독이여! 그분은 우리가 그 지극히 순결한 성사 안에서 공경하고 영접하는 분이시니! 오, 그 뻔뻔하고 광란한 개들이 주님께 짖어대는 입을 벌려, "잡아라, 잡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던 자들과 한 무리를 이루며 우리 주님께 끼치는 이 무거운 고통이여!

그들은 또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다음 세 가지 신성한 성사를 모독하고 경멸합니다:

성스러운 프로스포라에 그려진 네 갈래의 십자가를 이유로,

첫째는 새로 인쇄된 예배서들 때문이며,

또 하나는 성직자들을 위한 것이다.

네 갈래 십자가를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인장이라 부르며,

새로 인쇄된 예배서는 새로운 신앙이라 칭하며,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비난합니다. 첫째는 책 발간을 위한 정부에서 정한 수수료로, 그들은 이를 분열주의자들이 뇌물이라고 부르며, 둘째는 타락한 생활 방식에 대해,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제들의 죄를 지적하며, "사제라 할 수 없고, 전례라 할 수 없으며, 제사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보겠다*:*

1) 거룩한 프로스포라에 그려진 네 갈래 십자가가,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가?

2) 새로 인쇄된 예배서는, 그것이 참된 전례가 아니게 될까 봐, 거룩한 전례에 방해가 되는가?

3) 성직 임명에 부과된 수수료와 타락한 사제의 생활 방식이, 사제가 성찬식을 집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신성한 신비를 행하시는 것을 방해하는가?

첫 번째 고찰

프로스포라 위에 그려진 네 갈래 십자가에 관하여*;* 이것이 거룩한 제사에 방해가 되는가

질문합니다*:*

신성한 성사의 예식에서,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빵의 형상을 띤 것인데, 프로스포라 위에 인장으로 새겨진 십자가인가, 아니면 십자가 모양으로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가?

만약 십자가가 제물로 바쳐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육체가 아니라 십자가 나무가 빵의 형상으로 존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인데, 이는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로 바쳐진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세상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제물로 바쳐지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양이 십자가 모양으로 제물로 바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바쳐지시니, 네 갈래로 뻗은 십자가—성찬 빵에 도장으로 새겨진 바로 그 십자가—가 제물이 되는 데 무슨 장애가 있겠는가?

다시 묻노니*:*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의 지극히 깨끗한 두 손을 벌리셨는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여덟 갈래이셨습니까, 아니면 네 갈래이셨습니까?

그분이 여덟 갈래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브리냐네여! 오직 네 갈래일 뿐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머리는 십자가의 높이 쪽에, 뻗은 몸은 길이 쪽에, 발은 십자가의 깊이 쪽에, 손은 너비 쪽에 있습니다. 이는 바쳐지는 프로스포라 위에서도 네 갈래 십자가로 묘사되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네 부분으로 나뉘어 못 박히셨는데, 프로스포라 위에 그려진 네 모서리 십자가가 제물에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또한:

성스러운 접시 위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창으로 찔려 갈라질 때, 여덟 갈래 십자가의 형상으로 제사 지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네 갈래 십자가의 형상으로 제사 지어지는 것입니까? 진실로, 네 갈래 십자가의 형상대로, 길이와 가로 방향으로 네 끝과 부분으로 갈라지는 것이지, 여덟 끝과 부분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갈래 십자가 모양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어린 양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면, 어린 양의 윗부분에 새겨진 그 네 갈래 십자가가 거룩한 제물에 어떤 더러움이나 방해가 되겠는가?

또한:

제사장이 성례를 집전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을 부르며, "이것을 이루소서"라고 말할 때, 성스러운 예물을 십자가의 표징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어떤 십자가로 축복합니까? 여덟 갈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네 갈래 십자가입니까? 참으로 네 갈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네 갈래 십자가로 축복받는 거룩한 예물들이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거룩하게 된다면, 어린 양 위에 인장으로 새겨진 그 네 갈래 십자가로부터 제물에 어떤 더러움이나 방해가 있을 수 있겠는가?

두 번째 고찰

새로 인쇄된 예배서에 관하여; 이것이 거룩한 전례에 방해가 되는가?

질문하노니:

새로 인쇄된 예배서에서 고대 성찬식의 순서가 변경되었는가? 기도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부르는 기도가 변경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옛것과 마찬가지로 새것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인쇄되어 있다.

만약 새로 인쇄된 예배서에서 성찬식의 예식도, 기도문도, 그리스도의 말씀도, 성령을 부르는 기도도 변경되지 않았고, 옛것과 마찬가지로 새것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인쇄되어 있다면, 과연 새로 인쇄된 예배서가 성찬식에 어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묻노니:

누가 성찬식을 집전하며, 누가 성찬식 중에 하느님께 기도하며, 누가 거룩한 성물 위에 성령을 청하며, 제사를 거행하는가? 책인가—옛 예식서인가, 새로운 예식서인가? 아니면 그 일을 위해 성별된 사람, 즉 사제인가?

만약 책, 즉 예식서가 옛것이든 새 것이든 상관없이 그 자체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사제는 필요하지 않고, 단지 그 책만을 제단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제가 책 없이 미사를 집전한다면, 새로 인쇄된 전례서에서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사제는 그 책에서 옛 전례서에 있는 것과 똑같은 기도를 낭독하고, 모든 말씀을 똑같이 말하며, 모든 의식을 옛 전례서에 명시된 대로 똑같이 행하기 때문이다.

제28장. 사제의 수수료에 관하여

세 번째 고찰

분열주의자들이 '보수'라고 부르는 사제들의 봉헌금과 타락한 생활에 관하여; 이것이 성령께서 성사를 집행하시는 것을 방해하는가?

수수료에 관하여.

질문하노니: '수수료'와 '보수'는 같은 것인가? 만약 같다면, 제단을 섬기는 사제들은 제단에서 생계를 꾸려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관례상 신실한 신자들로부터 세례, 결혼, 고해, 기도, 장례, 추모, 성물 운반 등 모든 교회 의식에 대해 헌금이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로서 팔려서는 안 되며,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사도께서 성소에서 성스러운 일을 하는 자들은 성소에서 먹고, 제단을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생계를 꾸리라고 명하신 바와 같이[606] ?

[606] 고린도전서 9:13.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은 공과이고 어떤 것은 보수라는 점이다. 공과는 교회에서 제단에 섬기는 자들의 생계를 위해 정한 것이며, 보수는 성물 매매로서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시모니아라고 부르니, 이는 은으로 사도들에게서 성령의 은사를 사려 했던 마술사 시몬 때문이었다[607] .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지만, 뇌물은 비밀리에 주어지므로, 이 때문에 신성모독이라 불린다. 세금은 교회에 의해 합법화되었으므로 죄가 없으나, 뇌물은 교회에서 금지한 죄이다. 세금은 소액이지만, 뇌물은 거액으로 간주된다. 세금은 교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만, 뇌물은 교회를 통해 은밀히 이익을 얻는 것이다. 세금은 자선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경건한 그리스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의 저서『코르미키아』323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이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명한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금지하는데, 그것은 성스러운 교회가 아닌 개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이다. 여기까지가 유스티니아누스의 말씀이다. 그리고 진실로 이 기부금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성직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며, 주교에게 주어지는 것은 즉시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으로 분배된다. 그러나 보수는 탐욕과 부당한 이득, 그리고 강탈로 간주되어 중대한 죄로 여겨지며, 파문과 저주로 처벌받는다. 이는『코르므치야』라 불리는 책의 제1장, 사도 규칙서 7쪽 뒷면에 명시되어 있다.

성 사도들의 제*29*조 규칙.

주교나 사제, 또는 집사 중 재물을 대가로 성직을 받은 자는 그 자신과 그를 성임한 자 모두 파문되어야 한다.

그 밖의 이와 같은 사항들은 같은『코르치야』책의 184쪽 뒷면, 211쪽 뒷면, 283, 284, 289쪽 뒷면, 그리고 290쪽 뒷면을 참조하라.

임명 시 무결하게 납부해야 할 관세에 대해서는, 같은 책인『코르치야』의 제42장을 참조하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칙령 중 32번, 319쪽에도 명시되어 있다: 거기에는 임명 시 납부해야 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 탄생 후 527년에 그리스 왕위에 올랐다.

발사몬이라 불리는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테오도르는,『사도적 규율』과『성부들의 공의회에 대한 해설』제54장[608] 에서, 경건한 그리스 황제 이사악 코메노스를 언급하며, 그가 황제의 칙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임명되는 장로로부터 성직자에게 7개의 금화(zlatitsa)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그 배분은 다음과 같다: 성직자 집단에서 1개의 금화, 집사직에서 3개의 금화, 사제직에서 3개의 금화. 이사악 코므니노스는 그리스도 탄생 후 1057년에 그리스에서 통치를 시작하였으며; 테오도르 발사몬은 1202년에 이 규칙에 대한 해설을 저술하였다.

누구든지, 그리스 교회에서 경건한 왕들에 의해 서품받는 자들에게 부과되는 헌금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정립되었는지 살펴보라.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신앙과 교회 규약 및 법규를 받아들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도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직 임명 시 관례가 제정된 이유이다. 새로 임명된 사제나 집사는 임명 후 주교와 성직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유하지 않아 주교와 성직자들에게 마땅히 대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때문에 식사 비용을 7개의 자라티스로 정하도록 명령되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에서 그 자라티스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비쌌는지 아니면 쌌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에게는 그라티스로 세금을 걷지 않으며, 그 가치도 높지 않다. 그라티스 대신에 예전의 러시아 주교들이 흐리브나를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키예프 및 전 러시아의 대주교인 성 키릴(그 이름의 세 번째 인물)의 재임 시절, 블라디미르 주교 세라피온이 임명되었을 때(세상 창조 6782년,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 1274년), 그 임명식에 다음과 같은 주교들이 참석하였다: 성 이그나티우스 로스토프 주교, 테오도트 페레야슬라프 주교, 시메온 폴로츠크 주교; 이 주교들은 새로 임명된 주교와 함께, 새로 임명된 사제가 성가대원들에게 7그리브나를 지급하도록 확정하였다.

---

[607] 사도행전 8:18.

[608] 편지 15.

『올바른 고대 필사본』과 제6차 세계 공의회 규칙 중 제22조 및 그 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609] : 사제 서품 성사에 참여하려는 자들은 해당 지역의 주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그들은 촛불, (교회용) 포도주, 향, 성병, 사제들의 봉사에 필요한 비용, 그 밖의 각종 경비, 그리고 주교의 식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헌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헌금은 비방받거나 비난받지 아니하니, 이는 이 일에서 아무런 해가 없으며, 서품은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즉시 받으라, 즉시 주라" 하셨느니라. 서품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즉 성직의 계급을 사고파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헌금은 이와 별개이다. 이는 매매가 아니며, 이 관행은 어디에서나 이루어지고, 분별 있는 자라면 이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으니, 사도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가 자기의 병참비를 언제 사용하겠느냐*?* 그러나 그는 그들을 위해 싸우는 대가로 그 병참비를 받는다." 혹은 누가 포도원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혹은 누가 양 떼를 치고 그 젖을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이 말을 사람에 비유하여 하는 것이냐*?* 아니라*,* 율법도 이와 같이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타작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즉, 네 일을 위해 수고하는 가축이 먹는 것을 막지 말고 먹이를 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610] . 또 다시: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심었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무엇이 대수이겠느냐?"*[611]* .

여기서 다음 내용을 상기해 보자*:*

지난 시절, 러시아가 여러 공국으로 나뉘어 오르다의 지배를 받던 시절, 프스코프 성에서 '스트리고니키'라고 불리는 이단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마치 오늘날의 카피톤 브리냐네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모독을 퍼뜨리며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고, 많은 이들을 자신들의 이단적 고집으로 이끌었다. 다른 모독들 중에서도 그들은 성직 임명을 대가로 받는다는 이유로 성직 제도를 비난하며, 마치 성직의 지위가 뇌물로 거래되는 것처럼 여겼고; 그 때문에 사제들과 교회를 멀리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콘스탄티노플의 성 필로페이 총대주교(당시 키예프 주교좌를 두고 성 알렉시우스 대주교와 로마노 주교가 다투고 있던 시기)는, 총대주교는 프스코프 사람들에게 권고 서한을 보냈는데, 이 서한은 오래된 필사본 규율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제6차 세계 공의회 규율 중 22번과 23번 규율 사이에 삽입되어 있어, 여기에서 소개한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필로페이 성하의 서한.

고귀하고 정직한 볼야르들, 프스코프의 용사들, 나의 아들인 포사드니크, 천인대장, 백인대장, 그리고 나의 모든 자녀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딴 백성들, 전 러시아의 거룩한 대주교구 관할 하에 있는, 러시아의 도시 프스코프와 그 경계 내에 계신, 주님 안에서 우리 겸손함을 사랑하시는 자녀들아, 너희를 모두 아들들과 자녀들이라 부르노라! 또한, 악한 마귀의 작용으로 인해 공의회 교회에서 떠나고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탈한 자들도,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와 함께하시는 위대한 성직자들, 신성한 공의회를 알게 된 자들, 즉 여러분 중 일부는 경건함의 겉모습을 내세우며, 신성한 성경과 성스러운 규범을 지키는 척하면서도, 공의회 사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나와 성직자들, 사제들, 모든 성직자, 그리고 그 밖의 기독교인들을 모두 이단자로 여기며, 자신들만이 정통 신자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를 듣고 마음속 깊이 슬퍼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잘려 나가는 것을 보고 내적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진리의 원수이자, 태초부터 살인자이며, 우리 본성을 대적하는 자가 우리의 지체들이 잘려 나가는 것을 듣는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슬픔이 없겠는가? 이는 그의 본성이 항상 그러하기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공격할 수 없을 때면, 그는 은밀히 모의하여,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유혹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온갖 이단을 유입시켰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육신적 강림 이후 모든 우상 숭배가 자취를 감추었고, 마귀가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굴

---

[609] 686쪽.

[610] 고린도전서 9:7, 8, 9, 10.

[611] 같은 곳 11절.

복시킬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은밀히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공개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유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피조물이라 칭하게 하였으니, 이와 같이 다른 이단들도 오른편에서 은밀히 유입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기독교와 성직 서품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성직자들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이 서품 없이는, 설령 땅 위에서 천사처럼 산다 해도 누구도 구원을 바랄 수 없습니다. 이 거짓 비방을 여러분 가운데 퍼뜨려, 마치 하나님의 교회가 대가를 받고 직분을 부여하는 것처럼 믿게 만들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사악한 악마가 그들을 그토록 현혹하여, 그러한 일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교회, 공의회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존재하며,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자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통 신앙 위에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세워져 있고, 그 존재와 구조는 거룩한 규범들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뇌물을 받고 직분을 맡기는 자들은, 팔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를 파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시몬과 마케도니우스, 그리고 그 밖의 영성 파괴자들과 한 부류로 여겨진다. 이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언제나 이와 같이 지혜롭게 행해 왔기 때문이다. 만약 소수가 이러한 불경스러운 행위를 저지르며 대가를 받고 임명하는 것을 감히 행한다면, 그들은 교회 총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들은 소수일 뿐이며, 은밀히 행하고 있지만, 일단 적발되면 제재받으며, 교회로부터 정죄받고 추방됩니다. 비록 뇌물을 받고 임명하는 주교들이 소수 있을지라도, 이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그들을 모두 이단자로 여겨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교회와 연합하여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악을 행하는 주교가 있다면, 자신의 대주교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일 그가 시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아버지이자 스승이며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로 세우신 분의 겸손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버지처럼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고 알리노니, 여러분을 우리 자녀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온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지분으로서, 분쟁과 분열을 그치십시오. 그리고 한마음으로 교회 질서에 연합하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올바른 신앙과 진실한 삶으로 영광을 얻기 때문이며, 보수를 목적으로 한 직분은 명백히 불경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명된 자들은 종종 촛불, 포도주, 향, 그 밖의 제물, 그리고 식사 등을 위해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의 임명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받은 것은 오늘 다시 주어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직분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이지만, 때로는 필요한 지출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집으로 들어가셔서, 그분을 마땅히 영접하는 자들에게 머무르시며, 참된 말씀과 지혜를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그들에게서 제공되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그분께 큰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분주했고,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 을 인용하며,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을 막지 말라"[612] 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성한 성경의 뜻을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소의 입에 대해 말씀하시겠느냐?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말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직자들은 교회에서 음식을 얻으며, 제단에 섬기는 자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심었다면, 우리가 여러분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무엇이 대수이겠습니까[613] ? 이와 같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많으니, 올바른 이성과 선한 양심을 지닌 자들은, 보상이 없이 행해지는 이 일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모든 것을 분별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힘쓰라. 이 때문에 저희의 겸손한 사절과 위대한 공의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즈달 대주교, 디오니시오, 그 정직하고 경건하며 덕이 높고, 성스러운 규범을 잘 지키는 분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축복하시며, 가르치시고, 징계하시고, 권면하시며, 하나님의 사도적 교회의 공

612 신명기 5:4.

613 고린도전서 9:9, 13, 11.

의회에 합당하게 정리하고 통합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알아두소서, 교회에서 떠나는 자는 곧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니,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어떤 몫도, 어떤 분깃도, 어떤 몫도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나 붙어 있을 수는 없나니. 만일 너희가 자신의 교회에서 떠나, 정해진 형벌을 자초하고, 마치 이단자처럼 스스로를 분리한다면,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이 땅에 너희의 말대로 교회를 두지 않으실 것이며,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말씀은 거짓이 될 것이다. 그러나 거짓이 아니니, 결코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길을 깨닫고 형제들과 하나가 된 너희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노니, 그분의 은혜와 자비가 너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 편지는 많은 내용 중 일부만을 간략히 적은 것이며, 더 중요한 내용은 대주교 디오니시오스에게 맡겼으니, 그가 입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바를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회복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의 귀환과 회개를 기뻐하리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천사들과 사람들이 기뻐하는 바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이 세상과 내세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여기까지가 총대주교의 서한입니다.

그 후, 세상이 창조된 지 6883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지 1375년에, 경건함을 열망하는 정통 신자들이 스트리고니크 이단자들, 즉 집사 니키타와 평신도 카르파,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세 번째 사람을 죽이고, 그 타락한 자들을 다리에서 밀어 떨어뜨렸다! 그들은 한때 그리스도의 거룩한 순교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단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고, 전 러시아의 성스러운 포티아 전 러시아의 대주교로서, 창세 6917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해 1409년에 주교좌에 올랐으며, 그분 또한 프스코프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서신을 썼는데, 그 내용을 여기 모두 실지는 않겠으나, 말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그 중 일부만 간략히 언급하겠다.

지극히 거룩하신 포티오스 대주교께서는 프스코프 사람들에게 보내신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사제들이 보내온 서신을 통해 여러분의 경건함에 대해 듣고, 그로 인해 큰 겸손과 깊은 믿음, 그리고 영적 유익을 얻었으며, 이를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정통 신앙에서 벗어난, 이른바 '스트리골니키'라고 불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나의 자녀들아, 마음이 크게 근심하여 슬퍼하며, 이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규범을 찾아보았고, 여러분에게 편지를 썼으며, 정통 신앙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스트리골니차'라고 불리는 이들이 마귀의 유혹에 현혹되고, 그 교활한 이단에 눈이 멀어,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깨닫지 못하며, 그분의 참된 길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확신을 주기 위함이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록 누군가가 주교나 사제를 향해 가장 모독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진실한 심문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누구도 그들의 성찬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되며, 그 외의 사항들도 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위대한 유스티니아누스의 칙령에 따라 사제 서품 시 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원히 기억될 이사아키오스 코므니노스 황제는 다른 사항들과 더불어 이 내용을 기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왕국은 사제 임명에 있어, 정해진 고대의 관례에 따라, 임명 과정에서 7 자라티스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추가 비용도 징수하지 않도록 명한다." 이러한 고대의 규정을, 철학자 미하일 총대주교가 주재한 공의회 재판이 재확인하였으며, 이를 제정하여 확정하고 인봉하였다. 또한 콘스탄티노플의 니콜라 총대주교가 제정한 또 다른 공의회 규정 역시 앞서 기록된 바와 같이, 성직 임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다.

그 외 그 서한에 기록된 내용을 알고자 하는 자는, 성 필로페이 총대주교의 서한이 수록된 바로 그 책과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읽어보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러한 관세 면제에 관한 증언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노니: 만일 정통(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황제들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들, 그리고 러시아의 고대 주교들 이 성직 임명에 대한 헌금을 규정했다면, 그 헌금은 대가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관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보수가 아니므

로, 성령께서 거룩한 성찬에 임재하시고, 성체 성혈의 변화와 그 밖의 성사들을 행하시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제*29*장. 사제의 생활에 관하여

타락한 사제의 생활이 성령께서 거룩한 성찬 위에 임하시고 이를 거행하시는 것을 막는가*?*

질문합니다*:*

사제가 성사를 집전할 때,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바치는 것은 자기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자신이 아닙니다. 사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에 대해 성체 성사 시작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 희생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다시 묻습니다*:*

거룩한 전례에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제물 위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사제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함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과 함께 제물을 바치는 사제보다 바쳐지는 당신의 아들을 더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사제도 하나님의 시선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만약 사제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사제를 위해 성령께서 내려오신다면, 참으로 타락한 사제의 삶은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 바쳐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성령께서 오시니, 제사장의 타락한 삶이 성령께서 바쳐진 예물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대가 말하리라*:*

의로운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으나, 죄인 가인의 제물은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제는 자신이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제가 죄인이라면, 제물이 제물이라 해도 가인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치는 자를 보셨지, 바쳐진 제물을 보신 것이 아니었으며, 바치는 자의 열심을 따라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을 보셨으니*,* 먼저 아벨을 보시고, 그의 참된 경건함을 보시고는 그의 예물도 보셨다"[614] . 그러나 드리는 자에게서 참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지 못하신 곳에서는, 드려진 제물도 돌보지 않으셨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집에서 나오는 송아지도*,* 네 양 떼에서 나오는 염소도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셨다. 내가 어린 송아지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라[615] : 등등. 그리하여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제물보다 더 중요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이 제사장보다 더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사제이고,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사장은 죄인인 인간이지만, 제물은 흠 없고 더럽혀지지 않은 어린 양,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시선은 제물, 곧 그분의 독생자께 쏠려 있을 뿐, 제물을 드리고 섬기는 제사장의 삶에는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의로운 삶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제물로 바쳐진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해 드려지는 제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집니다. 설령 사제가 의로우든 죄인이든, 제물

---

614 창세기와 4:4.

615 시편 49:9, 13, 14.

은 오직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제물이 되며, 성령께서 그 앞에 놓인 제물 위에 자유롭게 임하시고 성사를 집전하시게 됩니다.

사제직 수행에는 참으로 덕스러운 삶이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마치 보이는 천사처럼,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함께 피 흘리지 않는 제사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사제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이를 염두에 두어, 깨끗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야 하며, 심판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기는 깨끗한 사제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하늘에서 상을 준비해 두셨으나, 더럽고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예배에 임하려는 자들은 고통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제의 죄 많은 삶이 성령께서 거룩한 성찬을 거룩하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교회 교사들이 이에 대해 일치하여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수많은 성부들 대신 성 요한 크리소스톰 한 분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는 바울의 서신에 대한 해설 중,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 1장 2절의 교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616] : "비록 제물을 바치는 자의 삶이 불결하더라도, 그 제물은 참된 제물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언약궤 앞에서 그들의 행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과연 사제적 삶이란 무엇인가? 과연 그토록 큰 덕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제적 덕을 통해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사제)가 입을 딱 벌리는 것뿐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너희는 단지 이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매우 훌륭한 말을 하고자 하나, 놀라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물은 바로 그것이며, 설령 우연히 온 사람이 가져다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황금입의 말을 경청합니다. "우연히 온 자라도 (제물을) 바친다면, 설령 그 사제의 생활이 비열하더라도, 그 제물은 똑같은 것이며,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제물, 마치 어떤 성인의 제물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바울이든 베드로든 (제물을 바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바로 그 제물이며, 오늘날 사제들이 행하는 바로 그 제물이다. 이 제물은 저 제물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으니, 이 제물 또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제물을 거룩하게 하신 분께서 직접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사제가 오늘날에도 말하는 바로 그 말씀과 같으니, 제물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기까지가 성 금입의 말씀이다.

또한 이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 여기에서 예지력을 지닌 성 마르코에 관한 이야기를 인용하고자 한다. 그에 대해서는『프로로그』의 3월 10일 항목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집트의 수도사 마르코에 대해, 그가 30년 동안 자신의 수도실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다고 전해진다. 한 장로가 그에게 찾아와 성스러운 예배를 드린 후, 그에게 성찬을 나누어 주곤 했다. 마귀는 그 노인의 덕행과 인내를 시기하여, 그를 파멸로 몰아넣고자 했으며, 악령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데려와 마치 기도와 축복을 받으려는 것처럼 가장하게 하였다. 마귀에게 조종당한 그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장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장로는 온갖 죄악의 악취로 가득 차 있으니, 더 이상 그가 당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마르코는 그에게 말하였다. "자녀여! 모든 사람은 더러움을 내쫓으려 하거니와, 너는 나를 찾아왔도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서로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치유되리라.' 노인이 이렇게 말하고 기도를 드린 후, 그 사람에게서 악마를 쫓아내고 그를 건강하게 돌려보냈다. 장로가 도착하자, 노인은 기쁨으로 그를 맞이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인의 악의 없음을 보시고 그에게 표적을 보이셨으니, 장로가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장로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보았을 때, 장로는 순식간에 온몸이 불기둥처럼 변해 버렸다. 그 환상에 놀라워하던 장로에게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아! 이 일에 어찌하여 놀라느냐? 세상의 왕이라도 자신의 귀족들이 자신 앞에 더럽게 서는 것을 원치 않고, 깨끗하고 큰 영광을 지니고 서기를 원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왕께서 성스러운 성사를 섬기고 그분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시고, 진실로

[616] 2556쪽.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비추실 것이다. 이를 본 성 마르코는 모든 이에게 전하여, 아무도 사제의 죄를 정죄하지 말게 하였으니, 사제들은 하나님의 중재자요, 천사들과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스키트 수도원 성자전』9장에 기록되어 있다. 어떤 은둔자에게 수도원의 장로가 찾아와 그에게 성사를 집전해 주곤 했다. 그런데 어떤 이가 그 은둔자에게 와서 장로를 죄인이라고 비방했다. 관례대로 성찬식을 집전하러 온 장로에게 은둔자는 그를 합당하지 않은 자라 여겨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장로는 다시 돌아갔다. 그러자 하늘에서 은둔자에게 목소리가 들려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의 심판을 빼앗아 갔도다." 그때 은둔자는 마치 황홀경에 빠진 듯했고, 잘 다듬어진 샘과 금으로 된 양동이, 금줄, 그리고 지극히 맑은 물을 보았다. 그는 한 나병 환자가 그 금 양동이로 샘물을 퍼 올려 따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것을 보고 마시고 싶었으나, 물을 퍼 올리는 자가 나병 환자였기에 마시지 않았다. 그때 다시 그에게 음성이 들려와 말하기를, "왜 이 좋은 물을 마시지 않느냐? 물을 퍼 올리는 나병 환자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하였다. 그러자 은둔자는 정신을 차리고 환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 뒤, 이전과 같이 장로를 불러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의 손에서 지극히 거룩한 성찬을 받아 먹었다.

이러한 논증과 증거들을 통해, 타락한 사제의 삶이 성령의 은총이 거룩한 성찬에 임하여 이를 거행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아님이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지극히 순결한 신성한 신비에 대해 진실로 탐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으니:

프로스포라에 찍혀 있는 네 갈래 십자가도,
새로 발행된 예배서들도,
사제 서품에 대한 법정 수수료도,
타락한 사제의 생활 방식도, 바쳐지는 제물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분열주의자들은 헛되이 지극히 순결한 신성한 신비를 모독하며, 마치 어떤 더러움인 양 이를 혐오한다.

제*30*장. 제물로 바쳐지고 도살되는 거룩한 어린 양에 대하여

그들의 이단적인 두루마리는 신성한 신비를 모독하고, 우리가 바치는 무혈 제사를 비방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빵의 어린 양을 베고 도살하는 성체 성사를 욕하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물로 바쳐진다"라고 말하고, 그 밖의 내용들을 적고 있다. 그리고 또: "군인 중 한 명이 창으로 그분의 갈비뼈를 찔렀고," 등등. 그 의식을 조롱하며, 그 저주받을 두루마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주님께서(라고) 십자가 위에서 한 번 창으로 갈비뼈를 찔리셨을 때, 피와 물이 흘러나왔으니;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셨고, 십자가에서 찔리셨으니, 곧 옆구리를 찔리신 것이다. 알아두라, 어떤 사람도 두 번이나 그 이상 죽임을 당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은 단 한 번만 치명적인 죽음을 맛본다. 그리고 다시 아래에: "누가 죽임을 당한 사람을 여러 번 죽일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가 두루마리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모든 정통 신자들은 여기서 귀를 기울이고, 이 분열주의자들의 미친 사고방식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이 어떤 영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러한 말을 하는지. 이들이 이단적인 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바치고 거행하는 제물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계시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마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창에 찔리신 후로는 더 이상 세상의 구원을 위해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것처럼, 사제들이 거행하는 제물은 제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들의 미친 추론에 대해 나는 이에 대해 별로 반박하고 싶지 않다. 이는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네 원수들에게 네 비밀을 말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뱉는 신성한 신비에 대한 그 모욕적인 비방은 나를 분노하게 만들며, 주교의 의무는 침묵하지 말고 지극히 거룩한 성사의 영광을 수호하라고 명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의 그 불경스러운 모독이 반박받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나는 원치 않으나(필요는 법도 바꾸기 마련이니) 그들에게 신성한 제사에서 이루어지는 비밀 중 일

부를 간략히 알려줄 수밖에 없으니, 그들은 이를 듣고 알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마법사이자 우상 숭배자였던 발람도 천사의 현현을 받을 자격이 없었으나,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저주하려던 그의 입을 막으셨다는 사실이다.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그에게 나타나, 이스라엘을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금하셨다[617] .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그리스도 주님을 그 지극히 순결한 신비 안에서 모독하는 모독적이고 분열적인 입이 막히기를 원하노니, 신성한 희생의 신비를 드러냄으로써 그들에게 우리의 대답이 되게 하소서. 마치 칼처럼 그 이단적인 모독을 단호히 베어내듯이.

1) 신성한 제사의 신비.

성사를 통해 거행되는 신성한 희생은,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아버지께서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육신을 입고 영광을 받으신 불멸의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살해나 그분의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사도는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618] ; 그러나 이는 이전에 있었던 그분의 죽임과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반 위에 놓인, 그리스도의 몸을 본떠 성병에서 떼어낸 '어린 양'이라 불리는 부분이 봉헌될 때, 이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다. 또한 디스코스 위에서 '어린 양'이라 불리는 부분이 창으로 찔려질 때, 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갈비뼈를 찔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그분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주님께서 친히 성도인 사도들에게 이를 행하라고 명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내 기념으로 행하라"[619] . 들으라, 모독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라: 주님께서는 "이것을 내 두 번째 죽임, 내 희생 제물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기념으로 행하라"고 하셨으니, 곧 내 자발적인 고난과 죽음의 기념으로, 즉 유대인들에게서 이미 당했던 내 죽임과 희생 제물의 기념으로 행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 바실리우스 대주교는 자신의 전례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내 기념으로 행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죽음을 선포하고 내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성 금구(Zlatoust)는 자신의 전례에서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의 계명과, 우리를 위해 일어난 모든 일, 곧 십자가, 무덤, 사흘 만에 부활한 것 등을 기억하며." 이것을 보라, 저 저주받을 모독자들이여, 우리가 드리는 신성한 제사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유대인들에게서 당하신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2) 신성한 제사의 신비.

프로스코미니아의 시작 부분에서 프로스포라에서 떼어내는 그 부분은, '어린 양'이라 불리며, 그리스도의 몸을 형상화한 성반 위에 놓여질 때, 그것이 잘리고 찔려도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잘리고 찔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지 않은 단순한 빵일 뿐이며, 단지 그리스도의 몸을 형상화한 것에 불과하다. 무언가에 그려진 형상을 베고 찔러 죽인다고 해서,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육체로 그 형상에 가해지는 베임과 찔림을 고통으로 겪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이 주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더 이상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으시며 불멸의 몸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몸의 형상인 '빵의 어린 양'이 성찬식에서 베어지고 제물로 바쳐질 때, 그분은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으시며 죽지도 않으십니다.

3) 신성한 희생의 신비.

단순히 성반 위에 놓인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되기 전뿐만 아니라, 그 빵 속에서 그리스도는 마치 자신의 형상으로서 베어지고 제사 지내는 것처럼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으시며; 오히려 이미 성령의 역사로 그 빵이 변형되어, 더 이상 빵이 아니라 빵의 형상을 띤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므로, 그리스

---

[617] 민수기 22:31.

[618] 로마서 6:9.

[619] 고린도전서 11:24.

도는 쪼개지고 먹혀도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신으로 고난을 겪으셨을 뿐이며, 부활하신 후에는 더 이상 고난을 겪지 않으십니다. 그때, 그분이 자발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을 때, 그분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 신성은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았듯이, 이제 그분의 인성도 무정함과 불멸로 영광을 받은 채, 거행되는 신성한 제사 속에서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행하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제사는 그분을 두 번 죽이지도, 죽게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4) 신성한 제사의 신비

우리가 바치고 성사적 예식을 통해 거행하는 신성한 희생 제사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통받지도 않으시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으시나, 그러나 찔리시고, 도살되시며, 그분의 피는 그분께 아무런 고통도 없이 흘려지셨으니, 이는 옛 성부들에게 주어진 신성한 계시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건한 에프렘이 86번째 설교에서, 그에게 신성한 비밀에 대한 계시를 받은 한 장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들어보십시오[620] : "내가 보았노라(노인이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불이 내려오더니, 그들 위에는 두 개의 아름다운 얼굴이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으니, 그들의 빛이 번개와 같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두 얼굴 사이에는 어린 소년이 서 있었다." 천사들은 거룩한 식탁 주위에 서 있었고, 그 두 얼굴은 거룩한 식탁 위에 있었으며, 어린이는 그들 가운데에 있었다. 그리고 신성한 성사의 예식이 끝나갈 무렵, 집사들이 제물을 쪼개기 위해 다가왔을 때, 나는(노인이 말하길) 거룩한 식탁 위에 있던 두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그 위에 있던 소년의 손과 발을 묶었고, 그들은 칼을 가지고 소년을 죽이고, 그의 피를 거룩한 식탁 위에 놓인 잔에 부었으며, 그의 몸을 찢어 굽 위에 올려놓으니, 그 굽이 곧 몸이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기록된 나머지 내용도, 성찬식이 끝난 후 그 신성한 힘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고, 그 소년이 그 가운데서 살아 있으며 죽지 않은 채로 있었다고 기록된 부분까지 읽어 주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성 아르세니우스 대성인의 행전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621] : 신성한 신비에 대해 의문을 품은 어떤 형제에게, 두 분의 위대한 장로들이 그를 위해 일주일 내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끝에, 성찬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와 함께 교회 안 한 자리에 서 있었더니, 그들의 눈이 열렸고, 성찬상에 빵이 놓이자 어린 소년을 보았으며; 사제가 빵을 떼기 위해 손을 뻗자,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의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는 손에 칼을 들고 있어 그 어린이를 죽이고 피를 성배에 쏟아 부었다. 그리고 사제가 빵을 떼자, 천사는 그 몸을 조각조각 쪼개었다. 형제들이 성찬을 받으러 왔을 때, 믿지 않던 형제도 다가와 생고기와 피가 묻은 고기를 손에 받았고, 성배 속에서도 피를 보자 두려워하며 소리쳐 말하였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이 빵이 주님의 몸이며,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임을 믿습니다." 그 즉시 고기는 떡이 되고, 피는 포도주가 되어, 그는 큰 두려움과 감동을 안고 성찬을 받았다. 합당한 자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러한 계시가 이루어지곤 했다. 『프롤로그』 11월 26일 기록에 따르면, 디오스폴 성에서 사라첸 왕 누네르미아의 사촌이 성 게오르기오스 교회에 들어가, 성찬 예식을 집전하던 사제를 보고,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 그 피를 성배에 붓고, 살은 접시에 쪼개어 놓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성찬식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고, 피를 마셨다. 마찬가지로 『성 바실리오 대성인의 생애』( )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622] : 그에게 신성한 예배가 거행되고 있을 때, 어떤 유대인이 기독교인 대신 성스러운 신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신자들에게 섞여 교회에 들어갔더니, 성 바실리오가 손에 어린아이를 들고 쪼개고 있는 것을 보았고; 성찬을 받는 신자들에게 성인의 손에서 성찬을 나누어 주던 중, 한 유대인이 다가오자, 성직자는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하듯이 그에게도 성찬의 일부를 건네주었더니, 그 유대인이 그것을 손에 받아 보니 참된 살임이 드러났고, 그 후 성배에 다가가 보니 그 안에 참된 피가 있음을 보았다.

---

[620] 184쪽.

[621] 5월 8일, 514쪽.

[622] 1월 1일, 330쪽.

이것을 보라, 저 저주받을 모독자들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그 신성한 신비 안에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취하시어 찢기시고, 제물로 바쳐지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를 흘리시는 것이 참되시나, 그러나 고난을 당하시거나 죽임을 당하시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살아 계시고, 독에 의해 결코 해를 입지 않으신다. 이것은 많은 것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며, 신성한 희생에 관한 신비를 간략히 설명해 드린 것이니, 이 말이 너희의 모독적이고 이단적인 입을 막아주기를 바란다, 오, 미친 분열주의자들아, 음란한 말을 일삼는 자들아, 마치 우리가 그러한 의도로 성사를 집전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두 번째로 혹은 여러 번 다시 그리스도를 찌르고 죽이고 살해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욕하며, 더 나아가 신성한 희생 제물인 그리스도 자신에게까지 모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임을 당한 사람을 누가 여러 번 죽일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말로 너희는 너희의 이단적 주장을 드러내고 있으니,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희생되시고 창에 찔리신 후로는 더 이상 세상의 구원을 위해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냐? 만약 여러분의 미친 이단적 사고방식에 따라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성도인 사도들에게 "내 기념으로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셨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형제인 성 야고보와 성 바실리우스 대주교, 성 요한 황금입(여러분도 그분의 믿음을 따르고 있는)이 각자의 전례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오, 미친 자들아, 너희는 진리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길을 잃었고, 멸망하고 있으면서도 너희의 멸망을 보려 하지 않는다.

제*31*장. 신성한 신비에 대한 또 다른 분파적 모독

오직 신성한 신비에 대한 분열주의자들의 끔찍한 모독만이 우리 귀에 들려오니, 그들은 황폐함의 가증함을 일컫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미 그들의 미친 추론 속에서는 황폐함의 가증함이라 불리는 것들이 하나만이 아니라, 사방으로 뻗은 십자가도, 우리 성스러운 교회들도, 심지어 신성한 신비들까지도 황폐함의 가증함이라 칭하고 있다. 교회와 사방으로 뻗은 십자가에 대한 그들의 첫 번째 모독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반박하였다. 그러나 신성한 신비에 대한 이 무겁고 신을 거스르는 모독에 대해서는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먼저 그들로부터, 어떤 죄로 인해 신성한 신비를 황폐함의 가증한 것으로 부르는지 그 죄를 듣고자 한다. 드러나지 않은 죄를 누가 심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들이 먼저 우리에게 말해 주기를,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신성한 신비들이 '황폐함의 가증함'이라고 불리는지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가르침은 그분께서 거룩한 사도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전하신 것이며,[623] 가 오실 때까지 명령된 대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습니까?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황금입'이라 불리는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그가 말하기를[624] : "그 제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과 같으며, 오늘날 사제들이 행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제물은 그 제물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으니, 이는 이 제물 또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신 분께서 직접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밖의 것들은 앞서 이미 말한 바와 같다."라고 한 것이 거짓입니까? 그러나 저 저주받은 자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으며, 진실한 죄를 찾을 수도 없고, 오직 거짓되고 모독적인 죄만 찾을 뿐이니, 이는 그들이 거짓말하고 모독하며, 마치 광견처럼 신성한 성소를 향해 짖어대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고 신성한 성사 안에서 참되시나, 그분께서는 그들로부터 받는 모욕을 참으시다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꿰뚫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분께서 신성한 신비 안에서 모독하고 욕설을 퍼부으며 '황폐함의 가증한 것'이라 칭했던 그분, 곧 그분 자신의 모독자들을 향해 그 때에 직접 그들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

[623] 고린도전서 11:26.

[624] 디모데후서 1장 훈계, 2556쪽.

제*32*장. 주교직에 대한 그들의 모독

또한 이단자들은 주교 직분을 모독하며, 마치 주교들이 성직의 지위를 돈으로 산 것처럼 비방한다. 이에 대답하노니;

과거 모스크바 왕도에서 행해지던 관행에 대해서는, 우리는 키예프 지방에서 소환된 자로서 알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일에 대해 조사할 수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주교직에 임명되는 자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한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각자가 자신의 자격에 따라 그 지위를 받습니다. 나 또한 죄인으로서 이 거룩한 주교의 직분에 합당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따라 내 소망이나 청원, 혹은 대가를 바친 것이 아니라—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니, (사도와 함께 말하건대)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그분[625]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위대한 군주의 칙령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자신에 대해 말하는 바는,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아 주교직에 올랐던 제 동료 주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아시다시피, 보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군주의 뜻에 따라, 각자의 자격에 합당하게 주교직을 받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의 사람들 중 우리보다 앞서 뇌물을 받고 권력을 추구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와 상관없이 우리 자신만을 돌볼 뿐입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성직 매매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온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은 아님을 압니다. 그리스도 곁에 있던 사도들 가운데에도 성직 매매를 한 유다가 있었으나, 그 때문에 사도들의 무리가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마치 밀밭에 밀이 아직 수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이에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피할 수 없듯이, 밀은 여전히 밀로 남아 있으며, 주인은 그 사이에 섞인 소수의 가라지 때문에 밀을 버리지 않고 수확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때 주인은 추수꾼들에게 밀을 자신의 곡창에 모아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하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교회에서도, 이 슬픔에 찬 세상에서 밀처럼 밭에 머물러 있는 한, 선한 자들 사이에 악한 자가 섞여 있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 당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며, 심지어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 이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626] 고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마치 추수 때처럼 두려운 심판이 닥치면, 그때 악한 자들을 선한 자들로부터, 마치 가라지들을 밀에서 분리하듯이 분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명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비록 그 안에 선한 자들 사이에 악한 자들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하물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과거에 직분을 대가로 삼았던 어떤 주교들 때문에 거룩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몇몇 주교들 때문에 주교의 직분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사도들 사이에 있던 유다 때문에 누가 감히 사도들의 명단을 비방하겠는가?

분열주의 문헌에서 주교 직분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주교의 지팡이를 든 악마들의 모습을 그려 넣었는데, 마치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참된 목자들이 아니라 악마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이러한 악의적인 의도로, 자신들의 수도원에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실상 악마인 자신들의 목자들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분열주의 수도원은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신앙을 고수하며, 사탄의 무리가 모여 있는 곳이며, 그들만의 특별한 목자, 즉 악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들이 우리에게 모욕을 가하려 했으나, 그로 인해 스스로를 드러내고 말았다.

---

[625] 로마서 1:9.

[626] 마태복음 28:20.

제33장.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두 가지 가장 주요한 분파적 모독에 대한 반박

그러나 그들의 모든 비방에 대해 반박하는 말을 계속하지는 말 것이며, 답변할 가치가 없는 다른 것들은 무시하리라. 다만 이것만은 더 말하겠으니, 곧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들의 모든 비방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1)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 떠나버린 것처럼, 그리고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없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

2) 마치 이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에 대해 간략히 답변하건대: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교회에서 떠나버렸다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그 지극히 깨끗한 입술로 말씀하신 이 거짓이 없는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한:

만약 교회가 지금 이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 베드로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하리라[627]"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므로 묻노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짓인가, 아닌가? 참으로 거짓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에 신실하시다[628].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629], 거짓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은혜가 교회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니,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교회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그분의 은혜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지옥의 문도 이길 수 없는 교회는 이단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교회가 그 안에 어떤 이단을 받아들였다면, 이미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겼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교회에 확고한 무오성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있으며, 진리의 기둥이자 터전이다"[630].

그러나 저 저주받을 브리냐인들과 분열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이단적인 음란한 말과 거짓을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높게 여깁니다. 마치 그것들이 더 진실한 것처럼, 땅, 허무, 흙, 재, 그리고 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보다 더 실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미친 농부 같은 추론을 평신도들에게 확신시키려 애쓴다. 누가 그들의 광기를 비웃지 않겠는가? 누가 그들의 썩은 마음과 입에서, 마치 지옥의 심연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참담한 모독을 보고 가슴 아파하지 않겠는가? 더 나아가, 유혹하는 자와 유혹당하는 자들인 그들 자신의 그릇된 길과 파멸을 보고 누가 가슴 아파하지 않겠는가? 교회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선 높은 바위와 같아서, 밤낮으로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려도 손상되지 않으나, 모독하는 자들은 마치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교회는 영광을 얻을 것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며; 교회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실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마귀와 함께 지옥의 심연으로 던져질 것이며; 교회는 하늘에서 영원히 승리할 것이요, 그들은 지하 지옥의 쇠사슬 속에서 영원히 통곡하며 울부짖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성스러운 교회와 성직자 계급, 그리고 온갖 교회의 성물에

---

627 마태복음 16:18.

628 시편 144:13.

629 마태복음 24:35.

630 디모데전서 3:15.

대한 그들의 모독을,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내고 고발할 수 있겠는가? 이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이 마귀에게서 빌려온 거짓과 이단, 그리고 악의를 드러내는 데 충분하다.

자, 사랑하는 정통 신자들아, 그리스도의 참된 양 떼여,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교회의 진실한 자녀들이여, 우리는 건전한 이성과 또 다른 브린 정원의 열매인 그들의 교리를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철저히 규명해 냈노라:

1)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닌가*?*

2) 그들의 가르침이 이단적인가*?*

3) 그들의 가르침 속에 거룩한 것들을 모독하는 내용이 없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 속에서, 마치 소돔의 붉은 꽃이 핀 사과처럼, 달콤한 맛이 아니라 악취 나는 흙과 재를 발견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단적이며,

모독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영혼에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영혼에 해롭기 때문이다.

제3부. 분파적 행위에 관하여

1. 분파 사건의 중대성에 대하여

이단 사건에 대한 조사.

나는 여기서 은밀하고 알려지지 않은 인간의 일들, 혹은 연약함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 내 입이 그러한 인간의 일들[631] 에 대해 말하지 않게 하소서. 누가 나를 그들에 대한 재판관으로 세웠는가? 나 또한 죄인이며, 인간의 연약함에 속해 있노라. 성 엘리야(야고보의 말씀에 따르면)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으니[632] ;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가. 각자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으로 족하니,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의 공통된 재판관이시니라.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에 반하여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무력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완고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에 대해 우리가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본질은, 우리가 듣는 바와 같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선한 일들입니다: 수많은 금식, 끊임없는 기도, 수많은 절, 절제와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고기와 생선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마치 성부들을 본받는 것처럼) 사막에서 지내는 생활, 그 밖의 여러 고행과 수고들, 이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니, 우리는 이를 비난하지 않으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랑에 대한 소문이 우리 귀에 들려오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자신을 높이면서, 자신들의 기도와 금식에서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고,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 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꾸짖으며, 자신들은 성도로 여기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일들뿐만 아니라 선한 일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악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명백히 대적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실을 선한 것으로 여기고, 마치 코로 땅을 파는 돼지처럼 교회를 훼손하며, 많은 평신도들을 그들의 위선으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하며, 이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

631 시 16:4.

632 야고보서 5:17.

사람들의 행실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입니다.

악한 행위는 언제나 악한 것이며, 결코 선해질 수 없으니, 마치 그을음이 눈으로, 늪이 금으로, 담즙이 꿀로 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선한 행실은.

i) 어떤 때는 겉보기에는 선해 보이지만,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 어떤 때는 선한 척하지만 실은 매우 악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위이다.

3) 어떤 때는 비록 진정으로 선할지라도, 그러나 열매가 없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다.

먼저 선행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제1조

선한 행위에 대하여.

제*2*장. 선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1) 겉보기에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알 수 없는 행위에 대한 고찰.

선한 행실, 즉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실은 신성한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하느님의 계명 속에, 복음과 사도들의 권고 속에, 그리고 교리서와 금식 지침서 속에 담겨 있다; 또한 우리는 성인들의 생애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보기를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의 힘닿는 대로 이를 본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현존하는 덕망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행하는 일이 과연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는지 진정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하느님께 기쁘시게 여겨진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의 구원도 확실히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 그러하듯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도 확실히 안다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 중 하나이며, 나의 행실은 선하고 주님께 기쁘시게 여겨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프리고니크가 말하길: 누가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다고 자랑하겠는가*?* 혹은 누가 감히 죄에서 깨끗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633] ?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애쓰며, 우리의 미약한 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강화되어 감당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그분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 수고한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의인과 지혜로운 자, 그리고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나, 사랑과 미움은 사람이 볼 수 없다"[634] . 어떤 성경 번역본은 이를 더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의인과 지혜로운 자,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미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금식은 선한 행위이지만, 육신이 지칠 때까지 금식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사랑받는 것은 아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금식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니라"[635]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성 골로티오스는『마가리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636] "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한다고 해도, 과연 금식이란 무엇인가? 음식물을 삼가는 것을 금식이라 하는가, 아니면 정욕을 억제하는 것을 금식이라 하는가? 만일 육체의 음식물을 삼가더라도

---

[633] 잠언 20:9.

[634] 전도서 9:1.

[635] 이사야 58:5.

[636] 마르가리트, 12번째 글, 450쪽.

영혼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음식물을 삼가는 것은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악의 열매를 맺을 뿐이다. 만일 내가 빵을 삼가되 이웃에 대한 분노를 삼가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사람이 아니다. 짐승도 그렇게 행하기 때문이다. 짐승은 빵을 먹지 않고 살을 먹기 때문이다[637]. 금욕을 위해 취하게 하는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취하게 하는 술과 고기나 생선 요리를 삼가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사랑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 골로티오스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듯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가축보다 더 나은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모든 가축은 고기를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소와 나귀와 양도 그러하느니라. 자신의 육신을 고갈시키며 맨땅에 누워 잠을 조금만 자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사랑받는 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같은 스승이 같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만일 누가 땅에 누워 침대도, 짚매트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뼈만 침대가 된다 해도, 그런 사람은 이를 자랑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니, 마치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것처럼, 이는 짐승의 본성과 같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요, 오히려 모욕적인 일이라. 우리가 말씀의 동참자이면서 짐승보다 더 나쁘게 된다면 말이다. 여기까지가 황금입의 설교이다. 지속적인 기도는 선한 일이다; 그러나 기도 노래를 여러 시간 동안 계속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사랑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니라"*[638]*. 그리고 성 테오필락트는 주님의 그 말씀을 해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길게 이어가는 것은 옳지 않고, 자주, 그러나 짧게 말해야 한다." 또한: (기도에서) 지나친 말은 헛소리이다. 그러나 황금입자 성 요한 크리소스톰의 사도 서신에 대한 해설서 1830쪽 여백에도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기도에서 지나치게 말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자신을 많은 수고로 단련하고, 황야의 은둔처에서 거주하며,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육체를 죽이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구에게 그러한 행위로 기쁨을 드린 것은 아니며, 어떤 수고로 그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조들의 서적에서, 금식하며, 광야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육신을 완전히 죽이는 삶을 살았으나,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그 삶에서 떠난 이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성 요한 사다리꾼은 어떤 은둔자 스테판[639] 에 대해 애도하는데, 그는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수고하며 지냈고, 야생 짐승들도 그에게 온순해졌으니, 광야에서 자신의 손으로 표범에게 빵을 주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할 때, 그에게 나타난 무시무시한 얼굴들로부터 끔찍한 시련을 겪었으며, 그들에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어떤 질문에는 올바르게 대답했으나, 다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환상이었으며, (사다리 성인이 말하길) 보이지 않는, 용서받을 수 없는 시련이었다. 오, 기적이여! 침묵을 지키는 은둔자는 자신의 어떤 죄들에 대해 말하되, "이에 대해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니, 수녀 생활 40년 가까이 지내며 눈물을 흘리며 "아아, 나여, 아아, 나여!"라고 탄식하였도다. 『사다리』의 저자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시련을 겪은 후 육신을 떠났다." 심판이든, 끝이든, 그에 대한 응답이든, 시련의 종결이든,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사다리』의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곳에서 우리 구원의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이 과연 하나님께 기쁘시게 여겨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미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렵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의를 심판하리라*[640]*."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의, 즉 우리의 선한 행위들—금식, 기도, 절제, 절제, 육체의 욕망을 죽

---

637 같은 책 뒷면.

638 마태복음 6:8.

639 말씀 7, 118쪽.

640 시 74:3.

이는 일, 그리고 그 밖의 수많은 수련들—까지도 죄와 마찬가지로 심판하시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 속에서도 종종 어떤 죄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선한 행실 아래에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미 의롭고 거룩한 것처럼 여기는 자만심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마치 불길처럼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업적, 그리고 모든 공로를 휩쓸어 버립니다. 죄인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이곳에서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자가 저곳에서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걷는 자가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좁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는 자가 죽음을 맞이하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술주정뱅이와 탐식가가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금식하는 자, 술을 결코 입에 대지 않는 자가 하늘의 달콤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몸이 뚱뚱하고, 게으르며, 살이 찐 사람이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수많은 절제와 수고로 자신의 육신을 말라비틀어지게 하고 쇠약하게 하여, 뼈만 가죽으로 덮인 사람이 그 좁은 입구에 끼어들지 못하고, 낙원의 거처 밖에서 발견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의로운 재판관이 우리의 의로움과 죄를 심판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 의로운 자 중 단 한 사람도 자신 안에서 볼 수 없거나, 더 정확히 말해 보려 하지 않는 어떤 은밀한 비뚤어짐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가 말하듯이)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했다면, 정죄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641]. 나는 말하노니, 우리의 은밀한 비뚤어짐은 모든 것을 보시는 재판관 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때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춰진 것들을 빛으로 이끌어내시고, 마음속의 생각들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642]. 그렇게 드러난 자들 중에서, 누구의 죄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태양 광선보다 더 깨끗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광선은 온 공기를 비추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태양 광선이 창문이나 틈새를 통해 성전에 들어오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먼지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가!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밝혀질 우리의 선한 행실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얼마나 많이 드러날 것인가! 누가 죄에서 깨끗할 수 있겠는가? 비록 실제로 행한 일은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 기꺼이 원했던 것들조차도 말이다. 또한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드러날 수 있겠는가? 그분 앞에서는(욥의 말씀에 따르면) 별들조차도 부정하니, 하물며 사람은 고름과 같고, 인자는 구더기나 다름없으니[643]?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많은 선한 행실을 자만하며, 스스로를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여겼으나, 그것들이 하나님께는 불쾌하고 가증스러운 죄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안에서 높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만함으로 행한 우리의 모든 의는 그분 앞에서 마치 헝겊 조각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니라"[644]. 그리하여 우리가 교만함으로 의지했던 선한 행실들조차 죄와 함께 계산되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며 경계하도록 권면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645].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아니라, 떨림으로까지: *"*주님을 섬기되 두려움으로 일하고, 떨림으로 그분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646]. 만일 네가 구원의 길 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안다 해도, 여전히 두려워하라. 기록된 바와 같이: *"*서 있다고 생각하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647]. 만일 네가 네 수고로 그토록 높은 경지에 이르러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장래를 예언하며,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게 되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라. 주님께서 친히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641 고린도전서 11:31.
642 같은 책 4:5.
643 욥기 23:5, 6.
644 이사야 64장 6절.
645 빌 2:12.
646 시편 2:11.
647 고린도전서 10:12.

내게 말하리라. '주여, 주여! '주여, 주여!'라고 말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648] .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여! 누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누가 영혼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죄인들에게만 아니라, 스스로 성자라고 자처하며 장래를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기적 행자들에게까지 내려진 이 하나님의 엄중한 응답을 듣고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도와 금식, 그리고 수고를 통해 얻은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도 귀신 쫓아내심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이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649] :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은, 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자들의 기도와 금식, 그리고 그 밖의 수고들을 선한 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의라고 칭하며, 금식하고 수고하며 기도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가? 혹시 자신에 대한 어떤 은밀한 자만심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주님의 심판은 심연과 같으니[650] . 그분의 심판은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길은 탐구할 수 없도다. 누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겠는가[651] . 그러므로 다윗은 주님의 심판을 피하며 그분께 기도하되, "주의 종과 재판을 벌이지 마소서. 살아 있는 자 중 누구도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리이다[652] "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네 자랑을 내세우지 말며,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브리냐여,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교만하게 우뚝 서지 말라. 네 공로와 수고, 긴 기도와 수많은 금식, 술과 맥주를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해 장황하게 말하지 말라. 당신의 그 선하다고 여겨지는 행실들이 과연 하나님께 기쁘시게 여겨지는지 아닌지 알 수 없는데, 어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선하다고 일컬어지는 행실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교만과 자만심을 용납할 수 없을 뿐입니다. 땅에서 솟아오르지도 않았으면서 이미 하늘보다 높이 서 있다고 자만하며, 우리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제3장. 위선적인 행위에 대하여

2) 선하다고 여겨지는 행위에 대한 고찰. 그 겉모습과는 달리, 그 안에는 크고도 악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겉으로만 선한 척하며 위선적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는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다. 마치 양의 옷을 입은 늑대가 양이 아니라 단지 양의 모습일 뿐, 그 본성과 성품은 늑대인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위선적인 행위는 겉으로는 거룩함과 경건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을 띠고 있으나, 내면은 지극한 악과 불의,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위선적인 선행의 외관 아래 어떤 악들이 숨어 있는가? 이를 내가 명백히 밝혀 보이리라.

첫 번째 악은 교만한 허영이다.

두 번째 악은 헛된 수고이다.

세 번째 악은 남을 비난하는 것이다.

네 번째 악은 타인을 속이는 것이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악은 자신과 미혹된 자들에게 닥치는 치명적인 파멸이다.

여기서 누구나 분별해 보라, 위선적인 행실 속에 숨어 있는 그 악이 과연 사소한 것인지.

---

[648] 마태복음 7:22, 23.

[649] 마가복음 9:29.

[650] 시 35:7.

[651] 로마서 11:33, 44.

[652] 시 142:2.

선한 행실의 외관을 띤 큰 악은 교만한 허영이다. 이는 교만하여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적하기 때문이다. 거역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수고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거룩한 자로 존경받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경배자로 칭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금식할 때, 마치 금식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기라도 하려는 듯이 얼굴을 어둡게 하고,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려는 듯이[653] , 공개적으로 기도를 이어간다. 그리고 어떤 선행을 하든지, 은밀히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자를 회반죽으로 칠한 무덤에 비유하시며, 복음서에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반죽으로 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죽은 자의 뼈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느니라*"*고 하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654] .

선한 행위로 위장된 큰 악, 수고의 헛됨, 곧 사람이 행하는 모든 수고와 금식, 기도, 그리고 온갖 고행이 헛되이 사라진다. 여기서 인간의 자만은 그 대가를 받지만, 장래의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으니, 성 요한 사다리꾼[655] 은 그 수고의 헛됨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며 말하되: 허영은 행위에 대한 낭비요, 땀에 대한 파멸이며, 보물에 대한 모욕, 불신에 대한 울타리, 교만에 대한 선구자, 피난처에서의 소멸, 타작마당에서의 개미와 같다. 개미는 사소한 존재이기에 모든 일과 열매를 훼손한다. 개미는 밀이 익기를 기다리고, 허영은 (덕이 있는) 부를 모으기를 기다린다. 개미는 기뻐하며 훔치고, 허영은 낭비하기 때문이다. 또 다시: 허영에 찬 자의 금식은 보상이 없고, 기도는 이득이 없으니, 둘 다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영심에 찬 금식자는 더 큰 악을 저지르니, 몸을 말라비틀어지게 하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가 허영심에 찬 행자를 비웃지 않겠는가? 여기까지가 『사다리』의 내용이다.

선한 행실을 가장한 위선적인 행위로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큰 악이니, 이는 교만한 바리새인이 교회에서 세리와 함께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탐욕스럽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 혹은 이 세리처럼[656]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세리와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던 자를 보라. 세리는 바리새인에게 정죄받았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함을 받았고,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으나, 정죄받은 채로 나가게 되었으며, 그의 선한 행실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선한 행실을 가장한 위선적인 행위로 타인을 미혹하여 거짓 믿음에 빠지게 하는 것은 큰 악이다. 거짓된 행위를 참된 것으로 여기고, 위선적인 성자를 가장 거룩한 성자로 숭배하며, 그의 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선적인 방식으로 많은 이단자들이 많은 이들을 정통 신앙에서 미신으로 유혹하였다. 이는 마치 빛의 천사로 변장하는 사탄과 같다[657] ; 어둠이 빛으로 가장하여 사람을 유혹하고, 구원의 길에서 그를 타락시키는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악은 영원한 멸망이다. 위선적으로, 허영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위선과 허영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이다.

위선적인 일에 자신의 힘을 소진하는 자는,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재물을 훔치고 낭비하는 악한 종과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

653 마태복음 6:16, 5.

654 마태복음 23:27, 28.

655 『말씀』 22, 180쪽과 181쪽.

656 누가복음 18:12.

657 고린도후서 11:13.

다른 이를 정죄하는 자는 마치 적그리스도처럼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선조들의 책에 "형제를 정죄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사바이트의 요한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단 한 가지 이유, 즉 형제를 심판하는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환상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주님께 쫓겨나, 적그리스도라 불리며 망토를 박탈당하지 않았는가? 원하시는 분은 10월 22일『프롤로그』에서 이에 대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은 유혹자로서 정죄받게 될 것이니,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에게는 이미 맷돌이 목에 걸려 바다에 던져질 것이니라[658].

그러한 자는 스스로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미혹된 자들을 그와 함께 같은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마치 성 요한 신학자가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본 그 뱀처럼, 그 뱀은 스스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 중 삼분의 일을 함께 끌어내렸습니다[659]. 미혹당한 자들은 그들을 미혹한 자와 함께 멸망한다. 성 골로티우스는 빌립보서 해설 제2편[660] 에서 이를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복종을 맹세한 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려는 설교를 꾸민 마귀보다 더 사악한 것이 있겠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악으로 자기의 추종자들을 찌르는지 보았는가? 그는 설교와 자신의 수고를 통해 그들에게 고통과 고뇌를 안겨주려 한다. 여기까지가 황금입 성인의 말씀이다.

그토록 크고 사나운 악이, 위선적으로 행해지는 선한 행실의 모습 아래 숨어 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적들, 스스로를 거룩하고 의로우며 경건한 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스스로 양심을 살펴보고 자신의 행실을 점검하여, 선한 행실이라는 외관 아래에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악이 숨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나 같은 죄인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나,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기신 양떼를 내 사명대로 지키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양들에게 말하노니: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661] 을 조심하라; 너희에게 다가오는 위선자들, 겉으로는 선한 행실을 가장하여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하라. 거짓 선지자(거짓 교사들)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662] .

제4장. 선하지만 열매 없는 행위에 대하여; 이는 자만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3) 선하지만 열매가 없어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는 행위에 대한 고찰.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선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가 아니라, 자기애에서 비롯된 것.

혹은 정통 가톨릭 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것들.

자기애에서 비롯된 선행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가 아니라 자기애에서 행해지는 선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거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실에서 자신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실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자신을 찾는다. 자신의 행실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신성한 사랑을 위하여, 그가 사랑하는 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행한다. 반면, 자신의 행실에서 자신을 찾는 자기애에 빠진 사람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자신을 위하여 행하며, 일시적이든 영원이든 어떤 선한 것도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행한다.

---

658 마가복음 9:42.

659 계시록 12:4.

660 1867쪽.

661 누가복음 12:1.

662 요한일서 4:1.

일시적인 선을 위해 자기애자는 선한 일을 행하되, 헛된 일이나 비난,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악행에 대한 처벌과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이거나, 선행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거나,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이다. 악인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을 뿐, 처벌과 형벌이 없다면 온갖 악을 저지를 것이다. 선한 사람은 이득을 위해서나 사람들의 명예와 칭찬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지만, 만약 그 대가나 사람들로부터의 존경과 칭찬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결코 선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 자와, 보상과 명예를 위해 선을 행하는 자, 이 두 가지 행위는 모두 선한 것이지만, 둘 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애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가 없으며, 영원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 그 대가와 이익을 얻는다. 고통을 두려워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 보상과 이익은 바로 고통에 빠지지 않는 것 그 자체이다. 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을 행하는 자에게 있어, 그 선을 행하는 이유인 보상, 얻는 이익, 명예, 칭찬 그 자체가 바로 보상이다.

그러나 영생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수고에서 열매가 적거나 아예 열매가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거의 없거나, 아예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사람이 구원을 바라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1) 영원한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나,

2) 천국을 얻기 위함,

3) 혹은 신성한 사랑 그 자체를 위해서이다. 영원한 고통을 두려워하여 선을 행하는 자는, 매질당하거나 고통받지 않기 위해 일하는 종이나 노예의 처지에 해당한다. 만일 그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선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온갖 악을 피하려 했을 것이다.

선행을 행하는 자로서 천국을 얻기 위함이라면, 이는 고용인의 지위에 속하는 것으로, 매질을 당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만일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결코 선한 일에 힘쓰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신성한 사랑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은 아들의 본분에 속하는 것으로, 그는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보답도 기대하지 않으며, 오직 아버지의 사랑 그 자체를 위해 행한다. 그리고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것 그 자체를 고통으로 여기며,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 사랑받는 것은 지극히 큰 보답이자 풍요로움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지, 자신의 사리사욕이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여기며, 자신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선한 일을 행하는 종은 비방받지 않으며, 선한 일에 힘쓰는 고용인도 폄하받지 않는다. 그러나 아들은 그들보다 더 칭찬받고 높이 평가받는데, 이는 한쪽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아들은 자신을 소홀히 여기며 모든 일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거의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지만, 그 의도는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니, 그들이 목표로 삼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익을 얻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려 하여 상처를 입지 않으려 하지만,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은 자신의 이익과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것은 마치 뿌리가 없는 가지와 같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버리며, 쓸모없게 된다. 성 그레고리우스 베세도브니크(『두 말』)는 복음서에 대한 제7강론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하나의 뿌리에서 많은 나무가지가 뻗어나오듯이, 하나의 신성한 사랑에서 많은 미덕이 싹트나니. 사랑의 뿌리에 붙어 있지 않는 한, 어떤 가지도—선한 행실도—푸르름을 유지할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가 그레고리우스의 말씀입니다. 그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모든 선한 행위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해질 때, 마치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와 같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며, 무용지물이 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은 선한 일이며,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신성한 사랑으로 녹아들고, 그 가지가 사랑의 뿌리에 머물러,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사랑하게 된다면, 그때 그 선한 사람은 자신의 구원의 열매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사랑이 없다면, 단지 하나님을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삼켜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거나, 마치 고문자처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뿐일 뿐이다.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그 모든 두려움은 오히려 파멸로 이끈다. 마치 뿌리가 없는 가지가 시들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사랑 없는 두려움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다.

천국을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그 소망이 신성한 사랑으로 녹아들어야 한다. 즉, 가지가 사랑의 뿌리에 머물러, 하늘의 에 있기를 갈망할 때이다. 오직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곧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함이라면, 그때 그 선한 행실을 행한 사람은 구원의 열매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성한 사랑이 없다면, 천국을 바라는 소망 그 자체는 마치 뿌리가 없는 가지와 같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 버릴 뿐이다; 사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이를 확증하십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663] ."

제5장. 선하지만 열매 없는 행위에 대하여; 정통 교회 밖에서는

정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선한 행위에 대하여

정교회 밖에서 행해지는 선한 행실들은, 비록 매우 선할지라도, 열매가 없어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교회 밖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있지 않은 자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어 버리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664] . 그리스도의 교회를 붙잡는 자는, 마치 머리가 몸에 붙어 있듯이 자신의 교회에 매여 계시고, 그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멀리하는 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위해 선한 행실을 모으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자격도 없다. 머리에 의해 생명을 얻고 다스려지는 몸의 지체가 잘려 나간다면, 어떻게 살아 있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포도나무에서 잘려 나간 가지나, 사과나무에서 부러져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덕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통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연합에서 멀어지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알렉산드리아의 성 아타나시우스 총대주교께서 자신의 신조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원하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가톨릭 신앙을 지켜야 한다. 누구든지 이 신앙을 온전하고 흠 없이 지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의심의 여지 없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신앙이니, 이를 진실하고 확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여기까지가 아파나시우스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그의 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정통 가톨릭 교회 밖에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방주 밖에 있던 사람은 누구도 대홍수에서 구원받지 못했고, 오직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이 구원받았으며,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모두 멸망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그 교회는 노아의 배를 예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자 중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성 키프리아누스가 말하듯이) 교회를 어머니로 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실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665] . 또한 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듣지 아니하면, 너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될지니라*"*[666]

---

663 고린도전서 13:2, 3.

664 누가복음 11:25.

665 교회의 일치에 관한 책.

. 그가 선한 행실을 행하더라도, 교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지 말라. 하가르 사람들 가운데서도 덕이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진리를 지키고 자비를 베풀며,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랑과 선행을 자기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행하지만, 그들의 그 선한 행실들은 그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기독교인이라 자칭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멀리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진(만약 있다면) 선한 행실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성 골로티우스는 바울의 빌립보서 1장에 대한 해설, 제2강설[667] 에서 이를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탄보다 더 사악한 것은 없으니, 그는 곳곳에서 사람들의 노력을 무익한 일로 얽어매고 찢어 놓는다."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선행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설교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식이나 순결까지도 그들에게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인데, 이는 그들에게 상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들에게 큰 재앙을 불러오게 하리니,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기 양심에 의해 불타버릴 것이다"*[668] . 여기까지가 황금입의 설교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청하노니, 금식과 순결(처녀성이라 할지라도), 이단자들의 설교, 그리고 그들의 그 밖의 모든 행적과 수고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고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거짓 없는 황금입의 입술이 이를 선포하였느니라.

제*6*장. 위선적인 교사들의 품성에 대하여

이처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선한 행실인 양 가장하는 것에 대한 고찰을 제시한 바, 우리는 그들의 위선적인 교사들의 품성을 빼놓을 수 없으니, 그들은 악의가 없고 순진한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듣기로는, 그 포악한 늑대들이 양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양 떼 속으로 들어온다고 한다.

우선 (우리가 듣기로는) 부유하고 넉넉한 집들을 노리며, 가난하고 궁핍한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늑대도 이와 같이 행동한다. 먹을 것을 훔칠 희망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고, 가축 떼가 모인 소리를 듣는 곳으로만 찾아간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만한 사람들, 즉 서민들, 특히 여성들을 노립니다.

또한 어떤 집에 들어가면, 큰 경건함을 드러내며,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종이자 거룩하고 의로우며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자신들의 양식을 지참하고, 그들에게 대접되는 음식은 일절 맛보려 하지 않는데, 이는 그 집 주민들을 자신들의 미신에 빠뜨리기 위함이다. 그들은 주인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니, 이는 더러운 것을 혐오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금식 생활을 드러내기 위함이기도 하며, 저녁까지, 혹은 하루 종일, 때로는 그 이상 금식하며, 지참한 빵을 조금만 먹는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도록 감동을 주며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를 계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러한 기도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헛된 기도로 오랫동안 기도하니,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669* .

그들은 성경 읽기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르침을 펼치되,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일방적인 사상에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함이다. 또한 듣는 이들에게 한숨과 감회, 눈물을 곁들여 이야기한다. 모든 성스러움의 모습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를 드러내지만, 교활한 성품과 간사한 의도로, 마치 『사다리』라는 책에서 읽은 다음과 같은 비유와 같다[670] : 여우는 잠을 가장하고, 악마

---

666 마태복음 18:17.

667 1867년 서신.

668 디모데전서 4:2.

669 누가복음 20:47.

670 말씀 15, 108쪽.

는 정절을 가장한다. 전자는 닭을 얻으려 하고, 후자는 영혼을 파멸시키려 한다. 이와 같이 위선자들은 정절, 성스러움, 금식, 기도 및 그 밖의 선한 행위로 여겨지는 것들을 겉으로 가장하지만, 이 모든 것은 순진한 영혼들을 유혹하기 위한 위선일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 순진하여 그들의 간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그러한 삶과 겸손, 기도, 온유한 성품에 놀라워하며, 그들을 마치 하나님의 위대한 경건한 자들처럼 공경하고, 입을 벌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달콤하게 듣는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무지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닦아 놓은 뒤, 자신들의 이단적인 잡초를 뿌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이 없는 것처럼 비방하며, 성직 계급과 성경, 모든 교회의 성물과 모든 성사를 비방한다.

또한 자신들의 브린스키 수도원과 수도 규칙, 신앙, 그리고 성인들의 삶을 높은 찬사로 칭송한다.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예언하며, 이미 그 때가 임박했고, 이미 적그리스도가 세상에서 통치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순수한 영혼들을 미혹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들을 떼어내어 자신들의 미신으로 이끌며, 그들로부터 많은 자선을 받아, 마치 늑대가 빼앗은 먹이를 물고 돌아가듯, 이득을 챙겨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며,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파멸로 이끄는 것이다.

제7장. 덕스러운 삶이 잘못된 믿음을 확증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들아, 너희에게 권면하고 간청하노니, 그 미혹하는 자들과, 경건의 겉모습은 있으나 그 힘은 버린 위선적인 의인들로부터 조심하라; 이들을 멀리하십시오. 이아니와 야므리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이들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니, 그들은 마음이 타락하고 믿음에 무지한 자들입니다[671] . 또한 그들이 보여주는 경건한 삶의 모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누구의 경건한 삶도 그릇된 믿음을 확고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덕스러운 사람 가운데서도 미신을 발견할 수 있고, 덕스럽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도 올바른 신앙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덕스러운 삶이 그릇된 믿음을 확고히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난다.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 성 키릴로의 행적록[672] 에 기록되어 있듯이('프롤로그' 2월 25일 항목에도 동일하게 수록됨), 이집트 남부 지방에 어떤 은자가 있었는데, 그는 삶은 거룩했으나 거칠고 매우 소박한 인물이었으며, 무지함으로 인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곤 했다. 이 일이 가장 거룩하신 키릴에게 보고되었고, 그는 그 노인을 자기 곁으로 불러들였다; 그 장로가 표적을 행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주시지만, 멜기세덱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신 총대주교는 온유함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보여, 청하건대, 내 마음 한쪽에서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요, 그저 사람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에 대해 의심이 드니, 고의로 당신을 불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은 자신의 영적 삶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 제게 적어도 사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이 일에 대해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받은 대로 당신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사흘 동안 문을 닫고, 멜기세덱에 대해 알려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구한 바를 얻은 후, 성 키릴로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멜기세덱은 사람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총대주교가 물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버지?"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총대주교들을 한 분씩 제게 보여 주셨고, 아담부터 멜기세덱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제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이다.' 주교님, 이것이 진실로 그러하다는 것을 아십시오." 성 키릴로스는 그 노인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사실에 크게

---

671 디모데후서 3:5, 8.

672 6월 9일, 55쪽.

기뻐하며, 감사를 표하고 그를 보내주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떠나가며 모든 사람에게 멜기세덱은 사람일 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설교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키릴로스는 이러한 지혜로 무지한 자를 참된 길로 인도한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그 노인은 거룩하고 기적을 행하는 자였으며,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릇된 믿음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 미신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면, 온갖 면에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과연 그의 덕행이 가득한 삶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리모나르』제37장에서는 예라폴리스 지방에 살며 세비로의 미신을 고수하던 어떤 기둥 수행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후에 안티오키아 총대주교인 성 에프렘이 기적을 통해 그를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서게 했다. 그 기둥 수행자는 세비로의 미신에 머물러 있던 동안, 금식과 기도로 채워진 기둥 수행자로서의 덕행으로, 자신이 고수하던 세비로의 신앙을 확고히 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콘스탄티노플의 유독시우스 총대주교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에게 성 대순교자 테오도르 티론이 나타나, 기독교인들을 위해 사순절 기간 동안 콜리보를 준비하라고 명하였으니, 이에 대해서는 대사순절 첫 번째 토요일의 시낙사르에 기록되어 있다. 그 유독시우스 총대주교는, 그리스도를 위해 화형당한 성 순교자 케사리아의 아들이었는데, 덕행이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 덕행은 그의 잘못된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없었다. 아리우스의 이단을 따랐기 때문이며, 결국 그 믿음 속에서 죽어 이단자들과 함께 멸망하였고, 성부들에게 저주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세르기우스 총대주교도, 바다에서 성모 마리아의 옷을 적시고, 콘스탄티노플 앞바다에서 자신의 기도로 스키타이 선박들을 가라앉혔으며, 대사순절 다섯 번째 토요일에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는 아카피스트를 부르게 정한 분인데, 그분 또한 덕행이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 덕행이 가득한 삶은 그의 그릇된 신앙을 확고히 할 수 없었다. 그는 모노펠리투스 이단의 수장이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1월 21일에 기록된 성 막시모 고백자의 전기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단 속에서 세르기우스 총대주교는 죽었고, 이단자로 간주되어 성부들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는 곧, 아무리 덕행이 뛰어난 삶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신앙을 확고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또한 성 요한 황금입의 말씀[673] 에서도 이를 알 수 있는데, 그는 덕행 있게 살되 신앙은 그릇되게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명하며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만일 신앙의 가르침이 타락했다면, 설령 천사가 (그 생활 방식으로) 나타난다 해도 순종하지 말라. 그러나 올바른 가르침을 전한다면, 그 생활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까지가 황금입 성 요한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브리냐인들도 자신들의 생활 방식이 덕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확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신앙이라 말하되, 단 하나의 신앙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앞서 말했듯이) 단 하나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수도원이 몇 개나 있으면 그만큼의 신앙이 있으며, 각 수도원은 자신의 신앙을 높이고 옳은 것으로 만들려 한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비밀스럽고 위선적인 자신들의 설교자들과 교사들을, 마치 그리스도의 사도들인 양 보내는데, 바로 이 교사들에 대해 사도들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거짓 사도들*,* 아첨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674] *"*: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종들이 진리의 종인 양 변장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니,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라.

제2장

673 디모데후서 1장, 교훈 2, 2318쪽.

674 고린도후서 11:13.

제8장. 악한 분열 행위와 그 지도자들에 관하여

분열주의자들의 악한 행실, 즉 그들이 거룩한 교회에 대항하여 행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서, 이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거나 말할 수는 없으나,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들만 여기서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가 직접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은 겸손한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분열에 대해, 브린 숲이나 은둔처, 그들의 신앙 차이, 혹은 그들의 행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서, 하느님의 뜻과 국왕 폐하의 칙령에 따라 살게 되면서, 많은 보고를 통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진정으로(알고 있는) 것들, 즉 거짓 없는 전승자들로부터 들은 것과 직접 목격자들로부터 들은 것들만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신으로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복된 기억을 간직한 시베리아의 대주교 이그나티우스의 세 편 서신 중 일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는 시베리아에서 목회하던 시절, 자신의 전체 교구를 향해 이 서신들을 작성하여 분열주의적 이단의 해악을 규탄하고 근절하며, 신자들에게는 영혼을 해치는 이단에 현혹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첫 번째 서신에서는 시베리아 지역 튜멘에 있던 세 명의 분파적 교사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스카(요셉)라는 거짓 수도사, 별명은 아스토멘이며, 아르메니아 출신으로 카잔 시에서 왔고; 그리고 야쿤카(야곱)라는 배교자, 별명은 레피힌; 아브람코(아브람)라는 유대인, 별명은 헝가리인, 거짓 수도사. 이 세 사람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지 말고, 고해성사를 받지 말고, 성찬을 받지 말고, 교회 의식에 따라 합법적인 결혼식을 올리지 말라고 가르쳤다. 또한 그리스인들에게서 전해진 고대의 관습대로 오른손 첫 세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리지 말고, 아르메니아 이단의 관습대로 두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그리라고 했다. 그 밖에도 터무니없고, 거룩한 교회에 반하며 영혼을 해치는 자신들만의 교리를 백성들 사이에 퍼뜨렸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며 많은 이들을 유혹하고,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었다. 그 세 명의 분열주의 교사들 중 두 명은 세 번째 자와 많은 이단적 교리에서 의견을 같이했으나, 이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으니, 오스카와 야쿤카는 사람들에게 마치 그리스도를 위해 그러는 것처럼 서로를 불태우라고 가르쳤고, 그들은 많은 이들을 숲과 황야, 황량한 곳으로 데려가 불태웠으나, 아브람코는 그들의 가르침과 행위에 반대하며, 사람들에게 스스로 불에 타 죽으라고 하지 않고 오직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의 성사를 피하라고만 했다. 또한 그들의 또 다른 불일치에 대해, 이그나티우스 대주교는 자신의 세 번째 서신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야쿤카 레피힌은 가짜 예언자 아바쿰 프로토포파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적그리스도의 재림은 감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오직 정신적으로만 세상에 나타날 것이며, 이미 그러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고, 아브람코는 유대인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정해진 때에 감각적으로 오셔서 세상에 통치하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제자들과 갈라진 후, 레피힌파는 '정통파'라 불렸고, 아브람코파는 '감각파'라 불렸다. 지금도 브린 숲에는 '감각파'라 불리는 수도원이 있는데, 이들은 '헝가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거짓 수도사 아브람코 유대인의 후예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점은, 아르메니아인 오스카 아스토멘이 카자니에서 시베리아 지역으로 유배되어 7168년(1660년),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 아바쿠무스 사후 4년째 되는 해에 이송되었다는 사실이다. 오스카는 처음에 튜멘에 있었다가 예네세이스크로 이송되었는데, 도시와 마을 곳곳을 지나며, 아마도 그가 가야 할 길에 따라,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순진한 백성들 사이에 자신의 분파주의 흔적을 남겼다. 야쿤카 레피힌은 이전에 베르호투르에서 복무하던 아타만이었는데, 첫 번째 아내를 죽이고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하여 그녀와 딸을 낳았다. 그 역시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 성직자라고 자칭했으나 성직 서품을 받지 않은 채, 성찬식을 제외한 사제 직무를 수행했다: 산모의 기도로 정화시키고, 갓난아이를 세례하며, 사람들의 고해성사를 듣고, 알 수 없는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마치 먼 곳에서 누군가가 가져다준 것처럼 행했다. 또한 수도자 서원을 원하는 자들을 수계시켰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며 그들을 위한 해방 기도를 드렸다.

오스케 아르메니안이 튜메니에서 예네세이스크로 끌려간 후, 그곳에는 야쿤카와 아브람코가 남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수많은 모독을 기록했는데, 그중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었다: 야쿤카는 스스로 성화가가 되어 종이 한 장에 교회와 뱀의 형상을 한 마귀를 그렸는데, 그 마귀는 교회 주위를 감싸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들에 자신의 더러운 독을 토해내고 있었다; 이러한 종이를 많이 그려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고, 주변 지역으로 보내어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고, 지극히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사를 멀리하게 하려 하였다.

시베리아의 대주교 이그나티우스는 두 번째 서신에서,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도록 가르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제자들과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 그리고 자신의 악한 행위에 가담하는 자들을 모아, 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불법과 고문을 자행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을 유혹하여, 에 마련된 빈 장소에 아내들과 처녀들, 어린아이들을 데려가, 먼저 온갖 음행으로 그들을 더럽히고, 또한 숲속에 마련된 오두막에 그들을 가두어, 입구를 봉쇄한 뒤 불태워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혹당한 자들을 영혼과 육체를 모두 죽이는, 즉 영혼은 죄로, 육체는 불로 죽이는 극심한 죽음으로 멸망시켰다.

또한 사람들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여자와 동거하는 일이 잦아지자, 그들에게서 태어난 갓난아기들은 평범한 평신도들에게 세례를 받게 하고, 성직자로부터는 결혼식도, 세례도, 그 어떤 축복도 받지 말라고 명령했다.

제*9*장. 카피톤, 아바쿰 및 그 외 인물들에 대하여

세 번째 서신에서 시베리아의 대주교 이그나티우스는 아르메니아 이단을 충분히 규탄하고, 유대교로 전향한 과거 벨리코노브고로드의 이단자들을 묘사한 뒤, 현재의 분열과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코스톰스키 군의 콜레스니코바 황야에 거주하며 제자들을 모았던 한 이단 지도자 카피톤이라는 수도사로부터 시작한다. 코스트롬 주 콜레스니코바 사막에 거주하며 제자들을 모은 인물에 대해 서술을 시작한다. 어떤 마을 사람들은 그의 금식 생활을 보고 찾아와 그와 함께 지내며 그를 스승으로 삼았다. 그는 그토록 엄격한 금식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의 탄생 축일이나 거룩한 부활절에도 치즈나 버터, 혹은 생선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오직 빵과 씨앗, 열매, 그리고 그 밖의 땅의 열매만을 제자들과 함께 먹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가장 빛나는 명절에는, 붉은 달걀 대신 붉게 물들인 양파를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신을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성직 계급을 경멸하기 시작했고, 성직자들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악한 지혜에 따라 새로운 교리와 신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 분열과 불화를 일으키며, 교회의 연합과 사제들의 축복을 멀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화상에는 경배하지 말고 오직 오래된 성화상에만 경배하라고 가르쳤으며, 아르메니아식 방식으로 두 손가락으로 십자가 성호를 긋도록 가르쳤고, 그 밖에도 정통 신앙에 반하는 여러 사상을 설파하여 많은 이들을 가르쳤으니, 이는 '카피톤'이라 불리는 자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한편,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분열주의자들이 일어났으니, 아바쿰 프로토포프와 그레고리 프로토포프(별명 네로노프, 그는 나중에 회개하여 용서받았다); 또한 라자르 신부, '푸스토스비야트'라고 불리던 니키타 신부, 그리고 페도르 집사, 그 밖에도 성직자와 세속 관료 중 많은 이들과 차르 궁정에서 온 소수, 아르메니아의 두 손가락 이단을 옹호하는 자들, 그리고 다른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었다.

제*10*장. 건포도를 가지고 성찬을 나누는 처녀

그 무렵, 키네셴스크와 레셴스크 현, 그리고 플레세 지역에는 '포드레셰트니키'라고 불리는 또 다른 이단자들이 나타났는데, 이 이름은 그들의 스승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들 중에는 '포드레셰트니코프'라고 불리는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이단 지도자 카피톤을 따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가지 말 것과, 영적 지도자를 두지 말 것, 사제의 축복을 받으러 오지 말 것, 그리고 모든 교회 성사를 멀리하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자기 집에서 사제의 예식에 따라 어떤 교회 예배를 거행했으나, 성별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갓난아기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 그들의 성찬은 일종의 마법적인 것이었는데, 빵이 아니라 '야고다'라고 불리는 건포도로, 주문을 걸어 마법을 부은 것이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성찬을 거행했다: 그들은 자신들 중에서 처녀 한 명을 뽑아 오두막의 지하로 데려가 화려한 옷을 입히고, 정해진

시간에 지하에서 나오게 하는데, 머리에 깨끗한 천으로 덮인 체를 쓰고, 그 체 안에는 열매와 건포도가 들어 있었다. 오두막 안에는 수많은 남녀와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지하실에서 체를 머리에 이고 나온 처녀는 사제처럼 말하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에서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시기를, 항상, 지금과 영원히, 그리고 세세토록"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절을 하며 "아멘"이라고 대답했다; 그 소녀는 이 말을 세 번 반복하고, 그들은 세 번 '아멘'이라고 대답한다. 그 후 그 소녀는 그들에게 거룩한 성찬 대신 신성모독적인 제물을 건네주니, 그 열매를 맛본 자들은 마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처럼, 불에 타 죽거나, 목을 매거나, 물에 빠져 죽기를 갈망하며, 마치 정신이 나간 자들처럼 행동하더니, 많은 이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제*11*장. 스스로 불에 타 죽는 자들을 보고 악마들이 기뻐한다

니즈니 노브고로드 지역에는 '크냐기니노'라고 불리는 궁전 마을과 '무라슈키노'가 있다. 그 마을들과 주변의 슬로보다 및 마을들에서 수많은 남녀와 아이들이 모여, 어느 헛간 안의 타작마당에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준비를 하고, 자신들의 마법적인 성찬을 받은 뒤, 가느다란 밧줄로 두세 명씩 묶어 단을 만들었고,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은 불을 지펴 그들을 태우도록 남겨두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그들의 성찬을 손에 받았으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그것을 먹지 않았으니, 이는 저 저주받은 악마의 순교자들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 두 사람이 불을 지피자, 화염이 그 헛간 전체를 휩쓸었고, 그 두 사람도 이미 타오르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 스스로 불타 죽으려 했으나, 바로 그때 불꽃 위 연무 속에서 에티오피아인의 모습을 닮은 두 마리의 검은 악마가 공중을 날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박쥐처럼 날개를 달고(날아다니는 쥐), 기뻐하며 손뼉을 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이들은 우리 것, 우리 것이다." 그 두 사람은 죽은 자들 위에 솟아오른 그 악마들의 환희를 보고는 전율하며 서로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저주받은 자의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파멸당하고 있는지 보느냐?" 그리고는 몸에 십자 성호를 긋기 시작하며 그곳에서 도망쳤다. 그들은 자기 마을의 사제에게 가서 모든 일을 고백하고 회개하였으며, 사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울면서 죽은 자들 곁에서 목격했던 악마적인 환희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을 그 파멸에서 구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제*12*장. 주술로 갈라진 갓난아기의 심장에 대하여

볼로그다 성에서 카르고폴로 향하는 길가, 바다에서 떨어진 황량한 땅의 한적한 곳에, 어떤 하나님의 원수인 마법사이자 주술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은둔자라는 이름을 달고 위선적인 덕행을 내세우며,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여겨졌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로 와서 함께 살며, 그를 스승이자 지도자로 삼았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와 처녀들까지 그 황야는 이미 가득 찼으니, 그의 아첨 섞인 가르침과 위선적인 생활 방식에 이끌려 마치 위대한 하나님의 성자라도 되는 양 그에게로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그 저주받을 가짜 성자는 모든 이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음탕하게 살라고 은밀히 가르치며, "합의에 의한 육체적 결합은 죄가 아니라 사랑이다. 다만 결혼식을 올리지 말고, 부부로서 축복을 받지 말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한편 볼로그다 성에서 온 어떤 사람은 많은 죄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졌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였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순결하게 살며 사막으로 가서 침묵 속에서 지내며,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용서받겠다고 서원하였다. 그 사막 은둔자에 대해, 많은 이들이 그에게 모여들어 사막에서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의 은밀한 방탕한 생활 방식을 알지 못한 채 그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은둔자와 방탕한 은둔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다가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그와 함께 광야에서 살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그는 찾아온 이에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에게 잘 오셨도다. 이제 이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없으니, 모두가 길을 벗어나 타락해 버렸도다; 교회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찬송하고 성경을 읽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덮여 있어 어떤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복된 테오도리토스의 전승에 따라 세례를 베풀고, 니코노스의 전승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적그리스도를 피하여 잘 행하였도다. 그 사람은 이를 듣고 감동하

여 그에게 말하였다. “존경하는 신부님! 간청하오니,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 때문에 저는 당신의 성소에 왔나이다. 당신의 신성한 삶을 듣고, 그것이 영혼들을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저주받은 은둔자는 대답하여 말하였다. “착한 자식아, 너는 먼저 금식으로 시험을 받아야 하리니, 주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 주실 때까지 며칠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그러면 그때 우리가 너를 기쁘게 맞아들이리라.” 그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명령받은 모든 것을 의심 없이 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은둔자는 그를 자신의 거처 중 하나인 안쪽의 작은 성소로 데려가라고 명령했는데, 그곳은 그가 살고 있던 거처에 붙어 있는 곳이었다; 그 작은 성소에는 길 쪽을 향한 창문이 딱 하나뿐이었는데, 매우 작아서 성소 안으로 빛이 들어오기만 할 정도였으며, 출입구는 단단히 막혀 있어, 한 번 들어가면 결코 그곳에서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이 그 은둔처에 사흘 동안 음식과 물 없이 머물러 있자, 그 은둔자의 거처 벽에 작은 구멍을 뚫기 시작했는데, 통나무 사이로 이끼를 뜯어내어 뚫은 뒤, 그 은둔자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았다. 그가 그 틈새를 통해 지켜보고 있을 때, 두 사람이 그 은둔자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 임신한 처녀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그녀가 남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명하시겠습니까?” 그 저주받은, 성자 행세를 하는 은둔자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그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갓난아기의 가슴을 칼로 갈라 심장을 꺼내어 쟁반에 담아 내게 가져오라고. 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행하라.” 그들은 곧바로 떠나, 잠시 후 나무 쟁반에 그 갓난아기의 심장을 가져왔다.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는 심장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그에게 건네주었고, 그는 칼을 들어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네 조각으로 잘라내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을 받아 가마에서 말린 뒤, 곱게 갈아라.” 그러나 그 저주받은 은둔자의 사악한 종들은 가서 명령받은 대로 행하고, 다시 그 아기 심장을 가루로 빻아 그에게 가져왔다. 그 은둔자는 필기용 종이 한 장을 집어 작은 종이 조각들로 찢은 뒤, 곱게 간 심장의 작은 조각들을 그 종이 조각들 속에 조금씩 넣고는, 자신의 제자 몇 명을 불러 말하였다. “이 종이 조각들을 성물(자신의 주문을 성물 이라 불렀다)과 함께 가져가라. 그리고 도시와 마을, 시골로 가서 집집마다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라. 절대로 교회에 가지 말고, 오늘날 사제들의 축복을 받지 말며, 그들에게 고해성사를 하지 말라고, 또한 교회의 어떤 성물도 받아 먹지 말고, 두 손가락으로 자신에게 십자가를 긋되, 세 손가락을 모은 방식은 결코 받아들이지 말게 하라. 그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인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 말을 듣든 듣지 않든, 너희는 이 너희에게 주어진 해석을 비밀리에 그들의 밀가루나 음료, 혹은 집안에 물이 있는 그릇이나 우물에 넣어라. 그들이 그것을 맛보면, 그때 우리에게로 돌아와 진리를 믿게 될 것이며, 너희의 말을 믿게 되고, 자발적으로 순교자가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그 은둔자는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 버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그는 성삼위일체 안에서 찬양받으시는 주 하나님께, 이러한 재앙에서 자신을 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고, 세 손가락으로 자신에게 십자 성호를 긋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사악한 은둔자에게 배운 대로 두 손가락으로 성호를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그분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은둔처에 머물고 있던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보내주셨다. 이튿날 아침, 어떤 상인들이 그 수도원 방 옆을 지나가자, 은둔자는 그들을 보고 손을 들어 창가로 불러내어, 자신과 그 은둔자에 대해 본 것과 들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비밀리에 고백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구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이 그를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었다. “그들의 종이 재산을 훔쳐 달아나 이곳에 숨어 있다고 말하고, 은둔자에게 그들의 종을 돌려달라고 간청하라.” 상인들은 그 갇힌 자를 매우 불쌍히 여겨, 마치 자신들의 재산을 훔쳐 달아난 종을 찾는 척하며, 그가 그 광야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처럼 가장하고, 그 은둔자에게 그들의 종을 돌려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은둔자는 감금소에서 그 사람을 불러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네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구원을 구하는 척하며 우리를 속였으나, 실은 주인들을 속여 돈을 훔친 뒤 우리에게 도망쳐 온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은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와 당신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나를 이 길로 유인했습니다. 그러

나 제발 저를 주인들에게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살 수는 없으니까요." 사막의 은둔자는 말하였다. "가서, 형제여, 그들에게 섬기라. 사도가 명한 대로, '종들은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하였으니." 사막 수도사는 그 가짜 주인들에게, 재산을 돌려주면 자신의 종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사막 수도사에게 자신의 종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사람을 데리고 떠났다.

그 상인들이 그 남자를 데리고 떠난 후, 은둔자에게는 감금되어 있던 그 남자를 통해 그의 모든 비밀이 그 상인들에게 알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은둔자는 모든 제자들, 즉 남자와 여자를 모두 모아 자신의 거처를 불태우고, 대 노브고로드의 경계로 향해, 어떤 호수 옆의 황야에 있는 팔레오스트로프스키 수도원에 정착하여 그 수도원을 차지하였다; 그곳에서도 주변 마을에서 많은 이들이 그에게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의 아첨 섞인 가르침에 현혹되고 마법 같은 기적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그 소식을 들은 대노브고로드의 코르닐리우스 대주교께서는 성직자와 세속인 중에서 존경받는 분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교회 교리에 따라 그들을 훈계하게 하셨으나, 그 방탕한 은둔자들은 그들의 우두머리와 함께 훈계를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멸의 길로 빠져들었다. 그들은 먼저 거룩한 교회와 모든 정통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모독한 뒤, 그 수도원에 틀어박혀 교회와 수도사들의 방, 그리고 주변 담장을 불태웠고, 그로 인해 수도원 전체가 불타버리며 멸망하고 말았다.

제*13*장. 불에 타 죽은 자들이 지하에서 울부짖는다: "아아, 우리는 멸망했다*!*"

그 자살적 방화는 심지어 시베리아 지방까지 퍼져 나갔으며, 유배된 분열주의자들에 의해 더욱 확산되었다. 아르메니아인 오스카라는 거짓 수도사가 튜멘으로 끌려왔을 때, 그는 도메티아노라는 이름의 한 신부를 자신의 타락으로 유혹하였고, 미리 예언된 야쿤카 레피힌과 함께 많은 이들을 유혹하여 사막으로 데려가 불태워 죽였다. 또한 오스카가 예네세이스크로 이송된 후, 도메티안 신부는 사막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과 마찬가지로 악의에 찬 수도사 이바니슈를 만나, 그에게서 수도 서원을 받고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수계식을 마친 후 그는 사막에 그 수도사 이바니슈타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신만의 거처를 마련했고, 세상으로 나가 마을마다 자신의 이단 사상을 퍼뜨리며 무지한 사람들을 타락시켜, 그들이 거룩한 교회와 모든 교회의 성물 및 성사를 멀리하게 만들었다. 그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통치하고 있으며, 심판의 날이 이미 임박했다고 말하며, 순진한 영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는 자들을 모아 사막에 있는 자신의 거처로 데려갔다. 그리하여 남녀와 아이들, 약 천 칠백 명을 모은 뒤, 수도사 이바니슈에게 편지를 보내 조언을 구했다. "선한 남녀와 처녀, 어린아이들이 (그가 말하길) 나를 찾아 광야로 모여들었는데, 모두 불로 받는 두 번째 흠 없는 세례를 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소는 이를 행하라고 명하십니까?" 저주받은 수도사 이바니슈는 그에게 비웃음을 자아내는 답장을 보내며 말하였다. "네가 죽을 솥을 끓였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도메티아누스, 곧 다니엘이라 불리는 저 저주받은 배교자이자 방탕한 자는, 그들을 불태우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여 굵은 나무로 오두막을 지은 뒤, 이를 완성하고는 송진, 자작나무 껍질, 대마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으며, 또한 유황과 화약도 준비하여, 불이 붙는 즉시 사람들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게 하려 했다. 그들이 화형 준비를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두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 곁으로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파벨 대주교(이그나티우스 이전의)와 시베리아 대주교이신 분은 멸망해 가는 자들을 위해 가슴 아파하시며, 곧바로 성직자와 세속인 중에서 정직하고 분별력 있는 이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악한 계획을 막으려 하셨다. 그들에게 보낸 사절들이 도착하여 설득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즉시 화형에 처해지기 위해 준비된 오두막에 스스로 갇히고, 교회와 성직자 계급을 향해 수많은 모독을 퍼부으며 스스로 불에 타 죽었다. 그들은 즉시 화약 가루와 유황, 송진, 자작나무 껍질, 대마 등으로 사방에서 불길에 휩싸여 타 죽었다. 그들이 불타 죽은 그 장소에서는 오랫동안 끔찍한 악취가 풍겨 나왔기에, 그곳을 지나가는 누구도 코를 막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었다.

그러나 이른 새벽이나 해질 무렵에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된 많은 이들은, 마치 땅속에서 울부짖는 듯한 그곳의 비통한 목소리를 들었으니, "아아, 망했다*!* 아아, 망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러한 통곡하는

목소리에 대해 증언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으로, 미혹된 자들의 파멸을 알리고, 다른 이들에게는 분열을 조장하는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이었다.

톰스크 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바스카 샤포슈니코프라는 이름의 한 배교자가 많은 남녀를 타락시켜 사막으로 데려가 불태우려 했다. 그는 거대한 나무 성당 세 채를 지었는데, 모두 곧 불태워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톰스크 시의 총독은 많은 이들이 사막에 모여 불에 타 죽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사제들과 다른 사람들을 보내어 스스로를 파멸시키지 말라고 설득하게 하였다. 그들이 미혹된 자들에게 다다랐을 때, 바스카는 성전에 모인 모든 사람을 가두어 두고, 자신은 위층으로 올라가 온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곳의 불에 타고 있지만, 너희는 영원한 불에 지금도 타고 있으며, 저곳에서도 타게 될 것이다. 여기서 떠나거라. 왜냐하면 질산칼륨과 화약이 저 저택을 폭파하기 시작하면, 그때 너희도 통나무 조각에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저주받은 자는 찾아온 자들을 위협하며 떠나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에게는 화약과 질산칼륨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이들은 그 성전들로부터 멀리 물러났고, 바스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며 말하였다. "성전 창문으로 나가서 주변에 쌓인 짚더미를 태우고,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겠다." 그때 어떤 소녀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가지 마시고, 어린 소녀를 보내 불을 지르게 하세요." 그러나 그는 불을 지르기 위해 직접 나가서, 그 불로 그들을 태워버린 뒤 혼자 도망칠 작정이었다. 그는 그 성전들 사이에 비밀스러운 구덩이를 파 놓고, 땅속 통로를 멀리 뚫어 두었으니, 불타는 성전에서 남은 재산을 챙겨 그곳으로 도망칠 작정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의도로 저 저주받은 자들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불태우고,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불태워 죽이고, 자신들은 도망치곤 했다. 그 저주받은 바스케가 마치 불을 지르려는 것처럼 성전에서 나가려 하자, 그 소녀는 다른 이들과 함께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단단히 붙잡으며 말하였다. "우리를 죽이려 하면서 정작 너는 도망치려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창문으로 어린 소녀를 내보내 미리 준비해 둔 땔감을 불태우게 하였는데, 그 소녀가 불을 지피고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자, 멀리 서 있던 사제들에게 달려가 바스카가 성당에서 붙잡혀 있고, 그 저주받은 자가 그에게 현혹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렸다. 그들이 불타 죽은 후, 같은 톰스크 현의 한 마을 주민이 슬퍼하며 울부짖었는데, 저 저주받은 바스카가 자신의 집에서 남녀 여덟 명을 유혹하여 황무지로 데려가, 그들과 함께 불에 타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마을 사람이 유혹받은 자들이 불타 죽은 그 장소에 이르러, 재 위를 거닐며 가족들을 생각하며 통곡했다. 그러자 재 속에서 나오는 통곡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아아*,* 죽고 말았다*!* 아아*,* 죽고 말았다*!"*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 소리에 공포에 휩싸여 잠시 머물렀다가 곧 그곳을 떠나, 들은 대로 도시와 마을에 알렸다. 여기까지 시베리아 주교 이그나티우스의 세 통의 서한 내용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스티우그 시의 환대 담당 백인 중 한 명인 막심 다닐로프(별명 피보바로프)가 1709년 그리스도의 부활절 성주간 무렵 우리 로스토프를 방문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었다: 위대한 우스티우그의 관청 사무실 기록에 따르면, 196년 혹은 197년(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다)에 우스티우그 현 체레포프스카야 볼로스티, 우스티우그 성에서 120베르스트 떨어진 숲속에 300여 명의 이단자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지역 소대장들과 농민들의 보고를 통해 티모페이 이바노비치 르제브스키 군수에게 숲속에 이단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군수는 그들을 도시로 데려오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으나, 이단자들은 불복종했다. 그리고 그 숲속에는 분파자들이 거대한 성소를 짓고 주위에 울타리를 치었으며, 성소 아래 땅속에는 동굴을 파 놓았다. 군사령관이 보낸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오려 했을 때, 그 이단자들은 힘을 모아 저항하며 항복하지 않았다. 이에 그들은 자신들의 성전과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짚으로 감싸 불을 지르자, 그들 자신은 성전 안에서 불에 타 죽었고, 다른 이들은 성전 아래에 있던 동굴들 에서 질식하여 죽었다. 그리고 그들이 불타 죽은 그 장소에서는 수년 동안 밤마다 *"*아아*,* 죽었다*!* 아아*,* 죽었다*!"*라고 울부짖는 비통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한 오늘날까지도 그곳에는 끔찍한 악취가 자욱하다.

이러한 자발적인 화형과 파멸로, 분파주의 지도자들은 매혹적인 말로 유혹할 뿐만 아니라 마법적인 주술로도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는 과거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전해질 이야기도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제*14*장. 마법과, 불구덩이에 던져진 사제에 대하여

올해 1709년 2월 초순, 우글레츠키 부활 수도원의 원로 수도사 이그나티우스가 구두와 서신을 통해 우리 겸손한 자에게 보고해 왔으니, 그는 이미 26년 전에 수도 서원을 받았으며, 세속 이름은 야코프였다; 그는 포셰혼스키 우예즈드의 벨로셀스키 볼로스티에 거주하였으며; 성 금요일 교회에서 7년 동안 사제로 섬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의 교구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920명이 불에 타 죽었으며, 그 외 인근 마을과 농촌에서는 분열주의 교사들에게 현혹되고 마법에 사로잡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고 했습니다; 시체들이 타면서 풍기는 악취가 며칠 동안 공기를 가득 채웠다. 마법에 홀린 사람들이 스스로 불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은, 그 히에로모나흐 이그나티우스가 진실로 전한 바이며, 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다: 그 무렵, 포셰혼스키 우즈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있을 때, 모스크바의 이반 이바노비치 골리친 공작은 자신의 영지인 벨로셀스카야 볼로스트의 쿠즈모데미얀스케 마을로 와서, 농민들이 더 이상 불에 타 죽는 일을 그만두도록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농민들은 악한 가르침에 이끌려, 바로 그 포셰혼스키 우예즈드 내, 보야린 이반 막시모비치 야지코프의 영지인 홀마 마을의 농민 이반 데샤티나에게서 배운 대로 불을 지르고 있었다. 공작은 그 유혹하는 농부에 대해 알게 되자, 그를 찾아내어 자기 앞에 세우라고 명령하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 묻더니, 그러한 악행과 살인을 그만두도록 설득했다; 그런데 그 농부 이반 데샤티나는 주머니에서 어떤 가루로 만든 열매 세 개를 꺼냈는데, 그 열매들은 크기가 크랜베리와 비슷했고, 발로 그 열매들을 으깨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본 공작의 성직자(그 성직자의 이름은 장로 이그나티우스가 기억하지 못한다)가 달려들어 열매 하나를 집어 들고, 들어 올린 뒤 손가락으로 빵 위에 으깨어 개에게 던져 주었다. 개는 그 빵을 먹고는 밖으로 달아났는데, 마침 그 무렵 마당에서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개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 짖고 울부짖더니, 불 위에 쓰러져 타 죽고 말았다. 그 성직자는 빵 위에 그 열매를 으깨어 개에게 던진 뒤, 열매를 으깬 바로 그 손가락을 입에 대어 그 맛을 보려 했더니, 순식간에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 얼굴과 눈빛이 변해 버렸다. 모두는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와 경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공포에 휩싸였다. 공작은 그를 불쌍히 여겨 지하 감옥으로 데려가게 하였는데, 그 지하 감옥에서는 당시 공작을 위한 식량을 준비하기 위해 화로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 사제가 지하실로 끌려 들어가 화로의 불을 보자마자, 곧바로 불타는 화로 속으로 뛰어들어 그곳에서 타 죽을 뻔했으나, 공작의 부하들이 재빨리 그의 다리를 잡아 끌어내었기에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의 머리와 얼굴은 화상을 입었고, 머리카락과 수염이 그을렸으며, 그는 하루 종일 정신을 잃은 채 지냈다. 그 후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을 되찾은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불에서 구해 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고, 공작에게 알리며 모든 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를 지하 감옥으로 데려갔을 때, 타오르는 용광로를 보았는데, 그 용광로는 마치 낙원 같았고, 용광로의 입구는 마치 낙원의 문 같았다.” 그 화로 속 불길 속에서 나는 빛나는 청년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나를 향해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자, 나는 곧바로 그들에게로 달려갔다. 그 사제는 눈물을 흘리며 공작과 모든 이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준 이, 즉 당시에는 아직 세속의 사제로서 야코브라고 불리던 수도사 이그나티우스가 있었으며, 그는 그 모든 일을 직접 보고 들은 증인이었다. 그가 보고 들은 대로, 사제로서의 양심에 따라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에, 우리는 이미 상당히 연로하신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제*15*장. 유대인과 분파주의자들의 마법에 관하여

요셉 사제의 서신에서, 그는 얼마 전 과거 몇 년 동안 국왕의 칙령에 따라 올로네츠 교구에 파견되어, 그 지방의 분파주의 지도자들인 다니엘 비쿨린과 안드레이 디오니소프,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무리에게

편지를 썼다. 그 사제 요셉은, 이단자들의 주술을 폭로하며, 먼저 폴란드 왕국에서 유대인들이 때때로 행했던 기이한 마법 사건을 제시했는데, 이는『폴란드 왕관의 거울』이라 불리는 책의 제5조에서 발췌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어떤 기독교인 여성에게 거액을 주고 기독교인의 젖을 팔아달라고 요청했고; 그 여인은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의 지시에 따라 기독교인의 모유 대신 소의 젖을 그들에게 팔았다. 유대인들은 기쁨으로 그 젖을 받아,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그와 함께 교수대로 갔는데, 그곳에는 악당이 교수형에 처해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젖에 대한 마법 주문을 행한 뒤, 고용한 사람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주문을 건 그 우유를 매달린 악당의 귀에 부어 넣으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죽은 악당의 귀에 자신의 귀를 대었다. 그가 그렇게 하자, 유대인들은 그에게 무엇을 듣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가축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유대인들은 슬퍼하며 그 기독교 여인의 아내에게 가서, 그녀가 자신들을 속였다고 비난했다. 그 후 폴란드 왕국 전역에 가축에게 큰 전염병이 돌았는데, 만약 그 기독교 여인이 기독교인의 모유를 그들에게 팔았더라면 그 전염병은 기독교인들에게 닥쳤을 것이다. 요셉 신부는 이 일을 들어 이단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 이단자들도 경건함에서 벗어나, 마치 유대인들이 마법을 부리듯 행동하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평범한 사람들의 육신과 영혼을 유혹하고, 너희의 유혹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마법으로 매혹시키고 있다. 이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증인들로부터 이와 같이 들었노라.”

콜스크 관할 구역 볼로케의 베레조보에서, 그곳 주민 중 한 사람으로, 지위가 결코 낮지 않고 집안도 넉넉하며 훌륭한 가정을 꾸리고, 너희의 교묘한 계략을 잘 알고 있던 그레고리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수도자의 모습을 띠고, 기꺼이 받아들여 경건하게 생을 마감했다. 그가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그곳에 분파주의자들이 너희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 호수 속 섬에 요새를 세웠을 때, 그곳에 살던 한 부유한 주민이 그들에게 현혹되어 온 가족, 즉 일흔 명 가량의 사람들과 함께 그 섬에 정착했다. 그 밖에도 적지 않은 이들이 그들과 함께 그곳에 정착하였고, 그들은 그곳에서 그레고리우스의 집으로 자주 찾아와 유혹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너희의 간계를 알고 있었기에 그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였다. 얼마 후, 그 사악한 자들은 곧 올론체에서 그들을 향해 추방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그레고리에게 더욱 자주 찾아와 온갖 방법으로 그를 유혹하여 자신들의 이단에 끌어들여 보려 했으나, 그러나 그는 굳건히 버텼으니, 올론체에 군 장교로 복무중인 형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 형으로부터 너희의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 이단자들이 찾아와 그레고리우스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는 그때 특히 가족들을 더욱 각별히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자들은 너희의 추종자들과 함께, 그가 자신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는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자주 오두막에서 건초 더미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부주의하여 이를 신경 쓰지 않았으나, 그들이 왜 나가는지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 건초 더미를 살펴보며 무언가 숨겨 놓지 않았는지 확인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어떤 이들이 급한 용무로 물을 필요로 하게 되자, 그는 다시 마당으로 나가 물이 담긴 그릇의 덮개를 벗겼는데, 물 표면에 마치 밀가루가 떠 있는 듯한 것이 보였다; 그는 그것을 작은 그릇에 담아 더 자세히 살펴보려 했더니, 물속에 탄 뼈 몇 개가 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그의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몇 명의 아이들이 그 물을 마시고 있었다. 밤이 되자 그 사악한 자들은 떠났고, 곧 올론츠에서 그들을 향해 진군해 올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리예프의 가족들은 마법이 걸린 물을 마시고는 그에게 분파주의자들이 있는 요새로 보내 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으나, 그는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붙잡으려 애쓰며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그러나 도저히 막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그로부터 도망쳐 저 저주받은 자들에게로 갔기 때문이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견된 군대가 도착했다. 그러자 그 사악한 파멸의 선동자들(이단 교사들)은 자신들이 유혹한 모든 사람들을 그 요새에 가둔 뒤 불태워 죽이고, 자신들은 도망쳤다. 그리하여 유혹받은 모든 이들은 불에 타 죽고 말았다. 보라, 저 저주받은 자들아, (요셉 신부가 분열주의자들에게 말하노라): 너희의 교묘한 계략을 보라. 말로 유혹할 수 없는 곳에서는 마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파멸시키니, 이것이 바로 너희의 ‘성스러움’이다. 여기까지가 요셉의 편지이다.

이것은 분열주의자들의 화형과 주술에 관한 이야기였으며, 또한 그들이 자발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또 다른 방식, 예를 들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목격자들로부터 완전히 알게 된 바를 말하고자 한다.

제*16*장. 모렐리치크에 대하여

그들에게는 '모렐쉬치키'라고 불리는 수도원이 있는데, 이들은 마치 화형 집행자들처럼 평범한 백성들, 남녀를 유혹하여, 마치 그리스도를 위해 그러는 것처럼 금식과 굶주림으로 감금된 채 죽게 만든다. 그들은 성인들의 행적을 예로 들어, 그리스도를 사랑한 많은 이들이 금식 중에 빛을 발했고,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을 위해 유배지와 감옥에서 굶주림과 갈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미 땅 위에는 바른 믿음이 없고, 영적 아버지들도 없으며, 주교와 사제들은 모두 늑대들이고, 교회들은 외양간이자 황폐함의 가증한 곳일 뿐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서 통치하고 있으며,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임박해 있다. 그러므로(그들은 말하길)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이곳에서 고난을 겪어야 마땅하며, 순교자들과 신앙 고백자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 굶주림과 갈증으로 생을 마감하여, 영원한 고통을 피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잠시 고난을 겪어, 올바른 믿음을 버린 자들과 한 무리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들은 우리를 그 믿음 때문에 쫓아내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차라리 짧은 시간 동안 굶주림과 갈증으로 시들어 죽는 것이, 그들과 함께 영원한 고통에 처해지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미혹자들은 많은 애틋함을 담아, 한숨을 쉬며 울부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유혹하면, 그에게 간청하여, 한 개의 작은 방이나 동굴로 가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순교자처럼 금식이라는 월계관을 쓰게 하라고 한다. 그 '모렐시치'들은 이를 위해 숲속에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두었는데, 어떤 것은 나무로 지은 오두막이고, 어떤 것은 땅에 파낸 구덩이다. 어떤 오두막은 작은 문이 있어, 유혹당한 이를 그 안에 가두고 단단히 잠그며, 어떤 것은 문이 없지만 위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구덩이나 동굴은 깊어서 그곳에서 나올 수 없으며, 위쪽을 철저히 막고 단단히 고정해 둔다. 가끔은 한 명을, 때로는 두 명, 세 명, 혹은 더 많은 사람을 가두기도 한다. 갇힌 불쌍한 이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굶주림에 시달려 울부짖고, 소리 지르며, 그곳에서 풀어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도 없다. 더 끔찍한 것은, 두 명이나 세 명, 혹은 더 많은 사람이 갇히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서로를 잡아먹어 살아남으려 한다는 사실이다. 감금과 굶주림 속에서 서로를 잡아먹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지 모르나, 사람이 그런 궁핍한 상황에 처하면 스스로를 잡아먹기도 한다. 콘스탄티노플의 게오르기 케드린은『역사 개요』에서, 그리스의 불행한 왕 지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주 광기에 사로잡혀 땅에 쓰러지곤 했는데, 마치 죽은 사람처럼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그의 아내인 아리아드나 왕비는 그를 혐오하게 되었고, 살아 있는 그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그를 다음과 같이 죽였다. 지논이 광란에 빠져 땅에 쓰러져 죽은 듯이 누워 있을 때, 왕비는 그를 들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관에 넣었으나 흙으로 덮지 않고, 관 문 위에 커다란 돌을 쌓아 올린 뒤 경비병을 배치했다. 시간이 지나 왕 지논이 정신을 차리고 풀려나기를 애원하기 시작했으나, 경비병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왕의 명령이 그들에게 엄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관 속에서 사흘 동안 살아남아 울부짖고 통곡하다가 죽었다. 그가 죽은 후, 관을 열어 보니, 굶주림으로 인해 양팔까지 자신의 살을 뜯어먹은 모습이 드러났다. 이는 그리스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 아마도 브린 지역의 모렐리치크족처럼, 흙이나 나무로 된 감금소에 갇힌 자들이 굶주림에 시달려 서로를 잡아먹는 것과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저곳의 그 울부짖음은 무엇인가? 그 울음은 무엇인가? 그 통곡은 무엇인가? 그 슬픔과 비통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곳에서 그 억울한 고문으로부터의 구원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육체적, 영적 이중의 죽음으로 파멸하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살자처럼 지옥의 고통 속으로 영혼을 떠나게 된다. 그 쓰라린 죽음에서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리스

도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파멸시키기를 원하는 자의 그러한 순교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이는 아래에서 설명될 바와 같다.

제17장.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김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 마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의 죽음이나 굶주림의 죽음에 스스로를 내맡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라면 반드시 죽여야 할 육신의 정욕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을 모든 사람에 대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순결하고 절제된 삶을 산다는 소문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이를 죄로 여기지 않고, 곧 듣게 될 바와 같이, 그 불쌍한 자들은 이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칭합니다.

로스토프 주지사 세멘 예레메예비치 파슈코프 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난 1703년에 그는 차르의 칙령에 따라 업무를 보러 발라혼스키 우예즈드의 자우졸스카야 볼로스트로 파견되었는데, 그곳에 머무는 동안 이단 교사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니콜라에서 불린 보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시소이 신부에게 두 명의 이단자가 돈을 주고 그의 아내를 유혹하여 브린의 이단자 거처로 데려갔습니다. 마치 구원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케르젠차 강에 다다르기도 전에 그 이단자들은 그 신부의 아내를 어떤 빈 성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기 전, 하느님의 섭리로, 톨로콘초프스키 드보르초바이 볼로스티 출신의 두 벌목꾼이 그곳에 와서 난로를 조금 피운 뒤, 다락방으로 올라가 쉬다가 잠이 들었다. 한 시간쯤 지나 깨어난 그들은 그 이단자들과 사제의 아내가 오는 것을 감지했는데, 그 벌꿀 채취꾼들은 그들을 잘 알고 있었으니, 그녀의 남편인 시소이 신부가 바로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루에 앉아 침묵을 지키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래 지켜보았다. 그 이단자들은 사제의 아내와 함께 들어와 따뜻한 성당을 발견하고는 앉았다. 그들은 성당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벌꿀 채취꾼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사제의 아내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자매여,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자.”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여러분과 어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육체적인 결합으로 우리와 함께하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러자 그녀는 끔찍한 마음에 떨며 말하였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내 남편에게서 떼어내려고 유혹한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통해 내 영혼의 구원을 얻기를 바라며, 여러분을 거룩하고 영혼에 유익한 인도자이자 스승으로 여겨 따랐는데, 여러분은 나를 더럽히려 하네요.”라고 말하며, 그녀는 그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그녀를 강제로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끌어들여, 그들 중 한 명이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그때 그 배의 선원들은 갑판에 몰래 앉아 있다가, 화약만 장전하고 탄환은 없는 소총을 가지고 그 불의한 자들의 머리 위로 쏘아대며 소리쳤다. 그 저주받은 브린스키의 성직자들은 “ ”라는 큰 소리에 겁에 질려, 돈을 가진 사제의 아내를 남겨둔 채 성당에서 재빨리 도망쳤고, 그 후 소식이 끊겼다. 사제의 아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빌미로 음행을 일삼으며 그녀를 더럽히려 했던 그 불법적인 음행자들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했다. 그 벌집 채취꾼들은 사제 부인을 데리고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시소 신부에게로 데려가, 돈과 그녀의 순결을 온전히 보존한 채로 그에게 넘겨주었다. 신부는 매우 기뻐하며, 아내를 자신에게 데려온 대가로 그 벌집 채취꾼들에게 몇 루블을 주었다.

그 세멘 예레미예비치 씨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했는데, 자우졸스카야와 톨로콘츠카야 볼로스티의 농민들이 자신의 딸들과 자매들, 그리고 친척인 처녀들을 브린스키 숲으로 데려가 ‘성스러운 신부들’(그들은 이단적인 교사들을 ‘성스러운 신부들’이라 부른다)에게 맡기며, 그곳에서 마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한 것처럼, 실상은 음행을 위해 그들을 맡긴다. 그 저주받은 자들은 악마에게 눈이 멀어, 음행을 단순히 죄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덕으로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숭배한다. 반면 합법적인 혼인은 불법이자 노예 노동이라고 칭한다. 그 소녀들이 임신하게 되면, 그 이단자들은 임신한 소녀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가는데, 각자가 어느 곳에서 데려왔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그들이 친아버지나 친척 집에서 아이를 낳고, 출산 후 6주 동안 머무른 뒤, 다시 그 브린 숲으로 끌려가곤 한다.

앞서 언급된 그분의 이야기에 우리는 믿음을 둔다. 우리 교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 때문이다. 최근 로마노프 시에 사는, 재산이 적지 않은 포사드 주민들(그들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으나, 그곳 주민들이 잘 알고 있다)에 대한 확실한 보고가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중 세 명은 다음과 같다: 이반 그리고리예비치 트루소프(별명 밀니코프)는 세 딸을 보냈고, 바실리 그리고리예비치 트루소프(별명 밀니코프)는 딸 한 명을 보냈으며, 이반 미하일로비치 샤닌(별명 두라코프)은 딸 한 명을 보냈고, 페도르 스테파노비치 리코프는 딸 한 명을 보냈으며, 각각 딸 한 명씩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인 '밀니코프'는 딸 셋을 브린스키 숲 속의 어느 여성 수도원으로, 넉넉한 돈을 짊어지게 하여 보냈는데, 그 의도는 알 수 없었다. 로스토프 교구에는 처녀들을 위한 수도원이 없었기에, 만약 딸들을 그리스도께 시집 보내고자 했다면 말이 될 리가 없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우리 로스토프에도 겉으로는 선한 사람으로 알려진 이반 멘킨이, 결혼 적령기에 다다른 자신의 딸을 비밀리에 이단자들의 거처로 보냈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다.

제*18*장. 브린의 스키타에 관하여

이단자들의 불경건하고 성교회에 반하는 행실을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증거로서, 앞부분에서 간략히 언급된 그들의 일부 스키타들에 대해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반복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브린스 숲에 있는 이단자들의 거처는 주로 '스키타'와 '톨키'라고 불린다. '스키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마치 고대의 성스러운 사막 수도자들처럼 사막을 떠돌기 때문이다. 한편 '톨키'라고 불리는 이유는, 각 스키트가 신성한 성경을 자신들의 악의적인 교묘한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르게, 다른 이들과 일치하지 않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 마을과 농촌으로 자신들의 해석을 퍼뜨리며, 각기 자신의 신앙을 가진 순진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신들의 해석으로 이끌고 있다.

우선 그리스도의 교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 수도원이나 교파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처럼 숭배하며, 십자가의 표시 없이 그에게 절을 한다. 그 '크리스토'의 거처는 오케 강변, 니즈니 도시에서 60베르스트 떨어진 파블로프 페리라는 마을에 있다. 사람들은 그 거짓 그리스도가 터키 출신이라고 말하며, 그는 붉은 얼굴을 한 처녀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를 자신의 '마테리아'라고 부르고, 그를 믿는 신자들은 그녀를 '성모 마리아'라고 부른다. 그 처녀(혹은 더 정확히 말해 창녀)는 니즈니고로드 주 란둬하 마을 출신의 러시아인으로, 마을 관리의 딸이다. 그 거짓 그리스도는 12명의 사도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은 마을과 시골을 돌아다니며 평범한 남자와 여자들에게 마치 진짜인 양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누구를 현혹시키면 그를 숭배하러 데려온다. 이 소위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는 교리는 비록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지만, 교회에 들어가거나 성화상과 십자가에 입맞추는 것, 사제의 축복을 받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이는 그 거짓 그리스도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위선을 용납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 준 파코미우스 수도사는, 그 거짓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그 제자 중 한 명에 의해 그에게로 이끌려 숭배를 드렸다고 한다. 그때 그 그리스도는 볼가 강변, 라보트키라는 마을에 계셨다.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40베르스트 떨어진, 볼가 강 하류 쪽이다. 그 마을 강둑에는 낡고 텅 빈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 그 교회에 모여들었다.

그 그리스도가 제단에서 나와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로 나아가 식탁에 앉았을 때, 그의 머리 위에는 성화상에 그려진 왕관과 비슷한 모양으로 감싸인 커다란 무언가가 보였고, 새와 비슷한 붉은 작은 얼굴들이 그의 머리 주위를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케루빔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마치 악령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 사람들에게 환상처럼 보였거나, 혹은 종이에 그려진 케루빔들이 왕관 주위에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가 앉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마치 참 그리스도께 경배하듯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고, 기도를 드리며 수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절을 올렸으나, 결국 기도로 인해 기진맥진해졌다. 기도 중에 어떤 이들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고, 또 다른 이들

은 “오,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 그는 그들에게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과 공기의 변화가 어떠할지를 말했고, 그들이 그를 의심 없이 믿도록 확고히 했다.

아누프리파, 즉 포포프파.

그 스키트, 즉 아누프리파는 다른 어떤 교파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누프리의 사악한 신앙이 여러 도시를 거쳐 우리 교구로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교리와 신앙을 따르는 자들을 ‘포포프파’라고 부르며, 그 지도자인 아누프리는 사제가 아니라 평범한 은둔자라고 한다. 포포프파는 니콘 총대주교 이전에 임명되었던 이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수는 많지 않다. 이단자로서 저주를 받고 파멸한 아바쿠마 전 대주교를 성인으로 숭배하며, 그를 새로운 순교자라고 칭하고, 그의 초상화를 그려 마치 성인인 양 숭배하며, 그를 위한 예배를 지어 그의 기념 축일을 거행하고, 그 이단자의 글을 간직하며, 그렇게 믿으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믿도록 가르치고, 삼위일체를 찬양하게 한다. 그리고 아바쿠모프의 편지에 대해 그의 제자 예로페이 안드레예프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아바쿠모프의 편지는 태양보다 더 밝고, 모두 선하다.” 이단자가 이단자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동조자들과 함께 지옥에 있는 그들의 최고 스승인 마귀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다.

또다시 포포프파의 소행이다.

현재 사제들을 받아들이는 은둔처나 종파들은 다음과 같다: 파블리노프파, 안드레야노프파, 요시포프파, 그리고 이와 유사한 미신적 집단들. 이들은 성스러운 교회에 복종하지 않고 추방당한 사제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의 신앙에 가담하는 60세 미만의 사람들을 재세례하고, 우리의 정통 세례를 이단적인 세례라고 부르며, 이단적인 세례는 세례가 아니라 오히려 더러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재세례하지 않는데, 그들은 이미 진정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는 니콘 총대주교 시대 이전, 그리고 성경 개정 이전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도사들의 수도복도 다시 자른다. 그리고 현재 받아들이는 사제들에게는 먼저 자신의 사제 서품과 그 서품을 집전한 주교를 저주하라고 명령한다. 또한 그들에게 스스로 성스러운 예식을 집전할 권한을 부여하며, 그 사제들 중 일부는 텅 빈 교회에서 옛 예식서에 따라 일곱 개의 프로스포라로 예배를 드리고, 자주 하지는 않지만 예비 성찬을 위해 큰 프로스포라를 만들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다른 사제들은 그들에게 옛 제물이 있다고 말하며, 그것으로 성찬을 나누어 준다. 이 일은 참으로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 멀리 떨어진 마을이나 마을들 중, 거리가 멀어서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신부를 빨리 불러올 수 없는 곳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신부가 다른 마을로 떠난 경우도 있어서, 서둘러 흰색의 깨끗한 천을 든 사람을 그에게 보낸다. 사제는 산모에게 합당한 기도를 그 천에 읊조리고,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준 뒤, 천을 접어 보낸 사람에게 건네준다. 그 사자는 돌아와서 그 천을 펼친 뒤, 산모의 얼굴 위에서 흔들어 주고, 아기에게 이름을 말해 주면, 이렇게 하여 산모는 기도를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죽었을 때, 신부가 거리가 멀거나 다른 일로 인해 시신 곁에 갈 여유가 없어 해방 기도를 읽어 줄 수 없는 경우에도, 흰색의 깨끗한 천을 가져다가 그 천 위에 해방 기도를 낭독하고, 다 읽은 뒤 천을 접어 죽은 자의 얼굴 위로 흔들어 주도록 보낸다. 그리하여 죽은 자는 마치 모든 죄에서 해방된 것처럼 장사된다. 오, 그 미친 분열주의자들의 어리석은 마음이라니!

게다가 이 또한 비웃음을 살 만하다: 만일 그들 신앙을 가진 자 중 누군가가 우연히 우리 정통 신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교회에 들어간다면, 그런 자 위에 그릇 위에 읽히는 바로 그 기도를 읊는데, 마치 그 그릇에 더러운 것이 떨어진 것처럼 말이다.

사제 없는 파.

사제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은둔처나 공동체는 다음과 같다: 볼로사토파, 안드레이파, 일라리오노프파, 그리고 그들과 분열에서 뜻을 같이하는 다른 파들. 이들은 성직 서품을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사제 역할을 수행한다. 즉, 세례를 베풀고, 고해성사를 듣고, 수도자로 입회시키며, 산모들을 위해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한 용서 기도를 올린다. 게다가 그들 중 여자들은 갓난아이를 세례하고, 『코르무치야』라는 책에 따라 행하는데, 마치 그 책에 성부들의 규칙이 있어 여자들에게 세례의 신비를 행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처럼 행한다. 그들은 합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라 불법적인 음행 속에서 살며, 아내와 처녀, 수녀들이 그들과 함께 한 방에서 지내며, 그들 사이에는 성적 혼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들의 스승들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사는 것이 이단적인 방식으로 결혼하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치며, (우리 정교도들을 이단자라고 칭한다) 교회 의 의식에 따라 결혼한 사람들을 경멸한다. 또한 교회 의식과 기독교 법에 따라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들은 마치 이교도들과 대하듯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대화하지도, 기도하지도 않는다. 그 때문에 딸을 둔 부모들은 딸들을 합법적인 결혼으로 시집 보내지 않고, 결혼식 없이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도록 허락한다. 그들의 성찬식은 오래전, 니콘 총대주교 이전부터 이미 성별된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 성찬이 부족해지면, 무교 반죽을 만들고, 남은 성찬의 일부를 가루로 빻아 그 반죽에 뿌린 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큰 성체를 만들어 굽습니다. 그리고 이를 각 지역으로 보내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성찬이 부족해지면, 다시 같은 방식으로 프로스포라를 만드는데, 남은 성찬의 일부를 가루로 빻아 반죽 위에 뿌리며, 이처럼 그들에게는 니콘 이전부터 성별된 고대의 성찬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바로 그 교파들은 또한 화형 집행자들이다: 안드레이 포모리야닌은 삼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화형에 처했고; 털이 많은 노인은 2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불태웠다. 그들은 이를 위해 숲속에 거대한 전용 성소를 짓고, 한 성소에 100명에서 200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을 가둔다. 어린아이들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벤치에 앉히고, 그들의 옷을 못으로 단단히 고정시킨다. 그리고 오두막을 짚과 나뭇가지로 둘러싼 뒤 불을 지피고, 불 주변에 서서 아무도 불길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한다. 만약 도망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그 사람을 때려 죽인 뒤 다시 불 속으로 던져 넣는다. 사람들을 불태운 뒤, 그들의 소유물을 빼앗아 간다.

그 밖의 은둔처와 종파들*:*

세라피온파*:* 세라피온이라는 수도사, 즉 거짓 교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굶어 죽을 때까지 단식하라고 가르쳤던 자이다. 그는 자신의 은둔처에 수많은 수녀들을 모아들였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 세라피온이 죽은 후, 그의 친형제인 수도사 시메온이 그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그는 그 수도원에 있던 모든 수녀들과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자발적인 순교로 유혹하여, 감금된 채로 50여 명을 굶겨 죽였고, 단 한 명, 즉 6번째 수녀장만 남겨두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카잔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녀와 결혼했다.

스테파노브슈치나*:* 스테판 집사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그는 이미 죽었으나 그의 이단적인 사상은 남아 있다. 그 교리에서는(제1부에서 다룬 테오도시예프슈치나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음행이라 부르며, 자신들은 처녀라고 칭한다. 그러나 여성들과 함께 살며 음행을 저지르는데, 이를 음행의 죄로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순결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 정통 신자들 앞에서는 그 사실을 숨긴다. 하지만 아내들과 함께 하나의 셀리아에 머무르는 사실 자체가 그들을 폭로한다. 어찌 건초가 불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먼 숲속으로 데려가 그곳에 버리는데, 그 아기들은 짐승과 새, 혹은 개들의 먹이가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준 이는 마카리이라는 수도사였는데, 그는 로스토프 주 즈베린차 마을 출신으로, 브린스키 스키트 근처에서 분파자들 사이에서 5년 정도 살았던 사람이다. 그 후 정교회로 돌아와, 새로 지어진 우스펜스키 수도원에서 이구멘 피티림에게서 수도 서원을 받았다. 그리고 1709년, 그리스도의 부활 대축일 성주간 동안 우리 곁인 로스토프에 머물며, 우리가 여기에 제시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코즈민파*:* 이들도 결혼을 음행이라 부르며, 성당이나 성직자, 성사 등을 세상 어디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도 차르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다른 스키타들도 마찬가지이다.

로스토프 시의 여자 수도원에 있는 안피사라는 이름의 노수녀는, 예전에 브린스키 숲에서 살았었는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20여 년 전, 아브라미라는 수도사가 케르젠체 강가에 자신의 은둔처를 세웠습니다. 그 아브라미는 자신의 해석에 따라 분파적인 신앙의 교사가 되어, 많은 이들을 자신의 이단적 신앙으로 유혹했으며, 금욕적인 삶을 사는 척했다. 그리고 그의 스키트로 찾아오는 이들을 재세례했다. 또한 수녀들을 모아 재세례한 뒤 머리를 깎아 주었는데, 그에게는 가장 훌륭한 두 명의 수녀, 킬리키아와 마트로나가 있었는데, 그는 이들을 유혹하여 자기 곁으로 데려왔다. 킬리키아와는 마치 정실 아내와

같이 살며, 음행을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여겼고, 마트로나는 딸처럼 여기며, 킬리키아와의 사이에서 남자 아이를 낳았다. 몇 년이 지난 후, 킬리키아가 중병에 걸렸다. 그가 죽을 것이라 여겨 직접 고해성사를 듣고, 성체를 나누어 주며, 스키마 수도자로 서원하게 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녀는 건강을 되찾기 시작하여 병상에서 일어났다. 건강을 되찾은 그녀는 예전처럼 그와 다시 음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했으나, 그는 "수녀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며 거절했고, 이미 약혼녀인 마트로나와 음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었다. 킬리키아는 질투에 사로잡혀 분노와 격노로 가득 차 다른 은둔처로 도망쳐 가서, 그곳에서 두 명의 건장한 남자를 고용해 아브라미우스를 죽이도록 보냈고, 그들은 그의 은둔처로 가서 습격했다. 그러나 아브라미우스는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간파하고 그들로부터 도망쳤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그를 향해 창을 던져 어깨를 찔러 상처를 입혔으나, 아브라미우스는 상처를 입은 채로도 도망쳐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마트로나를 구타하여 간신히 살아남게 한 뒤, 그들의 소지품을 챙겨 자신들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 장로 아브라미와 마트로나는 야로슬라블 성에서 목격되었는데, 그들은 은밀히 가르치며 순진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이단에 유혹하고 있었다. 참으로 훌륭한 금식 생활과 그 분열주의 교사의 위업이여!

세상 창조 7210년 여름, 내가 로스토프에 처음 도착했을 무렵, 브린스키 숲에서 페드카 또는 페도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나왔는데, 그는 로스토프 출신이었고, 그와 함께 두 명의 유혹적인 수녀가 있었다. 그가 로스토프의 여수도원에 도착하자마자, 이곳 수녀들을 은밀히 선동하기 시작하며, "이 도시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브린스키 숲으로 도망쳐 은둔처에 숨지 않는 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브린 사막에서 가져온 크랜베리 열매를 축복의 선물로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 열매를 체에 담아 가지고 다니던 터라, 그 크랜베리를 먹은 자들은 곧바로 브린 숲으로 도망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고, 수녀들은 그를 따라 도망쳤다: 에우프로시니아와 마스트리기아;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다른 두 명도 따라갔다. 페드카는 도시와 로스토프 주를 돌아다니며 많은 여성과 처녀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브린 숲으로 데려갔다. 그가 자신의 은신처에 도착하자, 그들에게서 재물을 빼앗고, 그들 자신은 다른 은신처들로 흩어 버렸다. 이 일은 나중에 로스토프 처녀 수도원의 수녀장 나탈리아와 다른 수녀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사실 그곳에는 사제제를 따르지도 않고 무사제제를 따르지도 않는, 이른바 '스키타'나 '톨키'라고 불리는 공동체가 있다. 그들은 세례 의식을 전혀 행하지 않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세례 없이 자라났고, 결혼식 없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기독교와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 세례조차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파'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해야 하겠는가? 그들은 대공 요한 바실리예비치의 통치 시절, 노브고로드 대주교 겐나디의 재임 기간, 볼로칼람스크의 수도원장성 요셉의 시대에 대노브고로드에서 일어났던 그 유대교적 관습을 되살린 것이 아니겠는가? 그 당시 많은 성직자와 세속 신하들이, 노브고로드로 온 어떤 유대인들에게 현혹되어, 할례 없이 은밀히 유대교 관습을 따르고 있었다.

또한 브린스키의 지혜에서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교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들은 '로고즈니키' 또는 '루비슈니키'라고 불리며, 누더기 옷과 짚 매트를 입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스스로를 성자로 자처한다. 교회 규정은 이러한 자들을 도시에서 추방하도록 명하고 있다. 『코르치야』, 191쪽 뒷면, 제12조.

그러나 누가 그들의 미친 발명품과, 이단적인 신앙의 차이점, 이단적인 사색,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경건함에 반하는 행실들을 모두 헤아릴 수 있겠는가? 나는 여기서 다양한 증언을 바탕으로 그들의 행실을 언급하였으니, 이를 간결한 목록으로 제시하여 판단하기 편리하게 하려 한다.

제*19*장. 그들이 선하다고 여기는 분열적인 행위들의 목록.

1) 화형에 처한다.

2)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

3) 화형에 처하기 전에 여성들을 음행으로 더럽힌다.
4) 화형당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다.
5) 굶겨 죽인다.
6) 서로를 탓하며 감금된 채로 살아간다.
7) 한 처녀가 마법의 건포도를 먹인다.
8) 갓난아기를 죽인다.
9) 마법으로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
10) 합법적인 결혼을 음행이라고 부른다.
11) 음행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칭한다.
12) 한 남자를 그리스도처럼 만들고, 마치 그리스도에게 절하듯 그에게 절한다.
13) 위선을 부린다.
14) 저주받은 이단자 아바쿠움을 성인으로 추앙한다.
15) 세례를 다시 주고 수도사들의 머리를 깎는다.
16) 그들이 인정하는 사제들을 다른 자리로 옮긴다.
17) 대가를 받고 그들의 사제들이 기도를 올린다.
18) 성직자가 아닌 평범한 평민들이 사제의 직무를 수행한다.
19) 거짓 성찬식을 거행한다.
20) 하나님인 왕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21) 어떤 이들은 세례조차 전혀 받지 않는다.
22) 다른 이들은 유대인 식으로 안식일을 지킨다.

이 모든 그들의 행실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지, 모든 이가 건전한 이성으로 분별하여 보라.

제*20*장. 분파주의적 행위에 대한 고찰

그토록 많은 남녀와 해를 끼치지 않는 무고한 유아들을 불태우는 일이 과연 선한 일인가? 이것이 명백한 살인이 아닌가? 마치 몽둥이나 무기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에 태워 죽이는 것도 역시 살인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675] 고 명하고 있으며, 도시의 법들도 살인자들을 사형에 처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를 흘릴 것이라"[676] 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조차 큰 악인데, 하물며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에 내모는 것은 얼마나 잔혹한 일인가. 그리스의 경건한 왕 마우리키우스는 선하고 지극히 선한 이였으며, 아무도 죽이지 않았으나, 카간에게서 적은 대가로 넘겨진 포로들을 몸값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참수당한 것에 대해 유죄로 여겨졌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따라 고문자 포케에게 처형당하게 되었는데, 그는 먼저 그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참수한 뒤, 그 자신도 칼로 목을 베어버렸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불태워 죽인 이단 지도자들은 과연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프롤로그』 2월 3일에는, 어떤 강도가 무고한 아이를 죽였으나 회개하여 수도사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9년 동안 엄격한 절제와 수도 생활의 수고를 견디며,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자신의 죄 사함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 교회에 갈 때마다, 그가 죽인 그 아기가 나타나 말하곤 했다. "왜 나를 죽였느냐?" 그리고 9년이 지난 후, 수도복을 벗고 세속의 삶을 다시 받아들인 그는 디오스폴 성으로 갔으나, 그곳의 법정에 의해 자신의 죄로 인해 고문을 당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살인자로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분열주의자들은, 그토록 수많은 악의 없는 어린 아이들과 젖을 빨고 있는 갓난아기들을 불의 죽음에 내맡긴 것에 대해 무엇을 행한 것입니까? 그들은 하

---

[675] 출애굽기 20:13.
[676] 창세기 9:6.

나님께 어떤 대답을 드릴 것입니까? 그들이 불태워 죽인 그 갓난아기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왜 우리를 불태웠습니까?"라고 외칠 때, 그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단자들은 지금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대를 불태우면서,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행세하며[677], 평범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말며, 마치 아키바가 그리스도를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든 것처럼 불 속으로 과감히 뛰어들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그 행위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그들의 분파적 스승 아바쿰은 이렇게 가르치며 말하되, "모든 신자여,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담대히 불 속으로 들어가라.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을 당하라. 이는 의를 위하여, 고대의 성서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전사로서 그러해야 함이니라." 그리고 다시, 자신의 의지로 불에 타 죽는 자들을 축복하며 말하되, "주님 안에서 이 길을 택한 자는 복이 있도다[678] "라고 한다.

그러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아바쿰아, 거짓 교사여, 아니 차라리 고문자라 해야 하겠구나! 너는 태초부터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며, 사람을 죽이기 위해 분투하는 살인자 마귀와 같은가? 네가 사람들을 스스로 죽음에 빠지게 하고, 육체와 영혼이 함께 멸망하도록 가르치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들의 육체가 불타고, 저기서는 그들의 영혼이 지옥의 불길에 휩싸일 것이니. 너는 그들의 두 가지 죽음 모두에 대해 죄가 있는데, 네 가르침과 조언으로 인해 멸망한 모든 자들에 대해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하겠느냐?

분열주의적인 가르침과 조언을 듣고, 스스로 불의 죽음에 몸을 맡기며,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불타 죽고, 스스로를 살해하는 것이 과연 선한 일인가? 이는 곧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니, 어떤 방식으로든—무기를 쓰든, 목을 졸라 죽든, 물에 빠뜨리든, 불에 태우든—자살이며, 그 고통은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고 오히려 해를 끼칠 뿐이다; 비록 자신의 피를 흘리며 스스로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피는 그에게 구원이 아니라 정죄가 되며, 그 순교는 면류관이 아니라 지옥의 가장 혹독한 형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살은 살인보다 더 큰 죄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큰 죄이지만, 스스로를 죽이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죄이다. 우리는 성 요한 황금입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강론에서, 강제로 죽임을 당하거나 목을 매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살인자보다 더 심하게 벌하시며, 우리 모두는 (자살자들을) 혐오합니다. 참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옳지 않다면, 자신을 죽이는 것은 훨씬 더 옳지 않습니다[679] . 또한 같은 성인은 빌립보서 강해 13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가 말하노니, 네가 스스로를 죽이지 않도록 하라. 그러지 말라. 이는 불경건한 일이기 때문이다[680] ." 여기까지가 황금입 성 요한의 말씀이다. 여러분은 보편 교회의 위대한 스승인 성 요한 황금입이 자살자들에 대해 어떻게 논하고 있는지 들으셨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신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혐오스러운 존재이며, 그러한 행위는 경건한 것이 아니라 불경한 것이다. 그러나 분열주의자 아바쿰은 제자들에게 자살을 가르치며, 그러한 행위를 미화하여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사람을 복되시게 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누구의 가르침을 더 믿어야 할까요? 콘스탄티노플의 황금입(크리소스토모스) 총대주교인가, 아니면 모스크바의 이단자 아바쿰인가? 고대의 참된 만민 교사인가, 아니면 새로운 분파주의 거짓 교사인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는 옛날 성스러운 순교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들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문자들에게 붙잡혀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을 당하고 불에 태워질 형벌을 선고받아 이미 불 앞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던져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들었으며, 그러한 그들의 행

---

677 요한복음 16:2.

678 하박국은 이단자이다.

679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대한 편지, 1469호.

680 1993호.

위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들은 박해자들의 손길 외에는 스스로 불을 씌우지도 않았고, 불 속으로 뛰어들지도 않았으며, 이교도들이 그들을 붙잡아 고문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불을 지를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건하지 못한 이단적 순교자들은, 비록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가 없고, 아무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누구도 그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고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을 지펴 자진해서 불타 죽으며, 마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헛되고, 그들의 기대는 헛된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을 위해 고통받으며, 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로 가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순교자가 아니라 마귀의 순교자이니, 마귀도 자기만의 순교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귀의 순교자들은 누구인가? (금입자 성 요한으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다. 불에 타 죽는 분열주의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순교자가 아니라 악마의 순교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교부들의 규정이 금지하고 있다.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 티모테오 성하의 제14조 규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칼로 찔러 죽이거나, 목을 졸라 죽인 자에 대해서는 그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이나, 오직 진정으로 정신을 잃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코르치야』 책 270쪽 뒷면을 참조하라. 왜냐하면 분파주의자들의 제자들, 즉 스스로 불로 목숨을 끊은 자들은 자살자들과 마찬가지로 파멸적인 죽음으로 인해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한 제물은 바쳐지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기억은 소란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튜메니에서 일어난 일처럼, 유혹당한 아내들과 처녀들, 어린아이들을 화형에 처하기 전에 음행으로 더럽히는 것이 과연 선한 일인가? 시베리아의 대주교이자 복된 기억을 가진 이그나티우스가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이는 앞서 이 제3부에서 우리가 기록한 바와 같다. 단 한 명의 어린아이를 유혹한 죄만으로도 그 고통은 지독하니, 주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 "이 작은 자들 중 나를 믿는 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그 목에 나귀 맷돌을 매달아 바다 깊은 곳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681] . 하물며 음행으로 더럽혀진 많은 소년, 소녀, 여성들을 유혹하는 자들은 얼마나 더 큰 재앙을 당하겠는가? 그들 중 누구에게나 한 명만이 아니라, 유혹한 수만큼 무거운 맷돌이 목에 걸릴 것이며,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유혹자들은 지극히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혼과 육체를 파멸시키니, 영혼은 죄로, 육체는 불로 말이다. 이 둘에 대해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과연 선한 일인가? 그들이 유혹하고 불태우는 것은 바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재산을 위해 사람을 불로 죽이는 것이 명백한 강도 행위가 아니겠는가? 진실로 이 분열주의자들의 강도 행위는 강도들이 길에서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다. 강도는 길가에 매복하여 재물만을 빼앗으려 할 뿐이지만, 이단자는 영혼까지 파멸시키려 한다. 강도는 비록 육신을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으나, 이단자는 영혼과 육신을 함께 죽인다. 사람을 영혼을 파멸시키는 이단에 빠뜨림으로써, 육체는 불에, 영혼은 지옥에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단자들을 외딴 오두막이나 깊은 지하실에 가두어 굶겨 죽게 하고, 끔찍하고 예로부터 들어본 적도 없는 이 고문의 원인이 되는 것이 과연 선한 일인가? 굶어 죽도록 갇힌 자들이 극심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서로를 산 채로 잡아먹게 될 때, 과연 누가 누구를 이길 수 있겠는가? 천하 어디에서 이런 고문이 들리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예로부터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을 얻는 길을 고안해 냈겠습니까? 실로 이 길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아니라, 하느님을 노하게 하는 길이며, 구원이 아니라 파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쌍한 이들은 이 생에서 이미 고통을 시작하며, 그 고통과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향한다. 오, 신을 모독하는 발명품이여, 비인간적인 고문이여!

---

[681] 마태복음 18:6; 마가복음 9:42.

기네셴스크와 레셴스크 지역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녀에게 기독교의 참된 성찬 대신 건포도로 속인 것을 성찬으로 주는 것이 과연 선한 일인가? 그 마법 같은 성찬을 받은 자들은 정신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어떤 이는 불로, 어떤 이는 물로, 또 어떤 이는 목을 졸라 죽었으니?

갓 태어난 아기의 심장을 꺼내 말리고, 가루로 빻아 사람의 음식과 음료에 몰래 섞거나, 우물에 뿌려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이러한 주술로 사람들을 자신의 이단적 사상에 끌어들인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교회 의식에 따라 성혼식을 치른 합법적인 결혼을 간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부부 간의 법은 지켜지는데, 자신들을 신실하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분열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그 자연스러운 법이 무너지고 있다. 어디서 성서, 곧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를 무시하겠는가? "내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음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시며, "그러므로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아야 함이라[682]. 그리고 정통 신자들 중에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의 법칙을 음행이라 감히 부를 수 있겠는가? 사도조차 이에 대해 증언하며 말하기를,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한 것이요, 침상은 더럽혀지지 아니한 것이라[683]"라고 하였는데 말이다.

간음하는 일이, 비록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히 행해지더라도, 선한 일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그런 사랑을 명하셨는가? 또 사도나 선지자나 성부들 중에서 누가 간음 속에 머물라고 가르치는가? 오히려 모든 이들이 음란한 삶을 금하고, 엄하게 처벌하며, 때로는 음란한 행위로 인해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음란자와 간음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684]. 그리고 거룩한 사도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을 자리가 없다"[685]. 또한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신다"[686].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시며, 모든 순결의 근원이신 분이시니, 음행의 더러움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역겨운 것인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시어 그에게 말씀하셨다: "페르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를 써라. 양쪽 끝이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네가 발람의 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유혹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하라고 가르쳤던 자이다.' 너도 마찬가지로 내가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따르고 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687].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경청하노니, 그리스도 주님께서 니콜라오파의 교리를 미워하시며, "내가 미워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니콜라오파의 교리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발람의 교리와 같으니, 옛날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음탕한 여인들로 유혹하도록 가르쳤던 것처럼, 안티오키아의 니콜라오스도 사도 시대에 사람들에게 아내를 공동으로 두며, 두려움이나 절제 없이 음행을 저지르도록 가르쳤으니, 그는 그 안에 죄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칼을 갈으셨으며, 니콜라이파의 교리, 곧 음행을 미워하시며, 입의 칼로 음행하는 자들과 싸우시겠다고

---

682 창 2:24; 마 19:4, 5, 6.

683 히브리서 13:4.

684 히브리서 13:4, 요한복음 8:5.

685 엡. 5:5.

686 히브리서 13:4.

687 계시록 2:12, 14, 15, 16.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저주받을 분열주의자들은 음행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며, 모두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음행의 죄로 간주되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에 나는 대답하노니,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책들에서 발견하듯이, 이방인들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 중 많은 이들이 우상 숭배 속에서도 순결과 동정을 지키고 있었으니, 하물며 브리냐인들 가운데서 순결과 정결을 지키는 이들이 얼마나 더 많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듣고 보는 바에 따라 말하는 것이다. 우리 교구에서 그곳으로 도망치는 처녀들과 수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기 때문이다. 또한 그곳에서 배가 부른 채로 돌아오는 이들을 보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평범한 농부를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그를 그리스도처럼 숭배하며,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듯 그에게 기도하고, 그를 믿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거나 '저기에 있다'고 말하더라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예언하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는가? [688]

위선을 부리며, 마치 거룩하고 의로우며 경건한 사람인 양 행세하는 것이 과연 선한 일인가? 위선은 덕이 있는 사람에게도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거룩함의 외관을 가장하며 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고, 양의 가죽을 뒤집어쓴 늑대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에게는, 구원 대신 파멸이 따르니, 이는 위선자 자신에게만 그치지 않고, 그에게 속아 넘어간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저주받은 이단자 아바쿰을, 마치 썩은 지체처럼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잘려 나간 자를, 성인으로 숭배하고, 그의 형상을 숭배하며, 그를 위한 축제를 거행하고, 그의 이단적인 서적을 정통 서적처럼 간직하며, 영혼을 해치는 그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선한 일인가?

정통 세례를 받은 자들을 분열주의 신앙으로 재세례하는 것이 과연 선한 일인가? 사도들의 규정이 이를 금지하지 않는가? 『코르치야』 책 12쪽 뒷면, 제47조 규정을 보라: "진정한 세례를 받은 자를 누가 다시 세례를 준다면, 그는 추방될 것이다."[689] 그리고 성 골로티우스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분(그리스도)과 함께 죽음에 묻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적이 없듯이, 우리도 두 번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두 번 세례하는 자는 다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제들을 전보하고, 수도사들의 수계를 다시 하고, 성직 서품을 받지 않은 평범한 평신도들이 감히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며 세례를 주고 고해성사를 듣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사제의 권위를 받지 않은 평신도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는가?

사제가 돈을 받고 기도를 읊조리며, 산모나 죽은 자에게 보내어 그 돈으로 얼굴을 덮게 하는 일이 비웃음을 살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속적인 평민들이 성직 서품을 받지 않은 채 성찬식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거행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몸 대신 텅 빈 거짓 성찬으로 사람들에게 성찬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만약 어떤 사제가 그들에게 붙어 있는 자들 중 한 명으로서, 텅 빈 교회에서 옛 전례서에 따라 일곱 개의 프로스포라로 미사를 거행한다면: 그것은 정교회에서 파문당하고, 자신의 사제 서품을 저주하며, 자신을 성임한 주교와 모든 성물을 배척한 자가, 서품받지 않은 평범한 남자들에게서 성사 집전의 권한을 받아 행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모독당하는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에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기도 중에 그분의 이름을 마치 이단적인 것처럼 경멸하는 것이 과연 선한 일인가? 성경은 심지어 불신자 왕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다. 성스러운 선지자 바룩이 바빌론 포로 생활 중이던 자기 백성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바빌

---

[688] 마태복음 23:23, 24.

[689] 히브리서 6장에 대한 설교 9, 2857쪽.

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 발타사르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의 날들이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그늘 아래, 그리고 그의 아들 발타사르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하소서." 느부갓네살은 누구였으며, 발타사르는 누구였는가? 그들은 우상 숭배자요 불경한 자들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한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사도 바울도 왕과 권세를 가진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때[690], 그 당시 왕은 누구였는가? 불경한 우상 숭배자이자 그리스도의 교회를 크게 박해하고 신실한 자들을 잔혹하게 고문한 네로 아니었는가? 그러나 사도는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브리냐네 사람들은 비록 모든 곳에서 그렇지는 않더라도, 많은 수도원에서 기도를 드릴 때 정통 기독교 왕을 제외시키고 있다. 불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기도가, 정통 기독교 왕의 이름이 그곳에서 기억되도록 하는 데 합당하지 않은가? 성 금입자(금언자)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귀 기울여 들으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만일 그분이 모든 이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그분이 모든 이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너도 그렇게 원하라. 만일 네가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께 기쁘시며, 우리가 그분을 닮아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노니, 그분과 같은 뜻을 품으라'[691]. 그 밖의 일로 두려워하지 말고 헬라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분께서도 이를 원하시니, 오직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뿐이다. 이는 그분께서 이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만약 헬레니들에 대해 기도해야 한다면, 이는 이단자들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함이) 분명하니, 모든 인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뿐, 그들을 멀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황금입의 설교이다. 우리는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믿음의 빛으로 비추시기를 구하며;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자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그분의 거룩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나 브리냐인들은 정통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다.

자칭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교회의 규례에 따라 행해지는 참된 세례를 받지 않고, 단지 성직자 자격이 없는 평범한 남자들이나 여자들에게서 필요 없이 세례를 받거나, 아예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사실 그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자라나 자녀를 낳았음에도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구약 시대 안식일 관습을 되살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들 중 어떤 파벌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말이다. 성부들이 이 규정을 금지하지 않는가? 『코르치야』 책 14쪽 제53조, 18쪽 제64조, 59쪽 제17조를 보라.

브리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수도원과 교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답하건대, 비록 모든 곳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각 수도원이나 교파마다 정교회에 반하는 특정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앞서 밝혀진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분열을 일으키며, 불경스러운 모독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방하므로, 모두 함께 마귀의 그물에 걸려 그 마귀의 뜻에 사로잡혔으며, 모두 함께 마귀의 뜻을 행하고 있다.[692] 서로 분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데 있어 마귀의 뜻에 따라 뜻을 같이하는 자들은, 사도들의 판결에 따라 서로의 악한 행위에 동참하는 자들이니,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693]

제*21*장.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든 선한 행위는 악한 것이다

비록 분열된 무리들 가운데서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선한 일들이 행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많은 금식,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그와 유사한 다른 행위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분열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찢어 놓는 자들, 곧 분열로 인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극

690 디모데전서 2:2.
691 디모데전서 2장에 대한 설교 7, 2423쪽.
692 디모데후서 2:26.
693 야고보서 2:10.

히 분노하시게 만드는 자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기에, 그 본질은 나쁘다. 무엇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이토록 분노하게 하는가? 바로 그분의 거룩한 교회, 곧 그분의 보혈로 구속받은 교회를 대적하고, 신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분열주의가 아니겠는가? 이는 마치 아리우스가 그리스도의 옷을 찢거나,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인 그분의 교회를 갈라놓는 것과 같지 않은가? 교회의 위대한 스승인 성 요한 황금입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십시오. "교회가 분열되는 것만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놓는 자들로부터, 교회의 완성을 끊어버리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결코 덜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694] ." 여기서 모든 이는 황금입 성 요한의 말씀을 경청하라: "누구든지 아무리 수많은 선행을 행하더라도, 교회의 일치를 분쟁과 분열로 끊어버린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이는 마치 누군가 그리스도의 몸을 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크게 노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보편적인 스승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경고하기 위해 자신의 말씀에 또 다른 예를 덧붙이시며, 이름 없는 성자이자 순교자인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노 주교[695] 를 인용하셨는데, 그는 가장 오래된 교회 스승 중 한 분으로, 키프리아노는 황금입보다 100년 이상 앞서 살았기 때문이다. 카르타고의 키프리아누스는 그리스도 탄생 후 261년에 순교했으며; 반면 황금입은 382년 여름 안티오키아에서 대주교 멜레티오스에 의해 집사로 서품받았다. 황금입은 성 키프리아노의 말을 이름 없이 인용하며 이렇게 말한다. "어떤 성인이 말하기를, 다소 건방져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진실로 옳은 말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순교자의 피조차도 이 죄를 씻어낼 수 없다.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말하라, 네가 왜 순교자가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었느냐?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을 바치는 것은, 마치 교회를 파괴한 자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바치신 것과 같지 않은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라: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나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무너뜨렸음이니라'[696] . 여기까지가 황금입의 요한이다. 너희는 두 성스러운 교회의 스승, 키프리아노스와 황금입의 요한의 말을 듣고 있다; 순교자의 피로는 성스러운 교회를 찢어 놓는 분열의 죄를 씻어낼 수 없음을 밝히신 분들이다. 모든 악한 일 중에서 분열주의자들의 가장 나쁘고 사악한 행위는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일으키는 분열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선한 행위들(만약 그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조차도 무효화된다. 여기서 성 키릴로스 알렉산드리아의 분열주의자들에 대한 말씀, 즉 영혼의 출구에 관한 글에 기록된 다음 내용을 빼놓을 수 없으니, "교회와 성찬에서 스스로 멀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악마의 친구가 된다[697] ."

제*22*장. 분열주의자들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고, 이는 하느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전에, 복된 기억을 간직한 시베리아 대주교 이그나티우스가 자신의 시베리아 교구에 보낸 세 번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니즈니노브고로드 관할 구역 내의 궁전 마을들, 크냐기니나와 무라슈키나의 백성들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타작마당 헛간에서 불에 타 죽을 때, 두 명의 검은 에티오피아인이 불 위의 연기 속을 공중으로 날아다니며 기쁨에 차서 손뼉을 치고 "우리 사람들, 우리 사람들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또한 튜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숲속에서 불에 타 죽었을 때, 그 장소에서 밤새도록 "아아, 죽었다! 아아, 죽었다!"라는 비통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끔찍한 악취가 풍겨 나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톰스크 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또한 우스티우즈 현의 체레포프스카야 볼로스티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곳의 주민 막심 다닐로프가 이를 사실대로 증언했다.

---

694 에베소서 4장, 11절, 1692쪽.

695 8월 31일.

696 고린도전서 15:9.

697 키릴 알렉스, 영혼의 출구에 관한 설교, 495쪽.

또한 분열주의적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는 니키타 신부라는 허수아비 같은 자의 죽음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자신의 이단에서 회개했다가, 마치 돼지가 진흙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그 이단으로 되돌아갔으니, 이에 대해 존경받는 이그나티우스 주교께서는 세 번째 서신의 말미에서, 7190년에 모스크바에서 반란을 일으킨 스트렐츠들로 인해 소동이 일어났을 때, 니키타가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과 황실의 수도를 교란시키는 반역자들을 돕기 위해, 야우자 강 건너편에 있던 세멘 티토프 연대의 스트렐츠 마을에 정착하였으며, 거기서 크라스나야 광장으로 나가 큰 소리로 외치며, 백성들에게 대담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통 기독교인들아, 참된 신앙을 위해 굳건히 서라; 지금 이 땅에는, 러시아에도, 그리스에도 참된 교회가 없으니; 오직 우리만이 여전히 정통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복된 테오도리트가 기록한 대로 두 손가락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니, 세 손가락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것이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받은 자는 이러한 모독적인 말을 하며, 백성들에게 현재의 교회에 들어가지 말고, 교회로부터 어떤 성물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그는 또한 총대주교가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로브노예 광장으로 나와 그곳에서 신앙에 관한 논쟁을 벌일 것을 요구했다. 또한 7월 5일, 저 저주받은 이단자 니키타는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과 함께 뻔뻔스럽게 황실 궁전에 찾아와, 총대주교와 주교들과 신앙에 관한 논쟁을 벌이기를 대담하게 요구했다. 그들은 대천사 성당 근처에 비유물을 세우고, 자신들이 가져온 성화를 놓아두었으며, 스스로 의자에 앉아 교회를 모독하며 소리쳤고, 백성들에게 (아르메니아식 방식으로) 두 손가락으로 십자가 표시를 하도록 가르쳤으니, 이는 성 삼위일체의 형상대로 세 손가락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이에 지극히 거룩하신 요아킴 총대주교께서는 대성당에서 사제 두 명을 그들에게 보내, 니키타와 그 일당에게 그러한 악한 행위를 그만두라고 권면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제들에게 달려들어 심하게 구타하여, 사제들이 구타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간신히 도망칠 수 있을 정도였다. 총대주교는 이단적인 소문과 반란이 점점 더 확산되는 것을 보고, 성스러운 교회를 보호해 줄 것을 왕에게 요청하였다. 빛나는 두 왕, 요한 알렉세예비치와 표트르 알렉세예비치는 왕실의 호화로운 궁전에서 공의회를 열도록 명하셨으며, 그 공의회에서는 왕실의 어머니이신 신실한 황후 나탈리아 키릴로브나와 왕실의 고모이신 고귀한 공주 타티아나 미하일로브나, 그리고 왕실의 자매들이신 고귀한 공주 소피아와 마리아 알렉세예브나가 주재하셨다; 그들과 나란히 가장 거룩하신 요아킴 총대주교와 주교들이 자리했다. 그러자 니키타 푸스토스비야트가 자신의 동조자들과 함께 들어와, 그의 모든 미친 사상을 적어 놓은 두루마리를 제출했다. 거기에는 거룩한 교회에 대한 온갖 모독과, 교회 개혁에 있어 의로운 심판을 청하는 청원서가 담겨 있었다. 성서에서 뜯어낸 내용으로 장황한 연설을 늘어놓던 중, 니키타는 자신의 모든 이단적인 악의가 폭로되고 수치를 당하자, 그를 제지한 홀모고르 대주교 아파나시우스 성하를 향해 무모하게 달려들어 가슴을 때렸다. 이러한 대담함과 무모함으로 인해, 니키타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즉시 차르의 명령에 따라 차르의 궁전에서 추방되었다. 그들은 도시를 지나 로브노예 장소로 향하며, 마치 늑대처럼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왜냐하면 공의회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대항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로브노예 메스토에 올라가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외치자, 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교회에 대한 그들의 모독을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갑작스러운 형벌로 그들의 이단적인 궤변을 드러내셨다. 악령이 이단의 우두머리인 니키타를 치자, 니키타는 즉시 땅에 쓰러져 경직된 채 광란을 부렸다. 그때 모든 백성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니키타가 명백한 이단자이며, 거룩한 교회를 모독하는 자이자 하나님의 원수임을 깨달았다. 이튿날 아침, 열정으로 불타오른 모든 보병 부대들은 이전에 그 저주받은 이단자의 조력자였던 자들을 붙잡아 묶은 뒤 시민 법정으로 데려갔고, 차르의 명령에 따라 그 니키타는 이단자이자 백성을 선동한 자로서 사형에 처해졌다.

우리는 이를 통해 분열을 일으키는 악의적인 음모에 대한 하느님의 불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교회를 노골적으로 모독한 이단자 니키타를, 온 모스크바 백성 앞에서 사탄의 지배하에 넘

겨주셨기 때문이다. 니키타의 광기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자들의 미신적 행태를 명백히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이 책의 첫 부분에서 언급했던 파호미이 수도사는, 어린 시절 포셰혼스키 우예즈드에서 그 숲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자랐으며, 이곳에서 받은 참된 세례 이후 이단자들에 의해 두 번이나 재세례를 받았다. 처음에는 '베스포포프시나'라고 불리는 교파에서 재세례를 받았고, 두 번째는 '포포프슈치나'라고 불리는 교파에서, 세속 이름은 판카, 즉 판텔리몬이었다. 그 후 성스러운 교회로 돌아와 앞서 언급한 이구멘 피티림에게서 수도 서원을 받았다. 그 수도사 파코미우스에 대한 소식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듯이, 그가 그곳에서 분열주의자들 사이에 머물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아누프리예프스키 지역에는 엘레나 노녀의 여성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는 100명이 넘는 수녀들이 머물고 있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약 5년 전, 한 노수녀가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이틀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승이자 지도자인 아누프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는 외출 중이어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누프리가 고인을 장사 지내기 위해 그들에게 오기도 전에, 그 죽은 노녀가 살아나서 원래 누워 있던 자리에 앉더니, 수녀원장을 불러 말하기를 "어머니! 이리 오세요."라고 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에게 두려움이 엄습했다. 수녀원장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되살아난 그 노파는 모든 수녀들을 자기 곁으로 모으라고 명령했고, 다가온 모든 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아누프리오의 가르침을 따르니 천국이 아니라 고통의 곳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말하고는 곧바로 누워 다시 죽고 말았다. 그때 모든 수녀들은 몹시 공포에 질려, 그곳을 떠나 성스러운 교회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했다. 그 사이 아누프리가 와서 일어난 기적을 알게 되자,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사탄이 작용한 것이며, 너희에게 나타난 것은 환상일 뿐,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반 바실리예비치는 베스포포프파의 신봉자로, 야즈비츠에 살고 있었다. (포치노크라고도 불리는 그 마을은, 셰레메티예프 가문의 영지였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약 4년 전에 죽어,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씻겨지고 옷을 차려입은 채 누워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시신 곁에 앉아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죽은 자가 살아나 "빠진다, 빠진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겁에 질려 그에게서 도망쳤다. 그러자 그는 정신을 차리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불러모았다. 어머니와 성소에 있던 이들이 그에게 다가오자, 되살아난 그는 자신의 영혼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떤 에티오피아인들이 와서 나를 붙잡아 큰 늪에 던져 넣었다. 그 후, 용모가 훤칠한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데리고 무서운 불의 장소들을 지나가게 하였으며,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수도원과 영혼들의 무리를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맹렬한 불에 타오르고 있었고, 내가 생전에 알았던, 이미 죽은 다양한 수도원의 스승들과 평범한 사람들이었으며, 나는 그들 모두를 불 속에서 보았다. 또한 (그가 말하길) 어두운 들판도 보았는데, 그곳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들이 있는 곳이라고 내게 말해 주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 자들이다. 그 영혼들은 어둠 속에 있지만, 불 속에는 있지 않았다. 나를 인도하던 자가 물었다. "너는 회개할 것이냐? 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것이냐? 그리고 네가 여기서 본 것들을 모든 은둔처에 다니며 전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너를 네 생각과 함께 불 속에 던져 넣겠다." 나는 회개하겠다고 약속했고, 명령받은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했다. 그 남자는 나를 그 무서운 곳들에서 끌어내어 어떤 진창(진흙) 위로 데려가, 나를 그곳에 던져 넣었다. 나는 "빠진다, 빠진다!"라고 외쳤으나, 살아남았다. 그 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 이반은 자신의 어머니와 그때 그곳에 우연히 있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수도원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고문을 당하며 끌려 다녔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 돌아왔는지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그 후 어머니와 함께 그곳을 떠나 어떤 도시로 갔는데(파코미우스는 그 도시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정통 신자들 사이에서 잠시 지낸 뒤 경건하게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분명한 소식들을 통해 누구나 분열주의자들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께 거슬리는지, 그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고통을 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참된 목자들과 교사들을 떠나, 분열주의자이자 거짓 교사들의 뒤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이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따르는지 귀 기울여 보고 깨달으라: 사람을 죽이는 자들, 영혼을 죽이는 자들, 점술가들, 마술사들, 이단자들, 위선자들, 음행자들, 불의한 자들, 거룩한 신앙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소들을 모독하는 자들, 성령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 그들 때문에 참된 길이 모독당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그 지극히 순결한 성사 안에서 모독을 당하시며, 그들로 말미암아 기독교라는 명칭이 욕을 당하고, 그들의 멸망을 악마들이 기뻐하며, 그들의 영혼은 죽은 후 지옥의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과연 어떤 구원을 기대하거나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들의 지도자들이 맞이하는 바로 그 멸망뿐일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정통 신자들아, 그리스도의 참된 양 떼여,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교회의 진실한 자녀들이여! 우리는 건전한 이성으로 브린스키 정원의 세 번째 열매, 곧 그들의 행실을 쪼개어 살펴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내었노라:

그들의 선한 행실로 여겨지는 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이 찬성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에서, 마치 소돔의 화려한 사과에서처럼, 달콤한 맛이 아니라 악취 나는 흙과재를 발견하였으니,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여겨지지 않으니, 이는 위선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설령 그들 가운데 위선 없이 행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 기쁘시게 여겨지지 않으며,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지도 못한다. 이는 정통 가톨릭 교회 밖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며, 그 교회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성스러운 교회에 명백히 반대되는 그들의 악한 행실을 누가 찬성할 수 있겠는가? 오직 어둠을 빛이라 하고, 밤을 낮이라 하며, 진창을 금이라 하고, 불을 물이라 하며, 그을음을 눈이라 하고, 담즙을 꿀이라 부르는 자만이 악을 선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외친다.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며, 쓴 것을 달콤하다 하고, 달콤한 것을 쓰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698] ."

제*23*장. 이 책의 마무리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주는 권면

이와 같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는 다음과 같다:

이단적인 신앙과

그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행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곧,

그들의 신앙은 그릇되었으며,

그들의 가르침은 영혼에 해롭고,

그들의 행실은 하느님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임이 드러났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주는 권면

그러니 보라, 오 하나님의 백성들아, 분열주의자들의 미혹과 영혼을 해치는 행실을 분별하고, 개들을 경계하며, 악한 자들을 경계하라[699] . 늑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브린 숲에서 나와 양의 옷을 입고 은밀히 너희에게 다가와, 거짓 예언과 가르침으로 너희를 미혹하고, 너희를 자신들의 파멸로 이끌려고 애쓰는 자들이다. 그들은 참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니, 성스러운 지극히 높으신 사도 베드로께서 그

698 이사야 5:20.

699 빌 3:2.

들에 대해 미리 말씀하시기를: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듯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서 멸망의 이단을 퍼뜨리고, 그들을 구속하신 주님을 배반하며, 스스로에게 속히 멸망을 불러올 것이니,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부도덕을 따르리니, 그들로 말미암아 참된 길이 비방받게 될 것이며, 아첨하는 말들이 늘어남에 따라 너희를 유혹하리라.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예로부터 미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700] .

바로 이들이 성스러운 지극히 높은 사도 바울이 경계하라고 명한 자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 외에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경계하고, 그들로부터 멀리하라"[701] .

그들은 달리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믿음에 따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교만하며, 미신에 사로잡혀 다투고 말다툼을 일삼는 자들입니다[702] .

그들은 바로 그들로부터 시기, 열심, 비방, 교활한 헛소리가 나오며, 마음이 타락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의 악한 말들이 나오며, 허황된 이득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악한 경건을[703] . 그들은 악행 속에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경건한 자로 여기며,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부자들의 구제금을 착취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를 잃고, 이성이 타락하며, 교활한 비방자인 이러한 유혹자들로부터 멀어지라고 명한다:

그들은 집집마다 파고들어 죄로 무거운 신랑들을 유혹하며, 온갖 정욕에 이끌려 항상 배우기만 할 뿐, 결코 진리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다[704] .

그들은 바로 교활한 자들이며, 마법사들이니, 더 악한 길로 나아가며, 남을 유혹하고 스스로도 유혹당하는 자들이다[705] .

그들은 바로 성 요한 크리소스톰이 다음과 같이 그들의 성품을 설명한 바로 그 자들입니다. "그들은 단지 늑대일 뿐만 아니라, 불의의 고발자요, 대적이요, 원수요, 중상모략자요, 모독자요, 위선자요, 도둑이요, 강도요,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 눈먼 인도자, 유혹자, 교활한 그리스도의 대적, 미치광이, 악한 자의 아들들, 성령을 모독한 자들, 이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진리의 길을 모독하게 될 것이다[706] . 또한 이들은 사악한 마귀의 자식들이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서 났다"[707] . 또한 신학자 요한은 "그들은 마귀의 자식임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황금입의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며 권면합니다. 또한 그들의 허황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는 성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바와 같으니, "부정한 이야기와 헛된 이야기를 멀리하고, 경건함을 위해 스스로를 훈련하라"[708] . 그들의 대화를 경계하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며, 더욱이 그들과의 교제를 피하고, 진리의 길에서 너희를 타락시키려는 자들을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라. 성 요한 신학자의 유익한 조언을 들으라. 그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기고 그 안에 머물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갖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무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갖느니라"[709] .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와서 이 가르침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들이

---

700 베드로후서 2:1, 2, 3.

701 로마서 16:17.

702 디모데전서 6:3, 4.

703 디모데전서 6:4, 5.

704 디모데후서 3:6, 7.

705 같은 곳 13절.

706 마르가리트, 거짓 교사들에 관한 13번째 말씀, 466쪽.

707 요한복음 8:44.

708 디모데전서 4:7.

지 말고, 그를 반기지도 말라. 그에게 기쁨을 표하는 것은 그의 악한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지옥*(*피치*)*에 손을 대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 더러워지듯이(시라크가 말하듯이)[710] : 이와 같이 이단자들과 교제하는 자는 그들과 같은 흠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통 신자들아, 그리스도 교회의 원수인 분열주의자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며, 자신의 재산으로 그들에게 구제금을 베푸는 자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원수임을 명심하라. 마치 왕의 원수와 결탁하여 그를 부양하는 자가 왕의 친구가 아니라 원수인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성교회의 원수와 결탁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충실한 종이 아니라 그분께 적대적인 자입니다. 마치 아버지의 원수를 사랑하는 아들은 진실로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원수인 분열주의자들과 이단자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그분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도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옷을 찢고, 그분의 몸인 그분과 결합된 거룩한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과 교제하는 자가 어떻게 자신에 대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일 네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독하고, 개처럼 짖어대며, 늑대처럼 울부짖고 그 지체를 찢어발기는 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 다윗이 말한 바를 본받는 것이 좋으니, *"*주여*,*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원수들을 내가 증오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는 완전한 증오로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그들이 원수가 되었으니*"*[711]

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아! 너희의 이 사랑을 바탕으로, 성 요한 신학자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하는 내 말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를 듣겠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자는 우리를 듣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우리는 진리의 영과 아첨하는 영을 분별하노라[712] .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는 분열과 다툼에 빠져 타락하고, 그분의 거룩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죄인들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니,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통해 그들을 다시 그분의 거룩하고 선택된 양떼에 합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자녀들, 곧 거룩한 가톨릭 교회를 어머니로 삼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이들을, 주님께서 거룩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세우시고,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지옥의 문도 이길 수 없는 주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기를, 아멘.

이 보잘것없는 저의 저작을 교회의 심의를 위해, 지극히 존경하는 주교님들과 모든 성직자 여러분께 바칩니다.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도 않으며, 나의 보잘것없는 이성에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이 책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친절히 바로잡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나는 교회의 명령에 모든 면에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나는 교회의 가장 작은 일원이며, 가장 낮은 수련자이자 일꾼입니다.

---

[709] 요한2서 1:9.

[710] 시라 13:1.

[711] 시편 138:21, 22.

[712] 요한일서 4:6.